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 발간 도서

제1호. 문순덕, 『제주사료와 설화 속의 중국』, 2012.
제2호. 김태일, 『전환기의 제주 도시건축』, 2012.
제3호. 문순덕 외, 『제주와 영어로 즈는 제주 이야기』, 2012.
제4호. 고창석 외, 『淸州啓錄』, 2012.
제5호. 좌혜경, 『제주민요를 지킨 명창들』, 2012.
제6호. 김봉옥, 『제주통사』, 2013.
제7호. 현혜경, 『제주 먹을거리 풍경』, 2013.
제8호. 전경수 외, 『탐라사의 재해석』, 2013.
제9호. 김덕삼 외, 『세렌디피티로서의 제주문화』, 2014.
제10호. 신재경, 『재일제주인 그들은 누구인가』, 2014.
제11호. 고동호 외, 『제주방언 연구의 어제와 내일』, 2014.
제12호. 김지홍, 『제주방언의 통사기술과 설명』, 2014.
제13호. 고재환 외, 『제주어 표기법 해설』, 2014.
제14호. 오창명, 『탐라순력도 탐색』, 2014.
제15호. 좌혜경 외, 『제주민요사전』, 2015.
제16호. 한상봉, 『제주의 장성』, 2015.
제17호. 이정희, 『김만덕의 실천적 삶과 제민정신 연구』, 2015.
제18호. 강정식,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2015.
제19호. 고동호 외, 『제주말의 이해』, 2015.
제20호. 고경순 외(역), 『재일 조선인 문제의 기원』, 2016.
제21호. 오선아, 『이야기하기로 본 제주의 원풍경』, 2016.
제22호. 오승훈 외, 『제주사난 제주사람』, 2016.
제23호. 김범훈, 『제주형 지오투어리즘』, 2016.
제24호. 고병련, 『섬의 산물』, 2016.
제25호. 신연우, 『제주도 서사무가 〈초공본풀이〉의 신화성과 문학성』, 2017.
제26호. 권무일, 『이방의 표류기』, 2017.
제27호. 박찬식 외, 『제주학개론』, 2017.
제28호. 김순임(역), 『제주 잠수의 바다밭』, 2017.
제29호. 이예안 외(역), 『원시의 신사를 찾아서』, 2017.
제30호. 진선희, 『제주 바당 표류의 기억』, 2017.
제31호. 양영자, 『제주학으로서 제주민요』, 2017.
제32호. 강문규, 『탐라왕국』, 2017.

제주학연구센터 역사자료총서 발간 도서

제1호.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 – 동아일보, 2016.
제2호. 일제하 신문 제주기사 자료집 – 일본어신문, 2016.
제3호.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1 –효종대–, 2017.



비매품/무료

03090
9 791188997 074761
ISBN 978-89-97074-76-1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 33

제주의 이야기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 33



제주의 이야기유산

The Myths and Legends in Jeju Islan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 33

제주의 이야기유산

The Myths and Legends in Jeju Islan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일러두기

1. 이 책의 자료는 2015~2017년까지 제주의 전설이나 신화가 살아 숨쉬는 현장을 조사하여, 이야기 중심으로 지속보전과 자원화를 위한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조사된 자료임

2. 전설지는 마을이나 집안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실존했던 전설적 인물로 지향가치가 높은 인물 관련 장소를 선정함

3. 신화지는 이야기의 현장인 당(堂)과 거기에 얽힌 신화가 남아있고, 신앙민인 단골판이 있으며, 무속의례와 의례를 담당하는 매인심방이 매년마다 제를 행하는 살아있는유산(Living Heritage)으로서 지속보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함

4. 제주의 이야기유산은 문화 콘텐츠 또는 교육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높음

5. 이야기유산은 제주가 지닌 소중한 보물이며, 지속가능한 유·무형적 특성을 갖춘 것으로 제주어가 잘 남아있고 제주인의 삶이 잘 반영되고 있어서 사라지기 전에 보전과 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6. 제주의 이야기유산 자료는 제주학아카이브(www.jst.re.kr)에서 검색이 가능함

Contents

발간사 ····· 7

제1편 제주의 전설지

제1장 인물 전설

1. 아기장수 ····· 14
   구좌읍 평대리 부대각 부시흥(夫時興) / 16
   대정읍 보성리 사복공 오영관(吳榮冠) / 20
2. 효자 ····· 27
   애월읍 신엄리 박계곤(朴繼昆) / 27
   성산읍 고성리 홍달한(洪達漢) / 34
   구좌읍 김녕리 김칭(金秤)·박명복(朴明福) / 45
3. 열녀 ····· 47
   한경면 용수리 절부암 고씨(高氏) / 47
   애월읍 곽지리 김천덕(金千德) / 50
   남원읍 한남리 열녀 정씨(鄭氏) / 52
4. 충신 ····· 54
   성산읍 난산리 오흥태(吳興泰) / 54
   성산읍 삼달리 강성익(康聖翊) / 68

5. 입도조 ····· 78
청주한씨 서재공 한천(韓蕆) / 78
신천강씨 감사공 강영(康永) / 91
원주변씨 중랑장 변세청(邊世淸) / 95

6. 문사 ····· 98
애월읍 납읍리 김용징(金龍徵) / 98
제주시 도련동 이계징(李啓徵) / 103
조천읍 신촌리 이한우(李漢雨) / 112
조천읍 조천리 김시우(金時宇) / 116

7. 명환 ····· 120
고려 문하시중평장사 고조기(高兆基) / 120
안무사 기건(奇虔) / 128
만경군수 변경붕(邊景鵬) / 135

8. 명사 ····· 140
전적 고홍진(高弘進) / 141
곡성현감 문영후(文榮後) / 146
보성군수 양유성(梁有成) / 149

9. 천의 ····· 153
한림읍 명월리 진국태(秦國泰) / 153
좌자이(左自以)·좌임관(左任琯) / 158

10. 역사 ····· 161
삼별초와 김통정(金通精) / 162
목호의 난과 최영(崔瑩) / 170
감목관 김만일(金萬鎰) / 181
김녕사굴과 판관 서련(徐憐) / 191

제2장 풍수 전설

1. 호종단(고종달) ····· 196
지장새미 / 197
용머리 / 198
차귀도(遮歸島) / 199
거슨새미와 노단새미 / 201

2. 병악과 강위빙(姜渭聘) ····· 202

제3장 자연 전설

1. 설문대할망 ····· 206
설문대할망 / 207
엉장매코지 / 209
등경돌과 섭지코지 / 210
고근산, 범섬 / 212
족두리석 / 213

2. 한라산 ····· 214
영실기암(오백나한) / 215
백록담과 탐라계곡 / 216
물장오리 / 218
아흔아홉골 / 220

3. 자연물 ····· 221
비양도 / 221
용두암 / 222
수월봉 / 224

제2편 제주의 신화지

1. 삼성혈(三姓穴)과 혼인지(婚姻池) ····· 230
2. 제주시 칠머리당 ····· 238
3. 조천읍 신흥리 본향당 ····· 242
4. 서귀포시 서귀본향당 ····· 246
5. 성산읍 신천리 현씨일월당 ····· 256
6. 조천읍 와산리 불돗당 ····· 263
7. 구좌읍 동복리 본향당 ····· 268
8. 구좌읍 세화리 본향당 ····· 272
9. 구좌읍 송당 본향당 ····· 281
10. 구좌읍 김녕리 궤눼깃당 ····· 291
11. 구좌읍 월정리 본향당 ····· 299

제언 : 이야기유산의 문화적 가치와 보전 방안 ····· 305

참고문헌 ····· 313
제주이야기유산 들여다보기 ····· 321
찾아보기 ····· 322

발간사

제주에는 구비문학적 자산인 다양한 '이야기'가 곳곳에 남아있어 예로부터 신화와 전설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왔다.

제주사람들의 삶과 인식을 반영하면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에는 구전의 대상인 증거물이 있고, 관련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점에서 이야기유산(Story Heritage)이라 할 수 있다.

아직도 제주도의 이야기 장소인 전설지, 신화지는 살아있는 유산의 현장이며, 보전가치가 높아 발굴 정리가 필요하다.

특히 제주의 신화(문헌신화, 구전신화) 속에 전해지는 신들에 관한 이야기는 원초적이면서도 강한 상징적인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는 반면에, 전설에서는 제주사람들의 삶에 대한 치열성과 진정성이 제시되고 있다.

제주 신화 속 신들은 '일만팔천신'이라고 하나 실재적으로 구전되는 신화는 제한되고 있다. 현재 전해지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신당 등 '신화지'에 대한 보전은 시급히 필요한 작업이다.

또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증거물과 함께 직·간접으로 관련된 역사기사나 문헌기사, 인물의 행장이 담긴 집안의 족보, 구전자료 등은 이야기가 허구(fiction)가 아닌 사실(fact)로 인정되어 진실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곧 전설 속의 전설지나 무속신화 속의 신당(神堂) 등, 이야기 현장은 제주 땅에 '신성성(神聖性)'을 부여하고, 제주가 이야기 섬으로서의 글로벌 자원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이 책에 실린 자료들은 2015~2017년 3년 간, 전설지, 역사인물, 신화지의 현장을 조사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여 지속보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전설적인 선조에 대해 집안의 족보를 꺼내어 인물의 행장을 알려주고, 무더운 여름날 선조의 묘를 가르쳐주던 후손과 곳곳의 당과 본풀이를 가르쳐 주던 심방님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 협력해 주신 현길언, 김일우, 강소전 선생님과 제주학연구센터 박찬식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2018. 5.

제주연구원장 **김 동 전**

제 1 편

제주의 전설지

일반적으로 산문체의 구비문학 형식인 설화를 신화, 전설, 민담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설지는 '전설'과 관련된 일정한 증거물로서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장소이거나 지형지물의 지리적인 특징, 명칭의 유래, 습관의 기원을 전하는 기능이 있다.

전설은 지역에서만 고정 전승되는 지역적인 전설과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면서 전승되는 광포전설로 나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제주에서 전해지는 아기장수전설 유형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제주전설의 특징은 제주 사람들의 중앙에 대한 갈망과 무형의 의식을 드러내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제주라는 섬의 지리적 특수성과 특이한 제주역사를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므로 본토설화에 비해 주변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곧 제주전설은 지역 주민의 의식과 지역민의 정체성이 잘 반영될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구전되어 내려오면서 유형화 되고 있다.

한편 제주전설은 육지부 전설에 비해 화해의 결말 구조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념 지향적이기 이전에 생활지향적으로 닫힌 사회의 비극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소산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인물전설로서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은 날개 달린 채 태어나 영웅적 일대기를 살아가는 비범한 인물 군으로, 날개달린 힘이 센 장사라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특이한 인물들이 상황에 의해 좌절되거나 적응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중심이다. 제주의 아기장수는 죽음을 당하여 몰락하거나 좌절하는 육지부 아기장수에 비해 그 양상이 날개만 달린 채 영웅이 되기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어서, 육지부의 것에 비해 그 비극적인 맛은 감소되고 있다.

'역사전설'은 역사상의 실재인물이나 영웅적인 인물에 관한 것이거나 사건을 형상화한 것이 많아 인물전설에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이외에도 '풍수전설'은 '땅'과 관련되어 전해지며, 특이한 유형으로 호종단의 단맥전설, 명지관이나 풍수사, 지리를 해석한 명당터에 얽힌 전설들이다. '자연전설'은 설문대 전설을 포함하고 있는데, 단맥이나 한라산을 중심으로 지형지물의 생성과 창조물로서의 특이한 현상을 전하고 지리적 조건, 자연물의 유래를 설명하기도 한다.

제1장 인물전설

인물전설은 주인공의 활동과 관련된 전설 유형이다.

이와 관련 전설지는 주인공이 사건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행위 결과로 나타난 기념비적인 비석이나 상징물이다. 인물들의 행한 공력으로는 비상한 힘을 지닌 영웅적인 인물이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제주에는 인물전설이 많은 편이다. 현길언은 육지부의 전설 모티프를 끌어와 구체적인 인물의 생애를 형상화하면서 주변성이 잘 반영되고, 대체적으로 일생담으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중시해서 리얼리티가 확보되고 있다고 한다.

또 지배이데올로기의 억압을 극복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폭력성 인식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확보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답은 '오뉘힘내기' 전설과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에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주민의 토속신앙과의 갈등을 형상화하면서, 이데올로기가 백성의 생활을 억압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주민의식이 반영되기도 한다.

제주 전역에서 효행을 높이 산 대표적 인물에 대한 전설지가 있다.

애월읍 신엄리의 박계곤(朴繼崑)은 그의 효(孝)를 바탕으로 딸의 지조를 지킨 열(烈)과 그의 종 고소락(高所樂)의 충(忠)에 대해 정려된 삼정문(三旌門)이 있고, 성산읍 고성리의 '천의 효자'라고 일컬어지는 홍달한(洪達漢)의 경우에도 그 효행과 충절이 높이 추앙되고 있으며 정려문이 잘 남아 있다.

한경면 용수리 '절부암'은 이 지역에 살았던 실존인물 강사철 부인 열부고씨 관련 전설지로,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사후 판관 신재우와의 극적 스토리가 첨가되고 있다.

이처럼 전설화 된 인물전설 유형으로는 아기장수, 효자, 충신, 천의, 열녀(열부), 입도조, 문사, 명환, 명사 등의 인물을 들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역사적 성격이 강한 인물들도 포함된다.

1. 아기장수

'날개달린 아기장수'나 장사와 같은 힘센 인물들은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다. 제주의 '날개달린 아기장수' 류의 전설은 날개가 잘린 채 힘이 센 장사로 살아남게 되는 장사 영웅담 전개가 특징이다.

제주에 남아 전해지는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은 그 스토리 유형이 다양하며, 제주 전역에서 전해지고 있다. 제주 전설 속의 아기장수는 '강정마을의 쌍둥이 아기장수', '날개달린 밀양박씨', '홍장사', '한연한배임재', '문사령'과 같은 유형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는 지세(地勢)가 좋아서 장차 왕이 태어날 땅, 곧 왕후지지(王侯之地)로서 '날개달린 아기장수'의 출현은 제주사람들의 오랫동안 지녀왔던 소망과 염원의 반영이기도 했다.

아기장수는 태어나서 한 시대 상황에 의한 횡포와 탄압을 거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적 갈등 극복의 방법으로, 끝내 아기장수를 죽이지 않고 날개만 자르고 살아가게 한다는 내용이다.

제주의 아기장수 이야기는 비범한 인물의 일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점, 평민 집안에서 장수의 출현을 터부시하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 육지부의 경우는 반사회적인 아기장수를 죽여서 거부한데 반해 제주사람들은 아기장수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결국 제주의 아기장수는 날개 없이 힘이 센 장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지만, 제주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날개달린 아기장수를 살려 두었다.

곧 아기장수의 날개를 자르는 행위는 비상하는 욕망의 일시적 좌절이라 할 수 있으며, 행동하는 비범성과 해적을 무찌를 수 있는 장사의 힘이 내포된다.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는 아기장수의 탄생은 자연스레 풍수지리적인 면이 강하게 반영되는데, 조부의 묘가 '장군대좌형'이거나, 이장을 위해 묘를 파면 황새(소)가 날개를 펴서 퍼덕이고 있거나, 무덤 속에서 콩은 말이 되고, 팥은 군사가 되었다는 등의 스토리가 고정적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풍수전설은 아기장수를 염원했던 희망과 기대 이상이며, 왕이나 왕후가 태어나는 왕후지지의 땅을 지키기 위한 전설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진 1〉 구좌읍 평대리 부대각 기념비

구좌읍 평대리 부대각 부시흥(夫時興)

구좌읍 평대리 해안가 일명 속칭 '배드린개'에는 통정대부 만호(萬戶) 부시흥(夫時興)의 망사비(望思碑)가 있다. 그는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아기장수로 태어났으며, 힘이 워낙 세어서 세칭 '부대각'으로 불렸다. 집안에서 전해지는 부대각 관련 전설이나, 묘의 비석, 족보 등에는 기존의 아기장수 이야기를 차용하여 실제 인물의 행적을 바탕으로 전해져왔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부시흥은 인조 4년(1626) 구좌읍 평대리에서 어매장군(禦侮將軍) 사과 벼슬을 지낸 부경필(夫景弼) 공과 숙인 김해김씨 사이에서 날개 달린 채 태어났다. 그는 무과에 급제하여 숙종 4년(1678)에 벼슬이 겸사복에 올랐으며, 훗날 조정에서는 통정대부 만호를 제수하였다. 그는 6대에 걸쳐 어매장군을 지낸 무가혈통을 이어 받았으므로 비력(臂力)이 절륜하여 세칭 '부대각'이라 불렸는데, 그는 늘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으므로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사진 2〉 부대각 묘비

당시의 권력자들은 그의 6대조 묘가 성산읍 오조리 식산봉 정상에 있는 장군석을 정면으로 비추었기 때문에 희세의 대장군이 태어난다는 설을 믿고 있었다. 그들은 군사를 보내어 장군석을 자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부대각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믿고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한편 그때 궁궐에서는 산상의 말(馬)을 잡으면 천금상 만호(萬戶)를 주겠다고 장수를 모집하자, 실로 엮은 베로 열려마를 잡은 후 궁궐로 들어와 명월만호 칙지를 받아서 제주로 귀임하려고 했다.

수십 명의 제주 사람들을 배에 태우고 제주를 향해 오다가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하고 배가 기울자, 자신이라도 배에서 내리면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 쇠방석을 타고 물로 뛰어 내려 죽으니 날이 환하게 밝아졌는데, 신임 칙지를 가진

종의 배가 먼저 도착하여 부만호의 배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배는 오지 않고 끝내 행방이 묘연하였다.

지역민들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해 하다가 이 마을 '암태역밭'에 망부의 한을 남기고 세상을 하직한 숙부인 경주김씨의 실 묘에 상의 '혼적삼'을 대신하여 무덤을 조성하였다. 만호 부시흥 공의 행적은 지금까지도 후손 필사본이나 전설과 무당들의 구술로서 무성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인물 부대각의 희생정신을 선양할 가치가 있어서 지역민들은 후일 그 애석한 사연과 공의 유덕을 기리어 평대리 '배드린개'에 망사비를 세웠다.[1)]

자료 1. 구좌읍 평대리 '부대각' 관련 후손 필사본[2)]

만호 선조가 고향에 살다 서울로 가는 도중에 선배들이 활 연습하는 것을 보고서 만호 조상이 활을 좀 빌려 달라고 하자, 선배 한사람이 자기 활을 주니, 나는 그 활은 필요가 없고, 거기에 세워진 끈 방외 활이나 주면 쏘아 보겠다고 하니 그러라 할 때, 신발을 만만히 하고 수십 명 선배들이 만호 조상의 등에다 지우니, 만호 조상은 활을 바로 하면서 어기여차 하더니 활은 산산조각이 되고, 만호 조상은 그대로 도망가다가 남의 집에 달려들어 집을 빌려달라고 하여놓고, 소와 구시[3)]를 이문[4)]에 메여달라고 하고서, 만호 조상은 아래를 풀고서 방안에 가만히 누워 있으니 선배들이 그 집을 찾아가서, 왜 한사람이 여기 왔느냐고 할 때에 만호 조상은 그 말을 듣고,

"여기 왔다"

하면서 나가더니만 만호 조상의 말씀이 무슨 소와 구시는 매여 있소 하면서, 한손에 소를 들고 한손에 구시를 들으니 선배들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도망치니 만호 조상이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차에, 서울 궁내에서는 산상에 사는 열려마를 잡아들이는 자는 천금상 만호를 봉하여 준다는 방을 내고, 서울 사는 한분이 있다가 말하기를

1) 후손 부영남(구좌읍 평대리) 구전 자료
2) 부구영(구좌읍 평대리) 소장 필사본
3) 소나 말의 먹이를 담는 통. 구유[槽]
4) 집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운 문

"산상에 사는 열려마를 잡아들일 자는 제주에 사는 부씨라고 한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고 말하니,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여 가니, 자기가 산상에 있는 열려마를 잡아들일 수 있느냐고 하자, 할 수 없이

"하여 보겠습니다"

고 말하여 놓고, 안내인 한사람 내여 놓으며

"씰베 백발만 구하여 달라"

고 하여서 안내인하고 그 현장에 가서 문의하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산에서 말이 내려 올 적에는 벵역[5]같은 소리를 치며 내려와서, 이 연못에 저 커다란 팽자나무에다 야게[6]를 밀어놓고 물을 먹어서 나갈 적에도 다시 야게를 밀고 나간다는 말을 듣고, 만호 조상은 연못에 있는 팽나무를 매어 던져두고 연못에 가만히 서 있으니 열두시가 되자마자 산상에서 말이 소리치며 내려와서 만호 조상의 몸에 야게를 밀듯 하다가 그대로 물을 먹어 나갈 적에는 야게를 슬쩍 미니, 만호 조상은

"나를 모르냐"

고 소리를 지르며 말 위에 타 앉자, 하늘 위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간 조상이 땅에 내려옴을 알지 못하여, 안내인은 궁내에 달려가서

"애무한 백성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만호 조상은 말을 타고 궁내에 달려드니 칭찬하고 무엇을 요구하느냐고 하니, 만호 조상님이 말씀하시기를

"만호 벼슬을 바랍니다"

라고 하니, 그러라고 해서 만호칙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집에 살다가 서쪽에서 환상창고를 책임지어서 지어주다가, 아무리 하여도 마음이 갑갑하여서 배 둘에 수십 명의 백성들을 실어서 육지에 가서 한도를 지키겠다고 하여 나가다가 주야 십사일간이나 동서남북을 알지 못하니 만호 조상은 쇠방석을 물에 던져 그 위에 올라앉아도 내려가지를 않으니 만호 조상님이 말씀하기를 애무한 백성들을 죽일 필요 없으나, 혼자 죽으면 수십 명의 백성들은 살 수가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쇠몽둥이로 서른 네 번을 내려놓으니, 그대로 물속에 내려간 후 30분 동안 있으니 훤하게 날이 새었다 라고 합니다.

---

5) 벽력 같은 소리, 곧 큰 소리

6) 목




〈사진 3〉 대정읍 보성리 사복공 후손인 화순오씨 입도 12세 오영진님, 오찰방 생가 터에서 바라본 산방산과 단산

대정읍 보성리 사복공 오영관(吳榮冠)[7]

오찰방 전설[8]의 주인공은 조선 숙종 때 대정 고을에서 태어났으며, 휘는 영관(榮冠)이다.

부친은 튼튼한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산모에게 열두 마리나 되는 소를 잡아먹였으나 낳고 보니 딸이어서 섭섭한 마음을 금하지 못했다. 이어서 부친은 다시 아홉 마리를 잡아먹였는데, 태기가 있어서 열 달이 차서 난 아기는 아들이었다.

오찰방은 어릴 적부터 천성이 준수하고 웅건하여 씨름판에 가면 오찰방을 당해낼 자가 없었고, 산방산의 용두(龍頭)를 뛰어 넘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서였다.

7) 오영관(吳榮冠, 숙종 20년(1694)~영조 갑인(甲寅)(1734))

8) 현길언(1981), 『제주의 장수설화』, 홍성사, 180~183쪽.
현용준(1996), 『제주도 전설』, 서문당, 72~80쪽



〈사진 4〉 대정읍 보성리 단산

오찰방은 잠자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산방산과 단산을 이리저리로 날아다녔으며, 어릴 때는 장난기가 심해서 아버지는 짚신을 신고 뒤를 쫓아갔으나 도저히 따를 수 없었고, 그는 단산(바굼지오름)으로 부리나케 뛰어올라 상봉의 칼바위 위에 올라가서 날아가듯이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다.

아들이 죽었다 생각한 부친은 얼른 내려가서 보면, 그의 시신은 없고 먼저 집에 들어와 있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나머지, 아들의 윗옷을 벗겨 겨드랑이를 들여다보니 날개가 달려 있었다.

이 사실을 발견한 후 덜컥 겁이 난 아버지는 옷을 입히고 술을 먹여 잠든 사이 겨드랑이에 난 날개를 인두로 지져버리고 이 사실을 비밀에 부쳤다.

오찰방은 종종 누님에게도 힘자랑을 하면서 자신을 당할 자가 없다고 뽐내곤 했다.

그 때마다 누님은 너를 이길 자가 올 거라고 하면서 픽 웃어넘기곤 했다.

어느 날, 한림에서 여자처럼 보이는 연약한 사내가 와서 같이 씨름시합을 하자 오찰방은 지고 말았고,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누님에게 하소연했다, 그러자 누님은 서까래 틈새에 끼워져 있는 신을 간단하게 빼내면서 빙긋 웃었는데, 그때야 오찰방은 누님의 힘을 알게 되었고, 결국 씨름판에서 이긴 장사가 누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오찰방은 자란 후 벼슬을 하겠다고 서울로 올라갔다. 당시 호조판서의 호적궤에 도둑이 들어 중요한 문서를 잃어버리자, 서울에서는 도둑을 잡는 자에게 만호를 봉하겠다는 방이 거리마다 나붙어 있었다. 오찰방은 용기를 내어 도둑의 뒤를 쫓아가자, 도둑은 오찰방을 보고서 자기의 운명이 죽음에 왔다고 생각하고 목을 내어놓을 정도였다고 한다.

오찰방은 도둑의 목을 말꼬리에 매어 들어가서, "제주놈이 말을 탄 채 들어온다"고 하며 말에서 내려 걸어가자 임금은 역적을 도모할 우려가 있다고 여기고 옥에 가두라고 했다. 그렇지만 제주놈이어서 큰일은 못할 것이라고 업신여겨 찰방 벼슬을 주고 제주로 보냈다.

또 그가 과거를 볼 때 상시관에게 절을 하려고 하자, 팔도의 선비들이 꽉 차 있어 들어간 후 절을 올릴 도리가 없는 차에 방귀가 뽕하고 나와 '방귀찰방'이라 불렸다는 일화도 있다. 팔도의 선비들이 오찰방의 힘을 시험하려고 씨름을 요구해오자 꾀를 내어서 끊을 수 있는 닻줄을 준비하고, 몇 사람이 힘을 모아서 들고 오기에 버거운 닻도 오찰방은 손으로 잡아 문질러서 허리에 졸라매고 힘자랑을 시작하자 선비들이 모두 도망갔다고 한다.

현재도 대정읍 인성리의 단산과 산방산, 그리고 생가 터에 후손이 살고 있으며, 오찰방이 한라산에서 내려오면서 화살을 쏘아 사냥을 했다는 '쌀손드르'가 남아있다. 그의 묘는 촉죽전(燭竹田) 일명 촛대암이라는 지역에 있다.

오찰방 관련 전설은 전도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날개달린 아기장수 계열의 전설로 실재 인물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전설지가 잘 남아있다.

자료 1. 문헌기사

《及第先生案》

吳榮冠　康熙壬寅榜
元顯道　康熙壬寅榜
康文興　康熙壬寅榜

오영관(吳榮冠) 1722년(경종 2, 임인) 시행 무과(武科) 급제
원현도(元顯道) 1722년(경종 2, 임인) 시행 무과(武科) 급제
강문흥(康文興) 1722년(경종 2, 임인) 시행 무과(武科) 급제

《濟州邑誌》 大靜縣誌, 人物조

吳道冠 康熙壬寅 京武科 至碧沙道察訪

오도관〔吳道冠, 도(道)는 영(榮)의 오기〕는 1722년(경종 2, 임인) 시행 중앙의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관직이 벽사찰방(碧沙察訪)에 이르렀다.

《耽羅人物考》 오영관조

吳榮冠 本和順人 勇力絶人善騎射 登武科 官至內禁將碧沙察訪

오영관(吳榮冠)은 본이 화순(和順)인 사람이다. 힘이 남보다 훨씬 세고 말을 타 활 쏘는 것을 잘 하였다. 무과 급제하여 관직이 내금장(內禁將)과 벽사찰방(碧沙察訪)에 이르렀다.

《增補 耽羅誌》一六 人物조 1 科宦

吳榮冠 和順里이니 勇力이 絶人하야 騎射에 善하고 武科로 官이 昌樂察訪에 至하다.

오영관(吳榮冠)은 본래 전라도 화순리(和順里) 사람이다. 힘이 남보다 훨씬 세고 말을 타 활쏘는 것을 잘 하였다. 무과(武科)로 관직이 창락찰방〔昌樂察訪, 창락(昌樂)은 벽사(碧沙)의 오기일 듯〕에 이르렀다.

자료 2.『和順吳氏世譜(화순오씨세보)』2권 吳察訪公行狀(오찰방공 행장)

선유(先儒)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적 현자(賢者)는 세류(世類)에 얽매이지 않는다 했으니, 화순오씨(和順吳氏)의 부자(父子) 오사복(吳司僕)과 벽사(碧紗)는 뛰어난 인걸(人傑)이라고 이름직하다.

찰방공(察訪公)의 휘(諱)는 영관(榮冠), 자는 치용(致勇)이며, 호는 월파(月波)이시다. 제주(濟州)에 화순오씨(和順吳氏)가 비롯되기는 그 선조(先祖) 휘(諱) 덕립(德立)께서 선조조(宣祖朝)에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를 하시다가 권간(權奸)의 모함(謀陷)으로 제주(濟州) 대정(大靜)에 유배(流配) 귀양을 오게 되면서부터이다.

공(公)은 숙종(肅宗) 20년(1694) 갑술(甲戌)에 대정(大靜) 남문(南門) 밖 인성리(仁城里)에서 태어나셨으며, 어려서부터 천성(天性)이 준수(俊秀)하고 웅건(雄健)하여 소를 이겨내는 기운이 있었고, 어깨 힘이 절륜(絶倫)하여 용맹(勇猛)하기가 마치 나는 듯하여 속설(俗說)에 전하기를 산방록(山房麓)의 용두(龍頭)를 뛰어 넘었다는 말이 있다.

일찍이 뜻을 세워 정훈(庭訓)을 만들어 경서(經書)와 사전(史傳)을 읽었고, 나라에 충성(忠誠)하고 백성(百姓)을 잘 살게 다스리는 공부를 하였으며, 몸가짐을 근엄(謹嚴)하게 하고 교만(驕慢)하거나 게으른 행동(行動)을 하지 않았다. 장성(長成)함에 무술(武術)을 익히고, 손오(孫吳)의 병서(兵書)를 정독(精讀)하였는데, 경종(景宗) 2년(1722) 임인(壬寅)에 무과(武科)에 올라 벼슬에 뜻을 두고 서울에 있었으나 그를 천거(薦擧)할 사람이 없었다.

공은 다행히 주목(州牧)인 김윤(金潤)과 유징구(柳徵龜)에게 인정받아 전라수군방어(全羅水

軍防禦)의 직(職)을 맡았다.

공(公)의 고(考)는 사복공(司僕公) 휘(諱) 세현(世賢)으로 남주(南州)의 호걸(豪傑)이시었는데, 공(公)에 대한 사복(司僕)의 행적(行蹟)으로는 충헌공(忠憲公) 임서재선생(任西齋先生)이 쓰신 오군서(吳君序)가 있다.

그 글에 쓰기를 군(君)이 유편(俞扁)의 술(術)을 안다기에 가서 만나보니 사람이 영특(英特)하였고, 나의 병색(病色)을 보고서는 지성(至誠)으로 치료(治療)하여 차츰 회복(回復)되어 갔으므로 참된 의사라 하였다. 군(君)이 가죽으로 만든 관(冠)을 쓰고 산으로 올라가 활을 한 번 쏘면 짐승 다섯 마리를 잡는 무예(武藝)가 있었고, 노래를 부르면서 말의 굴레를 잡아 돌아오면 나와 더불어서 술을 마시며 놀았다고 하였으며, 또 쓰기를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 면척(面斥)을 하지 않으며, 집안의 규범(規範)을 바로 잡아 춘추(春秋)에 숭조(崇祖)의 제(祭)를 정성들여 올리고 자식을 가르치되 엄하게 하니, 그 몸과 행실(行實)을 닦는 것으로 보아 군자(君子)의 풍도(風度)를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대 같이 웅위(熊衛)하고 영특(英特)한 인재(人材)가 늙어서 죽을지라도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 개탄(慨嘆)할 일이라고 썼다.

응호(膺鎬)가 이 서문(序文)을 보건대 풍의(風儀)와 충절(忠節)에 위엄(威嚴)이 있는 무부(武夫)와 공경(恭敬)하는 군자(君子)에 이르니, 나의 7세조 판훈공(判訓公) 휘(諱) 윤(玩)께서는 늦게 알게 되었다.

사복공(司僕公)은 현종(顯宗) 15년(1674) 갑인(甲寅)에 태어나셨는데, 숙종(肅宗) 20년(1694)인 갑술(甲戌)에 이절제(李節制) 기하(基夏)의 장(將)으로 전력사복계(展力司僕階)에 올랐으니 이것이 근사제(勤事制)이다.

영조(英祖) 갑인년(甲寅年, 1734)에 졸(卒)하니 그때 나이 61세이고, 묘(墓)는 대정현(大靜縣) 북쪽 10리에 있는 '촉죽전(燭竹田)'이며, 마을 사람들은 부르기를 '촛대암'이라 한다.

우리나라 역사(歷史)를 보면 영조(英祖)가 즉위(卽位)하신 직후에 나라 안은 크게 어지러웠으며, 반적(反賊) 인좌배(麟佐輩)가 충청·경상·평안 3도에서 병(兵)을 일으켜 민심(民心)은 크게 불안하였다.

이때 찰방공(察訪公)은 벼슬에 나아가 수문장(守門將)이 되었고,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겸하고 있던 그 무렵 해서(海西) 문화현(文化縣)의 구월산(九月山)에 소를 타고 다니는 도적이 나타났다 하므로 조정(朝廷)에서는 공(公)에게 명하여 이를 잡으라 하니 군사를 거느리고 가던

도중(途中)에 황구신인(黃耉神人)을 만나서 그 앞에 나아가 뵙고, 적을 잡을 계책(計策)을 묻고 함께 가서 문화(文化)에 이르러 도적을 산곡(山谷)에서 잡아 추장(酋長)과 잔당(殘黨)을 쳐부수고 돌아오니 상(上)께서 가상(嘉賞)히 여겨 선전관(宣傳官)에 명하였고, 어모장군(禦侮將軍)과 활인서별제(活人署別提)와 내섬시주부(內贍寺主簿)를 하시고, 벽사도찰방(碧沙道察訪)까지 하였다.

이때 명장(名將)을 구하는데 있어 3도의 적을 쳐서 근왕(勤王)케 아니하고 공(公)으로 하여금 구월산의 초적(草賊)을 잡게 하였으니, 조정(朝廷)에서는 찰방공(察訪公)의 장재(將材)됨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던 점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공이 영조(英祖) 을해(乙亥)(1755) 12월 3일에 졸(卒)하니, 묘(墓)는 촉죽전(燭竹田) 부친[考]의 묘(墓) 옆에 부장(祔葬)하였다.

영인(令人) 진주강씨(晉州姜氏)는 3남을 낳았으며, 장(長) 성도(聖道)는 무과(武科)하고, 차(次)는 성빙(聖聘)이요, 차(次) 성준(聖準)은 무과(武科)로 명월만호(明月萬戶)를 하였고, 손(孫) 정채(廷采)가 또 무과(武科)로 만호(萬戶)를 하였다. 이렇게 사복(司僕)과 찰방(察訪) 부자(父子)는 뛰어난 인물(人物)이였으며, 천지(天地)의 정기(正氣)와 산해(山海)의 기운(氣運)이 사람을 낳게 하면서 화순오씨(和順吳氏) 한 집안에서 많은 인재가 나왔고, 이로부터 제주대정(濟州大靜) 땅에 명문(名門)의 가통(家統)이 이어졌으며, 다행히 임서재(任西齋)[9]의 건필(健筆)이 있었기에 두 분의 명성(名聲)을 알게 된 것이다.

일전에 정현(偵炫)과 의현(懿炫)이 찾아와 한 책자를 보이며 7세손 석환(錫煥)의 집에 감추었던 것이라 하므로 내가 보니 작자(作者)의 성명(姓名)이 없는 것은 임서재(任西齋)가 대정(大靜)에 귀양을 왔을 때 죄(罪)가 가볍지 않으므로 가화(家禍)를 입을까 염려(念慮)하여 그러한 듯하다. 마땅히 사복행장(司僕行狀)을 먼저 써야 할 것이나 절요(節要)를 깨서 찰방행장(察訪行狀)에 합편(合編)했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글은 잘못되었다.” 하는데 틀린 소견(所見)이라고 보며, 옛적 글 잘하는 사씨(史氏)도 이 서법(書法)이 있었다.

1933年 癸酉 臨月望 三皇廟侍正 慶州 李膺鎬

9) 임서재는 당시 유배차 제주에 와 있던 서재(西齋) 임징하(任徵夏)를 두고 이름이다.

2. 효자





〈사진 5〉 애월읍 신엄리 박계곤 묘와 삼정문

애월읍 신엄리 박계곤(朴繼昆)

효자(녀)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잘 드러나지만 실제 전설화되어 구전되는 것은 애월읍 신엄리의 박효자와 성산읍 고성리의 홍효자를 들 수 있다.

애월읍 신엄리 소재 충효열 정려비를 한데 모신 삼정문은 조선후기의 정려각으로, 임금께서 정표하고 어사에게 명하여 정문을 세워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는 마음을 교화하였는데 오랫동안 가문이나 지역민을 통해 전설화되어 전해지고 있다.



〈사진 6〉 박계곤 묘역과 비석

효(孝)·열(烈)·충(忠) 정려기(旌閭記)[10]에 대한 구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계곤은 제주의 하급관리로서 어버이 섬기기를 지극한 효성으로써 하였고, 서울로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부서졌는데, 겨우 사람이 안사는 외딴 섬에 닿자, 깨어진 널을 주워 이별하는 말을 쓰고는 아버지에게 부치니 해류를 타고 제주와 떨어진 물길이 구백리이건만 날이 저물기도 전에 널 조각은 그의 집 문 앞에 닿았고, 아버지가 이를 보고서는 가벼운 배를 내어 당장 가서 구했다고 전한다.

또 박계곤은 경자년 국상 때 섬사람들을 모아 이끌고서 바다를 건너 흙을 지어 날랐는데, 그의 딸 박씨는 일찍이 지아비를 여의었으나 지조를 지켰고, 딸에게는 종이 있었는데 이름은 '고소락'으로 시집가지 않기를 맹세하고 육십이 되어 늙어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했다.

이는 효·열·충의 실제 자취라고 전했다.

10) 박씨효열충수록(朴氏孝烈忠收錄), 갑인년 순무어사 원임지제교 행제주목사 겸 전라도수군방어사 심낙수 기록

현재 애월읍 신엄리에는 정조 18년(1794) 제주목사 심낙수(沈樂洙, 1739~1799)의 추천에 의해 효자 박계곤과 그의 딸 열녀 박씨, 충비인 몸종 고소락을 정려(旌閭)한 정려문이 잘 남아있다. 사당은 삼칸집으로 중앙에 효자를 편액하고 왼쪽에 한줄 밑으로 열녀를 편액하고, 오른쪽에 충비를 편액하였다.

이후 삼정문 정려각(旌閭閣)을 2003년에 복원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유교의 덕목인 효자, 열녀, 충비 등 세 사람의 공적을 기렸는데, 이는 세 사람의 품행과 효심, 그리고 충심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였다. 음력 8월 15일 추석에는 제를 올리고 있다.

자료 1.《正祖實錄》권39, 정조 18년 4월 무인(22일)조

戊寅 特旌旌義故學生吳興泰、濟州故孝子朴繼昆閭。濟州御史沈樂洙進別單曰, 旌義縣故學生吳興泰, 戊申逆亂時, 手草起義討賊之檄, 傳檄三邑, 略聚累百人, 將欲發船, 而聞亂定, 旋停。其文忠憤激烈, 辭嚴義正, 雖其事未就, 其心不泯。島中民俗, 宜使知其親上死長之義, 而興泰事竟無表奬, 則實爲欠典。濟州人 朴繼昆, 誠孝出天。嘗因事上京, 船敗中洋, 漂泊將死, 就船板書數句訣父母語, 祝天而浮之潮頭。不移時, 板到其父門前, 父持板告官, 發輕船載還, 島人至今言繼昆孝能感天。繼昆有孀女, 悲其靑年苦節, 命一婢給灑掃。婢名高所樂, 髮鬈鬆多卷, 俚言髮卷者謂高所樂也。婢日夜不離側。及年長, 主欲嫁之, 婢辭曰, 吾主守身勵節, 吾與男子處不潔, 何敢昵侍 主憐其意許良, 亦不嫁, 服勞愈勤, 主與婢相依老死。繼昆有通天之孝, 其女有烈婦, 烈婦又有忠婢。孝烈忠之相感而萃於一室, 傳以爲異事。宜有旌褒, 以樹風聲。

敎曰, 吳興泰之爲國忠義、朴繼昆之感天孝誠, 島以北諸路之所罕聞者, 而興泰、繼昆尙今無旌異, 實爲欠事。奇哉! 繼昆之家, 又有其女之爲烈婦, 烈婦又有忠婢, 孝烈忠共萃, 而其孫重煥, 能述祖戒, 續家業, 不事科臼, 潛心兵學云者, 亦合一番收錄。令繡衣, 就吳興泰之閭. 旌之曰 義士 朴繼昆之閭曰 孝子烈女 低一行 扁以忠婢之名。仍令繡衣, 各撰記蹟之語, 俾州人之過其閭者, 乘者必式, 行者指點, 爲百代樹風聲之一助。”

무인(戊寅)일. 정의현의 고(故) 학생 오흥태(吳興泰)와 제주의 고(故) 효자 박계곤(朴繼昆)을 특별히 정려(旌閭)하였다. 제주 어사 심낙수가 별단(別單)을 올려 아뢰기를, "정의현의 고 학생 오흥태는 지난 무신년에 역적들이 난을 일으켰을 때에 의병을 일으켜 역적을 토벌하자는 격문(檄文)을 손수 초(草)하여 세 고을에 돌려 수백인의 의병을 모아가지고 장차 배를 타고 출발하려다가 난이 평정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이내 그만두었는데, 그의 글은 충성에서 우러나온 의분이 격렬하여 말이 엄격하고 의리가 정당하였으니, 비록 그 일은 성취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은 민멸되지 않았습니다. 섬 백성들의 풍속을 의당 임금을 위하고 윗사람을 위해 죽는 의리를 알도록 해야 할 것인데, 오흥태의 일에 대해서 끝내 표창한 것이 없다면 실로 결함된 전례가 될 것입니다.

제주 사람 박계곤의 경우는 효성이 뛰어났습니다. 일찍이 일이 있어 서울에 올라오다가 바다 가운데서 파선되어 표류하여 곧 죽게 되자, 배의 널빤지에다 몇 구절의 글을 적어서 부모를 영결하고는 하늘에 빌면서 이를 밀물의 물마루에 띄워 보내니, 조수가 바뀌지 않아 널빤지가 그의 아비 문전에 이르렀다.

그의 아비가 널빤지를 가지고 관청에 가서 알림으로써 날랜 배를 보내어 그의 시신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섬사람들이 지금도 계곤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박계곤에게는 홀로 된 딸이 있었는데, 그가 젊은 나이로 고통스럽게 절개 지키는 것을 가엾게 여겨 여자종 하나를 명하여 청소나 해주도록 하였다.

그 여자종의 이름은 고소락(高所樂)이라고 하였는데, 머리가 더부룩하여 여러 갈래로 따올렸습니다. 그 지방 속담에 머리를 따올린 것을 고소락이라고 한다.

그 여자종은 밤낮으로 부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시집갈 나이가 되어 주인이 시집을 보내려고 하자, 여자종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몸을 지켜서 절개를 힘쓰는데, 내가 남자와 같이 살면서 그 불결한 몸으로 어떻게 감히 주인을 가까이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래서 주인이 그의 뜻을 가엾게 여겨 양민(良民)을 만들어 주었으나 그래도 시집을 가지 않고 더욱 부지런히 주인을 섬김으로써 끝내 주인과 여종이 서로 의지하며 살다가 늙어 죽었다.

"박계곤에게는 하늘을 감동시킨 효성이 있었고, 그의 딸은 열부(烈婦)였으며, 그 열부에게는 또 충비(忠婢)가 있었으니, 효와 열과 충이 서로 감응하여 한 집안에서 나온 것을 서로 전하여

기이한 일로 삼고 있습니다. 의당 그들을 정표해서 풍성(風聲)을 수립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오흥태의 나라를 위한 충의와 박계곤의 하늘을 감동시킨 효성이야말로 제주도 이북의 여러 도에서는 듣기 어려운 일인데, 흥태와 계곤을 지금까지 특별히 정표한 것이 없었으니 이는 실로 결함된 전례라 하겠다.

기이하도다! 계곤의 집안에는 또 그의 딸이 열부가 되었고, 그 열부에게는 또 충성스런 여종이 있어 효와 열과 충이 한 집에 모였는데, 그의 손자 박중환(朴重煥)도 능히 할아버지의 훈계를 받아 가업을 계승하여 과거 공부를 하지 않고 병학(兵學)을 깊이 연구한다고 하니, 이 또한 한 번 거두어 녹용하기에 합당하겠다.

암행어사로 하여금 오흥태의 정문에는 의사(義士)라 기록하고, 박계곤의 정문에는 효자열녀(孝子烈女)라 쓰고 한 줄을 낮추어 충비(忠婢)의 이름을 써넣어주도록 하라.

그리고 또 어사로 하여금 그들의 사적에 대한 글을 각각 지어 전파해서, 그 고을 사람들이 그 정려문을 지나갈 때에는 말을 탄 자는 반드시 경례를 표하게 하고, 걸어가는 자들은 손으로 가리키며 경의를 표하도록 하여, 백대 후에도 풍습의 교화를 수립하는 데에 일조가 되도록 하라." 하였다.

자료 2. 애월읍 신엄리 박효자전(朴孝子傳)[11]

오품(五品)은 하늘의 성품이고 사람은 이를 닦는 것이므로 능히 그 인륜을 다함을 구하는 것으로, 궁벽한 시골이 혹 덕화가 있는 고을보다 못하다는 것은 땅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궁벽한 땅에 덕화가 없으면 그만이나, 있으면 반드시 빼어나서 도리어 덕화가 있는 땅보다 낫다는 것은 무슨 때문일까, 인성을 닦는 자는 억지 힘씀이 많고 천성을 순순히 하는 자는 진실됨이 많아서, 천성이 아니면 참될 수 없고 참되지 않으면 느낄 수 없으니 느끼는 바가 옅고

11) 제주목사 이원조(李源祚) 지음, 『탐라록(耽羅錄)』

깊음은 사람의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것이다.

내 제주에서 감천의 효자 한 사람을 얻어 박효자 전을 지었는데, 효자의 이름은 계곤이요, 본관은 밀양으로, 제주의 독포촌(옹포)에 살고 연리(하급관리)를 지냈으며, 각별히 윗사람을 받들고 부모를 섬기기에 능히 힘을 다하였는데,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 드렸고, 낮에는 관청에서 일을 보다 밤에는 빨리 돌아와 부모님을 잘 모시니 사람들은 모두 효자라 일컬었다.

일찍이 공사로 서울에 가게 되었는데 구풍을 만나 배가 뒤집혀서 겨우 사서도에 표박하였는데, 이 섬은 주 경계에서 멀리 떨어진 무인도여서 같이 탔던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머리를 맞대어 울었다.

그러나 계곤은 배의 널조각을 취하여 부친에게 이별하는 글을 쓰고 바다에 띄워 보냈는데, 얼마 안 되어서 독개(옹포)에 표도하니 그의 부친이 이를 주워 관가에 급히 아뢰었으므로 관가에서는 경선(輕船)을 보내어 싣고 돌아왔는데 모든 사람들도 이로 인해 살았고 사람들은 다 이를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부친이 돌아가시자 관렴하고 반드시 삼년간을 정성하기를 하루와 같이 슬퍼하였다.

경자(1720)년에 숙종이 돌아가시자 계곤은 북쪽을 향하여 아침 저녁으로 곡 하고 도민을 모집하여 능역(陵役)에 나가니 인현왕후의 언문 전교를 받들기에 이르렀으며, 돌아온 뒤에 삭망에는 반드시 그 은혜를 배례하였다. 향교에서 화재를 만나자 그는 쌀과 소를 내놓아 역사를 도우며 말하기를

"성묘에 일이 있으니 가히 미비하다고 하여 스스로 외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의 아들 치성(致盛)이 무과에 등제하니 글로 훈계하기를 "먼저 효제하고 주색을 삼가며,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에게 다정하며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말을 삼가며 남에게 급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되 보수를 바라지 말고, 그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면 가난함을 속이지 않게 된다"고 하자, 치성은 가르침을 잘 지켰고 벼슬은 만호가 되었어도 역시 효도하고 삼감으로써 이름이 있었다.

딸이 있었는데 일찍이 과부가 됐으나 수절하였으며, 계집종 '고소락'이라는 자도 종신토록 시집을 아니 가고 말하기를 "주인이 열행하는데, 종이 감히 남자와 같이 할 수가 있으리오"라고 하였다.

정조 18년 갑인년에 어사가 아뢰니 그 문을 효·열·충이라고 정려하도록 명하였는데, 손자 중환에게는 특별히 부장을 제수하였고, 그 후예는 본주 유림으로 되었으며 외손 홍귀석이 마침 향교의 직원이 되었는데 나에게 입전을 청하였다.

그런데, 외사 씨에 가로되 박군의 효가 기록할 만한 것은 오직 한 배의 널조각에 대한 일뿐으로, 바다를 건너 능역에 참여한 일은 혹 임금의 은혜를 구한 것이다. 국상을 당하여 요 임금 때의 거룩한 백성들처럼 곡을 한 일 같은 것은 어찌 적충을 다한 것이겠는가,

그러나 하늘과 사람의 참됨과 거짓 사이에서 사람을 논한다면, 심정을 가림이 없을 것이다. 바야흐로 효자가 널판을 잡고, 글을 쓴 것은 이미 요행스럽게 살아날 수 있을 희망이 끊어지자 오직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죽는 것이 가장 큰 한이 되었으니 가히 그 지성이 하늘에 통하고 바다에 철한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널조각이 잠깐 사이에 어찌 꼭 그의 집 문 앞에 흘러가서 닿겠는가,

계갑(정조 17~18년)에 비참한 흉년을 당하여 죽게 되었을 때 육지의 비축미로써 진휼하게 하였으니 주구의 섬에 또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하였겠는가,

박군의 일은 임금을 섬기는 데 있어서나 어버이를 섬기는 데 있어서나 하나도 거짓된 정성의 느낀 바가 용납됨이 없었으며 삼강이 이에 모여 있으니 손자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비를 알았으며, 종이 주인을 알고 주인은 그 받은 바의 처지를 알았던 것이다.

박군은 그 진실로 하늘이 내린 효자이겠는가, 아니겠는가,

(임인(1842)년 정월 상순)



〈사진 7〉 성산읍 고성리 홍달한 정려비와 산성효자로

성산읍 고성리 홍달한(洪達漢)

성산읍 고성리에는 효자이면서 충성심이 남달리 뛰어났던 홍달한(洪達漢)이란 분이 있어서 섬 사람 모두가 칭찬하고 감탄하며, 비록 부인이나 어린 아이들도 그 이름자를 들먹이면서 '그 분 홍효자(洪孝子)'라고 감탄하였다.

어사(御史)가 세 차례에 걸쳐 포상(褒賞)했으나, 그 고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지 못했다란 말을 듣고 품행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할 정도로 그 충군효친(忠君孝親)의 사적(事迹)을 기록할 정도였다.

홍효자(孝子)는 어려서부터 부친을 여의고, 어머니만 모시고 봉양하였는데, 옷을 입는 일이나 음식을 드리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고 몸소 하였으며, 언제나 그 어머니 뜻에 꼭 들어맞게 하였다.



〈사진 8〉 성산읍 고성리 소수산봉

모친이 악성 종기가 났는데, 바늘로 째는 것을 못 참으시므로 입으로 그 종기를 빨아서 저절로 낫게 하고, 또 모친이 중병을 앓으시자 손가락을 베고 피를 내어 약물에 타서 드렸으며, 변을 맛보아 병세가 더하고 덜함을 시험하기도 했다.

연세 70세에 모친상을 당하매, 얼굴이 초췌해지도록 지나치게 절제생활을 하였고, 제례(祭禮)를 더욱 독실하게 하였다. 산소 옆에 여막(廬幕)을 짓고 아침저녁으로 호곡(號哭)하니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또 모친상을 마치자, 부친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복을 입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삼년상을 추행(追行)하였는데 상복을 입고 방장대를 짚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 고인을

추모함이 초상을 당한 때와 똑같이 하였다.

경자(庚子, 1720), 갑진(甲辰, 1724)에 이르러 국상(國喪) 부음 소식을 듣고 북쪽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초하루, 보름, 명절날, 그리고 장례(葬禮)를 지낸 날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하여 그 초를 사르면서 통곡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집의 말을 사서 육지로 가다가 배가 파선되어 침몰해 버렸는데, 그 돈을 돌려 줄 수도 없어 마침내는 그 값어치의 나무를 들에다 쌓아놓고 불을 태웠다고 한다.

현재도 홍효자와 관련하여 마을 도로 이름을 '산성효자로'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다. 관련 전설지로는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정려비'와 '소수산봉'과 '다랑쉬오름'이 있다.

자료 1. 정실(鄭寔)의 〈효자 홍달한(孝子洪達漢)〉[12)]

洪達漢旌義人也. 居於縣東之古城村, 幼喪父奉母窮居. 性忠孝誠懿無一毫私僞, 嘗屬名於武籍爲假率, 假率卽縣官之軍校也.

未幾因親老家貧, 遂辭而去, 勞筋苦骨奉養甚至. 體無完衣食 不充腹而親之甘旨無缺也.

其母嘗病屢歲沈綿, 朝夕粥飮不和以蜜則不御, 而非此土所産故無以繼用, 君遂遍求玉林於隣里伐具幹而瀝其液調於米飮以助滋味.

及病篤噬指出血和藥用之. 又嘗糞以驗差劇焉.

歲庚子夏値肅廟大喪, 君奔走號哭遂制衰以服之居瘠以節如喪父母. 其家數喚地有山曰大朗甾勢最高可以望遠, 每月朔反望 必登此山北望焚香而痛哭乃至

祥禫之時悲痛如親, 遂徹夜露處于山頂衷號之聲感動隣人. 癸丑御史沈聖希聞之遂躬詣請見之

12) 홍달한 증손 홍해삼 소장 자료

其後母以天年終君哭擗叫叩而不得逮焉則自初終至窀穸, 几附身附棺之物必誠必敬克盡其心仍守墓以居三年畢猫不歸家衣鹿布不食肉焉.

島俗必就其塋域城而築石墻盖防牛馬之隳突也. 君躬自鳩石而築之又於墻內手植松累百株. 道路行者望之則墻面方正如削松亦葱鬱儼然成行. 皆曰此洪孝子墓云.

一日野火發延及於塋內草樹多焦成燼. 君痛甚傍人欲爲之掃 攘則君止之曰事亡 事存一也豈可使人爲之, 且吾不忍見具蒂以掃之以起灰燼. 遂以所着衣受灰而出振之于墻外終日不少休如是者數日乃止.

嘗以早失怙[13]而未克受衰爲至痛曰人皆服父之喪緊我獨無. 及其終母之喪也遂追制衰服而服之居處飮食一如喪初時年已過七耋見者危而止之終不聽以盡二十四月之制而能得支保人以爲神明所扶云君自遭內艱以至于今首尾十餘年廬幕行蔬如一日.

其子載重曰老父如此吾何忍食猪遂絶口不近肉君曰吾則老矣死而得見父母於地下足矣又汝因此而生病則春秋香火誰其戶之遂歸于家始進肉亦勤其子食之.

君晩喜讀書, 人曰君今耋矣, 讀書何爲君曰七十老翁更何求乎但人之所以爲人者在於是矣.

日輿村究輩講論不怠, 或於夜中潛心精思於章句文義之間有新得則必起坐呼學者語曰吾之前見非矣. 遂竭其所知而敎之.

且略涉陰陽家流. 几人吉凶請涓日則必應副焉. 其人已去如或更思而有誤則疾走人追 之必邀來而更告焉.

方其追服也. 縣監洪彦燮聞其將釋衰送略于物以助祭. 君感之卽 來謝而遽釋於庭下, 彦燮丞止而不聽再拜, 訖始陞堂謝之.

君素食貧, 惟有馬十餘頭, 放之于野, 奔逸散在於草木之場. 君登小丘作劃然一聲則象焉齊頭應聲而止, 人背異之.

君旣有至行又兼此衆美而一島人士皆稱之曰洪孝者豈孝是百行之源故耶.

御史還白于 朝 命復其家云, 烏川子曰詩云天生蒸民有物有則民之秉彝好是懿德, 物則之中忠孝爲大而古迄今鮮有盡其分者惟君所行可謂獨全其秉彝之天矣.

---

13) 早失怙(조실호) :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다. 여기서 '怙(호)'자는 아비를 뜻하는 말인데, 이의 상대어는 '恃(시)'자로서 지어미를 뜻한다.

余觀夫仕於王朝食君者於送往之節未必能盡合於禮而君則生在絶海之中克盡方喪之制, 噫君誠我聖告民也.

至於追服襄麻雖是無於禮之禮而非至誠純孝何以及此, 亦可以敬世之朝死而夕忘者矣.

觀民風者其能登聞而表章之使斯民知所慕效則奚但弋羅一域之風動而已, 將使環東土數千里之地皆知君臣父子之倫矣豈不盛哉.

홍달한(洪達漢)은 정의 사람으로 현(縣)의 동쪽 고성촌(古城村)에 살았는데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만을 모셔 어렵게 살았다. 그는 성품이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웠으며 털끝만치도 삿됨이나 거짓이 없었다. 일찍이 무적(武籍)에 소속되어 가솔(假率)이 되었는데 가솔이란 곧 현관(縣官)의 군교(軍校)였다.

얼마 후에 어머니가 늙으시고 집이 가난하여 마침내 그 직책을 사직하고 돌아와서,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어머니 봉양하기를 극진히 하였다. 몸에는 언제나 누더기 옷이요, 밥을 배부르게 먹어본 날이 없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리는 데 소홀히 하는 일이 없었다. 어머니가 일찍이 병환이 나서 수년 동안 자리에 누워 계셨는데, 아침저녁으로 잡수시는 죽과 마실 것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꿀을 타서 드렸다. 그러나 꿀은 이 고장의 산물이 아니므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가 없었다. 생각하다 못해 이 분은 이웃동네에 가서 사탕수수를 구해다가 그 수수대를 잘라서 그 단물을 짜내어 미음에다 섞어서 맛나게 하였다. 그래도 병환이 위독해지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짜내어 약에 타서 마시게 하였고, 또 변을 맛보아서 병세의 차도를 알아내기까지 하였다.

한편 경자(庚子, 1720)년 6월에 숙종(肅宗) 임금이 승하하여 국상을 당하자, 이 분은 바삐 돌아다니며 호곡하였고, 마침내는 상복을 지어 입고 마치 부모를 여읜 사람처럼 몸이 수척해지도록 절제하는 생활을 하였다. 그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랑쉬'라는 오름이 있는데, 산이 높아 멀리 조망해볼 수가 있다. 달마다 초하루와 보름이면 꼭 이 산에 올라가서 북쪽을 바라보며 향을 피우고 슬피 울었다.

대상과 담제 때에는 부모를 여읜 때와 같이 비통하게 그 산정에서 밤새껏 통곡을 하니 이웃사람들이 감동하였다. 계축(癸丑, 1733)년에 어사 심성희(沈聖希)가 이런 말을 전해 듣고서 몸

소 찾아와 만났다.

그 뒤에 모친이 죽으니 이 분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으며 모든 수의나 관에 넣는 물건 등은 반드시 정성스럽고 공경스럽게 온 마음을 다 바쳐 마련하였다. 산소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시묘살이[守墓]를 3년을 마쳐도 귀가하지 않은 채 베옷을 입고 고기도 일체 먹지 않았다.

이 섬의 풍속은 반드시 산소를 만들고 돌로 산담을 쌓아서 대개 우마를 막곤 한다. 이 분은 몸소 돌을 주워 모아 산담을 쌓았다. 또 그 산담 밖에다 수백 그루의 소나무를 손수 심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를 바라보면 산담의 네 모서리가 반듯하여 마치 나무를 깎아놓은 것 같았고, 또한 덩굴이 우거져 또렷이 행렬을 짓고 있었다. 모두 이르기를 '홍효자 집안 묘'라고 하였다.

하루는 산불이 나서 불이 산소 안에까지 들어와 초목이 타죽고 그루터기만 남았다. 이 분의 고통이란 이루 말할 나위가 없었다. 주위 사람들이 이를 쓸어서 없애버리려 하자 이 분은 이를 말리면서 말하기를,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것이나 살아계신 분을 모시는 것이나 매한가지인데, 어찌 이 일을 남에게 시킬 것이냐. 그리고 빗자루로 재를 일으키며 쓸어내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입은 옷에 재를 쓸어 담아서 담 밖으로 털어내기를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하였는데 며칠 걸려 깨끗이 치웠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서 복을 입지 못한 것을 매우 괴로워하며 말하기를, "남들은 모두 아버지의 복을 입었는데, 아! 나만 그러질 못하였구나."

라고 하였다. 모친상을 마치게 되자 드디어 다시 상복을 만들어 입고 초상 때와 똑같이 거처하면서 식생활도 절제하였다. 이때는 나이가 이미 칠십을 넘은 지라 보는 사람마다 이를 위태롭게 여겼으나 끝내 듣지 않고 24개월의 복을 다 마쳤다. 그러고서도 능히 몸을 지탱할 수 있었음은 사람이 신을 위함으로 도움 받을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 분은 모친상을 당한 이후 지금까지 시종 10여년을 여막(廬幕)을 짓고서 산소를 지키면서 변변치 않은 음식을 먹기를 하루같이 하였다.

그의 아들 재중(載重)이 말하기를,

"늙으신 아버님께서 이와 같으시니 제가 어찌 차마 돼지고기를 먹겠습니까? 고기를 딱 끊고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나는 얼마 없어 늙어 죽어서 지하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족하다. 그런 일로 인하여 네가 병이 나면 해마다 제사는 누가 모실 것이냐?"라고 하시면서 집으로 돌아오셔서 비로소 고기를 잡수시고 아들에게도 먹으라고 권하였다.

이 분은 만년에 책을 즐겨 읽었다. 주위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르신께서는 이제 칠십이 넘으셨는데 책은 읽어 무엇하시겠습니까?"라고 하자, 이 분께서 대답하기를, "칠십 늙은이가 무엇을 구하겠는가? 다만 사람이 사람 된 까닭이 여기에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네. 곧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옛 성인들의 가르침을 책을 통하여 터득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할 따름이지."

라고 하였다.

날마다 공부하는 시골사람들에게 강론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혹시 밤중에라도 글귀의 뜻을 깊이 생각하다가 새로 터득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서 학동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지난번 내 생각은 틀렸다."

라고 하고선 그가 아는 바를 다하여 가르쳤다.

또 음양가(陰陽家)의 책을 읽어서 사람들의 길흉을 가리어 택일 청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간 다음 혹시 생각이 달라지거나 잘못이 있음을 깨달았을 땐 그 사람을 쫓아가서 꼭 불러다가 재차 택일을 취하게 하곤 하였다.

추복(追服) 때에 현감 홍언섭(洪彦燮)은 얼마 없어 상복을 벗게 된다는 말을 듣고서는 약간의 제물을 보내어 제를 도운 일이 있었다. 이 분은 이에 감격하여 즉시 찾아가서 고마운 인사를 하였는데, 황망히 뜰 아래 엎드려 절을 하자 언섭이 급히 이를 말렸으나 듣지 않고 다시 절을 하고선 비로소 마루에 올라가서 고마운 말을 하였다.

이 분은 소식(素食)할 정도로 가난하였다. 말이 10여 마리가 있어서 들에다 방목하였는데, 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도 이 분이 동산에 올라가서 확연히 한 마디 소리를 지르면 모든 말들이 일제히 머리로 그 소리에 응답하고 멈추어 서곤 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이 분은 이미 지극히 착하신 행동을 하셨고, 또 겸하여 여러가지 아름다운 일화를 남기셨기에

전도민이 이구동성으로

"이 분은 홍효자(洪孝子)이다."라고 일컬으니, 이는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어사(御史)가 조정에 돌아가서 사뢰되 그 집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오천(烏川)이란 사람의 말이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하늘이 모든 백성을 내시니 만물이 있으면 도리가 있은 즉, 백성의 타고난 성품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 하거니와, 만물의 도리 가운데 충과 효가 큰일인데,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본분을 다한 사람이 드물다.' 라고 했는데 오직 이 분만은 그를 행하였으니, 가히 그 타고난 착한 천성을 홀로 온전히 드러내었다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건대, 왕조에서 벼슬을 하는 일이 이 분을 먹이고 입히는 일이라 여기나, 이런 정도로 돌아가신 분을 보내는 예절을 꼭 차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이 분은 절해 가운데 있는 섬에서 임금의 상을 당함에 복을 입었습니다. 이 분이야말로 우리 성상이 백성의 살피심을 알고 존경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을 추복(追服)하는 일이 예중의 예에도 없는 일이나, 이 분은 이를 행하였으니 진실로 순수한 효성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는 또한 가히 아침에 죽은 사람을 저녁에 잊어버리곤 하는 사람들에게 경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백성의 풍물을 살피는 사람이 백성이 임금에게 올리는 말을 듣고 이를 표창한 일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는 바 그 효험을 알게 함인즉, 어찌 다만 이 탐라(耽羅)란 한 지역의 풍동감화(風動感化)됨에 그치겠습니까? 장차 온 나라 수 천리 땅에 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임금과 신하, 그리고 아비와 아들 사이의 윤리를 알게 하는 일이 될 것이오니, 이 어찌 위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자료 2. 제주목사(濟州牧使) 김윤(金潤)의 〈홍효자달한행적(洪孝子達漢行迹)〉[14)]

余按玆島後 始聞旌義縣有孝子洪達漢者 一島上下民人莫不稱歎而雖婦人孺子亦皆聞知其名字而洪孝子稱之.

槪其出天之忠孝爲人所敬服而然也. 是以前後御史三次褒 聞尙未蒙旌閭之典, 年今八十已成朝暮之人矣. 或恐其卓然行誼泯而不傳 玆記其忠君孝親之事迹焉.

孝子幼喪其父獨奉偏母衣食之節甘旨之供莫不親執必適其親意.

其母嘗患毒腫 不忍針刺口呪其瘡 自抵完合 又患重病割指 出血和進藥物 嘗其糞而驗其吉凶.

年至七十始遭其母喪哀毁逾節 執禮彌篤. 廬于墓側晨昏號哭 行路莫不下淚矣. 朝夕祭奠 不委其子女 必親自烹煮 墓傍圍墻 亦親自負石築之而務盡堅完極其端正.

及母喪闋則 其父喪 時幼未服喪追行三年之喪. 疏衰菹杖哭 擗號慕如同初喪.

逮夫庚子甲辰 國恤時 實有如喪考妣之痛聞 國訃之 卽上高峯望北痛哭 因於其處成服 而自採白蠟造燭數十雙欲爲庚子年 魂殿進上而 不得則每於朔望郎曰及下玄宮之 曰必登高峰燃其燭向北號泣.

而平日與人言或語及 肅廟朝時事則輒泫然下淚曰 靡吾 王聖德則顧此島民已無孑遺矣. 嘗過客舍則以其奉殿牌之所 必四拜後趨來而過.

爲君之忠爲親之孝此 其大略 而其他行事又 多有出人之事者. 家有畜馬數十匹而人有願買者則必使鄕人與買者從公折 價價若於意過濫則 必不受其過價. 賣買後馬若致斃則 雖久遠之後 必還給其價焉.

嘗有人買其馬出陸敗舡漂沒. 孝子以爲人與馬俱沒此價旣無還給處而亦安忍用之遂焚其價木於野外 此豈常人俗流可爲者哉. 旿可偉矣.

盖其平生素志只在忠孝而已. 雖年老家貧至於鄕任及官職 本不取焉. 余惜其空老無他褒揚之道擢差千捻未幾移差助防將 又未幾陞差本縣座首而 其子載重 先差城將後更爲特差 別防鎭將使之以官廩養其親以爲一分激動島民之地焉.

14) 홍달한 증손 홍해삼 소장 자료

내가 이 섬을 관장한 후에 처음으로 듣기를, 정의현에 효자 홍달한(洪達漢)이란 분이 있어 이 섬의 높은 이,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칭찬하고 감탄하며, 비록 부인이나 어린 아이들도 그 이름자를 들먹이면 '그 분 홍효자(洪孝子)'라고 하였다.

대저 하늘에 빼어난 충효(忠孝)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므로 앞뒤의 어사(御史)가 세 차례에 걸쳐 포상(褒賞)했으나, 그 고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지 못했다란 말을 듣고, 아울러 그 분의 연세가 이미 팔십(八十)이라 이제 얼마 없어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그 방정한 품행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여기에 그 충군효친(忠君孝親)의 사적(事迹)을 적는다.

효자(孝子)는 어려서 그 부친을 여의고, 어머니만 모시고 봉양하였는데, 옷을 입는 일이나 음식을 드리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고 몸소 하였으며 언제나 그 어머니 뜻에 꼭 들어맞게 하였다.

그 모친이 일찍이 악성 종기가 났는데, 바늘로 째는 것을 못 참으시므로 입으로 그 종기를 빠니 저절로 나았다. 또 (그 모친이) 중병을 앓으시자 손가락을 베고 피를 내어 약물에 타서 드렸으며, 변을 맛보아 병세가 더하고 덜함을 시험했다.

연세 칠십세에 모친상을 당하매, 얼굴이 초췌해지도록 지나친 절제생활을 하였고, 제례(祭禮)를 더욱 독실하게 하였다. 산소 옆에 여막(廬幕)을 짓고 아침저녁으로 호곡(號哭)하니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침저녁으로 올리는 제전(祭奠)은 자식에게 맡기는 일이 없이 반드시 몸소 준비하였다.

묘담을 쌓을 돌도 몸소 등에 지어다가 쌓았는데 힘써 노력하여 견고하며 단정하기 이를 데 없었다.

모친상을 마치자, 그 부친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복을 입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삼년상을 추행(追行)하였다. 상복을 입고 방장대를 짚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 고인을 추모함이 초상을 당한 때와 똑같았다.

경자(庚子, 1720)·갑진(甲辰, 1724)에 이르러 국상(國喪)을 당했을 때는 친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비통해 하였다. 국상의 부음 소식을 듣자 즉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북쪽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그 자리에서 성복(成服)하였다.

스스로 백랍(白蠟)을 따다가 초를 수십 쌍이나 만들었다. 경자년 국상을 당하매 이것을 혼전(魂殿)에 진상(進上)하고자 하였으나 그럴 수가 없자, 초하루 보름 명절날 그리고 장례(葬禮)를 지낸 날에는 반드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하여 그 초를 사르면서 통곡하였다.

그리고 평일에도 사람들과 말하다가 이야기가 숙종(肅宗) 임금 때의 일(곧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구휼해준 일)에 미치게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의 성덕(聖德)을 생각하건대, 이 제주도민 치고 그 임금님의 보살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라고 하였다. 일찍이 객사(客舍)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전패(殿牌)〔곧 지방 객사에 전자(殿字)를 새겨 세운 나무패, 군주의 상징으로 출장 간 관리나 그 고을 원이 배례하였다 함〕를 모시고 있는 곳이라 반드시 사배(四拜)를 한 뒤에야 분주히 지나갔다.

임금을 위하는 충성과 부모를 위하는 효성은 대략 이러하였고, 그 밖의 일에 있어서도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집에서 말을 수십 필 길렀는데, 누가 말을 사려 하면 반드시 동네 사람을 시켜, 그 살 사람과 공정히 값을 정하게 하였다. 값이 만일 당신 생각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은 받지 않았다. 매매가 이뤄진 뒤에라도 말이 죽거나 하면 비록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반드시 그 말 값을 돌려주었다.

일찍이 어떤 사람이 그 집의 말을 사서 육지로 가다가 배가 파선되어 침몰해 버렸다. 효자는 사람과 그 배가 다 같이 빠져 죽었으니 그 값을 돌려 줄 곳이 없어졌다. 그렇다고 그 돈을 써버릴 수도 없어 마침내는 그 값어치의 나무를 들에다 쌓아놓고 불을 태웠다. 이런 일을 범상한 세속 사람이 어찌 할 수 있겠는가?

아, 참으로 위대하구나!

대저 그 평생은 뜻이 소박하여 오직 충(忠)과 효(孝)만을 생각했다. 비록 연로하고 집이 가난하여 향임(鄕任)이나 관직(官職)도 취한 적이 없으나, 나는 벼슬 없이 늙어가는 것과 또 달리 포상할 것도 없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서, 천념(千捻)에 승진시켰다.

그리고 그 아들 재중(載重)은 맨 먼저 성장(城將)에 임명하였다가 후에 다시 별방진장(別防鎭將)으로 특채하여 이로써 복을 받아 그 부모님을 봉양하게 하고 이로써 비록 잠시일지라도 도민(島民)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사진 9〉 구좌읍 김녕리 효자 김칭, 박명복 비

구좌읍 김녕리 김칭(金秤)·박명복(朴明福)

구좌읍 김녕리 대충동 비석거리에는 효자(孝子) 김칭(金秤)[15]과 박명복(朴明福)의 정려비가 있다.

효자(孝子) 김칭은 성화(成化) 정미(丁未) 곧 조선조 성종 18년(1487), 마을에 정문(旌門)하고 복호(復戶)를 했다. 향리(鄕吏) 김칭(金秤)은 어머니가 머리 위에 종기가 나서 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 갓을 벗고 맨발로 50여리를 나아가며 때를 넘기지

15) 이증(李增) 저, 김익수(金益洙) 역, 2001, 『남사일록(南搓日錄)』 제주문화원, 129쪽 및 148쪽에서 인용.

않으려 한 번에 달려 하루 만에 곧 도착하고, 그의 다리를 두 번이나 베어 어머니에게 씹게 했다고 전한다.

박명복은 1858년 김녕리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21세에 아버지가 죽을 지경에 이르자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먹도록 하여, 한 달간 연명하도록 했으며, 59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를 슬퍼하면서 초상이 난 뒤로부터 졸곡(卒哭)까지 모든 제사를 지냈는데, 1919년 62세에 세상을 떠나니 모두가 효도를 다한 사람이라고 했다.

박효자명복기념비(朴孝子明福紀念碑)는 1955년에 이하준(李夏準)의 글로 현손 박창훈 씨가 효자비를 세웠다.

3. 열녀




〈사진 10〉 한경면 고산리 절부고씨 묘비와 절부암

한경면 용수리 절부암 고씨(高氏)

자료 1. 마을 전설[16)]

〈유형 1〉 절부고씨

고산리 차귀도를 마주하는 한경면 용수리 지삿개 포구의 절부암은 절부고씨의 남편을 위하는 열부의 이야기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그녀는 저지리의 명의논(명답동)에 사는 고응종(초명은

16) 필사본, 한경면 용수리 마을회관 소장 자료 및 홍재운(전 용수리장) 구술 참고.

응추)의 딸인데, 그녀의 아버지는 서귀포에서 친구 강성일과 개간할 곳을 찾아 한경면 저지리로 이사하였다.

강성일은 남매를 낳아 성혼시키고 손자까지 보았으나, 질병으로 아들과 손자를 잃은 후에 고씨의 남편인 강사철을 얻는다.

부모는 그가 채 자라기도 전에 심화병으로 죽으니 천애고아가 되어 갈 곳 없는 강사철은 용수리 지삿개(와포동)에 출가한 누나를 찾아 고기를 낚으면서 생계를 삼았다.

누나는 동생을 짝지어 주려고 애썼으나, 가난한 고아에게 딸을 줄 이가 없어 아버지의 친구인 고응종을 찾아가

"우리 부모에게 분향할 후사가 끊기게 되었으니 따님을 주십사"

고 간청하니, 그는 친구의 정의를 생각하여 열아홉살 된 딸을 강사철에게 출가시켰다.

젊은 부부는 비록 가난하였지만 화목하고 부지런하며, 고기 낚기, 남의 품팔이, 해조류와 패류 캐기 등, 고된 줄도 모르게 앞날의 꿈에 부푼 나머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 해(계축년, 1852)가 다 가기 전 겨울 농한기에 죽세공품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보태려고, 동짓달 열사흘날 남편은 동네 어른 좌여은, 홍연득과 함께 떼배를 타고 차귀도(죽도)에 가서 대를 베고 지삿개로 돌아오다가 풍랑으로 배가 침몰당하고 만다.

그의 부인은 남편 시신을 찾아 3일간 음식을 전폐한 채 해안을 헤매었는데, 짚신이 헤어져 발바닥은 피가 낭자했으나 밤에는 짚신을 삼고, 날이 새면 그 짚신을 신고, 다시 도내 곳곳의 해안으로 남편의 시신을 찾아 나섰다.

남편이 죽은 바로 다음날에는 같이 배에 탔던 좌여은의 시체가 떠올랐으며, 또 훗날엔 머리가 잘려 없어진 시신이 떠올랐는데 누구의 것인지 분간을 못하자, 그 때 홍연득의 옷을 지어준 부인이 나타나,

"안감이 모자라 기저귀 조각을 대었으니, 옷을 벗겨보면 알 것이다"

는 증언을 확인한 바 홍연득의 시체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실망한 부인은 해안가 엉덕동산 바위 밑 후박나무에 목메어 죽으니, 그때 나이가 안타깝게도 열아홉살이었는데, 그 뒤 3일 만에 남편의 시신은 부인이 목매었던 큰바위가 있는 '엉덕'으로 떠올랐다고 한다.

〈유형 2〉 절부암과 신재우 판관

절부고씨와 신재우 판관과의 인연을 전하는 다른 유형이 전해지고 있다. 곧 판관은 절부고씨의 원한을 들어줘서 영혼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하고 출세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판관 신재우가 소년시절, 조천리에 거주하며 제주향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절부고씨의 열행이 도내에 알려지자 몹시 감동하였고, 정문이 세워지지 않음을 듣고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과거에 낙방하던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소복한 여인이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할 듯하다 사라져서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점장이에 문점을 하자

"죄없이 죽었으니 저승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고, 이승으로 나오려니 시신이어서 소생 못하여 헤매는 여인으로 잘 모시면 좋은 일이 있겠다"고 했다.

다시 과거 공부를 하던 중 열녀전을 읽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은 '열녀고씨'였고, 약간의 재물을 마련하고 고씨의 무덤을 찾아가서 제사를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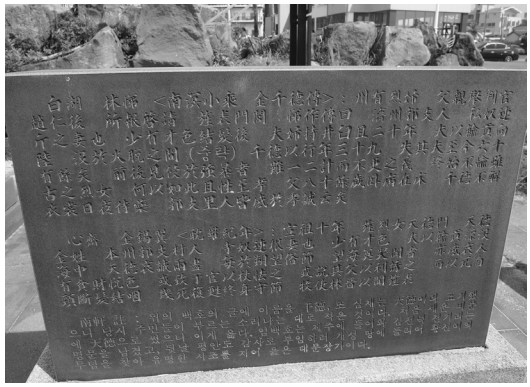
그 이후 과거에 합격하여 청암찰방으로 부임한 후, 1866년 제주 판관으로 영전하여 제주로 돌아오는 배가 해남을 출발하자, 파도가 높아 진도에 들려 객사에서 잠을 자는데, 전에 현몽했던 여인이 나타나서

"첫닭이 울거든 곧 떠나라"

고 하여 잠을 깨니 첫 닭 우는 소리가 들려서 사공을 깨워 배를 띄웠다. 제주 화북포구에 도착하자 태풍이 불어 닥쳤는데, 진도에서 물때를 맞추느라고 뒤늦게 출발한 배들은 화탈도(관탈섬)까지 못와서 파도에 휩쓸려 침몰되었다.

이를 눈앞에서 본 신재우는 절부의 보살핌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1867년 그녀가 죽었던 나무 밑에 있는 바위에 '절부암'이라 새겼으며, 절부의 무덤을 크게 보토하고 산담을 두르고 표절비를 세웠다.

그 뒤에 대정군수로 도임 시(1898)에는 오십 량의 돈을 내놓고, 또 군소속 관원들의 지원금 합계 75량을 가지고 고산, 용수 양리에 각 37량 5전씩 나누어주며, 절부고씨의 묘제(열려제)를 지내게 했다. 묘소는 당산동쪽 비탈(고산과 용수리 경계) 일주도로에서 보이는 70리 거리에 합장하였는데, 지금도 해마다 음력 3월 15일에 끊이지 않고 묘제를 지내고 있다.

〈사진 11〉 애월읍 곽지리 김천덕의 비

애월읍 곽지리 김천덕(金千德)

열부(烈婦) 천덕전(千德傳)[17]

애월읍 곽지리 과물이 있는 해안 변에 열부 김천덕이 살았다고 하며, 임제(林悌) 『남명소승(南溟小乘)』 기록에 의거하면 제주(濟州)에 열부(烈婦)가 있었는데, 부친(저자 임제의 부친 임진(林晉)은 당시 제주목사였음)께서 판관(判官) 조인후(趙仁後)에게 보고해서 조정에 아뢰어 정문(旌門)을 세워 주도록 청하고 천덕전(傳)을 지어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17) 임제(林悌) 저, 신호열·김형택 공역(1997), 『백호전집(하)』, 창작과 비평사.

제주 곽지리(郭支里) 사노(私奴) 연근(連斤)의 처인 천덕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출중하고 자색이 고왔는데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살림을 꾸린 지 20년쯤 지났을 때, 지아비는 공물(貢物) 수송을 위해 육지로 가다가 화탈도(火脫島)에서 배가 침몰당해 죽고 만다.

천덕은 눈물을 흘리면서 3년 동안 애통해하며 상식(上食)을 폐하지 아니하였다. 삭망(朔望)이나 명절을 지낼 때면 호탈도 쪽을 향해 제를 드리며 하늘에 하소연하니 듣고 보는 이들은 누구나 안스럽게 여기곤 했다.

뒤에 죄를 짓고 귀양 온 자가 천덕을 더럽히려고 좋은 말로 유혹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아서, 마침내 관가에 고발하여 위협하는 과정에 곤장 80대를 맞기에 이르러 천덕은 겉으로 순종하는 척하여 풀려나오게 된다. 또 애월소(涯月所)의 여수(旅帥)란 자가 제 세력을 믿고 사람을 시켜 감언이설로 그 아비 김청(金淸)을 회유했는데, 그 아비는 딸을 그에게 주기로 약속해서 화촉(華燭)의 저녁에 드디어 목을 놓아 울며 자기 손으로 방에 불을 놓아 버렸다.

이튿날 아침에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이르게 되자 그의 자녀들이 황급히 구출하여 살아났고, 다시 머리털을 자르고 헤진 옷을 걸치고서 죽기로 맹세하니 그 아비가 깨닫고 더 강요하지 못했다. 천덕은 나이 39세에 지아비를 여의고 지금 60세가 되었는데, 전후로 강포한 자에게 겁탈을 당할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 뜻은 변치 않았다.

더구나 효성이 지극하여 아비가 80여 세로 병상에 누워 있어도 천덕은 의상을 풀지 않고 밤낮으로 간병하며 약 시중을 들어서, 곽지리 사람들은 모두 그 효성에 감동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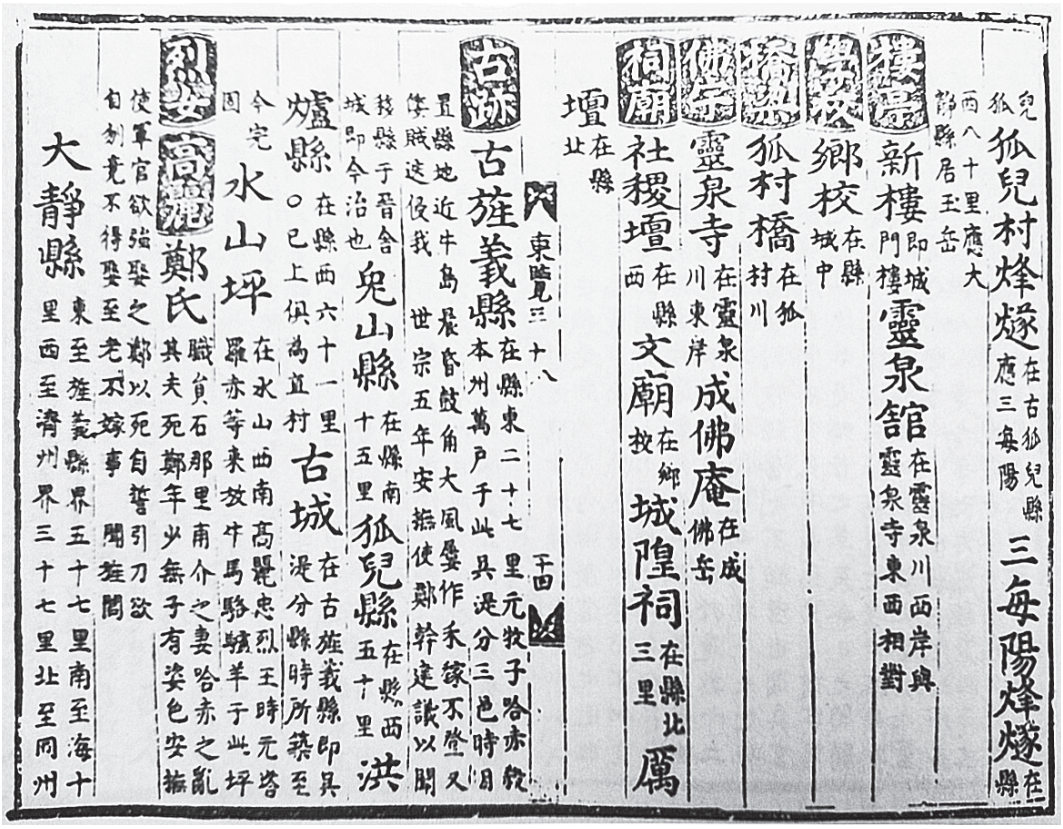

〈사진 12〉 남원읍 한남리 열녀정씨의 비

남원읍 한남리 열녀 정씨(鄭氏)

『신증동국여지승람』, 정의현 편

고려 정씨(鄭氏) 직원(職員) 석곡리보개(石谷里甫介)의 아내이다.

합적(哈赤)의 난에 그의 남편이 죽었는데, 정씨는 젊고 아들이 없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안무사 군관이 강제로 장가 들려 하니, 정씨가 죽기로 맹서하여 칼을 끌어 스스로 목을 찌르려 하므로 마침내 장가 들지 못하였으며, 늙도록 시집가지 않았다. 이 일이 알려져 정려하였다.



〈사진 13〉 남원읍 한남리 열녀 정씨에 대한 『신증동국여지승람』 기사

그의 정절이 조정에 알려지자 정려(旌閭)되었고, 1834년 3월에 목사 한응호가 석비(石碑)를 고쳐 세워 현재는 한남리 리사무소에 있다.

4. 충신



〈사진 14〉 성산읍 난산리 오흥태의 묘와 정려비

성산읍 난산리 오흥태(吳興泰)[18]

오흥태는 성산읍 난산리 오전의 아들로 태어나서 글읽기를 즐겨하였으며, 늘 선비로서 나라를 걱정하기도 했다. 영조 4년(1728)에 이인좌(李麟佐), 정희량(鄭希亮) 등이 난을 일으켜 전국이 어수선해지자, 유생 오흥태(吳興泰)는 삼읍에 격문(檄文)을 돌려 의병을 모집하였다.

그는 창의 격문을 정의현 중심으로 삼읍에 돌리고 의병 수백인을 모아서 군량과 무기를 마련하여 출륙(出陸)하려 할 즈음에 태풍이 몰아쳐 순풍을 기다리고 있었다. 난이 평

18) 오흥태(吳興泰, 1700~?)
오문복(2005),『정의현지』, 남제주문화원, 137~140쪽.



〈사진 15〉 오흥태 묘비

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됨에 따라 출륙을 중단하고 이내 곧 군사를 해산하여 돌려보냈다. 이 이후 주변에서는 오흥태를 오의사(吳義士)라고 불렀다.

영조 47년(1771) 대정현 창천에 유배 온 자인 권진응이 오의사의 창의 격문을 읽고 "강강불요한 문장의 요지는 참으로 뜻이 격절하다"고 평하여 옮겨쓰고, 정조 18년(1794) 어사 심낙수가 내도하여 오의사의 의거를 듣고 조정에 보고하니 주문(奏聞)으로 이 사실을 안 정조대왕은 그 뜻을 아름답게 여겨, '실적이 없으면 정려를 명하지 아니한다'라는 전례를 깨고 의사(義士)로 정려(旌閭)토록 하였다.

철종 원년(1850) 본현 유림이 정의서당에 의사묘(義士廟)를 세워 향사하였는데, 그 당시 격문과 정려기 등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정려기(旌閭記)는 어사 심낙수(沈樂洙)가

지었고, 의사묘기는 관해(觀海) 이응호(李應鎬)가 지었다.

현재도 오흥태의 정려비와 오흥태의 묘가 성산읍 난산리에 있다.

현재도 오흥태 의사 사건 이후, 제주에서는 어사를 파견하여 별시(別試)를 치르게 되었는데, 제주인들 중 특히 관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서울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제주에서 과거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료 1. 문헌 기사

《耽羅誌草本 冬》 권4, 人物조 역

義士吳興泰 性慷慨與人寡合 英廟戊申聞逆鱗叛 草檄書倡三邑義兵 將越海赴援 賊平而止 正廟癸丑御史沈樂洙啓聞 旌閭

의사(義士) 오흥태(吳興泰)는 성품이 강개하여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다. 영조 4년(무신, 1728) 이인좌(李麟佐)·정희량(鄭希亮)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격문(檄文)을 써서 삼읍에 돌려 의병을 일으키고 바다를 건너 나아가려 하였으나, 얼마 안 되어 적이 평정되었다고 하자 중지하였다. 정조 17년(계축, 1793)에 어사(御史) 심낙수(沈樂洙)가 조정에 아뢰어 정려하였다.

《耽羅紀年》 권3, 영조 4년조

夏六月..... 是歲 李麟佐鄭希亮等作亂 八路震駭 旌義儒生吳興泰 慷慨奮義爲文 諭三邑坊曲 其略曰 人生斯世 所重者君親 所貴者忠孝 若子而不救父之危 臣而不急君之難 非但得罪於忠孝之門 亦將同歸於馬牛之襟裾 可不戒哉 今我聖上 肅宗之子 景宗之弟 應謳歌承大統 以堯舜之質 駕

湯武之德 臨御四載 澤洽萬民八路生靈 孰不欲須臾無死 以見德化之成哉 千萬料外匈賊之徒 陰懷無將之心 睥睨神器 嘯聚徒黨 輕九鼎而欲問 闖三川而遂窺蠢 愚無識之民 不辨順逆之義 往往投入其中 噫今此賊醜以不軌之謀 敢肆射天之惡 豈獨朝庭將相之臣 切齒腐心之賊哉 實是擧國含生之民 不共戴天之讎也 本島之民異於內陸 實有千古難忘之德也 頃當癸甲之匈 勢將盡劉 而特蒙我肅宗大王 賑救之德 父母妻子 得以相保 以至于今日 莫非聖恩攸賜 嗟嗟上下之人 以先王不忘之心 追疇昔拯濟之恩 齊赴國難 直衝賊陳 盍以死報之於我主上殿下乎 若吾等以白面書生 丹心戀主 決意殉國 而旣無制賊之才 又乏應變之策 妄出勤王之意無可與同赴國難者誠可慟矣 然爲人臣子者 當國家危難之際 死卽爲榮 値匈鋒橫行之日 生亦爲辱 若料其戰之勝負身之死生以之進退 卽豈忠臣義士之心哉 玆以發檄于三邑 勿以我言爲迂 而逗留觀望 勿以一死爲難而猶豫赵相 以負君恩也 辭非假外誠實由中 凡流血氣之南兒 奮臂踴躍 共倡義聲齊赴國難 死生以之卽不勝幸甚云云 時召募得數百人 將欲發向賊穴 旋聞平賊報而止 後定配人權震應 見檄文 辭意激切 因傳寫而去·吳興泰旋義蘭山里人也 家貧好讀書 累擧不中 爲人剛强不撓 寡合於俗 然當理之事 惟恐不及焉 後人因稱吳義士

여름 6월.(전략) 이 해 이인좌(李麟佐)·정희량(鄭希亮) 등이 난리를 일으켜 팔도가 놀랐다. 정의(旌義) 유생(儒生) 오흥태(吳興泰)가 강개하여 의를 떨쳐 격문을 지어 삼읍 방방곡곡에 깨우쳤다.

그 대략을 말하면,

"인생에서 중히 여기는 것은 임금과 어버이요, 귀히 여기는 것은 충과 효이다. 만약 자식된 자가 아버지의 위태로움을 구하지 못하고, 신하된 자가 임금의 어려움을 급히 여기지 못한다면 충효의 무리에서 죄를 얻을 뿐만 아니고, 역시 사람답지 않은 축생의 무리와 함께 할 것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제 우리 성상(聖上)께서 숙종의 아드님이시고 경종의 아우님이라 백성이 칭송하는 가운데 대통을 이으셨다. 요·순(堯·舜)과 같은 어진 바탕과 탕·무왕(湯·武王)의 큰 덕으로 등극하신 지 4년의 덕화가 전국 백성에게 두루 미치니 누가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 그 덕화가 무르익는 것을 보자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정말 뜻밖에도 흉적의 무리가 반역의 마음을 품어 왕의 자리를 엿보며 무리를 불러 모아 사직

을 가벼이 여겨 따져 묻고자 하였다. 느닷없이 삼천(三千)을 엿보며 마침내 꿈틀거리니 어리석고 무식한 백성들이 순리와 역리의 의를 분별치 못하여 왕왕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갔다.

아! 지금 이 도적의 무리가 불궤(不軌)의 모의로 감히 하늘을 쏘려는 악을 자행하려 하니 어찌 조정의 고위 신하만이 절치부심할 도적이겠는가? 실로 이는 온 나라의 생명붙이가 하늘과 같이 할 수 없는 원수이리라. 본도(本島)의 백성은 내륙과 달리 실로 오래 잊지 못할 덕이 있다. 지난 계묘·갑진년(1723·1724) 흉년을 당하여 형세가 다 죽을 지경이었으나, 특별히 우리 숙종대왕이 진휼하여 준 덕으로 부모와 처 자식이 서로 보존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성은을 내리받음이 없지 않다.

아! 모든 사람들이 선왕(先王)의 잊지 않은 마음으로 이전에 구제해주신 은혜를 좇아 모두 국난에 내달아 적진으로 바로 돌진해 죽음으로써 우리 주상전하께 보답하지 않겠는가? 우리들 같은 백면서생은 일편단심으로 주인을 사모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칠 것을 결의하나, 이미 적을 제어할 재주가 없고, 또한 임기응변의 책략도 모자라니, 망령스럽게 근왕(勤王)의 뜻을 드러내고 국난에 같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슬픈 일이다. 그러나 신하된 자가 국가의 위태롭고 어려운 때를 당하여 죽으면 곧 영예로운 것이요, 흉흉한 칼날이 횡행할 때 살아 있는 것은 또한 치욕스러운 것이다.

만약 그 전쟁의 승부에서 자신의 죽고 삶을 헤아려, 그로써 나아가고 물러선다면 어찌 충성스러운 신하와 의로운 선비의 마음이겠는가?

이에 격문을 삼읍에 띄우니 내 말이 현실과 멀다 여겨 머뭇거려 관망하지 말며, 한번 죽는 것이 어렵다고 여겨 미뤄두고 망설여 임금의 은혜를 배반하지 말지어다. 말은 거짓으로 외면이 아니고 진실로 참되게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무릇 혈기의 남아는 팔을 걷어붙이고 힘차게 뛰어나와 함께 의로운 함성을 외쳐 국난에 같이 나아가 사생(死生)으로 한다면 다행스러움이 이루 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때 수 백인을 불러 모으고 장차 적의 소굴로 향해 출동하려 했는데 얼마 없어 적이 평정되었음을 듣고 중지하였다. 후에 유배 온 권진응(權震應)이 격문을 보고, 말의 뜻이 격렬하고 절실함으로 서로 돌려가며 베끼어 갔다.

《耽羅紀年》 권3, 정조 18년조

三月..... 旌義士吳興泰 及孝子朴繼崑 貞婦朴氏 忠婢高所樂門 復貞女寺婢玉梅家

삼월(전략) 의사(義士)오흥태(吳興泰)와 효자 박계곤(朴繼崑), 정부(貞婦) 박씨(朴氏), 충비(忠婢) 고소락의 문에 정표하고, 정녀(貞女) 사비(寺婢) 옥매(玉梅)의 집에 요역을 면제하였다.

《耽羅紀年》 권4, 철종 원년조

春 牧使張寅植 建義士廟于旌義書堂 以吳興泰享之

봄. 목사 장인식(張寅植)이 의사묘(義士廟)를 정의서당에 세우고 오흥태(吳興泰)를 향사(享祀)하였다.

《增補 耽羅誌》 一 地理 附 名所古跡조

義士廟 城山面兎山里에 在하니 四一八三年 庚戌哲宗元年에 牧使張寅植이 刱建하야 吳興泰를 奉享하다. 四二白四年辛未高宗八年에 毁撤

의사묘(義士廟)는 성산면 토산리에 있다. 철종 1년(1850)에 목사 장인식(張寅植)이 창건하여 오흥태(吳興泰)를 배향하였다. 고종 8년(1871)에 철폐하였다.

《增補 耽羅誌》一六 人物조 3 文學

吳興泰 以能文으로 稱이라. 現義士

오흥태(吳興泰)는 문장에 능했다고 칭해졌다. 본서의 의사(義士)에도 수록되어 있다.

"義士吳興泰之閭"
- 위치 : 난산리 416번지(속칭 '웃곰배물' 도로 맞은편)
- 건립연대 : 정조 18년(1794)
- 규모 : 높이 85㎝, 폭 77㎝, 두께 9㎝
- 내용 : 전면

義士吳興泰之閭, (좌측) 上之十八年甲寅七月日巡撫御使原任知製教行濟州牧使沈樂洙教謹記 上之十八年甲寅四月 日命旌

의사 오흥태지려,
우리 임금님 등극하신지 열여덟째 해인 갑인년 칠월에 순무어사이며 일찍이 지제교(知製教)의 벼슬을 지낸 바 있는 제주목사 겸 전라도수군방어사, 신 심낙수(沈樂洙)가 교서를 받들어 삼가 기록함.
우리 임금 18년(정조 18:1794) 갑인(甲寅) 4월에 정려의 명이 있었음

자료 2. 의사 오공 흥태전[19)]

선비가 초야에 묻혀 살면서도 임금에 충성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이 늙을수록 씩씩하고 어려울수록 굳어져 가히 삼군을 빼앗고 시퍼런 칼날을 밟을 수 있으니 의기가 있는 것이로다. 이런 고로 도가 행해지지 않고 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그 남긴 바람과 남은 운취가 혹 만세에 뻗치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난리가 일어 뒤범벅이 된 때에 먼저 창의(倡義)의 소리를 높여 사기를 격려하였으니 뒷 자제들로 하여금 감발하여 일어나게 한 것을 나는 오공에게서 들었다.

아! 공은 일개 초라한 선비일 뿐이지만 문장이 세상을 울리고 기상과 절개가 하늘에서 나왔으니 마땅히 성조에 크게 쓰여야 하건만 다만 바다 멀리 떨어져 있어 명성이(조정에) 이르지 못하고 작록이 없었으니 또한 천명인 것이다. 일평생 강개하고 분예하여 절의를 세워 의리에 죽을 뜻이 있었다.

영조 임금 무신년에 역적의 괴수가 난을 일으켜 기호(畿湖)가 놀라고 팔방이 술렁였다. 이때를 당하여 나라 형편이 위태로웠는데 공이 변란의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사람의 큰 인륜이란 아버지에 있어서는 아버지를 위하고, 임금에 있어서는 임금을 위함이 오직 그곳을 위해서만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새와 짐승의 무리에서 가려질 것인가? 황차 우리 제주민은 계갑(癸甲)의 해에 배고픔을 당하였을 때 정종모발(頂踵毛髮)에 우리 정조의 은혜가 미치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이 어려운 때를 당하여 어찌 안연할 수가 있는가, 몸은 날아오는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전진(戰陣)에서 차라리 의리에 죽을지언정 적과 같이 더불어 살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삼읍에 격문을 띄워 의병 수백인을 모집하였는데, 미처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적의 괴수는 잡히고 승전한 소식이 이르렀다.

공이 뜻했던 바가 비록 때늦은 한탄은 있었지만 그 격문이 남아있어 늠름하게 그 의기는 오래도록 죽지 않았다. 정조(正祖) 임금 갑인년(1794)에 어사가 정려할 것을 계청하고 대서(大書)하여 ‘의사의 정려가 어찌 장하지 아니한가’ 하였다.

19) 장령 고명학(高鳴鶴) 지음

아름답다. 고을 이름(옳음을 내세워)을 정의(旌義)라 한 것은 옛날 일이다. 공이 백년 뒤에 (그 이름에) 부합됨이 있으니 옛날에 이름 지을 때에 과연 선견지명이 있었던가. 그렇지 아니하면 천도가 우연히 합하여져서 였는가?

나는 진실로 천지의 순수하고 굳센 기운이 한 처사(處士)에게 맺혔음을 알겠도다. 우리 임금님께서 풍속을 심고 가다듬는 은전이 지극하고 진미(盡美)하구나.

마침내 그의 주손(主孫) 몽상(夢相)의 집에서 찢어진 옛날 종이 한 장을 보니 어사 심공이 지은 기문이라. 내가 이에서 느낌이 있어 책 한 권을 단장하고 그 기문을 베껴 나의(의사에 대한) 글과 시문을 적고 이름하여 '정의록'이라 하였다.

우리 고향사람들이 거의 보고 느껴 흥기함이 있을 것이다.

자료 3. 오의사 창의 격문

다음과 같이 격문을 띄우는 일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임금과 어버이이요, 귀한 것은 충성과 효도일 뿐이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임금과 어버이가 비록 같지 않다 하나 충성과 효도는 둘이 될 수 없다 하였다. 이를 두고 볼 것 같으면 사람이 신하 되고 아들 된 자는 임금과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구차하게 살려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혹시라도 아들이 아버지의 위급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신하가 임금의 어려움을 풀려고 먼저 서둘지 아니한다면 충효의 마음에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소나 말과 같은 무리가 될 것이니 어찌 경계치 아니하랴!

우리 임금님은 숙종의 아들이며 경종의 동생으로 백성들의 노래 부름(원하는 바)에 따라 대통을 계승하였다. 또 요임금과 같은 자질을 타고 나셨고 탕임금이나 무왕과 같은 덕을 지녀 임금님이 되신 지 사년 만에 은택이 모든 백성에게 적셔들었다. 그러므로 나라 안 백성들은 모두 다 죽지 않고 오래 살아서 그 덕화가 성대히 이루어짐을 잠시라도 보고자 아니하는 이가 없었다.

천만 뜻밖에 흉적의 무리가 응큼한 마음을 품고 신기(神器 : 신령스런 그릇, 임금의 자리)를 엿보려고 무리를 모아 경기도와 영남에서 발호하였다. 구정(九鼎 : 우왕이 주조한 솥. 하나라 은나라에서 천자의 보물로 보존되었음)을 가벼이 여겨 묻고자 하였고, 머리를 내밀어 삼천(三川 :

한강, 낙동강, 섬진강)을 엿보니 어리석고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따라야 하고 거절하여야 할 의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왕왕 그 무리에 들어가 삼남지방 태반이 적의 소굴이 되었다 한다.

아! 어찌 이와 같은 세상이 되었는가?

수천년 전해 온 기자의 나라요, 삼백년 이어 온 우리 조정의 예의와 문물이 조금도 중국에 비하여 부끄러움이 없었고, (임금님의)깊은 어짐과 두터운 은택이 실제로 백성에게 적셔져 있어 흉악한 무리가 그 사이에서 물들여질 줄은 일찍이 생각하지 못하였다.

통분할 일이며 한탄할 일이다.

지금 적의 괴수가 불괴를 도모하여 하늘을 거역하는 악한 일을 시작하였으니, 어찌 조정의 장군이나 정승들만이 절치부심할 도적들인가. 실로 온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같은 하늘 아래서 만은 살 수 없는 원수인 것이다. 우리나라 364현 가운데 강개하고 충의로운 선비가 먼 시골구석에서 반드시 일어나 국가의 위급함에 몸 바쳐 충분히 적을 평정할 것이다.

우리 제주도는 육지와 달리 오래도록 잊지 못할 (국가의) 은덕을 입었다. 지난 계사년(숙종 39년 : 1713)과 갑오년에 흉년을 당하여 굶주릴 때 우리 숙종대왕께서 특별히 곡식을 보내어 은덕을 베풀었으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처자를 보전할 수 있었으니 모두 임금님이 내려준 바가 아님이 없다.

초목금수도 오히려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내려주는 은혜를 알거늘 항차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유독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지금이 임금님이 위태롭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라 신하가 목숨을 바치기에 알맞은 때이다. 위 아래 모든 사람들이 선왕을 잊지 못하는 마음으로 전날 구원하여 준 은혜를 생각하여 가지런히 전쟁터로 나아가 적진과 맞부딪쳐 우리 임금님께 보답하지 않겠는가?

옛날 진(秦)나라 목공이 기산 아래 사는 야인들과 밥을 같이 먹고 말을 같이 타면서도 법을 집행할 때에는 마땅한 벌을 주었다. 그러나 목공이 술을 하사하였던 일을 감사히 생각하여 접전에 나아가 진(晋)나라 군사를 무찔러 목공의 은혜에 보답하였다.

어찌 만고에 아름다운 이름이 아닌가?

야인의 무리도 이와 같이 하는데 두루 국가의 은택을 입은 우리 섬 안 백성들이 어찌 야인의 무리만 못하여 국가의 어려움에 몸 바쳐 성스러운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겠는가?

우리들 백면서생은 임금을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순국을 결의하였으나 적을 제압할 재주

와 임기응변할 책략이 없이 망령되게 근왕(勤王)의 뜻을 내었다 하여 함께 국난에 나아갈 자가 없으니 진실로 통탄할 일이다. 그러나 백성과 신하된 사람이 국가의 어려운 때를 당하여(국가를 위하여) 죽으면 영광된 일이지만, 흉악한 칼날이 횡행할 때에 살아남는다면 또한 욕이 된다.

옛사람은 성공과 실패, 무기의 날카롭고 둔한 것은 의론할 것이 못된다고 말했다. 만약 싸움에 이기고 질 것과 한 몸이 죽고 살 것을 헤아려 그에 따라 나가고 물러선다면 어찌 충신의사의 마음이라 하겠는가?

이에 삼읍(三邑)의 각반(各班), 각청(各廳), 각 면, 각 리에 격문을 보내어 진실로 충의롭게 한 몸을 잊고 나라에 몸 바칠 자가 있으면 맹세코 더불어 행하려 한다.

나의 말을 우활하다 하여 머뭇거려 바라보지만 말고, 또 한번 죽기가 어렵다 하여 늦추어 임금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에서 하는 말이니 혈기 있는 대장부는 어깨를 펴고 뛰어나와 의로운 함성을 함께 외치고 국가의 어려움에 부딪쳐 죽든지 살든지 하여 준다면 다행함이 이루 다할 수 없겠다.

자료 4. 의사오공정려기

"義士吳公旌閭記"

古史國難起義討賊者雖自疎遠皆嘗備官間有韋布亦出世家事雖不成人皆慕義知忠閱百世而不泯若我 朝前後國亂忠臣義將接踵相望至戊申逆變賊勢糾結內外交煽湖嶺之間朝士之起義者多而耽羅義士吳君興泰窮溟絶域草莽之一寒儒耳手草檄倡島中聚數百人將渡海亂定而止此固從古簡牒之所未聞也其文尙存則其心不死其略曰忠孝無二致子而不救父之危臣而不死君之難無異禽獸也今凶逆之徒竊發畿湖無識之民不辨逆順三南半爲逆藪四方忠義之士必有奮發殉國此賊不足平而惟我島民幾乎盡劉於癸甲之凶特蒙賑救之恩父母妻子得以至今日以先王不忘之心追疇昔拯濟之恩齊赴國難以死報之當 國家危難之時死則爲榮値凶鋒橫肆之日生亦爲辱成敗利鈍非所當論也其文激切嚴正有足感人義士死無後有從子景觀以檄文請跋於故徵士謫居時藏于書院今上十八(七)年癸丑冬

命御史巡撫島中臣膺命越海巡行至旌義縣一老人垂黃髮呈一斷簡卽義士之從子景觀而所呈則其檄文也烟煤殘缺幾不辨讀而森然義氣爍如一日奏狀 聞 上敎若曰旌義吳興泰之爲國忠義尙今蔑無旌異實爲欠事特令繡衣就吳興泰之旌閭之曰義士仍令繡衣撰紀績之語州人之過其閭者乘者必式行者持點爲百代樹風聲之一助臣奉 命旌其閭退而語士民曰秉彝所同得也彼亨厚祿居高位者或有先倡凶謀潛連賊勢又或有徘徊顧瞻以觀成敗方其時自以爲得計而或受顯戮皆不免百世之陰誅義士之以寂寥短簡終被旌褒於六十七年之後者可見天理之不可誣而世人之觀感而知戒者其在此矣 國法旌表之典無實績則不許殉國則表以忠臣我 聖上樹風勵世之意特以義士一片空文謂有殉國之志而旌異之此固千古曠絶之擧而島人奔走聳觀皆言邑名旌義今乃有符無不油然起感欣然如得從此環島之人皆知忠義之可慕相勸以親上死長之義矣於乎休哉

上之十年甲寅七月 日 巡撫御史原任知製敎行濟州牧使兼全羅道水軍防禦使臣沈樂洙奉 敎謹記

의사오공정려기[20]

옛 역사를 보면, 나라가 어려웠을 때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한 이는 먼 데의 일이거나 오래된 일이라도 모두 관청에 기록되어졌다가 역사에 나타난다. 또한 일이 비록 성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두 의리를 사모하고 충절을 알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의 전후 병란에는 충성된 신하와 의로운 장군이 호국의 큰 뜻을 위해 서로 발을 붙여 일어났다. 1728년(무신년)에 이르러서는 역적이 안과 밖에 세력을 맺어 영남(嶺南)과 호남(湖南)을 선동하였다. (그 때에) 나라 안 선비들이 의병을 일으킨 자 많았으나, 탐라(耽羅)의 오흥태(吳興泰)는 먼 바다 외진 섬의 가난한 선비일 뿐인데, 손수 격문(檄文)을 초(草)하고 창의(倡義)하여 섬 안에서 수백인을 모아 바다를 건너려 하였다. 그러나 건너가려 할 즈음 난이 평정되었으므로 그만 두었다.

진실로 옛 역사에서 듣지 못했던 일이다. 이 글이 아직 남아있으니 그 (충성스런) 마음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20) 원문과 번역문은 오문복(2010), 『성산읍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42~246쪽.

이 글에 이르기를,

“충성과 효도는 둘이 아니거늘, 아들이 아비의 위태함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임금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신하가) 목숨을 바쳐 구원하지 아니하면 금수(禽獸)와 다를 바 없다.

지금 흉측한 적이 경기(京畿), 호남(湖南)지방을 엿보아 일어남으로 무식한 백성들이 순역(順逆)을 구별할 줄 모르고 그들을 따라서 삼남(三南 : 충청, 영남, 호남)지방 태반이 역적의 소굴(巢窟)이 되었다.

사방의 충의지사(忠義志士)가 분발(奮發)하여 순국(殉國)함이 있었으나 적을 족히 평정하지는 못하였다.

계갑(癸甲)의 흉년에 우리 도민은 진구(賑救)의 특이한 은전을 입어 부모와 처자를 오늘에 보전할 수 있었다.

옛날 선왕이 구원해준 은혜를 잊지 말아 모두 국가의 어려움에 나아가 마땅히 죽음으로써 보답할 것이다.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는 죽는 것이 영광이며, 흉측한 무리가 날뛰는 곳에서는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욕이 되는 것이니, “일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논(論)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 글이 격절(激切)하고 엄정(嚴正)하여 사람들을 넉넉히 감동시킬 수 있었다. 의사(吳興泰)가 죽으매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조카 경관(景觀)이 그 격문을 가지고 귀양살이 온 징사(徵士)의 적거(謫居)에 들러 발문(跋文)을 청하였다. 그 때에 (그 격문을) 서원에 갈무리했다. 그런데 지금 임금이 등극하신 18년(17년의 잘못인 듯)째 해인 계축(癸丑)년 겨울에 어사(御史)를 보내어 섬 안을 순무(巡撫)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신하(沈樂洙 자신)가 명령을 품고 바다를 건너와 순행할 때에 정의현(旌義縣)에 이르니, 머리털이 하얀 한 노인이 한 장의 글을 바쳤다. 그가 바로 의사(義士 吳興泰)의 조카 경관(景觀)이었고, 그 글은 의사의 격문이었다.

연기에 퇴색되어 더러는 분별치 못하였으나, 읽어보니 의로운 기상이 삼연(森然)하여 햇살이 빛나는 것 같았다.

즉시 장계(狀啓)로 임금님께 보고하였더니, 임금께서 이르시기를,

“정의현 오흥태의 나라를 위한 충성심과 의로운 기상을 표창하지 아니한 것은 실로 흠되는 일이다.” 하시고 특별히 어사에게 명하여 오흥태의 정려(旌閭)를 세우되 의사(義士)라 하라 하

시고, 또 어사가 (직접) 그의 사적을 기록하여 지방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을 지날 때는 수레를 탄 사람(귀한 사람)도 반드시 절하고, 지나는 사람(일반 백성)들도 멈추어서 보게 하여 길이길이 좋은 풍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라고 했다.

정려를 세울 명령을 받들고 물러나 (나는) 사민(士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떳떳한 성품(착한 성품)은 하늘에서 받는 바인데, 저희들은 높은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두터운 녹(祿)을 받았으나 어떤 이는 흉모를 먼저 부르짖어 적세에 가담하였고, 어떤 이는 머뭇머뭇하면서 성공할까 실패할까를 관망하여 바야흐로 때에 따라 이익 볼 계획만을 세웠고, 어떤 이는 현륙(顯戮)을 받아 음주(陰誅)를 면치 못했다.

그런데 의사의 초라한 짧은 글이 마침내는 67년 뒤에 정포(旌褒)를 받았으니 하늘의 이치(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이치)는 속일 수 없음이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껴 경계할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라법에 실적(實績)이 없으면 정려 세움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순국(殉國)하였으면 충신으로 정려를 세웠다.

우리 임금께서 특별히 의사의 한 장 글[檄文]을 보시고 "순국할 뜻이 있었다."고 이르며 특별히 표창하였으니 진실로 천고(千古)에 넓고 유례 없는 거사(擧事)인 것이다.

섬 안 사람들이 발을 돋우어 바라보며 모두들 말하길,

"정의(旌義)라는 고을 이름이 옳은 것이 나타나는 고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 나타났다." 하고 유연(油然)히 감발(感發)되지 아니함이 없어, 마치 자기가 한 일 같이 기뻐하였다.

이로부터 온 섬 안 사람 모두가 충의를 사모할 줄 알고 윗사람을 친애하고 상관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의리를 알아야 할 것이다.

아아! 아름답구나.

우리 임금님 등극하신 지 열여덟째 해인 갑인년 칠월에 순무어사이며 일찍이 지제교(知製敎)의 벼슬을 지낸 바 있는 제주목사 겸 전라도수군방어사 신 심낙수(沈樂洙)가 교서를 받들어 삼가 기록한다.





〈사진 16〉 강성익 묘비와 헌수단 전경

성산읍 삼달리 강성익(康聖翊)[21]

성산읍 삼달리에 헌수단(獻壽壇)이라는 곳이 있다. 1983년도에 팔각정(八角亭)의 형태로 다시 재조성하였고, 안에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비문에는

"임금의 은혜가 하늘 같아서, 삼가 단을 세워서 그 은혜를 갚으려 해도 끝이 없네, 엎드려 만수무강을 비옵니다.〔聖恩如天, 謹以設壇, 圖報無地, 拜獻萬壽〕"가 새겨져 있다.

예부터 성산읍 삼달리는 '와갱이'로 불려지다가 지역명이 변경되었는데 강성익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삼달'은 『맹자(孟子)』의 '삼달존(三達尊)'에서 따온 것으로, 곧 "조정에서는 작위를 숭상하고(朝廷莫如爵), 향리에서는 어른을 공경하고(鄕堂莫如齒), 세상에 처해서는 덕을 존중해야 한다.(輔世長民莫如德)"는 의미다.

21) 강성익(康聖翊, 1741~1819)



〈사진 17〉 성산읍 삼달리 강성익 비석

그는 성산읍 삼달리 입촌 시조 강일명의 장남으로 호는 명재(明齋)이다. 인근마을의 학자인 오봉조에게 글을 배우다가 변성우의 문하생이 되어 학문에 정진한 후 1781년 본도의 유생들을 시취할 때 초시에 급제하고, 1783년 문과에 응시하여 병과로 급제한 후 승문원 검교로 기용되었다. 이후 예조좌랑과 이조좌랑 등을 지낸 후 청관으로 사간원, 정언, 사헌부, 지평, 장령(掌令)을 거쳐, 정조 24년(1800) 경상도 사천, 비안 현감, 양덕, 고산, 정의 현감 등을 지냈다.

그가 사천 현감으로 있을 때 좌수가 쇄마전 400냥을 거두어주자,

"내가 단기 재직으로 선정을 다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었는데, 어찌 쇄마전을 받는단 말인가"

하자, 고을 사람들이

"우리 고을 명관이 떠나신다" 하고 주민들이 애석해했다고 한다.

정조 17년(1793) 어사 심낙수가 아뢴 것을 보면

"강성익은 몸소 밭 갈고 나무를 베어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있다" 하고,

부모상을 당해도 애통 망극해가며 거상절차를 가례대로 엄숙하게 치렀다.

정조 18년(1794) 갑인년에는 제주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는데, 도민은 기아에 허덕이고 각 목마장의 국마 3천여 필을 징수하라고 하자, 당시 도내 마필 수가 1,500여필에 불과하여 도난 당하거나 아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장령(掌令)께서는 고향에 내려오시던 길에 도민들이 어려워 애원하는 사실을 듣고, 없어진 국마 천오백여필을 변상할 능력이 없다고 국왕께 상소하여, 정조는 특명으로 마필 징발을 중지하고 구호양곡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

1814년 제주찰리겸 위유어사 이재수가 내도하여 부모를 섬기고 도리를 다하고 강단을 지어 후진을 계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상계하니 다시 관직에 재등용 되었다. 그는 순조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정결한 곳에 헌수단(獻壽壇)을 세우고, 아침저녁으로 북향배례하고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빌었다.[22)]

또 그가 지은 『명환사실록(名宦事實錄)』과 1814년에 조성한 헌수단에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나는 해외에서 태어난 천한 신분인데도 임금님의 과분한 은혜로 공명을 떨칠 수 있었다. 공직에 근무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밤낮 조금도 해이함 없이 노력했을 뿐이다. 그러나 능력이 모자라 뜻은 있어도 이루지 못하고 시작해 놓고도 완성하지 못한 일이 적지 않다. 이제 늙어서 다시 뵈올 기회는 없어졌다. 임금님의 은혜를 갚지 않고서는 죽을 수가 없어 집 북녘 동산에 삼가 단(壇)을 세운다"는 내용이다.

22) 성산읍(2005), 『성산읍지』, 828~829쪽.

자료 1. 역사기사

《정조실록》 권13, 정조 6년 1월 기유(12일)조

己酉 輪對 仍召見濟州御史 命文任 科次濟州儒生試券 居首幼學金塘邉景祐康聖翊直赴殿試 先是 遣御史朴天衡 入本島 兼令頒御題試士 收券以來 至是 天衡復命

조정 관료와 만나 의견을 들었다〔輪對〕. 이어 제주어사(濟州御史)를 불러 보고 나서 문임(文任)에게 명하여 제주 유생들이 과거를 본 시험 답안의 성적을 매기게 하였는데, 으뜸을 차지한 유학(幼學) 김용(金塘)·변경우(邉景祐)·강성익(康聖翊)을 직부 전시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어사(御史) 박천형(朴天衡)을 보내어 본도(本島)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겸하여 어제(御題)를 반포하여 시사(試士)한 다음 시권을 거두어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박천형이 돌아와 보고하였다.

《정조실록》 권54, 정조 24년 윤4월 무인(26일)조

戊寅..... 前持平康聖翊上疏曰 濟州之頻値歉荒 軫沿邑之移粟 自備局移關本州 設庫收穀 豫備饑歲 故其時牧使 辦備數千石穀 新設別庫 分置三邑 爲島民救荒之策 第念本州自春至秋 颶風瘴雨 無日不作 雖村閭房室之內 甕甖包橐之儲 未及數年 腐敗生綠 隨手糜粉 竟爲不可食之物 自古島中無儲穀 良由於此 又況土築之庫 委積之穀 安保其經霾不敗歷歲不腐乎? 島民之無知 皆以爲'此後賑政 惟靠於是移來一節 其路永塞 數萬民口 將何所恃乎 衆口一談 爭言不便 臣竊以爲新庫所儲 量宜變通 以其他逐年糶糴之穀 擇取其精實者 換置新庫 歲一改色 則於此於彼 兩全而無害 伏乞令廟堂稟處 且以本州國馬欠縮言之 甲乙之歉 前古(已)〔未〕有人命之重 未遑相保 牛馬之賤 尤無可論 國屯之故弊 至於一千五百零 其時牧使 以荒年之餘 勢難代徵之由 狀聞 則備局 許寬五年之限 準數徵捧 事 有所關下 今年卽當捧之年 而數年之間 牧卒之飢故 其數夥然 白骨徵出 已

無可言 而徵族徵隣 勢所必至 所謂私畜 十空七八 官令雖嚴 何處貿納乎 邇來國畜漸就蕃息 計今見在之數 比諸甲乙以前之摠 猶爲剩餘矣 臣出海之時 殘氓疲卒之呼訴於船頭者 數日不絶 此實一島之民情 臣何敢有聞不達 批曰 爾以侍從中在遐外之人 而有此民弊之指陳 甚可嘉也 穀品之設庫備置 其時大臣筵奏 出於爲島民俾免坐待海外之輸致 意固美矣 爾言亦有意見 許令廟堂 草記稟處以爲兩便之地 馬政事 公畜旣蕃於前摠 則何必更徵於牧屬乎 徵族徵隣 其弊自當歸於牧屬外平民寧不矜甚 新倅之尙無一言 可謂溺職 卽令廟堂 關問其剩摠 不卽報司之委折 使之論理狀聞 而回下前 切勿更徵 以爾爲掌令 此後登筵 更以島中事陳之”

무인(戊寅)(전략) 전 지평 강성익(康聖翊)이 상소하기를,

“제주 지방이 자주 흉년을 만나고 연읍(沿邑)에서 곡식을 수송해 오는 폐단을 근심하여 비국에서 본주에 공문을 보내 창고를 설치하여 곡식을 거두어 흉년을 대비하라”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목사가 곡식 수천 석을 마련한 뒤에 별도의 창고를 세 고을에 신설하여 섬 백성의 구황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본주는 봄부터 가을까지 축축하고 후텁지근한 비바람이 없는 날이 없기 때문에 촌가의 방안에 항아리며 자루 속에 놓아둔 곡식이라도 몇 년도 되지 않아 썩어 곰팡이가 생기므로 손만 대면 가루가 되어 끝내 먹지 못할 물건이 되고 마니, 옛날부터 섬 안에 저축해 둔 곡식이 없는 것은 실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또 더구나 흙으로 만든 창고에 많이 쌓아둔 곡식이 장마를 치러도 괜찮고 여러 해를 넘겨도 썩지 않는다고 어찌 보장하겠습니까. 무지한 섬 백성들은 모두 생각하기를

‘앞으로 나라에서 구제해 주는 일은 이 창고만 의지할 뿐 곡식을 옮겨오는 문제는 그 길이 영원히 막히게 되었으니, 수만 명의 백성들이 장차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고, 이구동성으로 그 제도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은 삼가 생각컨대, 새로 설치한 창고에 저축해 둔 것을 적당한 수량을 헤아려 변통하되 꾸어주었다가 받아들인 다른 지방의 환곡 가운데 잘 마르고 알찬 것을 골라 해마다 한 번씩 새 창고의 것과 바꾼다면 이쪽이나 저쪽이 다 온전하여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아울러 본주의 국둔마(國屯馬)의 수효가 감축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인·을묘년의 흉작은 역사상 일찍이 그 유례가 없던 일로서

소중한 인명도 미처 보전하지 못한 판국이라 미천한 마소야 더 말할 나위가 없었으니, 쓰러져 죽은 국둔마의 수효가 1천 5백 마리에 달했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가

"흉년을 치른 뒤라서 형편이 대징(代徵)을 하기가 어렵다."는 사유로 장계를 올리자 비국에서 "5년을 기한으로 그때에 가서 전량 받아들일 것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공문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금년이 곧 받아들여야 할 해입니다.

그런데 몇 해 사이에 굶어 죽은 목졸(牧卒)이 수없이 많아 죽은 사람의 몫으로 징수해 내는 일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겨레붙이나 이웃사람에게 징수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말 형편입니다.

이른바 개인소유로 기르는 것도 열 가구 중에 일곱 여덟 가구는 비었으니 관가의 명령이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어디서 사들여 바치겠습니까. 요즘에 와서 국가 소유로 기르는 말이 차츰 늘어나 현재의 수효를 갑인·을묘년 이전의 수효와 비교해 볼 때 조금 여유가 있는 형편입니다.

신이 육지로 나오려 할 때 뱃머리에서 호소하는 잔악한 백성과 목졸들이 며칠 동안 끊이지 않고 찾아왔으니, 이는 실로 온 섬 안의 민정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한번 들은 일을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시종신 가운데 먼 지방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민폐를 지적하여 아뢰었으니, 매우 가상하다. 곡물 창고를 설치해 비치하자는 것은 그 당시 대신이 연석에서 아뢸 때, 섬 백성을 위해 그들이 육지에서 보내오는 곡식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면하게 해 주자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의도는 사실 좋았는데, 그대의 말도 일리가 있으므로 묘당으로 하여금 초기(草記)로 품처하게 하여 양쪽이 다 편리하게 하겠다.

마정(馬政)에 관한 일은 공축(公畜)이 이미 앞서의 수효보다 늘어났다면 어찌 굳이 또 목졸에게 징수할 것이 있겠는가. 겨레붙이와 이웃사람에게 징수하면 그 폐단은 저절로 목졸 이외의 평민에게 돌아갈 것이니, 어찌 매우 불쌍한 일이 아닌가. 새로 부임한 수령이 아직까지 그에 관해 한마디 말도 없는 것은 그 직무를 유기했다 할 수 있다.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공문을 띄워 그 수효가 남은 사실을 즉시 해당관부에 보고하지 않은 곡절을 묻고 그로 하여금 조리 있게 장계로 보고하게 할 것이며 회답이 내려가기 전에는 절대로 더 징수하지 말게 하라. 그대를 장령으로 삼겠으니 나중에 연석에 올라올 때 다시 섬 안의 일을 아뢰어라." 하였다.

《정조실록》 권54, 정조 24년 윤4월 신사(29일)조

辛巳次對……又啓言 前持平康聖翊上疏 濟州儲穀事 近聞穀品精實 倉廒堅牢 足可經久 而來頭收效 專在於典守之有方 措置之得宜 糴新糶舊 量宜改色 常使精穀留儲者 乃是第一要道 牧馬事 昨年因該牧使狀請 甲乙耗縮之數 旣令限五年漸次充補 則年限未滿之前 遽以孳長之新籍 移充減損之舊摠 殊非重馬政杜後弊之道 然而旣奉關問之命 請待其登聞 從後稟處 從之

신사(辛巳) 의정(議政), 대간(臺諫), 옥당(玉堂)들이 왕에게 나아가 일을 보고하였다〔次對〕.(전략)〔좌의정 심환지(沈煥之)〕(전략) 또 아뢰기를,

"전 지평 강성익(康聖翊)이 상소한, 제주에 곡물을 비축해두는 사안에 대해 아뢰겠습니다. 요즘 듣건대 곡물이 도글도글하게 영글고 창고도 견고하여 여러 해를 지내기에 충분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성과를 거두는 문제는 오로지 그것을 법도 있게 지키고 사리에 맞게 조치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새 곡식은 들여오고 묵은 곡식은 내보내 적절히 색깔을 바꿔 항상 알찬 곡식이 비축되어 있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목장의 말에 관한 사안은, 지난해에 그곳 목사가 장계로 요청한 것으로 인해 갑인·을묘년에 감축된 수효를 이미 5년을 기한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채워 넣도록 조처하였으니 그 연한이 차기 전에 새로 길러서 늘어난 것을 가지고 지난날 감축된 수효를 충당한다는 것은 결코 마정(馬政)을 중시하고 뒤의 폐단을 막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공문을 띄워 물어보라는 명을 받들었으니 그에 대한 보고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품처하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순조실록》 권17, 순조 14년 4월 기사(8일)조

己巳 濟州察理使李在秀 進釐弊別單 一 還餉及平役庫剩條一竝防塞……一旌義居前縣監康聖翊前察訪高鳴鶴 有行誼 濟州居前武兼高遇泰 嫺於弓馬 生員吳霑 有文藝 竝令收用 孝子濟州良人

林成彦 牧子高允文 旌義將校玄胤慶 烈女濟州故儒生田衡元妻梁氏 故儒生吳隆復妻金氏 大靜故儒生金昌根妻金氏 俱合褒奬 令廟堂採施

기사(己巳) 제주 찰리사 이재수(李在秀)가 폐해를 이정(釐正)한 별단을 올렸는데, 이르기를, "1. 환곡(還穀)과 향곡(餉穀) 및 평역고(平役庫)의 나머지는 일체 방색(防塞)하게 하소서.(중략) 2. 정의(旌義)에 거주하는 전 현감 강성익(康聖翊), 전 찰방 고명학(高鳴鶴)은 행실의 올바름이 있고, 제주에 거주하는 전 무겸(武兼) 고우태(高遇泰)는 궁마(弓馬)에 익숙하고, 생원 오점(吳霑)은 문예가 있으므로 모두 수용토록 하며, 효자 제주의 양인 임성언(林成彦), 목자(牧子) 고윤문(高允文), 정의의 장교 현윤경(玄胤慶)과 열녀 제주의 고(故) 유생 전형원(田衡元)의 처 양씨(梁氏), 고(故) 유생 오융복(吳隆復)의 처 김씨(金氏), 대정의 고(故) 유생 김창근(金昌根)의 처 김씨는 모두 포창(褒奬)할 만하므로 묘당으로 하여금 채택·시행토록 하소서." 하였다.

자료 2. 문헌기사

《耽羅誌草本 冬》 권4, 科宦조

康聖翊 文科 官至庇安縣監

강성익(康聖翊)은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관직이 비안(庇安) 현감에 이르렀다.

《耽羅紀年》 권3, 정조 5년조

秋七月.....別遣按覈御史朴天衡來 試取 文科 賜金鏞邕景祐康聖翊三人

1781년 가을 7월.(전략) 따로 안핵어사(按覈御史) 박천형(朴天衡)을 보내어 과거를 봐 선비들을 뽑으니, 문과(文科)에 김용(金鏞)·변경우(邊景祐)·강성익(康聖翊) 삼인에게 급제를 내렸다.

《耽羅紀年》 권3, 정조 24년조

自甲乙大侵之後 公馬故縮 乃爲三千餘頭 以一千五百頭代徵於牧卒 而餘無賴徵 民多呼冤 至是旌義人康聖翊 以持平 承召赴闕 疏論懇切 王 嘉納特蠲之

갑인년(1794)과 을묘년(1795)의 큰 흉년 이후 공마가 없어져 줄어듦이 삼천여 두(頭)나 되므로 1,500두는 목졸(牧卒)에게 대신 징수하고, 나머지는 징발을 의뢰할 곳이 없어 백성들이 원한을 내뱉음이 많았다. 이에 이르러 정의현(旌義縣) 사람 강성익(康聖翊)이 지평(持平)으로 부름을 받아 입궐해 상소를 올려 논함이 간절하니, 왕이 가상히 여기고 받아들여 특별히 면제하였다.

《增補 耽羅誌》 一六 人物조 1 科宦

正祖朝에 文科로 官이 持平에 至하다. 當時에 公馬故縮이 三千餘頭라 一千五百頭는 牧卒의게 代徵하였으나 餘는 賴徵할수가 無함으로 民多呼冤이라. 公이 持平으로 承召赴闕하야 疏論이 懇切함으로 王이 嘉納하야 特히 蠲免하다.

강성익(康聖翊)은 정조(正祖) 때 문과에 급제하고 관이 지평(持平)에 이르렀다. 당시에 공마가 없어져 줄어듦이 삼천여 두(頭)라, 1,500두는 목졸(牧卒)에게 대신 징수하였으나, 나머지는 징발을 의뢰할 곳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원한을 내뱉음이 많았다. 공이 지평(持平)으로 부름을 받아 입궐해 상소를 올려 논함이 간절하니, 왕이 가상히 여기고 받아들여 특별히 면제하였다.

자료 3. “獻壽壇”

- 위치 : 삼달1리 172번지 맞은편(삼달~성읍 간 마을 안 도로변)
- 건립연대 : 순조 4년(1804)
- 규모 : 높이 63㎝, 폭 34㎝, 두께 8㎝
- 내용 :



〈사진 18〉 헌수단 입구

전면

“獻壽壇”

후면

“聖恩如天

圖報無地

謹以設壇

拜獻萬壽

上之卽位 五年 甲子 四月 三日 微臣 康聖翊”

(전면)

헌수단

(후면)

임금님의 은혜가 하늘과 같아

보답할 길 없어

삼가 단을 만들어

만수무강을 빕니다

왕(순조)의 즉위 5년 갑자(1804)

5. 입도조




〈사진 19〉 표선면 가시리 청주한씨 서재공 한천의 묘와 사당

청주한씨 서재공 한천(韓蕆)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는 청주한씨 제주 입도조 묘역과 청주한씨 제주 문중회 충의사당 등이 잘 조성되어 있다. 서재공 한천의 현손 계로의 묘인「가시리 설오름 방묘」가 방형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60-2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유충협찬공신(惟忠協贊功臣) 광정대부(匡靖大夫) 휘(諱) 대형(大亨)을 아버지로 동지밀직진현관대제학(同知密直進賢舘大提學) 전신(全信)의 따님이신 천안전씨(天安全氏)를 어머니로, 여말(麗末) 한문(韓門)의 종손(宗孫)으로 태어나서 가통(家統)을 승계(承繼)하고 과거(科擧)에 등제(登第)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다.

공민왕(恭愍王) 14년(1365) 10월 전리판서(典理判書) 한천(韓蕆)이 시관(試官)이 되



〈사진 20〉 표선면 가시리 서재 한공 휘 천 유허비

어 고부(古賦)로 민안인(閔安仁) 등 55인과 십운시(十韻詩)로 임간(林幹) 등 41인을 취(取)하였고, 공민왕(恭愍王) 20년(1371) 경상도 도순문사(慶尙道都巡問使)가 되고, 우왕(禑王) 2년(1376)에 홍륜(洪倫)의 난(亂)으로 종제(從弟)인 문경공(文敬公) 수(脩), 충간공(忠簡公) 리(理)와 함께 원주(原州)에 유배(流配) 후에 풀려나와서 신돈(辛旽)을 주(誅) 할 것을 고하였다.

공양왕(恭讓王) 3년(1391)에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이 되었고, 공양왕(恭讓王) 4년(1392) 칠월 역성혁명(易姓革命)이 일어나자 공양왕(恭讓王)은 원주(原州)로 쫓겨났고, 사위인 단양군 우성범(丹陽君 禹成範)·진원군 강회계(晋原君 姜淮季)는 참살(斬殺)당하고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 한천(韓蕆)은 유

배(流配)되었다.

『충간공유사(忠簡公遺事)』에는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를 비롯하여 많은 반혁명 세력이 꺼져가는 고려(高麗)의 등불을 다시 일으키려 하였으며, 서재공(恕齋公) 휘 천(諱蕆)과 충간공(忠簡公) 휘 리(諱理)는 불사이성(不事二姓)의 절개를 지켰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태조 2년(太祖二年) 이성계는 교지(敎旨)를 내려 말하길 "전판개성부사(前判開城府事) 한천(韓蕆) 등 71인은 역성(易姓)혁명(革命)에 동조(同朝)하여 그 공이 적지 않으니 그 포상하는 은전(恩典)을 유사(有司)는 거행하라" 하였고, 원종공신(原從功臣)을 주고 판3사사(判三司事) 벼슬을 주면서 치사(致仕)하였다.

오히려 불사이성(不事二姓)하여 제주(濟州)에 낙향(落鄕)한 후 표선면 가시리(表善面 加時理)에 정착(定着)하여 훈민시덕(訓民施德)과 교사입약(敎士立約)하여 오늘의 가시대촌(加時大村)이 설촌(設村)되었다는 사실은 유허지(遺墟地)와 남아있는 지명(地名) 등에서 충분히 입증(立證)되고 있다.

자료 1. 역사기사

《고려사》 권43, 공민왕 20년 2월 갑자(10일)조

甲子 以韓蕆爲慶尙道都巡問使, 楊伯顔爲全羅道都巡問使

갑자 한천(韓蕆)을 경상도도순문사(慶尙道都巡問使)로, 양백안을 전라도도순문사(全羅道都巡問使)로 임명하였다.

《고려사》 권46, 공양왕 3년 12월 병자(24일)조

丙子 以李穡爲韓山府院君·領藝文春秋館事, 禹玄寶爲丹山府院君, 韓蔵判開城府事, 姜淮伯爲政堂文學·兼司憲府大司憲, 尹就知密直司事, 安景恭爲藝文館提學, 禹洪壽同知密直司事, 成石瑢爲密直副使, 李士渭爲西海道都觀察使, 姜隱爲楊廣道都觀察使, 朴永忠爲漢陽府尹, 兪光祐爲雞林府尹, 皇甫琳爲全羅道節制使, 李詹知申事, 李士穎爲右副代言, 韓理·鄭寓並爲吏曹判書, 鄭洪爲兵曹判書, 全五倫爲刑曹判書, 洪彦脩爲工曹判書, 金震陽·李擴爲左右散騎常侍, 全伯英·李來爲左右司議, 徐甄爲司憲掌令, 金爾音爲門下舍人, 李敢·權弘 爲左右獻納, 李申爲持平, 安從約爲右正言. 加賜我太祖及沈德符·鄭夢周安社功臣, 偰長壽·趙浚·成石璘定難功臣之號

병자 이색(李穡)을 한산부원군 영예문춘추관사(韓山府院君 領藝文春秋館事)로, 우현보(禹玄寶)를 단산부원군(丹山府院君)으로, 한천(韓蔵)을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로, 강회백(姜淮伯)을 정당문학 겸 사헌부대사헌(政堂文學 兼 司憲府大司憲)으로, 윤취(尹就)를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로, 안경공(安景恭)을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으로, 우홍수(禹洪壽)를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로, 성석용(成石瑢)을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이사위(李士渭)를 서해도도관찰사(西海道都觀察使)로, 강은(姜隱)을 양광도도관찰사(楊廣道都觀察使)로, 박영충(朴永忠)을 한양부윤(漢陽府尹)으로, 유광우(兪光祐)를 계림부윤(雞林府尹)으로, 황보림(皇甫琳)을 전라도절제사(全羅道節制使)로, 이첨(李詹)을 지신사(知申事)로, 이사영(李士穎)을 우부대언(右副代言)으로, 한리(韓理)·정우(鄭寓)를 모두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정홍(鄭洪)을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전오륜(全五倫)을 형조판서(刑曹判書)로, 홍언수(洪彦脩)를 공조판서(工曹判書)로, 김진양(金震陽)·이확(李擴)을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로, 전백영(全伯英)·이래(李來)를 좌사의(左司議)·우사의(右司議)로, 서견(徐甄)을 사헌장령(司憲掌令)으로, 김이음(金爾音)을 문하사인(門下舍人)으로, 이감(李敢)·권홍(權弘)을 좌헌납(左獻納)·우헌납(右獻納)으로, 이신(李申)을 지평(持平)으로, 안종약(安從約)을 우정언(右正言)으로 임명하였다. 우리 태조(太祖, 이성계) 및 심덕부(沈德符)·정몽주(鄭夢周)에게는 안사공신(安社功臣)을 더하여 하사하고, 설장수(偰長壽)·조준(趙浚)·성석린(成石璘)에게는 정난공신(定難功臣)의 호를 더하여 하사하였다.

《고려사》 권46, 공양왕 4년, 7월조

斬丹陽君禹成範, 晋原君姜淮季于會賓門外, 我太祖聞之, 大怒止之, 不及. 流贊成事成石璘, 政堂文學李元紘, 菁城君姜蓍, 藝文館大提學韓蔵, 密直提學成石瑢

단양군(丹陽君) 우성범(禹成範)과 진원군(晋原君) 강회계(姜淮季)를 회빈문(會賓門) 밖에서 참수하였는데, 우리 태조(太祖, 이성계)가 듣고 크게 노하여 중지시키려고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였다. 찬성사(贊成事) 성석린(成石璘), 정당문학(政堂文學) 이원굉(李元紘), 청성군(菁城君) 강시(姜蓍),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한천(韓蔵), 밀직제학(密直提學) 성석용(成石瑢)을 유배 보냈다.

《고려사》 권74, 선거2(選擧 二), 과목, 공민왕 14년 10월조

十四年十月 典理判書韓蔵取古賦閔安仁等五十五人, 十韻詩林幹等四十一人

공민왕 14년(1365) 10월에 전리판서(典理判書) 한천(韓蔵)이 고부(古賦)로, 민안인(閔安仁) 등 55명, 십운시(十韻詩)로 임간(林幹) 등 41명을 뽑았다.

《고려사》 권131. 열전, 홍륜전

洪倫

洪倫南陽人侍中彦博之孫 恭愍王選年少貌美者寘子弟衛 倫與韓安權瑨洪寬盧瑄等皆屬焉 以淫穢得幸 倫等常直禁中 或終歲不得休沐 皆懷怨懟 .....禑王二年.....(禑王)命誅師禹彝方信鏞穡師普及安兄休弟寧烈瑨兄定住瑄兄楨弟鈞寬弟憲, 流倫族洪師瑗洪彦猷彦修韓蔵柳龍生瑨族權鎬權適權鑄權澣權湛安族韓脩韓理等遠州 以萬生倫首惡, 幷流姨子姑子

홍륜

홍륜은 남양(南陽)사람이며 시중 홍언박(洪彦博)의 손자이다. 공민왕이 일찍이 얼굴이 아름다운 소년 자제를 선발하여 자제위(子弟衛)에 두었는데 홍륜, 한안(韓安), 권진(權瑨), 홍관(洪寬), 노선(盧瑄) 등이 모두 이에 속했으며 음탕하고 추악한 짓으로 왕의 총애를 얻었다. 홍륜 등은 항상 궁중에서 숙직하였는데 때로는 한 해가 다 지나도 휴가를 주지 않아서 모두 내심으로 원망하고 있었다.

(중략) 우왕(禑王)은 홍사우(洪師禹)·홍이(洪彝)·한방신(韓方信)·김용(金鏞)·노진(盧稹)·홍사보(洪師普) 및 한안(韓安)의 형 한휴(韓休)와 아우 한녕(韓寧)·한열(韓烈), 권진(權瑨)의 형 권정주(權定住), 노선(盧瑄)의 형 노정(盧楨)과 아우 노균(盧鈞), 홍관(洪寬)의 아우 홍헌(洪憲)의 목을 베고, 홍륜(洪倫)의 친족 홍사원(洪師瑗)·홍언유(洪彦猷)·홍언수(洪彦修)·한천(韓蕆)·유용생(柳龍生), 권진의 친족 권호(權鎬)·권적(權適)·권주(權鑄)·권한(權澣)·권담(權湛), 한안의 친족 한수(韓脩)·한리(韓理) 등을 먼 지역으로 유배하도록 명령하였다. 최만생과 홍륜은 악당의 수괴(首魁)이므로 이모의 아들과 고모의 아들도 유배를 보냈다.

《고려사》 권132, 열전, 신돈전

前密直副使金精, 與金興祖·趙思恭·兪思義·金齊顔·金龜寶·李元林·尹希宗等, 謀誅旽, 思恭洩謀於所善前洪州牧使鄭暉. 暉與提學韓蕆告春富, 春富入白, 王命繫巡軍獄, 鞫之, 杖流有差. 旽追遣私人於中路, 皆縊殺之. 又以璘·元命, 嘗與思義通書, 皆杖殺之. 凡爲旽所殺者妻子, 不敢訴寃, 廷臣無敢言之. 旽又欲盡殺流人, 訴於王, 遣孫演于慶尙·全羅道, 其黨洪永通謂旽曰 多殺人何益 佛氏罪福報應之說, 亦可畏! 願更思之 旽悟, 更白王召演還

전 밀직부사(密直副使) 김정(金精)이 김흥조(金興祖)·조사공(趙思恭)·유사의(兪思義)·김제안(金齊顔)·김구보(金龜寶)·이원림(李元林)·윤희종(尹希宗) 등과 함께 신돈(辛旽)을 죽일 것을 모의하였는데, 조사공이 친하게 지내던 전 홍주목사(洪州牧使) 정운(鄭暉)에게 모의를 누설하였

다. 정운이 제학(提學) 한천(韓蕆)과 함께 이춘부(李春富)에게 고하자 이춘부가 들어와 아뢰었고, 왕이 순군옥(巡軍獄)에 붙잡아다가 국문하고 곤장을 쳐서 차등있게 유배 보내게 하였다. 신돈이 자기 사람을 보내어 중간에서 모두 목을 졸라 죽였다. 또 조린(趙璘)과 김원명(金元命)이 일찍이 유사의(兪思義)와 편지를 주고받았으므로 모두 곤장을 쳐서 죽였다.

신돈에게 살해당한 사람의 처자식은 감히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였고, 조정의 신하들도 감히 말을 하지 못하였다. 신돈이 또 유배 보낸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고 왕에게 하소연하였는데, 손연(孫演)을 경상(慶尙)·전라도(全羅道)로 보내자 그 당여 홍영통(洪永通)이 신돈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많이 죽인다고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불교에서 죄와 복의 인과응보가 있다는 설이 또한 두려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원컨대 다시 생각하십시오."라고 하자, 신돈이 깨닫고 다시 왕에게 아뢰어 손연을 불러들여 돌아오게 하였다.

《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7월 임신(29일)조

敎曰, 前判三司事姜仁裕、前判開城府事韓蕆等七十一人, 自辛氏竊位, 亂極思治之際, 而安危皆注意於予, 諭德宣譽, 馴致今日, 功亦不細矣。檢校密直副使柳方澤、盧乙俊等十一人, 方卽位之時, 俱在日官, 心不疑貳, 謹卜天時, 勸登大位, 其功亦可尙也。其褒賞之典, 有司擧行。"

교하기를, "전 판삼사사(判三司事) 강인유(姜仁裕)·전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한천(韓蕆) 등 71인은 신씨(辛氏)가 왕위를 도적질하여 세상이 극도로 어지러워 다스려지기를 생각하던 때부터 세상의 안위(安危)를 모두 나에게 뜻을 두고서 도덕을 가르쳐서 깨우치고 좋은 평판을 선포하여 오늘날이 있게 하였으니 공이 또한 작지 않았으며, 검교밀직부사(檢校密直副使) 유방택(柳方澤)·노을준(盧乙俊) 등 11인은 내가 막 즉위(卽位)하던 때에 모두 일관(日官)으로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천시(天時)를 삼가 점쳐서 대위(大位)에 오르기를 권고했으니, 그 공 또한 높일 만하다. 그 포상(褒賞)하는 은전(恩典)을 유사(有司)는 거행하라."

《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6월 갑오(1일)조

非功臣而封君者皆罷 以權仲和爲判門下府事致仕 李居仁 權禧 韓蔵 崔永沚 慶補 皆爲判三司事致仕

공신이 아닌데도 군(君)에 봉해진 자는 모두 파하고, 권중화(權仲和)로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를 삼아 치사(致仕)하게 하고, 이거인(李居仁)·권희(權禧)·한천(韓蔵)·최영지(崔永沚)·경보(慶補)를 모두 판삼사사(判三司事)를 삼아 치사(致仕)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5월 정유(21일)조

放淸城君 鄭擢于海豐。初, 擢奪內侍別監盧績奴婢, 績擊申聞鼓。上使司憲府治之, 憲府直績, 請罪擢。上謂朴錫命曰: “擢, 開國功臣, 且於經筵侍講, 功可掩罪。然法亦不可廢也, 如有農庄在都門外者, 放之。” 錫命對曰 海豐有農舍, 去都城三十里。上曰 甚可 司憲府上疏曰 淸城君 鄭擢, 再爲功臣, 致位宰輔, 其祿秩之豐, 土田臧獲之多, 無與比者。卒檢校侍中韓蔵, 巨富而無嗣, 擢在諸姪之中, 不顧兄弟之序, 惟以威力, 奪占其田庄財物, 恬不爲愧, 猶以爲不足, 乃以微劣人盧績之奴婢, 接續韓蔵之賤案, 恃力擅奪。其陰譎貪冒之罪, 不可不懲, 故臣等前日啓聞請罪, 殿下以功臣之故, 止置農庄, 豈有懲艾之心哉 殿下不忍繩之以法, 則許令奪其職牒, 置之邊鄙, 以待自艾, 以警其他

청성군(淸城君) 정탁(鄭擢)을 해풍(海豊)으로 내쳤다. 처음에 탁(擢)이 내시 별감(內侍別監) 노적(盧績)의 노비를 빼앗으니, 적(績)이 신문고(申聞鼓)를 쳤다. 임금이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니, 헌부(憲府)에서 적을 옳게 여기고, 탁에게 죄 주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박석명(朴錫命)에게 이르기를, “탁(擢)은 개국공신(開國功臣)이고, 또 경연(經筵)에서 시강(侍講)하였으니, 공(功)이 죄(罪)를 가릴 만하다. 그러나 법(法)도 또한 폐할 수 없다. 만일 농장(農庄)이

도성 문밖에 있는 것이 있으면 그곳으로 내쳐라." 하니, 석명이 대답하기를, "해풍(海豊)에 농사(農舍)가 있는데, 도성에서 30리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대단히 좋다고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소하기를, "청성군 정탁은 두 번이나 공신이 되었고, 벼슬이 재보(宰輔)에 이르렀으니, 녹질(祿秩)의 풍족함과 토전(土田)·장획(臧獲)의 많음이 그와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검교 시중(檢校侍中) 한천(韓蕆)이 거부(巨富)로 아들이 없었는데, 탁(擢)이 여러 조카들 가운데에 끼어 있어, 형제의 차서도 돌보지 않고 오직 위력(威力)으로 그의 전장(田庄)과 재물(財物)을 빼앗아 점유(占有)하고,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여, 미천하고 용렬한 노적(盧績)의 노비(奴婢)를 한천(韓蕆)의 천안(賤案)에 접속(接續)시켜 힘을 믿고 함부로 빼앗았으니, 그 음휼(陰譎)하고 탐오(貪汚)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 등이 전일에 계문(啓聞)하여 죄 주기를 청하였사온데, 전하께서 공신(功臣)이라 하여 다만 농장(農庄)에 안치(安置)하시니, 어찌 징계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차마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신다면 그 직첩(職牒)을 빼앗고 변방 고을에 안치하도록 허락하시어, 스스로 징계하기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소서." 하였으나, 회답하지 않았다.

자료 2. 최익현(崔益鉉)이 찬(撰)한 서재한공유허비(恕齋韓公遺墟碑)

- 위치 : 가시리 1994-3 한천사당 내
- 연대 : 고종 16년(1879) 8월
- 규모 : 가첨석. 2단방부. 총고 177.0㎝, 비고 127.2㎝, 폭 54.5㎝, 두께 21.8㎝
- 내용 : 恕齋韓公遺墟碑

弋羅之旌義縣加時里 有古恕齋韓公 韓葴 遺墟 漢拏脊脉 連廷起伏 東走六十餘里 至此而平岡長阜 環合分開 地勢平正 瀛洲甲蟬兎撻鳥鷹 諸峯 羅列四衛 眺望佳勝 儘靈境也 今距 五百餘年 其寢廓廚廄書齋點當諸位置 牧老耕叟 尙歷歷指點記傳不忘 如召芾鄭卿焉 苟非公德入人深 功及人遠者 能如是乎 謹按韓氏淸州著族 有諱蘭 佐高麗太祖開國 官至太尉威襄 寔爲公 十世祖 匡靖大夫修文殿太學士監修國史判典理事世子師致仕 諡文憲 諱康 僉議府左司議大夫寶文閣提學知提誥 諱謝 奇宣力佐理功臣上黨府院君 賜鐵券 諡思肅 諱渥 推忠協贊功臣匡靖大夫知都僉議司事 諱大淳 公 府君也 天安全氏同知密直進賢館大提學 諱信 公 外祖也 公 生于麗季 以學行節義 國在掌敷文敎 國凶扶植彝倫 民到于今 受其賜 麗史所載 恭愍王二十年辛亥二月 以韓葴敷慶尙道都巡問使 恭讓王三年辛未 判開城府事 四年壬申七月 王 遜干原州 斬晉〔丹의 오기〕陽君禹成範 普原君姜準〔淮의 오기〕季 大提學韓葴于耽羅者 此實錄也 足徵百世矣 公配 光山金氏 匡靖大夫政堂文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上護軍 章榮公 諱稹 女 生二子 長曰沫 次曰濟 金氏舊譜 旣載公與二子濟州官籍 又可攷公子姓 而獨於韓氏內地全譜 以無後縣錄 何故歟 當時事情 槪可想 己國破君亡 公 幸不死 滅律南流 則遠海僻山 於公心 可謂爰得我所欲 晦響滅影 與世無聞 海旣遠而猶恨未遠 山旣僻而猶恨未僻 爲公子姓者 豈不知乃父祖心事 心以傳心 歷數世未暇問聞於內地修譜 而內地修譜諸公 亦以水陸數千里外 聲息阻絶 遂謂無後也 然金譜官籍 不泯有據 此亦神理妙處 嗣後有修 當採而正之 豈以公德深功 遠而其後不昌大也 螽期椒聊繩繩蕃衍 其麗數千 殆遍一洲 或闡科官 或著孝友 多才藝 多文學 有未艾氣數 報施之天果不或哉 又聞公居於是也 以敎育後進爲己任 後進之勤慢能否 必點考焉 所謂書齋點堂 是其址也 嗚呼 罔爲臣僕 箕聖東來 八條敎民 夷變爲夏 恥事二姓公又南渡 立約敎士 而島漸興學 德雖有深淺 功雖有廣狹 而氣脈相傳 歷數千載 而一揆不亦奇乎

益鉉 適過是墟 竊有感焉 書此以遺 韓氏碑爲之記 崇禎后五己卯仲秋 月城 崔益鉉 謹誌

陽川 許鉀 謹書

歲在 辛巳春 後孫永植文玉錫均鳳澤寵錫晳玶守眞景運癸龍 等 改竪

탐라(乇羅, 곧 제주의 옛 명칭)의 정의현 가시리(旌義縣加時里)에 옛날 서재한공(恕齋韓公) 휘천(諱蕆)이 살다 가신 유허(遺墟)가 있다.

한라산(漢拏山)의 정맥(正脉)이 높고 낮은 지세(地勢)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동(東)쪽으로 육십여리(六十餘里)를 달려 나가다 이곳에 와서 뚜렷한 산과 긴 언덕이 언저리를 둘러싸고 따로 떨어져서 평정(平正)한 지세(地勢)를 이루었다.

영주(瀛洲)·갑선(甲蟬)·토달(兎撻)·조응(鳥鷹) 등 여러 오름(峯)이 전후 좌우에 나열되어 있고 전망이 뛰어나게 아름다워서 가위 선경(仙境)이라 할 만했다.

지금(至今)으로부터 오백여년 전(五百餘年前)에 공(公)이 이곳에 사시었는데, 침실(寢室)과 집울타리, 부엌과 마굿간, 서재(書齋)와 점당(點堂)(講堂)등이 있었던 위치(位置)를 옛 노인(老人)들이 하나하나 똑똑하게 지적(指摘)하고 있다. 옛날 소백감당(召伯甘棠)(소백이 감당나무 아래서 쉬고 갔으므로 사람들이 그 나무를 존경하였다)이나 정공향(鄭公鄕, 공융(孔融)이 정현(鄭玄)을 존경하여 그 마을을 정공향이라 하였음)처럼 대대(代代)로 내려오면서 잊혀지지 않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 공(公)의 유덕(遺德)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고 그 공덕(功德)이 멀리 비치고 있음을 가(可)히 알 수 있다.

살피건데 한씨(韓氏)는 청주(淸州)의 거족(巨族)이다. 고려태조(高麗太祖)의 개국(開國)을 도와서 벼슬이 태위(太尉)에 이른 역위양공(力威襄公)은 공(公)에게 십대조(十代祖)가 되고 광정대부(匡靖大夫) 수문전태학사(修文殿太學士) 감수국사(監修國史) 판전리사(判典理事) 세자사(世子師)를 지내신 문혜공(文惠公) 휘강(諱康) 및 첨의부좌사의대부(僉議府左司議大夫) 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 지제고(知制誥)를 지내신 제학공(提學公) 휘 사기(諱 謝奇) 및 선좌리공신(宣佐理功臣)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으로 철권(鐵券)을 하사(下賜)받은 바 있는 사숙공 휘악(思肅公 諱渥)을 거쳐서 추충협찬공신(推忠協賛功臣) 광정대부(匡靖大夫) 지도첨의사사(直都僉議司事)를 지내신 첨의공 휘대순(僉議公 諱大淳)은 공(公)의 아버지요, 천안김씨동지밀직진현

관대제학 휘신(天安金氏同知密直進賢館大提學 諱信)은 공(公)의 외조부(外祖父)이시다.

공(公)은 고려말기(高麗末期)에 태어나시어 학문(學問)과 덕행(德行)이 뛰어나신 절의(節義)의 인물(人物)로써 나라가 있을 때는 문교(文敎)를 관장(管掌)하였고, 나라가 없어지자 강상(綱常)과 윤리(倫理)를 바로 세웠으니 백성(百姓)들이 지금(至今)까지도 그 혜택(德澤)을 입었다.

고려사(高麗史)에 기재(記載)된 바로는 공민왕 이십년 신해이월(恭愍王二十年 辛亥二月)에 한천(韓蕆)이 경상도도순문사(慶尙道都巡問使)가 되었고, 공양왕 3년 신미(恭讓王三年 辛未)에 개성부사(開城府事)가 되었다.

1392년 임신(壬申)7월에 공양왕(恭讓王)을 원주(原州)에 방치하고 단양군 우성범(丹陽君禹成範)과 진원군 강회계(晋原君 姜淮季)를 회빈문(會賓門) 밖에서 베고 예문관대제학 한천(藝文館大提學韓蕆)을 탐라(耽羅)에 유배(流配)했다고 하였다. 이것이 실록(實錄)으로서 후세(後世)에 가(可)히 고증(考證)이 될 만하다. 공(公)의 배위(配位) 되시는 광산김씨(光山金氏)는 광정대부정당문학(匡靖大夫政堂文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상호군(上護軍)을 지내신 장영공 휘전(章榮公 諱槙)의 따님이시며 이자(二子)를 낳으시니 장남(長男)은 말(沫)이요, 차남(次男)은 제(濟)인데 이는 광산김씨(光山金氏)의 족보(族譜)와 제주관적(濟州官籍)으로 가(可)히 공(公)의 후손(後孫)이라는 것을 고증(考證)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내지(內地)에서 간행(刊行)한 한씨족보(韓氏族譜)에는 마치 서재공(恕齋公)의 후손(後孫)이 없는 것처럼 되어있는가. 이것은 그 당시(當時)의 사정(事情)으로 보아 가(可)히 상상(想像)할 수가 있다.

나라가 망(亡)하고 임금이 없어져서 간신히 죽음만을 면하여 감형(減刑)으로 남(南)쪽 섬에 유배(流配)되었는데 멀리 떨어진 바다와 한라산(漢拏山) 깊은 산(山) 속이 오히려 공(公)의 마음에 들었으리라. 아니 지난날의 잔영(殘影)을 씻고 세상만사(世上萬事)를 잊고 싶었으리라.

바다가 멀다하나 더욱 더 멀리 떨어지지 못한 것이 한(恨)스럽고, 산(山)이 깊다하나 오히려 더 산(山) 속 깊이 가고 싶었으리라. 공(公)의 후손(後孫)들이 어찌 부조(父祖)의 이러한 비통(悲痛)한 심정(心情)을 모르겠는가.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여러 대(代)를 육지(陸地)와의 소식(消息)을 끊고 살았으며 또 내지(內地)에서 족보(族譜)를 편수(編修)하던 제공(諸公)들도 역시(亦是) 수륙수천리(水陸數千里)밖에 떨어진 제주(濟州)에까지 내왕(來往)할 수가 없고 소식(消息)이 끊겼기 때문에 후손(後孫)이 없는 것으로 생각(生覺)한 것이다.

그런데도 광산김씨족보(光山金氏族譜)와 제주관적(濟州官籍)에 의하여 그 증거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으니 이것 또한 신묘(神妙)한 이치(理致)이다. 앞으로는 족보(族譜)에도 사관계(嗣關係)가 당연히 바르게 수정(修正)될 것이다. 공(公)의 공덕(功德)이 그렇게도 심원(深遠)한데 어찌 후손(後孫)들이 창성(昌盛)하지 않으리오. 메뚜기(螽斯) 같이 후추(胡椒)의 씨 같이 자손(子孫)들이 번성(繁盛)하여 수천(數千)을 헤아리고 영주사백리(瀛洲四百里)를 혹(惑)은 관사(官史)로, 혹(惑)은 효자(孝子)로, 혹(惑)은 기술(技術)로, 혹(惑)은 문학(文學)에 드러나서 바야흐로 일어나서 그치지 아니한 기세(氣勢)가 있으니 하늘의 보답(報答)이 과연(果然) 없지 아니하다.

또 공(公)이 이곳에 온 후(後)에 후진(後進)들의 교육(敎育)을 자기(自己)일로 알았으며 제자(弟子)들의 근면(勤勉)과 태만(怠慢) 등(等)을 열심히 점고(點考)하였는데 이른바 서당(書堂)터·점당(點堂)터 등(等)이 옛날 그 자리였다고 들었다.

오호(嗚呼)라 주(周)나라의 신복(臣僕)되기를 마다하여 기성(箕聖)은 우리나라에 와서 입조지교(入條之敎)를 베풀어 우리나라를 예의(禮儀)의 나라로 만들었고, 이성(二姓)을 섬기기를 부끄럽게 여겨 공(公)이 제주(濟州)에 와서 향약(鄕約)을 세우고 선비들을 가르치어 이 섬에 학문(學問)이 일어나게 하였으니 비록 그 덕(德)이 심천(深淺)의 차(差)는 있을 지라도 또 그 공(功)에 있어서 광협(廣俠)의 차(差)는 있다 할 지라도 수천년(數千年)이라는 세월(歲月)을 사이에 두고 기맥(奇脈)이 상전(相傳)하여 법도(法度)가 다르지 아니함은 참으로 기이(奇異)한 일이다.

나 익현(益鉉)이 이곳을 지나가다 남모르게 감격(感激)한 바가 있어 이를 써 후에 전하고자 한 씨(韓氏)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였다.

1879년 기묘(己卯)8월 월성(月城) 최익현(崔益鉉)이 삼가 기록함.

양천(陽川) 허갑(許鉀) 삼가 씀

1941년(辛巳) 봄 후손 영식·문옥·석균·봉택·총석·석필·수진·경운·계룡(永植 文玉 錫均 鳳澤 寵錫 晳珌 守眞 景運 癸龍) 등이 고쳐 세움.





〈사진 21〉 조천읍 함덕리 봉소동 신천강씨 감사공 강영의 묘

신천강씨 감사공 강영(康永)[23]

이태조(李太祖)의 왕비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사촌 오빠 되는 강영(康永)이 유배인(流配人)의 몸으로 제주(濟州)에 들어온 것은 태종(太宗) 2년(1402) 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려(高麗)에 충절(忠節)을 다하려는 충신(忠臣)의 집안에서 왕비(王妃)로 간택되어서 큰 화(禍)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고,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친오빠인 강득룡(康得龍)은 삼사우사(三司右使)를 역임하다 조선(朝鮮) 건국 이후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품고 관악산(冠岳山)에 들어가 연주암(戀主庵) 연주대(戀主臺)에 올라 송경(松京)을 바라보며 망국(亡國)의 한(恨)을 통곡했는데, 뒤에 그의 충절(忠節)을 가상히 여긴 이

23) 信川康氏濟州道宗親會, 『瀛岩墓域擴張實錄』, 이 글은 제주도에서 1985년도에 편찬한 제주도, 『濟州先賢誌(1985)』에 수록되어 있는 강영(康永) 입도조(入道祖)에 관한 글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풀어 옮겨 적은 것임



〈사진 22〉 조천읍 함덕리 봉소동 조천서원

태조(李太祖)는 그를 안능부원군(安陵府院君)에 봉하고 안정공(安靖公)이란 시호를 내렸다.

태조(太祖) 7년(1398)에 일어난 왕자의 난(亂)은 강비(康妃) 소생인 방번(芳蕃)과 방석(芳碩)형제가 참살 당하는 비극이 연출된 만큼 강씨(康氏) 집안이 무사할 리 없었고, 외척(外戚) 관계로 인한 멸문지화(滅門之禍)를 자초하게 되었다.

강영(康永)의 제주입도(濟州入島)는 왕위(王位) 계승 싸움이 일어나 강비(康妃) 소생의 두 왕자가 무참히 죽임을 당하자 강영(康永)은 관직에서 물러나 제주도로 피신했다

고 전하기도 한다.

강영(康永)이 처음 도착한 곳은 제주시 조천읍(朝天邑) 함덕리(咸德里)였는데, 큰 아들 귀존(貴尊)을 육지에 남겨두고 제주에 정착한 그는 얼마 후 고씨(高氏) 부인을 배필로 맞아들여 정(禎)·복(福)·만(萬)의 세 아들을 낳고 향인(鄕人)들에게 충효(忠孝)의 길과 예의범절을 가르치니 그의 사상(思想)은 이 땅에 파급되는 바가 적지 않았다.

시중공(侍中公) 강지연(康之淵)의 8세손으로 그는 문과(文科)에 올라 한림학사(翰林學士) 등을 거쳐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전라감사(全羅監司)를 지내면서 절의(節義)와 문장(文章)이 일세를 떨쳤는데, 제주(濟州)에 낙향한 후에는 고려(高麗)의 유신(遺臣)으로 충절(忠節)이 귀감이 되었으며, 김해김씨 입도조 김만희(金萬希), 경주이씨 입도조 이미(李美), 청주한씨 입도조 한천(韓蕆)과 더불어 '제주사현(濟州四賢)'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신천강씨(信川康氏) 제주입도조(濟州入島祖)가 된 강영(康永)은 이태조(李太祖)의 충실한 신하는 될 지언정 태종(太宗)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역신(逆臣)이어서 강영(康永)의 손자 풍실(豊實)·회생(回生)의 후손들은 해 뜨는 동쪽을 갈망해서 구좌(舊左)·성산(城山) 일대에 많이 퍼지고 이후, 표선(表善)·남원(南元)·서귀(西歸) 등 제주동부(濟州東部)에서 크게 번창하였다.

62세의 일기로 별세한 지 5백여 년이 지나도록 그의 묘소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후손들에게 큰 숙제가 되고 있었는데, 1937년 3월 3일 첫 정착지인 함덕리(咸德里) 남쪽 대흘리 봉소동(鳳巢洞)에서 기건(奇虔) 목사가 쓴 지석(誌石)이 발견되어 확인되었다.

후손들은 감사공 강영의 묘소를 단장하고 제각(祭閣)과 조천서원을 세워 매해 양력 5월 5일에 시제(時祭)를 모시고 선조(先祖)의 유덕(遺德)을 추모하고 있고, 조천서원 상도사는 강영 입도조 이전 5대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후손들에게 숭조의 정신을 함양하고 있다.

자료 1. 문헌기사

《增補 耽羅誌》一六 人物조 19 其他

康永 谷山人이니 判書允暉의 子오 象山府院君允成從子라登第하야 翰林을 經하고 太宗二年 壬午에 神德王后의 至親으로 本島에 流配하니 子孫이 仍居하니라

강영(康永)은 곡산(谷山) 사람이다. 판서(判書) 윤희(尹暉)의 아들이고 상산부원군(象山府院君) 윤성(允成)의 조카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翰林)을 지냈다. 태종 2년(1402) 신덕왕후(神德王后)[24]의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본도(本島), 곧 제주로 유배되었고, 자손들이 이어 거주하였다.

24) 신덕왕후는 태조 이성계의 계비(繼妃)를 말함이다. 그녀는 성(姓)이 강(康), 본관(本貫)은 곡산(谷山)이다. 황해도 곡산부(谷山府) 강윤성(康允成)의 딸로서 태조가 즉위하자 현비(顯妃)에 책봉되고, 일곱·여덟째 왕자 방번(芳蕃)과 방석(芳碩), 그리고 경순(慶順) 공주를 낳았다.




〈사진 23〉 제주시 노형동 원주변씨 중랑장 변세청의 묘

원주변씨 중랑장 변세청(邊世淸)

변세청(邊世淸, 1334~?)의 조부는 원(元)나라의 형부상서를 지낸 변안열(邊安烈)인데, 고려에 입사하여 큰 공(功)을 세워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를 지냈고 고려가 망할 때에 충절을 다했다고 전한다. 그는 원나라 형부상서로 공민왕의 왕비 노국공주를 따라 고려에 입조하여 영삼사사(零三司事)에 오르고 원주 부원군으로 봉해지니 원주 변씨의 시조다.

역대 선조들 중 후손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변안열(邊安烈)은 조선의 새 왕조 건국에 협조하여 '하여가'에 답하여 '불굴가'를 남겨 불굴의 충절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

고려 오은(五隱)의 한사람인 변안열에게는 아들 삼형제가 있고, 제주 입도조 변세청은 막내인 변정(邊頂)의 둘째 아들로 수군절도사와 부사를 거쳐 상호군, 판훈련원사를 역임하여, 고려가 망할 때 충절을 다한 변안열의 손(孫)인 변세청(邊世淸)이 입도(入道)



〈사진 24〉 중랑장 변세청 비문

한 것은 난세를 피하여 새 터전을 닦기 위한 것이다.

변세청(邊世淸)은 중랑장(中郎將)을 지내다가 제주에 들어와 주학교수(州學敎授)로 여생을 보냈고, 그 배위는(配位)는 탐라고씨(耽羅高氏)로 도지관(都知管) 은한(銀漢)의 딸이었다.

이처럼 변씨(邊氏)가 제주시 노형동 '베릿가름'에 들어와서 살다가 그 후 얼마 지나 몸이 아파서 세상을 떠나자, 자식들이 장사를 지내려 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한 지라, 정식으로 예를 갖추지는 못하고, 입던 옷 그대로 시신을 보릿대로 싸서 묶어 지게에 짊어지고 집을 나섰다. 지명이 '함박이굴'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지게의 끈이 툭 끊어져서 더 지고 가려 해도 가 볼 도리가 없어, 그곳에 땅을 파고 보릿대를 깔고 덮어 시체를 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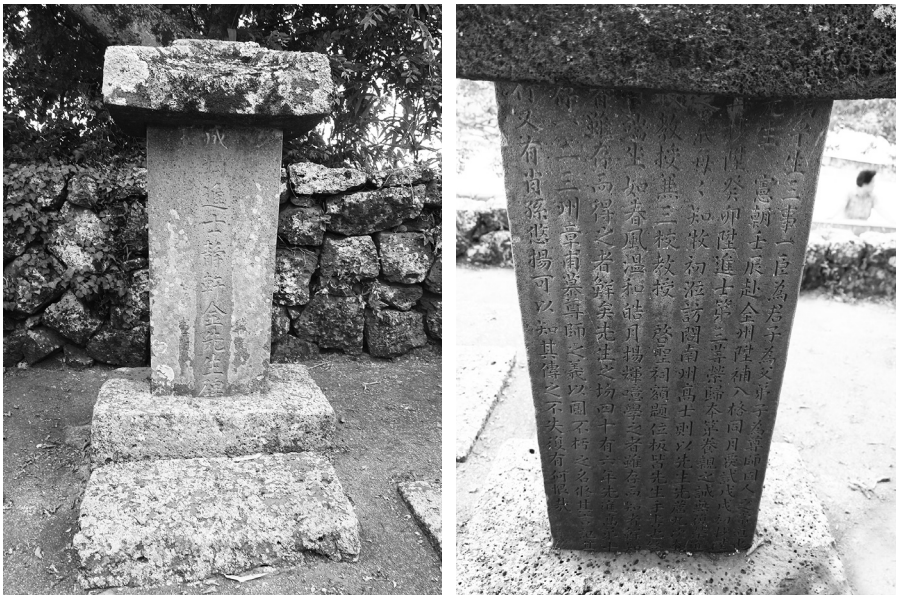
지나가던 지관이 “이곳은 금개판을 하면 발복할 땅”이라고 하자, “보릿낭(보릿대)을 덮어 묻은 지게송장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지관은 보릿대는 태양 빛을 받으면 노란빛이 번쩍번쩍 반사하므로 바로 황금개판과 다름이 없다고 했는데 그 자손들은 이후에 크게 발복하였다고 한다.

현재 제주시(濟州市) 노형 함박동(老衡 咸朴洞)에 원주변공중랑장 휘 세청(原州邉公中郎將 諱 世淸)과 숙부인 탐라고씨(淑夫人耽羅高氏)의 양위(兩位)가 안장되어 있으며 묘역이 잘 정비되어 있다.

호조판서를 지낸 변시중(是重)을 비롯하여 문과에 급제한 성균관 직강 성우(聖遇), 승문원 주서 성운(聖運), 무과에 급제한 사헌부 감찰 성보(聖輔), 십일대 손으로서 문과에 급제하여 호조참판(兵曺參判)을 지낸 경우(景祐), 문과에 급제한 만경현령(萬頃縣令) 경붕(景鵬), 상가리에서 학당을 세운 경준(景後) 등 많은 인재가 집안에서 배출되었다.

1967년 숭조보본(崇祖報本)과 화합돈목(和合敦睦)을 위해 ‘추선재’(追先齋)를 건립하였으며, 1973년 입도조묘역(入島祖墓域)을 치산 확충하였다.

6. 문사



〈사진 25〉 애월읍 납읍리 김용징 비석

애월읍 납읍리 김용징(金龍徵)[25]

정헌(靜軒) 김용징은 애월읍 납읍리 출신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4세에 언문(한글)을 익히고 일곱 살에 한시를 지었다고 하는데, 유년시 전북 부안으로 스승을 찾아가 15년간 수학하여 조선 순조 32년(1832) 전라도 전주에서 시행한 승보초시에 입격하

25) 김용징(金龍徵, 1809~1890)

고, 순조 33년(1833) 승보복시에 입격한 후 조선 헌종 4년(1838)에 제주 승보초시에도 재입격했다.

그는 성균관에서 공부를 더했으며 조선 헌종 9년(1843) 회시 문과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 진사가 되었고, 그 후 귀향하여 제주향교 교수를 40여년 역임하면서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선생은 성품이 온화하고 순백하여 사리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으로 평생 사도의 길을 걸어 후진을 양성했으며 세칭 '청유(淸儒)', '큰진사'라 칭하며 만인의 존경을 받은 유학자이다.

선생은 어려서 고향을 등지고 전라북도 부안에서 글씨 공부를 할 때 글씨 잘 쓰는 사람으로 추천되어 갔는데, 초청한 주인은 "어디 살아" 하고 묻자, 뜻하지 않은 푸대접을 받은 선생은 "제주에 삽니다." 라고 해서 반대편으로 돌아누웠다고 한다.

옆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주인이 선생에게 지필묵(紙筆墨)을 내놓으며 글씨를 쓰라고 해서 글씨를 쓰자, "명필일세" 하여 글방 주인이 감탄하며 높이 받들었다고 한다.

또한 선생은 현인(賢人)으로서 성질이 매우 어질어, 자기 집 종이 잘못했을 때 보릿대 한 줌을 잡고 때렸다가 뉘우쳤고, 천둥이 치면 언제나 마루에 눈을 감고 꿇어앉아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고 하늘에 기도했다.

나이가 들어 초로(初老)에 접어들 무렵 부인과 하인들이 마당에 멍석을 펴고 곡식을 널어놓고 밭으로 일하러 갔는데, 마침 소나기가 오자 마당에 빗물이 흘러 널어 놓은 곡식들이 담벼락으로 흘러가자 '물꼬'를 막고는 방으로 들어와서 계속 책을 읽어나갔다고 한다.

부인이 돌아와서

"비가 오는데 왜 곡식을 담아 집안으로 들여놓지 않았느냐"

고 물었더니

"물꼬를 막아서 곡식은 거기 다 있으니 마찬가지입니다."라 하였다.

어느 가을 날 쇠촐밭(꼴밭)에 베어 놓은 쇠촐(소꼴)을 집으로 운반해야 했는데, 당시는 마차가 없으므로 운반은 사람의 등짐이나 소에다 쇠질매(소길마)를 채운 후 짐을 싣고 집으로 실어 날라야 했다.

하루는 선생이 짐을 잔뜩 실어서 소를 몰고 집으로 올 때 그만 짐의 양쪽 균형이 잘 맞지 않아 한 쪽으로 기울자, 선생은 기울어진 쪽 소의 다리를 억지로 들고 발밑에 돌을 끼워 넣어 균형을 맞추려 했으나 어려웠다.

마침 지나가던 여인이 적당한 돌을 찾아 짐 위로 올라간 쪽에 끼워 넣었더니 양쪽 균형이 잘 맞았다고 한다.

그의 송덕비가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787번지(큰거리 속칭 비석거리)에 1935년 건립되었다. 그의 행장으로는 교지(敎旨), 시권(試券), 전주승보초시, 제주승보초시, 진사시복시, 호패, 서적, 유물 등이 남아있다.

그의 정헌유고문집 『도유대연헌』(屠維大淵獻) 영인본이 발간되었는데, 한시집 도유대연헌(屠維大淵獻)은 승보초시에 합격한 후부터 제명을 정하고, 과거시험 준비와 승보복시, 진사복시에 합격한 후 한양의 성균관에 입교하여 수학한 6년간의 기간과 그 후 제주, 정의, 대정 세곳의 향교의 교수로서 후학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찬하면서 공의 쓴 시(詩), 부(賻)와 시권(詩卷) 등을 모아 엮은 300편이다.

자료 1. 成均進士 靜軒 金先生碑銘錄

字 雲卿 諱 龍徵

嗚呼 生三事一臣爲君 子爲父弟子爲尊師 固人之常道也 先生純朝壬辰赴 全州陞補入格 翌年覆試 戊戌初抄陞再抄陞 癸卯式進士第三等 榮歸本第養親之誠 無復榮進之義 每每智牧初涖 訪問南

州高士 則以先生 先薦九次本校教授 兼三校教授 啓聖祠額題位板 皆先生手書也 終日端坐 如春風溫和 皓月揚輝 噫 學之者雖存 而知者鮮 知者雖存 而得之者鮮矣 先生之均四十有六年 先進高弟十存 一二三州章甫慕尊師之義 以罔不朽之名 修其言記其行 又有肖孫悠揚 可以知其傳之不失得有何恨哉

門生 承士 邊之悅 掌令 金命岳 進仕 金星昊 鄕解 金性燦 姜承齊 監察 文斗天 鄕解 梁達河·宋之玉·張仁壽 進仕 金箕樞, 教授 梁之權 梁在權 鄕解 金致元 金國樞 金時行 兪晟煥 文京天 秦承浩 進仕 姜承模 鄕解 姜賢模

三校直員 金翊洙 姜哲鎬 康鶴瑞 本面掌議 邊旼燦 秦無八 高英貴 姜鉉權 洪淳奎 秦性琨 金時鐘 金炳玹 發起 宋斗禾 高瀅奎 金彦基 邊德九 金胤祚 謹撰 教員 張聖欽 謹書 文斗昇 謹刻

孔子誕降 2486년 4月 謹竪

성균진사 정헌 김선생 송덕비[26]

자 운경(雲卿), 휘 용징(龍徵)

오호라 사람은 태어나 평생 세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며,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지켜야 할 도리이다.

선생은 순조 32년(임진년, 1832, 24세) 전주에서 시행한 승보초시에 입격하고, 다음 해 복시에도 입격하였다. 또한 헌종 4년(무술년, 1838) 제주 승보 초시에, 헌종 7년(신축년, 1841) 승보 복시에 또 다시 입격하였다.

헌종 9년(계묘년, 1843, 35세) 진사시험에 3등으로 영예롭게 합격하고 귀향하였다. 제주에서 양친이 차례로 돌아가자 치성을 다하여 장례를 치렀는데, 그 때마다 제주 목사가 부임 후 맨 처

26) 教育學碩士 長來孫 濟原 金益善

음 문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선생은 향리에 은거하여 출사(出仕 : 벼슬)하지 않은 고매한 학자(南州高士)로서 먼저 천거받아 9차에 걸쳐 제주향교 교수 겸 정의·대정 세 곳의 향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특히 선생은 철종 5년(1854) 목인배(睦仁培) 목사가 제주 향교에 계성사를 창건할 때 계성사 현판(題額)을 직접 쓰고 게시하였다.

선생이 하루 종일 단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봄바람이 불듯이 온화하고 밝은 달빛 같다고 찬양하였다, 학문을 수학(受學)하다가 하품을 하는 자가 있더라도, 학문을 하는 자는 새롭고 신선한 것을 깨닫는 자라고 하였다. 비록 알고 있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자가 학문을 터득하는 진정한 학자라고 했다.

선생은 조선 당시 최고 국립대학교인 성균관(現 사립 성균관대학교 전신)에 입교하여 40세까지 6년 동안 수학하였다. 그 당시 성균관에서 높은 선진 학문을 연찬한 자가 10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선생의 문채(문장과 글)는 전국 123개 주에서 올라간 성균관 유생(儒生) 가운데 으뜸으로서 스승으로 존경하고 사모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선생이 남긴 그 불후의 시(詩)·부(賦)의 명작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까지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생이 몸소 실천한 품행은 후손들이 본받아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유실되지 않고 계속 전해져야 함은 물론 어찌 유실된 후 복원하려 하면 이미 때는 늦어 후회만 할 따름이로다. 선생의 문하생으로는 승사 변지열, 장령 김명악, 진사 김성호, 향해 김성찬, 강승제, 감찰 문두천, 향해 양달하·송지옥·장인수, 진사 김기추, 교수 양지권·양재권, 향해 김치원·김시행·김국추·유성환·문경천·진승호, 진사 강승모, 향해 강현모 등이 있다.

제주향교 직원(現 전교) 김익수, 대정향교 직원(現 전교) 강철호, 정의향교 직원(現 전교) 강학서, 애월면 장의 변민찬·진무팔·고영귀·강현권·홍순규·진성곤·김시종·김병현이 발기함.

후학 송두화·고형규·김언기·변덕구·김윤조가 찬술(撰述 : 비문을 지음)하고, 교원 장성흠이 글을 쓰고(謹書) 문두승(納邑)이 삼가 새김.

공자탄강 2486년(서기 1935) 4월 삼가 건립



〈사진 26〉 제주시 도련동 이계징의 묘와 비석

제주시 도련동 이계징(李啓徵)[27]

이락당의 성(性)은 이씨(李氏)이고, 이름은 계징(啓徵)이며, 자(字)는 경운(慶運)이며, 본(本)은 고부인(古阜人)이고, 이락당(二樂堂)은 호이다. 조천읍 함덕에서 거주하다가 매촌(梅村, 현 제주시 도련동)으로 이사하여 살았고, 효자이면서 명필가이며 성리학자로 유명하다.

27) 이계징(李啓徵, 1840~1914)
이재두(2003),『조상의 얼, - 이락당 문장』, 열림문화.

그는 고부이씨(古阜李氏)의 시조 문헌공(文憲公) 이경조(李敬祖)의 36대 손이며, 제주 입도 시조 이세택(李世澤)에게는 13대 손이다. 이세택의 조부인 이충남(李忠南)이 제주 판관으로 도임한 것이 인연이 되고, 이충남이 임기를 마치고 육지로 떠났지만 이세택은 남아 고부 이씨 세택공파의 시조가 된다.

그는 경서학술(經書學術)에 전념하고, 조선의 사대 성리학자의 한사람인 기정진(奇正鎭)의 문하에서 배웠으며 명필로 이름을 떨쳤다. 그의 스승 기정진이 아들 기송사를 제주로 보내어 그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게 한 것만 보아도 그의 학문적 깊이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이계징은 함덕에서 훈학하여 마을에도 큰 영향을 남기고, 이율곡의 이기론(理氣論)을 익히고 신봉하여 전국적으로도 성리학자로 추앙된 바 있어 신임 목사나 판관이 도임할 때마다 강론을 받았다.

부친이 병든 수년 동안 약물과 섭생에 힘을 다하였고, 돌아가시자 성실히 예를 준수하여 장례를 마친 후 묘 옆에 초막을 짓고 삼년상을 치를 때 백부는 때로 와서 옷이 남루하면 이잡기를 청하면서 자주 새 옷 갈아입기를 청했다.

그가 쓴 '초제탄(招弟灘)'이 유명한데 그의 아우인 이후징(李厚徵)이 고기잡이 갔다가 태풍을 만나 사고를 당하자, 같은 배에서 10명이 죽으니 바닷가를 수색하며 시체를 찾아 다녔으나 찾지 못하여, 아우가 입던 옷을 들고서

"아우여 오라, 아우여 오라"

하고 불렀는데 아우의 시신이 물위로 떠올랐다고 한다. 그는 동생의 시체를 안고서 집으로 돌아와 사흘 밤을 시신과 함께한 후 염습하여 묻었다. 산기슭으로 동생의 시체를 업고 집으로 돌아온 이락당은 3일간 동생의 시신과 함께 생시처럼 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한다.

제주시의 도련인 매촌의 깊숙한 시골로 이사하여 어머니를 봉양하고 상을 당했을 때는 하얗게 센 머리로 예를 갖추어 삼년상을 수행하였다. 공의 묘는 교래리 조인납(助人

納) 지경에 있고, 그의 제자들은 선생의 사적을 새겨서, 지나가는 이들에게 허리를 굽혀 경의를 표하도록 했다.

자료 1. 二樂堂 李公 行狀

丙寅秋 以修譜事 入濟州 讒下渡頭 故二樂堂聲名 溢飛一島. 第念 平日 之德之行 不有 使人 薰炙之深 惡能如是也. 因見樂堂之兩胤 錫保錫圭 棣棣之威儀 溫溫之德器 不問可知 期必有所受也. 更攷世系則 吾先祖執義公之次子 府便公之後裔也. 於是平尤覺吾先祖 裕後之遠且廣 而公之樹立有所自矣. 日者 錫圭 奇行錄一通 士林薦狀 本倅褒狀數幅 要余潤色 其在同祖之親 不可牢辭故 取其狀 而隱括焉.

公諱啓徵 字慶運 姓李 古阜人 二樂 其號也. 高麗 有諱 敬祖 大司成 諡文憲 封礪山君 是爲上祖. 立本朝 有諱伯瞻 翰林副正 轉至執義. 光廟改玉後 授佐理功臣錄券 不受退老 是爲中祖. 生諱承謙 府使 生諱宇孟 文科僉正 生諱忠男 文科判官 生諱明道 主簿 生諱世澤 嘉善 是爲入島之祖而於公爲十三代祖也. 曰仁孫 曰光集 是公之高曾 俱中鄕解. 祖諱正敦有文行 考諱榮伯 性純行篤事親之孝 處事之正 爲鄕里之表準 敎子誠勤 從事儒業. 妣金海金氏 景衍女. 憲廟庚子八月十七日生公于新左面咸德里第 天性純一 不爲外誘 自少有志於學問 承順親意 從師盧沙基先生 終日端坐潛心溫繹 以論孟庸學 爲一生之茶飯 亦務實 聞一善言 必服膺 見一善行 亦思齊 師門稱其篤行 以謙恭自牧 惰慢邪辟之氣 不設於身 以聖學爲本 怪誕虛無之書 不接於目. 其於事親也 極其旨供 愛弟也 極其湛樂 接人也 以和敬 敎子也 以義方 牖後也 惓惓敎誘 雖樵牧 略解小學 懇懇訓導 皆孝弟忠信之道也. 乙亥丁外艱 衰麻之衣 不脫於身 哭泣之聲 不絶於口 吊者莫不敬服. 乙巳遭母夫人喪 時年六十六 送終之節 一如前喪 執喪之制 不以老而少弛 全廢酒肉 幾至傷生 長跪苫上 當膝累穿 慰者幕不憫恤焉 弟嘗沈海 望洋慟哭七日 流屍自到 人謂天正感 輿尸歸家 三宵同衿 世謂人所難 甲寅十月二十日 以天年終 享年七十五 葬于橋來境 助仁納 辛坐原. 配光山金氏 才昶女 丁丑八月五日卒 墓同原 生二男二女 男長錫保 次錫祚 女適邊德永 任元禮 繼配南平文恒國女 戊午生 辛亥三月二十九日卒 西回泉光旨原北向 生四男二女 錫圭 錫佑 錫富 錫吉 男也 梁瑞右 玄商延 壻也 孫男 延洙 贊洙 性洙 長房出, 宅洙 義洙 臻洙 寧洙 定洙 次房出 玟洙 鑌洙 轍洙 三房出 (昌洙 尙

洙 四房出 在廈 在斗 五房出) 噫 當此羣陰之世 君子之道 微 乃如 剝上之果 然 公能守貞 獨立 服先王之服 讀先王之書 行先王之行 家計屢空 而不憂 惟知道之爲貴 而憂學之未至 且生於絶域孤島之中 能動變一時 樹風百世 雖其天稟之純一 學問之力盖不可誣也 此其行治之大略 若其深奧之德 非淺量之所可及 惟竢秉筆家之更加闡揚云爾

彊圉單閼 復月冬至日
不佞 族末 鍾坤 撰

이락당 이계징(李啓徵) 공의 행장

병인(丙寅)년(1926년) 가을 족보를 보수하는 일로 제주에 들어가 나루터에 잠깐 내려있었는데 고 이락당(故二樂堂)의 명성이 온 섬에 넘치고 있었다. 다만 생각건대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베푼 덕행이 있지 않고서야 남에게 교화를 깊게 함이 어찌 이와 같겠는가. 따라서 이락당(二樂堂)의 두 아들인 석보(錫保)와 석규(錫圭)의 예의에 밝은 위용과 윤택한 덕기(德器)를 보았을 때 묻지 않고서도 알 수 있음은 반드시 위에서부터 이어 받은 바가 있었음이다.

다시 세계(世系)를 살펴본 즉 공은 선조 집의공(執義公)의 차자(次子)인 부편공(府便公)의 후예이다. 이에 우리 선조의 후손을 풍성하게 함에 위대하고 젊은 뜻을 가졌던 것이 공을 이룩하여 세우게 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어느날 석규(錫圭)가 행록(行錄) 일통과 사림(士林)의 추천장과 본 고을 원님의 포장(褒狀) 몇 폭을 붙여 나에게 윤색(潤色)을 청하였다. 그이와는 조상이 같은 친의가 있어 굳이 사양할 수 없어서 그 문첩들을 취하여 살펴보았다.

공의 이름은 계징(啓徵)이요, 자(字)는 경운(慶運)이며, 성(姓)은 이씨(李氏)이니, 고부인(古阜人)이며, 이락(二樂)은 그의 호(號)이다. 고려(高麗) 때에 이름 경조(敬祖)는 대사성(大司成)이요, 익호(諡號)는 문헌공(文憲公)이며, 여상군(礪山君)에 봉(封)하니 이를 시조로 삼는다. 본조(本朝)에 들어와 이름 백섬(伯贍)은 한림부정(翰林副正)에서 집의(執義)로 전직하였다. 세조(世祖)로 임금이 바뀐 뒤에 좌리공신(佐理功臣)의 녹권(錄券)을 주나 받지 아니하고 늙음을 핑계하여 퇴직하니 이가 곧 중시조(中始祖)가 된다. 이름 승렴(承謙)을 낳으니 문과 급제하여 부사(府使)요,

이름 우맹(宇孟)을 낳으니 문과급제하여 검정(僉正)이요, 이름 충남(忠男)을 낳으니 문과 급제하여 판관(判官)이요, 이름 명도(明道)를 낳으니 주부(主簿)요, 이름 세택(世澤)을 낳으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이가 입도조(入島祖)가 되며, 공의 13대조이다.

인손(仁孫)과 광집(光集)은 공의 고조(高祖)와 증조(曾祖)이며 모두 향시(鄕試)에 합격하였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정돈(正敦)이니 학문과 덕행이 있었고, 아버지의 이름은 영백(榮伯)인데 성품이 순수하고 행실이 돈독하여 어버이를 효도로 섬기고 일을 처리함이 정당하여 마을의 표준이 되었다.

아들을 가르침에는 정성과 근면으로써 하고 선비를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였다. 어머니는 김해김씨(金海金氏) 경행(景衍)의 딸이다. 예종(憲宗) 병자년(丙子年) 헌종(憲宗) 6년(1840) 8월 17일에 신좌면(新左面) 함덕리(咸德里) 사제에서 공을 낳으니 성품이 순일하고 유혹에 끌리지 아니하고 어릴 적부터 학문에 뜻이 있어 어버이의 뜻에 순종하고 여사(盧沙) 기정진(基正鎭) 선생을 찾아 스승으로 삼고 배우니 온종일 단정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논어(論語), 맹자(孟子)와 중용(中庸), 대학(大學)을 익히는 것을 일생의 일로 삼았다.

또한 참되도록 힘써 한가지 착한 말을 들으면 반드시 가슴에 깊이 새기며 또 착한 행실을 보면 역시 그 일을 흠모하여 본받아 실행하니 사문(師門)이 모두 그 독실한 행동을 칭송하였다.

삼가고 겸손함으로써 스스로를 다스리고 게으르고 사악하며 편벽된 기운을 몸에 짓지 아니하고 성인의 학문으로써 근본을 삼고 기괴하고 헛된 소리나 허무한 서적을 눈에 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서 극진히 뜻을 받들고 공양하였으며 아우를 사랑함에는 화목하게 즐기도록 했으며 사람들을 사귐에는 화합과 공손으로써 하며 자식을 가르침에 덕의에 알맞게 가르치며 후진을 가르침에는 삼가고 신중히 가르쳐 비록 땔나무 하고 마소 치는 목동에 이르기까지 소학(小學)을 이해하게 친절히 훈도하니 모두 효도하고 사랑하며 충성하는 도리였다.

을해년(乙亥年, 1875년)에 아버지의 상사(喪事)를 당하여 쇠마(衰麻)의 상복(喪服)을 몸에서 벗지 아니하고 소리내어 슬프게 우는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니 조문하는 이들이 존경하여 감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을사년(乙巳年, 1905년)에는 어머니 상(喪)을 당하니 그때 나이가 66세라 장사(葬事)에 관한 모든 범절이 한결같이 아버지 상사와 같았으며 상을 치르는 예가 늙었다고 해서 조금도 해이함이 없었다.

술과 고기를 전폐하고 거의 생명을 상해함에 이르렀으나 거적 자리 위에 오래 꿇어앉으니 무

릅에 닿는 자리가 자주 터져서 조문하는 이가 딱하게 여겨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아우가 일찍이 바다에서 변을 당하니 바다를 바라보며 통곡하기 7일 만에 시체가 스스로 떠서 이르니 사람마다 이르길 하늘이 바르게 감동하여 그리한 것이라 하였다. 시체를 업고 집에 돌아와 사흘 밤을 한 이불에서 지내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갑인년(甲寅年, 1914년) 10월 20일 천수(天壽)로써 마치니 나이 75세이다. 교래경(橋來境) 조인납(助仁納) 동향한 언덕에 안장하였다. 배위(配位)는 광산김씨(光山金氏) 재욱(才昱)의 딸이니 정축년(丁丑年, 1877년) 8월 5일에 돌아가셨다. 무덤은 같은 곳이다. 이남이녀(二男二女)를 낳으니 장남은 석보(錫保)이며 석조(錫祚)요, 딸은 변덕영(邊德永)과 임원례(任元禮)에게 시집갔다.

繼配는 南平文恒國의 딸로 戊午生(1858년)에 낳고 辛亥年(1911년) 3월 29일에 돌아가시니 墓는 光旨동산에 북쪽을 향해 있다. 四男二女를 낳으니 錫圭(升煥)와 錫佑(方煥)와 錫富(吉煥)와 錫吉(新煥)은 아들이요, 梁瑞右와 玄商延은 사위이다. 孫男인 延洙(在寬)와 贊洙(在贊)와 性洙(在舜)는 큰 아들이 낳았고, 宅洙(在厚)와 義洙(在宜)와 臻洙(在進)와 寧洙(在寧)와 定洙(在定)는 둘째아들이 낳았고, 玟洙(在墓) 鑌洙(在珩) 轍洙(在旭)는 세째 아들이 낳았고, 昌洙, 尙洙는 넷째, 在廈, 在斗는 다섯째 아들이 낳았다.

아아! 음흉한 무리들의 세상을 당하여 군자(君子)의 도는 쇠미하여 양(陽)이 쇠하고 음(陰)이 왕성하여 소인(小人)은 번영하고 군자(君子)는 곤궁함과 같다. 그러나 공(公)은 능히 정조를 지키고 홀로 우뚝 서서 복(服)은 선왕의 복을 입고 선왕(先王)의 글을 읽으며 선왕(先王)의 행실(行實)을 행하여 가계(家計)가 어려운 처지이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도의를 깨우치는 것을 위하여 학문이 이르지 못한 것을 걱정했으며 또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서 태어났으나 오랜 세월 풍교(風敎)를 세워 일시에 변하게 하니 그 천품(天稟)의 순일(純一)함이 학문의 힘임을 속일 수 없다. 이는 그의 평생(平生)에 행한 치적(治蹟)의 대략이며 이렇게 심오(深奧)한 덕(德)을 도량이 얕은 사람(필자 자신을 말함)은 가히 미칠 바가 못 되니 오직 집필가의 다시 단장(闡揚)함을 기다리노라.

정묘년(丁卯年)(1927년) 11월 동짓날(30일)
재주가 없는 친족의 막내 종곤(鍾坤)이 글을 짓다

자료 2. 二樂當 李公 墓碣銘

公姓李 諱啓徵 字慶運 本古阜人. 十三世祖 諱世澤 始居濟州. 高祖仁孫 鄕解. 曾祖光集 鄕解. 祖正敦 考榮伯. 妣金海金氏 父景衍. 公生憲宗庚子八月十七日 幼不好弄 甫上學 魯而勤 多通經史 愛李三晩帖 而學之字劃精勁 搜攷 廣交鄕名士 而與吾先人尤相好 專意經術 因再及蘆沙奇先生門 得思傳鳶飛魚躍之旨故 內地士多知名 親癆數年 藥餌竭力 鬚髮幾白. 丁憂 襲斂殯葬 誠信遵禮 饕素終制. 伯父時來宿 見衣垢弊則請捕虱而 易獻新衣者 非一再. 弟厚徵 遇颶海 死與同舟十許人 屍體盡漂 公書夜求之不得 遂以弟經衣衣 登海磯 招曰弟來弟來 兄在此 其夕 有屍浮到其下 而名牌固結間 爲明徵. 舁還於家 三宵聯枕 而後斂殯 自此 終身不得乘舟 撫孤姪猷子 公至誠類此 以所居咸德里 濱海 移家梅村深處 極力養母 及喪 公年已過六旬 白首執禮如前喪. 至行所聞守宰 多求就見 而不報謝 甘窮餓 敎後學 書携婦子 治田 夜燃松明看書 享壽七十五 以甲寅十月二十一終. 配光山金才昶女 生戊戌 卒丁丑 忌八月五日 生二男 錫保錫祚 二女 適邊德永 任元禮. 繼配 南平文恒國女 生四男 錫圭錫佑錫富錫吉 二女未笄 內外孫曾 方蕃衍 而煩不錄.

竊念 公質多而文少 德厚而慾寡 隨分做生 率眞好善故 胸中常白淡淡 無塵雜氣 師門送公 詩以醇飮久 而醉許之. 松沙翁 聞耕讀外無他事 每寒暄書頭 必書二樂堂 公之號所由始也 吾先人嘗曰 時月間 不見慶運 自覺遂物意多 秉宅 左海日 公居十里而遠 每風月朗夜 獨行臨訪曰 良宵 但做寢則便自憎爲人偸情 因與說古談今 論文討義 聞鷄卽還 强挽不留 只此數事 可槩 公所以爲公者 滔滔濁世 可復易得如公者乎. 墓與初配雙墳 在仁境 負酉原 是宜樹石爲表 使後人知之 諸男請銘銘曰 無懷葛天之民 徐儒董生之倫 於所謂貧賤富貴 未曾見戚汲意 惟善是好 惟書是嗜 不知者 謂爲野老村父 久交者 許以吉士君子 助仁之麓 有幽其宮 我銘昭揭 過者鞠躬

崇禎後 五丁巳 仲秋
竹山 安 秉 宅 撰

이락당(二樂堂) 이공(李公)의 묘비에 새긴 글

공(公)의 성(姓)은 이씨(李氏)요, 이름은 계징(啓徵)이며, 자(字)는 경운(慶運)이요, 본(本)은 고부인(古阜人)이다. 십삼세조(十三世祖)의 이름은 세택(世澤)이며 제주에 처음으로 살았다. 고조(高祖)인 인손(仁孫)은 향시(鄕試)에 합격하였고, 증조(曾祖)인 광집(光集)도 향시(鄕試)에 합격하였다. 할아버지는 정돈(正敦)이요, 아버지는 영백(榮伯)이다. 어머니는 김해김씨(金海金氏)이며 그의 아버지는 경연(景衍)이다. 헌종(憲宗) 경자년(庚子年)(1840년) 8월 17일에 공(公)을 낳으니 어려서부터 장난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곧 배우기 시작하여서는 노둔했으나 부지런하여 경서 경서(經書)와 사기(史記)에 통달하였고 이삼만(李三晩)의 필첩(筆帖)을 사랑하여서 이를 배움으로 자획(字劃)이 정밀하고 굳세었으며 옛 것들을 찾아서 고증하였다.

널리 고장의 명사(名士)들과 사귀었으며 나의 선친(先親)과 더불어 더욱 서로 좋아하여 경서 학술(經書學術)에 전념하니 이로 인하여 다시 노사(蘆沙) 기(奇)선생 문하에 이르러 중용(中庸)의 "솔개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못에 헤엄치고 있다"는 자연현상(自然現象)의 뜻으로 연유하여 생각을 얻었으므로 내지(內地)의 선비들이 많이 그 명성을 알았다. 어버이가 병든 수년 동안에 약물과 섭생에 힘을 다하여 머리와 수염이 거의 희여졌다. 아버지상을 당하여 염습과 빈장(殯葬)에 근본을 쫓아 성실히 예를 준수하여 장례를 마쳤다. 백부(伯父)가 때로 와서 유숙하는데 옷이 남루함을 보면 이 잡기를 청하고 자주 새 옷을 바쳐 갈아 입게 하였다. 동생 후징(厚徵)이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같은 배에서 10여명이 죽으니 시체는 모두 표류하였다. 공은 밤낮으로 시신을 찾아 다녔으나 찾지 못하고 마침내 아우가 입던 옷을 입고 바닷가 바위에 올라 '아우여 오라, 아우여 오라 형이 여기에 있다'고 불러 외치니 그날 저녁에 시체가 떠 바위 아래 이르니 명패(名牌)가 허릿춤에 단단히 매어 있어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시체를 마주 들어 집에 돌아와 사흘밤을 베개를 나란히 하고 동침한 뒤에 염습하였다. 이후부터는 종신토록 배를 타지 않았다. 홀로 된 조카를 자식처럼 보육하니 공의 지극한 정성은 이와 같았다. 거주한 바 있는 함덕리(咸德里)는 지형이 바다에 가까이 닿아 있었으므로 매촌(梅村)의 깊숙한 시골로 이사하였고 있는 힘을 다하여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상(喪)을 당하였을 때 공의 나이 60이 지난 지라 허옇게 센 머리로 예절을 수행함이 전상(前喪)과 같았다. 지극한 행적이 수령(守令)에게 알려진 바 되어 여러번 만날 것을 청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하고 사절하였다. 구차하고 가난함을 감수하고 후학(後學)을 가르치며 낮에는 가족과 함께 밭을 가꾸고 밤에는 관솔불을 태워 책을 읽었다. 나

이 75세 때, 갑인년(甲寅年)(1914년) 10월 20일에 돌아가셨다. 배위(配位)는 광산인(光山人) 김재창(金才昶)의 딸이며, 무술년(戊戌年)(1838년)에 낳고 정축년(丁丑年)(1877년)에 돌아가시니 기일(忌日)은 8월 5일이다. 두 아들을 낳으니 석보(錫保)와 석조(錫祚)요, 두 딸은 변덕영(邊德永)과 임원례(任元禮)에게 시집갔다. 계배(繼配)는 남평인(南平人) 문항국(文恒國)의 딸이니 사남(四男)을 낳아 석규(錫圭)와 석우(錫佑)와 석부(錫富)와 석길(錫吉)이요, 두 딸은 아직 미혼이다. 내외척(內外戚)의 손자와 증손들이 번성하였으나 번거롭게 기록하지 않는다.

가만히 생각건대 공(公)은 질박함이 많고 꾸밈이 적어 덕(德)은 후(厚)하면서 욕심은 적고 분수에 따라 생활하며 솔직하고 진실하여 착한 일을 좋아하므로 흉중이 항상 맑아 담담하여 티끌이나 난잡한 기운이 없었다. 스승과 문하생들이 공과 송별(送別)하면서 작시(作詩) 때문에 술 마시기를 오래 하였으므로 술 취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송사옹(松沙翁)이 밭 갈고 독서하는 것 밖에는 다른 일이 없음을 듣고 매양 안부 편지를 하는 글의 첫머리에 반드시 이락당(二樂堂)이라 썼으므로 공(公)의 호(號)가 이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 나의 선친(先親)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길 달포 사이의 시간에 경운(慶運)을 보지 못하면 마음이 총총해짐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나(秉宅)는 해일(海日)에 있었으므로 공이 사는 곳과는 10리의 거리에 있다. 그러나 매양 바람과 달이 맑은 밤에는 홀로 거닐며 방문하여 아름답고 좋은 밤에 잠만 잔다고 말하면 투정만 한다고 미워하였다. 그리하여 함께 고금(古今)을 담론(談論)하며 토론하다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곧 돌아가니 부디 만류하여도 머물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몇가지 일로 공(公)의 대강을 헤아린다면 공(公)의 공(公)다운 바는 도도하게 흐르는 더러운 세상에 가히 쉽게 공(公) 같은 이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묘(墓)는 초배(初配)와 같이 쌍묘(雙墓)이며 조인납(助仁納) 지경 서쪽을 등진 동산에 있고 이에 마땅히 비를 세워 표하고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사적을 알게 하고자 여러 아들들이 청하니 비에 새기되 무회(無懷)와 갈천(葛天)의 백성이여 서유(徐儒)와 동생(董生)의 윤리는 이른바 빈천부귀(貧賤富貴)에는 일찍이 근심하거나 급한 뜻을 보임이 없었고 오직 선(善)한 것을 좋아하여 책만을 즐길 뿐이었다. 모르는 사람들은 말하길 야노(野老)나 촌부(村父)라 하였고, 오래 사귄 자는 어진 선비나 군자(君子)로 불리웠다. 조인납(助仁納)의 기슭에 묘 있어 내가 새겨서 분명하게 게시(揭示)하노니 이곳을 지나는 이는 허리를 굽혀 경의를 표할지어다.

숭정(崇禎) 뒤 다섯째 정사년(丁巳年)(1917년) 중추(仲秋)
죽산(竹山) 안병택(安秉宅) 글을 짓다





〈사진 27〉 조천읍 신촌리 이한우 유적비(신촌초등학교)

조천읍 신촌리 이한우(李漢雨)[28]

이한우 선생은 조선조 후기의 선비로서 본관은 전주이며, 1823년 신촌리에서 사숙을 했던 부친 이신구(李信九)의 아들로 태어나 호를 매계(梅溪)라고 하였고, 초명은 이한진(李漢震)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였고 추사선생이 대정에 적거할 때 추사선생에게 배웠으며 시문(詩文)에도 능하여 당시 제1인자라고 하였고 삼천재(三泉齋)에서 훈학에 힘썼으며, 제자로는 소백 안달삼, 해은 김희정, 이락 이계징, 석호 고영흔 등 유명한 문

28) 이한우(李漢雨, 1823~1881)

사들을 배출시켰다.

제주 목사를 지낸 목인배에게 신임이 두터웠으며, '남도(南道)의 태두(泰斗)'라는 칭찬을 들었고, 1862년 강제검, 김흥채 등이 민란을 일으키자 이듬해 의병을 창도하는 격문을 지어 충의의 뜻을 유림에게 돌렸다.

어버이에 대한 효행과 형제에 대한 우애는 널리 알려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년상을 마치고 59세 되는 제삿날에 "오늘은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가겠노라."고 말을 남겨 숨을 거두니, 59세에 부친이 돌아간 날에 돌아가서 기일이 같다. 그가 지은 매계문집이 오늘에 전해지며, 그의 행장은 부해 안병택이 지었다.

자료 1. 梅溪李先生遺蹟碑

士之稱賢者 固以行而不以文. 然文亦載道之器 而性德之光華也, 其亦不可少之也明矣. 先生行治旣列於三綱, 文章又冠乎南國 則先生蓋士之賢 而有文者哉. 先生姓李 諱漢雨 字次文 梅溪其號也. 濬源桂城君 諱恂之后. 以純祖癸未生于濟州新村里第. 聰明絶倫十三通經史. 嘗試講官衙聳動視聽, 時牧李公大稱賞之. 旣長就正于秋史金先生正喜, 其詩與文遂成大家. 寬廣于京師 睦承旨仁培見而謝之曰, 李某湖南士林之冠冕, 使其子從遊. 且本州名碩 如小栢安達三 二樂二啓徵 海隱金羲正 石湖高永昕 諸賢亦皆出於其門下. 其著乎外者如是 而存乎中者盍可驗矣. 先生孝友根天 志物俱至. 乙亥外艱 哀毁逾制服 闋而有疾. 自知不起 適當親忌 語其家衆曰, 今日當陪親而歸, 力疾行祭 禮畢定席而終. 乃高宗辛未正月二十三日 與先公沒同日也. 噫, 先生生于南荒之遐陬 得大家文憲之淵源, 名播京鄉, 實南國士林之光耿 而後學之津筏也. 當日褒典之未蒙 數關世運之沿革後世杖屨之迷所, 豈非吾鄉之沈替也哉. 修菴康用範 庸是懼焉. 乃與鄉衆圖其不泯 鄉中人士同聲而起, 遂伐石而記之 而寓仰傚之懷.

歲先生沒後三十九年己卯 正月二十三日 新村鄉士一同謹志.

매계 이선생 유적비

선비를 어질다고 칭찬하는 것은 참으로 그 행위에 의거하는 것이지 글에 의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글도 또한 도(道)를 싣는 그릇이요 덕(德)의 아름다운 광채니, 그 또한 작은 것이라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선생께서 보이신 모범된 품행은 이미 삼강행실도에 오를 만하고, 문장 또한 남국(南國, 남부지방, 제주)의 으뜸이시니 곧 선생은 대개 어진 선비이며 고운 글재주를 갖춘 분이로다. 선생의 성은 이(李)요, 이름은 한우(漢雨)며, 자는 차문(次文)이며, 매계(梅溪)가 그의 호다. 조상의 계보는 계성군(桂城君, 成宗의 아들을 이름) 순(恂)의 후손이다.

순조 계미년(순조 23년, 1823)에 제주 신촌리 집에서 태어났다. 매우 똑똑하고 뛰어나서 열세 살에 경서와 역사에 통했다. 일찍이 시강하는 관아에서 보고 듣는 이들을 크게 놀라게 하니, 그때의 목사인 이공(李公)이 크게 칭찬하고 상을 주었다. 자라서는 추사 김정희 선생께 가서 배우니, 시와 글에서 마침내 대가가 되었다.

서울에 과거 보러 갔을 때 목인배 승지를 만났는데 장담하여 말하기를 "이모(李某)는 호남 선비 중 으뜸이라." 하고는 그의 아들에게 따라서 어울리게 하였다. 또 우리 고장의 석학인 소백 안달삼과 이락 이계징과 해운 김희정과 석호 고영흔 등 여러 어진 선비가 다 그의 제자들이다.

그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 이와 같으니, 심중에 담은 것을 어찌 증험하지 못하겠는가. 선생의 어버이에 대한 효성과 형제에 대한 우애는 하늘의 도리에 뿌리하여서 뜻과 물건에 두루 지극하였다.

고종 12년(1875)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슬퍼한 것이 건강을 해쳐 삼년상을 마치자 병이 들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것을 알았다. 마침 아버지 제삿날이 되자,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아버님을 모시고 돌아가겠노라." 하고는 힘을 내어 제사를 마치고 잠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고종 18년(1881, 신사) 정월 23일이었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과 한날이었다.

슬프구나, 선생은 이 거칠고 멀리 구석진 땅에 태어나서, 대가(大家)의 가르침의 연원을 이었다. 이름이 서울과 시골에도 알려졌으니, 실제로 남쪽 지방의 사림에게는 영광의 빛이며, 후학들에게는 험한 물을 건너는 배가 되었다.

그 당시에는 크게 포상의 의전을 받지 못하였으니 비록 세상살이 운수의 변혁은 막혔지만, 후세의 사람들은 공경할 어른을 잃었으니 어찌 우리 고장의 침체가 아니겠는가. 수암 강용범이 오래 이처럼 걱정하고, 마을 여러 사람들이 그 업적을 없애지 않으려 도모하니, 고을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일어났다. 마침내 돌을 캐고 새겨서, 우러러 본받으려는 마음을 붙이노라.

선생이 돌아가신 뒤 서른 아홉해 기묘년(己卯年) 정월 이십삼일 신촌 마을 선비 일동이 삼가 쓰다.




〈사진 28〉 조천읍 조천리 소재 금대

조천읍 조천리 김시우(金時宇)[29]

선생의 이름은 시우이며, 자는 강여, 호는 만취이다. 가락국 수로왕의 후예인데 조부는 응원으로 향공진사이며, 부친은 진호로서 삼대가 모두 덕을 감추고 벼슬하지 않았다. 사람됨이 정성스럽고 삼가며 돈독히 실천하여 해은(金義正) 선생 문하에서 배워 경서(經書), 역사서(歷史書), 제자류(諸子類), 시문집(詩文集) 등 수백 편을 읽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는 글자의 뜻을 잘 익히고 맥락을 관통시켜 약관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아름다운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나 스스로 성리학에 대해서는 부족한 듯해 북쪽으로 나아가 배울 뜻을 가졌다. 포천의 유용계 선생에게 육경의 참뜻을 묻고 격물치지의 큰 요점을 논하여

29) 김시우(金時宇, 1875~1918)
金澄植(2004),『革庵散稿』, 北濟州文化院.

유선생이 자주 칭찬하였으며, 이로부터 학문은 더욱 넓어지고 도는 높아져 남쪽지방 사람의 종장이 되었다.

선생은 타고난 성품이 꼿꼿하고 기개와 절조가 호매하여 순수함을 굳히는 데 모남이 없었으며, 얼굴빛은 온화하여 말씨는 부드럽고 정신은 안정되고 심기는 조화되어 법도가 있는 듯했다. 평소에는 늘 즐거운 듯하여 시시비비가 없는 듯하나, 남과 이야기하거나 일에 변고가 있을 때는 의리로써 결단하여 엄연함을 범할 수 없었다.

일찍이 문장이 성숙되었으나 과거는 보지 않아 초연하여 세상일에 뜻이 없는 듯하나, 시대를 근심하고 세상일을 의논할 때는 감격하여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다스리는 방도를 말할 때는 반드시 천리를 밝히고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고 절의를 높이고 염치에 힘쓰게 하여 본말을 먼저 갖추고 행동으로 드러냈다.

선생은 실지로 세상을 경륜할 재량이 있었고 세상이 바뀌고 종묘사직이 무너짐을 보고 분개하여 그를 구원할 뜻이 있어 온 나라를 두루 돌아다녔으며 두 번이나 중국에 들어가 천하의 호걸들과 교유하여, 공경대부와 문장가 시인들이 내려서지 않음이 없었다.

시복의 가까운 일가로 형식의 문하에 옷깃을 여미어(제자가 되어) 특별한 아낌을 받았는데, 그는

"제갈공명은 얼마쯤 되는 사람이냐? 제갈공명이 왕업을 도울만한 재량이 있었으나 공평한 입장에서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유비가 삼고초려(三顧草廬)하지 않았다면 끝내는 남양 땅의 야인에 그쳤겠느냐?"

"제갈공명은 삼대 이후에 가장 뛰어난 인물로, 만약 유비의 등용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성학(聖學 : 孔聖의 學)의 공이 얕고 적었을 것인데, 비록 제갈공명에게는 만분의 일도 따를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숭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선생께서의 믿음이 과연 어떠하였으며 가슴속에 쌓인 것을 펴지 못하고 숨긴 뜻을 이루지 못하셨는데 홀연히 영결하게 되었으니 하늘의 이치가 캄캄하여 알아낼 수가 없었다.

자료 1. 琴臺銘 幷序

緦弟澄植撰

梨洞路左有小岡其形
如琴其名琴山山下有
書齋是我晩翠先生故
宅也先生每與冠者五
六童子六七嘯咏于此
山山之一木一草無非
錦囊中物先生歿後山
之名幾與世人相忘及
門諸生恐遺墟湮蕪與
先生之子允煥謀伐石
築臺名之以琴臺銘曰
先生存而山巍巍
先生逝而山寂寂
石不泐而臺兀兀
仰彌高而銘歷歷

〈금대명(琴臺銘)〉 병서(幷序)

팔촌동생 뻘 되는 형식(澄植)이 찬(撰)함.

배동네[梨洞] 길 좌측으로 작은 언덕배기가 하나 있는데, 그 형세가 마치 비파[琴]와 같이 생

겨 금산(琴山)이란 이름으로 불려졌다. 그 산 아랫자락에는 서재가 있는데, 바로 우리 만취(晩翠) 선생께서 사셨던 옛집이다.

선생은 매번 관을 쓴 성인 남자 대여섯 명과 아이들 예닐곱 명과 더불어 소리를 길게 뽑아 시를 읊조리곤 하였다. 이 산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모두 훌륭한 시의 소재가 아님이 없었다.

선생이 돌아가시자 산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몇 번 거느리곤 하다가 서로 잊혀져가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급기야 문하의 여러 제생들이 선생이 사시던 옛 터가 묵어감을 두려워한 까닭에, 선생의 큰아들 윤환(允煥)과 더불어 돌을 갈고 대를 쌓기를 도모해 이름 짓기를 금대(琴臺)라 명(銘)하여 이른다.

선생이 살아 계실 적엔 산이 높아 커 보이더니,
선생이 돌아가시자 산이 적막해져 버렸네.
돌은 닳아 없어지지 않고, 대는 우뚝 솟았으니,
우러러 볼수록 그 비명(碑銘) 더욱 뚜렷하기만 하구나.

공자(孔子) 탄생 2,476(서기 1925)년, 을축(乙丑)년 저무는 봄에 세우다.

후학(後學) 김유배(金濡培) 글씨 씀,
문인(門人) 오평원(吳平元) 글씨 새김

7. 명환




〈사진 29〉 고려 문하시중평장사 고조기 묘와 비석

고려 문하시중평장사 고조기(高兆基)[30]

고조기(高兆基)는 고려 초기의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를 역임해서, 제주 최고의 관직자로 전설처럼 전해진다. 이름은 당유(唐愈), 호는 계림(鷄林), 시호는 문경(文敬), 성주 우복야(右僕射) 유(維)의 아들로 선종(宣宗) 5년(1088)에 출생하여 성주 작위를 물려받았다.

30) 고조기(高兆基, 1088~1157)
高氏宗門會總本部(2016),『耽羅星主』, 고조기 행장 참조, 127~132쪽.

공은 문헌공도(文憲公徒)로서, 해동공자(海東孔子) 최충(崔沖)이 개설한 사숙구재학사(私塾九齋學舍)에서 수학하고, 예종(睿宗) 2년(1107) 약관 19세의 나이로 한즉유(韓卽由)의 방(榜)에 문과 급제하여 남쪽지방으로 벼슬길에 나가 청백봉공(淸白奉公)하고, 경사(經史)를 섭렵하는 등 학문에 통달하며 출중하니 벼슬이 시어사(侍御史)에 오르게 되었다.

그의 성품은 강개(慷慨)하여 잘못된 일이 있으면 윗사람이라도 주저없이 간(諫)하였으니 인종(仁宗) 7년(1129)에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인 문공원(文公元)낭과 함께 시국의 폐단을 상소하였다가 공부원외랑(工部員外郞), 예부낭중(禮部郞中)으로 좌천되기도 하였다.

상소문의 내력은 이자겸(李資謙)이 세도를 부릴 때 그 일파인 승정(僧正)인 지수주사(知水州事)인 봉우(奉佑) 등이 홍경원(弘慶院)을 중추하는데 재물과 백성들을 마구 징발하는 등 그 횡포가 심하였다.

이자겸(李資謙)이 망함에 따라 그 일파는 모두가 처형 당하거나 귀양을 갔으나 봉우(奉佑)만은 처벌당하지 않고 복직되었으니 이를 마뜩치 않게 여겨 두 번씩이나 상소를 했다. 공은 권세에 야합하지 않고 일신상 관직의 안일을 도모함이 없이 조정의 기강을 바로 잡고자 진충갈력(盡忠竭力)하였다.

인종(仁宗) 8년(1130) 12월에 금(金)의 하절사(賀節使)로 임명되어 금나라에 들어가 왕의 생신을 하례(賀禮)하고 보주(保州=義州)에 들어간 사람들을 추색(追索)치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종(仁宗) 18년(1135)에 서경(西京=平壤)에서 묘청(妙淸)이 반란을 일으켜 상경(上京)하여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두고 군사를 모집하여 자비령(慈悲嶺=黃海道) 이북의 길을 차단하고 개경(開京=開城)을 공격하려 하였다.

이에 왕은 김부식(金富軾)을 평서원수(平西元師) 중군장(中軍將)으로, 김부의(金富儀)와 이주연(李周衍)을 좌우군장(左右軍將)으로 삼고, 공과 김정순(金正純)을 참모로

써 그 좌(佐)로 삼아 서경(西京)으로 진군케 하였으니 공은 재략으로써 무공(武功)을 많이 세웠으며 일년 후 반란을 평정하게 되었다.

의종(毅宗) 2년(1149) 4월에 공은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의 수상 자리인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고, 그 해 7월에는 청연각(淸燕閣)에서 베푼 잔치에 공은 어사중승(御史中丞)인 고영부(高瑩夫), 보문각직각(寶文閣直閣)인 문공유(文公裕) 등과 함께 왕도 참석하였다.

왕은 탐라성주인 공과 군신(君臣)의 예의를 생략하고 자주 만나 국사(國事)와 탐라의 정사(政事)를 논의하고 서루(西樓)에서 격구(擊毬)를 관람하기도 하였다. 그 후 예종(毅宗) 5년(1151) 3월 공은 중군병마판사(中軍兵馬判事) 겸 서북면 병마판사(西北面兵馬判事)에 임명되는 등 문무(文武)를 겸비함으로써 많은 전공과 업적을 남겼다.

공이 칠순(七旬)이 되어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를 마지막으로 퇴관(退官)하니 왕은 수사공상주국(守司空上柱國)을 가자(加資)하고 궤장(几杖)까지 하사(下賜)하였으나 이를 사양하고 고향인 탐라에 돌아온다.

예종(毅宗) 11년(1157) 2월에 향년(享年) 70세로 별세하니, 조정에서는 3일 동안 정사(政事)를 멈추고 조의(弔意)를 표하였으며, 왕은 여러 대신(大臣)과 사신(使臣)을 보내어 재궁(齋宮)동산에 예장(禮葬)케 하고 시호를 문경(文敬)이라 하였다.

고조기 묘역은 고씨(高氏) 문중의 분묘(墳墓) 중 제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묘소(墓所)이며, 제주시 아라리경(我羅里境) 남문 밖 재궁(齋宮) 동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탐라원'으로 고씨 집안의 성지로 성역화 되어 있다. 묘역 성역화(聖域化)는 1968년 4월에 묘비와 상석, 장군석, 동자석, 석등(石燈) 등을 새로 마련하고 경내 일대를 축성(築城)하여 정원화 하는 등 묘역 확장과 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곳에는 제주고씨 '왕위전', '성주전'을 지었으며, 매년 삼성춘계대제(三姓春季大祭) 전날인 4월 9일에 묘제(墓祭)를 모시고 있는데, 노산(鷺山) 이은상(李殷相)이 묘비문(墓碑文)을 짓고, 1977년 7월 16일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 유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指

定)하여 유적지(遺蹟地)로 보존하고 있다.

자료 1. 역사기사

《고려사》 권98, 열전, 고조기전

高兆基初名唐愈 耽羅人 父維右僕射 兆基 性慷慨 涉獵書史 尤工五言詩 睿宗初登第 出守南州 淸白奉公 仁宗朝拜侍御史 李資謙修弘慶院 以僧正資富及知水州事奉佑 幹其事 發丁州縣爲害甚巨 資謙敗 資富 坐配島惟奉佑 素結宦官 僥倖復職 兆基 上疎論駁 至再三 忤旨左遷爲工部員外郎 後復爲臺官 資謙之亂 朝臣皆脅從失節 其支黨 夤緣苟免 至宰輔者多 兆基 欲斥去之屢上書力爭曰 雖聖上寬大 掩其疵疾 何面目立朝廷 見日月乎 王 雖是兆基言 不忍盡弃大臣 尋擢兆基爲禮部郎中 實奪臺職也 毅宗卽位 拜政堂文學 轉叅知政事進中書侍郎平章事 時金存中用事 兆基 屈己偸合 時議非之 爲諫官所劾降爲尙書左僕射賴 存中 救不數月復拜平章事 尋致仕 十一年 卒 無子 輟朝三日 命有司護喪 賜謚.

고조기의 이름은 당유(唐愈)이고 탐라(耽羅)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 고유(維)는 우복야(右僕射)를 지냈다. 고조기는 성품이 강개하였고 고금의 경서와 역사를 많이 읽었으며 특별히 오언시(五言詩)를 잘 지었다. 예종(睿宗) 초기에 과거에 급제하고 남주(南州) 원으로 있었는데 재직 중에 청백하게 복무하였고 인종 때에는 시어사(侍御史)로 임명되었다.

당시 이자겸이 홍경원(弘慶院)을 수리하는 데 승정자부(僧正資富)와 지수주사봉우(知水州事奉佑)에게 그 일을 주간하게 하고 여러 고을 장정들을 징발하였으므로 폐해가 매우 컸다. 그 후 이자겸이 패망하자 자부도 연좌되어 섬으로 귀양 갔었는데 오직 봉우만은 평소에 환관들과 결탁하고 지냈으므로 요행히 복직되었다.

이에 대하여 고조기가 상소하고 재삼 논박하다가 결국 왕의 뜻에 거슬리게 되어 공부 원외랑으로 좌천되었다가 후에 다시 대관(臺官)으로 되었다. 이자겸이 반란할 때 조정의 관리들은 모

두 위협받고 그를 좇음으로써 절조를 잃었고 그의 파당들과 무슨 연줄을 찾아 겨우 화를 면하였다가 후에 재상 자리까지 얻은 자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고조기가 그런 자들을 몰아내고자 여러 번 상소하여 극력 간쟁하였다.

"비록 성상께서는 관대하시어 그들의 병집을 덮어 주신다 한들 그들이야 무슨 면목으로 조정에 서서 성상을 우러러 보겠나이까?"

라고 하였더니 왕도 비록 고조기의 말이 옳다고 인정은 하지만 차마 대신들을 모조리 내보내지는 못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조기를 예부낭중(禮部郎中)으로 등용하였는데 표면은 등용이나 사실은 대관(臺官)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다. 의종이 즉위한 후 그를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임명하였다가 참지정사(參知政事)로 전직시키고 다시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로 승직시켰다.

그때는 김존중이 실권을 잡고 있었는데 고조기가 그에게 굴복하고 구차하게 뜻을 맞추었으므로 당시의 여론이 그것을 비난하였다. 그 후에 간관의 탄핵을 당하고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로 강직되었다가 김존중의 구원으로 몇 달이 못가서 다시 평장사로 임명되고 미구에 치사하였으며 의종 11년(1157) 때 죽으니 왕이 3일간 조회를 멈추고 해당 관리에게 명령하여 호상(護喪)하여 주었으며 시호를 주었다.

《고려사》 권17, 세가, 의종 3년 4월 신유조

辛酉 以李仁實守司空門下侍郎平章事 高兆基爲中書侍郎平章事 庾弼爲祕書監 金永錫爲三司使 崔誠爲工部尙書 鄭襲明爲翰林學士.

신유일에 이인실(李仁實)을 수사공문하시랑평장사, 고조기(高兆基)를 중서시랑평장사, 유필(庾弼)을 비서감(秘書監), 김영석(金永錫)을 삼사사(三司使), 최함(崔誠)을 공부상서, 정습명을 한림학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고려사》 권17, 세가, 의종 3년 12월 기미·임신조

己未 以高兆基權判吏部事

壬申 以王冲爲門下侍中仍令致仕 高兆基判尙書吏部事 金永寬爲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判尙書兵部事 崔惟淸叅知政事判尙書刑部事 李彦林爲兵部尙書 文公裕試刑部尙書 金端爲左散騎常侍.

기미일, 고조기(高兆基)를 권판(權判) 이부사로 임명하였다.

임신일, 왕충(王沖)을 문하시중으로 임명하여 이내 퇴직하게 하였으며 고조기를 판상서이부사, 김영관을 중서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 판상서 병부사, 최유청을 참지정사 판상서형부사(刑部事), 이언림(李彦林)을 병부상서, 문공유(文公裕)를 시형부상서(試刑部尙書), 김단(金端)을 좌산기상시로 각각 임명하였다.

자료 2. 문헌기사

〈星主高氏家傳〉(《東文選》 권101 수록)

高維始以賓貢 靖王乙酉 首中南省試 明年丙戌李作梃牓第三人 官至右僕射 子兆基舊名唐愈 睿王 丁亥 韓卽由牓登科 仁王朝出入臺閣 好直言敢諫 相毅王知戊辰擧 位至平章判吏部事 名迹獵獵 有詩集二卷 行于世 平章子廷益之子高適 叙其卷端曰 子廷琥 職綴三品 與其誠明 俱早歿 唯廷益 元王癸巳春 乞退還鄕 先儒崔瀣註東人文曰 無子有三女 蓋未之知也.

고유(高維)가 처음 빈공(賓貢)으로서 정왕(靖王) 을유년 남성시(南省試)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이듬해인 병술년에 이작정(李作梃)의 방(牓)에서 제3인으로 급제하여 관이 우복야(右僕射)에 이르렀다. 아들 조기(兆基)는 처음 이름은 당유(唐愈)였는데, 예왕(睿王) 정해년 한직유(韓即由)의 방에서 급제하고, 인왕(仁王)대에는 대각(臺閣)에 출입하였다. 직언을 좋아해 용감히 간하였고, 의왕(毅王)을 도와서 무진년 과거를 맡아 보았다. 지위가 평장판리부사(平章判吏部事)에 이르렀다.

명망과 행적이 뚜렷하였으며, 시집(詩集) 두 권이 세상에 간행되었다. 평장의 아들인 정익(廷益)의 아들 고적(高適)이 그 책 끝에 서술하기를, "아들 정호(廷琥)는 벼슬이 3품에 오르고 총명한 재질을 가졌으나 일찍 죽고, 다만 정익(廷益)은 원왕(元王)의 계사년 봄에 은퇴하기를 청하여 시골에 돌아왔다." 하였고, 과거의 유학자 최해(崔瀣)는 《동인문(東人文)》에 주석 붙이기를,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이 있었다." 하였으니 아마 잘 알지 못했던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 명환조

高麗..... 高兆基 維之子 初名唐愈 性慷慨 涉獵書史 睿宗朝 登第出守南州 淸白奉公 官至政堂文學參知政事 進中書侍郎平章事

고려..... 고조기(高兆基)는 유의 아들이다. 처음 이름은 당유(唐愈)인데 성품이 의기롭고 다혈질이다. 서적을 널리 보았다. 예종(睿宗) 때에 과거에 올라 나가서 남방 고을에 수령이 되었는데 청백하게 행정을 펼쳤다. 벼슬이 정당문학 참지정사에 이르고 중서시랑 평장사에 승진하였다.

자료 3. 문경공 고조기(高兆基) 묘비문[31)]

무릇 길게 흐르는 냇물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용솟는 샘이 있고 또 여기 꽃과 잎새 무성한 나무 등걸을 또 파내려 가면 깊은 뿌리가 있는 법이다.

사람도 이와 같이 조상은 자손을 낳고 기르고 자손은 피의 근원을 찾아 조상을 섬기나니, 이것이 어찌 저 강물의 샘과 나무의 뿌리에만 비길 것이랴.

남해의 파도를 넘어 구름 밖에 아득한 제주 땅에 발을 딛으면 탐라국(耽羅國)을 처음 세우신 고을라왕(高乙那王)의 탄강지라, 전해오는 거룩한 유적지 삼성혈(三姓穴)이 있고, 여기서 다시 남쪽으로 1km쯤 되는 곳에 굉걸한 무덤이 있으니, 이는 시조 고을라왕(高乙那王)의 48세손이요, 고씨(高氏)의 조상이신 문경공(文敬公) 조기(兆基)의 묘소다.

그러나 자손들은 묘비의 갖추지 못함을 민망히 여겨 마침내 내게 글을 청하므로 나는 근원을 찾는 갸륵한 뜻에 감격하여 삼가 그 사적을 상고하니 시조의 15세손 후왕(厚王)은 신라로부터 성주(星主)의 칭호를 받았고, 45세손 자견왕(自堅王)은 태자 말로(末老)를 고려에 보내어 태조(太祖)에게서 상과 작위를 받았으며, 그 뒤에 이 땅이 고려와 합치게 되면서 시조왕(始祖王) 이래 대대로 계승해 오던 왕위(王位)가 그로써 끝나고 말로(末老)로부터 새로 헤아려 고씨(高氏)의 중시조 1세를 삼고, 그의 아들 유(維)가 처음으로 고려에 들어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우복야(右僕射)에까지 오르니 이가 바로 공의 부친이라, 공은 실로 제3세가 되는 분이다.

31) 高氏宗門會總本部, 2016,『耽羅星主』, p.132.



〈사진 30〉 조천읍 함덕리 봉소동 기건 목사 송덕비

안무사 기건(奇虔)[32]

안무사 기건의 본관은 행주, 호는 청파, 시호 정무, 학행으로 이름이 높아, 세종 때 포의로 발탁되어 지평에 제수되고, 세종 25년(1443)에 제주에 도임해서 선정을 베풀다가 1445년 12월에 첨지중추로 전출되어 제주섬을 떠난다.

기건은 청렴하고 신중하였다고 하는데, 기건은 해녀들이 전복을 따는 어려움을 알고

32) 기건(奇虔, ?~1460),
김찬흡(2002),『濟州史人名事典』, 제주문화원, 76~77쪽, 참조.

전복을 먹지 않았다고 전한다.[33]

기건이 제주판관으로 부임해 왔을 때 골짜기의 해골을 보고 놀랐다. 어느 날 이방이 부친이 일흔살이 되면, 산에 가서 던진다는 말을 듣고 장례 풍속을 교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하여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어버이에게 드리도록 하고, 독이 든 작은 봉투를 부친에게 부쳐서 옥황상제에게 전하도록 했다.

며칠 후 신하를 따라 산으로 올라 간 목사는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죽은 큰 뱀을 발견하였는데, 이 뱀의 배를 가르자 이방의 부친이 잡혀 먹어 죽어있어 시신을 꺼내어 증명해 보였다. 이후부터는 부모가 죽으면 굴이나 산에 버리는 일종의 고려장 풍속을 교화시켜 예절을 갖추어 매장하도록 했다. 또 연고 없이 얼어 죽은 시체가 도랑과 골짜기에 버려지는 것을 보고, 고을 아전들에게 타일러 경계하고는 속널과 겉널 관곽을 갖추고 염습하여 장사 지내도록 했다.

이후 어느날 기건은 300여 명의 은혜 입은 영혼들이 뜰 아래에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다.

"공의 은혜를 입어서 포해(暴骸)를 면했으니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올해는 꼭 어진 손자를 낳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기건이 제주에 나병(癩病) 환자가 많아 구질막을 지어 환자 100여명을 수용하고 고삼원(苦蔘元)을 복용시키고 바닷물로 목욕시켜 치료했다고 전한다.

이전에 기건의 아들 셋이 모두 아들 후손이 없었는데, 뒤에 아들 축(軸)이 '찬'(纘)을 낳아서, 벼슬이 응교(應敎)에 이르고, 찬은 다시 아들 다섯을 낳게 되는 광영을 누리고 조선의 유명한 유학자인 복제(福齊) 기준(奇遵)과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은 그 손주이다.

33) 이원진, 『탐라지』, 제주 명환조

자료 1. 역사기사

《세조실록》 권22, 세조 6년 12월 신축(29일)조

辛丑/中樞院使奇虔卒。虔, 奇顯之後, 性淸簡貞苦, 細行必謹, 好讀書。嘗守延安, 以郡民進鯽魚, 困於捕網, 三年不食, 又不飮酒。及遞還, 父老餞之, 虔終日飮不醉。父老歎曰, 今乃知爲吾民不飮耳。又按撫濟州, 民病所貢鰒魚, 亦三年不食鰒。歷數道觀察使、大司憲, 所至有名。諡貞武, 淸白守節 '貞', 刑民克服 '武'。

신축 / 중추원사(中樞院使) 기건(奇虔)이 졸(卒)하였다. 건은 기현(奇顯)의 후손인데, 성품이 맑고 검소하고 정고(貞苦)하여 작은 행실도 반드시 조심하며 글 읽기를 좋아하였다. 일찍이 연안(延安) 군수가 되었는데, 군민(郡民)들이 붕어[鯽魚]를 바치는 것 때문에 그물질하여 잡기에 피곤해 하니 3년 동안 먹지 않고 또 술도 마시지 않았다. 체임(遞任)하여 돌아올 때에 부로(父老)들이 전송하니, 건이 종일토록 마시어도 취하지 않았다. 부로들이 탄식하기를, '이제야 우리 백성을 위하여 마시지 않았던 것을 알겠다.' 하였다.

또 제주(濟州)를 안무(安撫)하는데, 백성들이 전복[鰒魚]을 바치는 것을 괴롭게 여기니, 역시 3년 동안 전복을 먹지 않았다. 두어 곳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와 대사헌(大司憲)을 역임(歷任)하였는데 이르는 곳마다 명성이 있었다. 시호(諡號)를 정무(貞武)라 하니, 청렴하고 결백하여 절개를 지키는 것이 정(貞)이요, 백성에게 모범되게 하여 복종시키는 것이 무(武)이다.

《세종실록》 권101, 세종 25년 9월 무인(27일)조

戊寅/左正言尹泂啓 "今以執義奇虔爲濟州牧使, 以言官補外, 固無舊例, 請改除。" 上曰 "爾等慮後日之弊, 然矣。自後注擬時, 予當三思。"

좌정언(左正言) 윤면(尹沔)이 아뢰기를, “이제 집의(執義) 기건(奇虔)으로 제주 목사(濟州牧使)를 삼았사온데, 언관(言官)을 외직(外職)에 보(補)하는 것은 진실로 전례(前例)가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고쳐 제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후일의 폐해를 염려하여 그러는 것이니, 이후로는 주의(注擬)할 때에 내가 마땅히 잘 생각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권101, 세종 25년 9월 기묘(28일)조

掌令趙孜啓 “臺諫其任匪輕, 祖宗舊制, 執義則陞拜正三品, 掌令則陞拜從三品, 所以優待言官。凡言官必有過, 或外補或左遷, 今執義奇虔, 旣無過差, 而出爲濟州牧使。竊恐自今援此爲例, 以言官補外寄者多矣, 請改除。” 上曰 “爾等之言是矣。然雖言官, 若人器相當, 則或授外寄, 未爲不可。” 孜更啓曰: “濟州必武吏兼全者, 乃堪其任。虔但有吏才, 無武略, 不可謂之人器相當也, 請改授。且自今臺諫若無罪過, 願勿外補。” 上曰 “虔已加資除授, 何必改之 言官勿敍外寄, 則予將擬議。”

장령(掌令) 조자(趙孜)가 아뢰기를, “대간(臺諫)은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조종(祖宗)의 구제(舊制)에 집의(執義)이면 정3품에 올려 제수하고, 장령(掌令)이면 종3품에 올려 제수하는 것은 언관(言官)을 우대하는 것이었던 바이옵니다.

무릇 언관은 반드시 과실이 있어야 외임에 보직하거나 혹은 좌천(左遷)하는 것이온데, 이제 기건(奇虔)은 이미 과오가 없었는데도 나가서 제주 목사(濟州牧使)가 되었사오니, 그윽이 두렵건대, 이제부터 이것을 전례(前例)로 삼아 언관을 외임에 보직시키는 일이 많을 것이오니, 청하옵건대, 고쳐 제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비록 언관이라도 만약 사람과 그릇이 상당하면 혹 외임에 제수하는 것도 불가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자(孜)가 다시 아뢰기를, “제주(濟州)는 반드시 무재(武才)와 이재(吏才)를 겸한 자라야 그 임무를 감당하올 것이온데, 건(虔)은 단지 이재만 있고 무략(武略)은 없사오니 사람과 그릇이 상당하다고 이를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고쳐 제수하시고, 또 이제부터는 대간(臺諫)으로서 죄과가 없으면 외임에 보직하지 말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건(虔)은 이미 가자(加資)하

여 제수하였으니 어찌 반드시 고쳐 제수하겠느냐. 언관을 외임에 임용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장차 생각하겠다." 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제주목, 명환조

本朝.... 奇虔 性執而廉勤 嘗爲按撫使 州産鰒魚 其採于海 民甚病之 虔曰 民之受病如是 吾 忍食諸 遂不食 人皆服其廉

기건(奇虔)은 성품이 고집이 있고 청렴하고 근신하였다. 일찍이 안무사가 되었을 때 고을에서 전복이 나는데 그것을 바다에서 따려면 백성이 심히 고통스럽게 여겼다.

건이 말하기를,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이 이와 같은데 내가 차마 먹겠는가." 하고 드디어 먹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그 청렴함에 탄복하였다.

자료 2. 문헌기사

《耽羅志》 濟州, 명환조

本朝.... 奇虔 性執而廉勤 嘗爲按撫使 州産鰒魚 其採于海 民甚病之 虔曰 民之受病如是 吾 忍食諸 遂不食 人皆服其廉

기건(奇虔)은 성품이 고집이 있고 청렴하고 근신하였다. 일찍이 안무사가 되었을 때 고을에서 전복이 나는데 그것을 바다에서 따려면 백성이 심히 고통스럽게 여겼다.

건이 말하기를, "백성이 고통을 받는 것이 이와 같은데 내가 차마 먹겠는가." 하고 드디어 먹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그 청렴함에 탄복하였다.

《南宦博物》, 誌 명환조

本朝..... 按撫使兼牧使奇虔 性執而廉勤 州産鰒魚 一不近口曰 民害之此 吾 忍食諸

본조... 안무사겸 목사 기건(奇虔)은 성품이 고집이 있고 청렴하고 근신하였다. 제주에서 나는 전복을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고, 말하기를 "백성의 해가 이에 이르렀는데 내가 차마 먹을 수 있겠냐?"라고 하였다.

《耽羅誌草本秋》 권3, 제주, 기문(奇聞)조

土俗 不知葬埋之禮 委諸溝壑者多 奇虔委牧使時 教之以棺槨 斂葬之法 一日夢見三百餘人拜謝于前曰 賴公陰德 得免暴露 使公必生玄孫 克昌家聲 先是 公之三子 皆無嗣 是歲子掌令軸 生子纘官至應教 纘生五子曰 逈适遠進遵 進之子 大升以文學名世

제주의 풍습에 원래 매장하는 예법을 몰라 여러 골짜기와 도랑에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중추부(中樞府) 기건(奇虔)이 목사로 왔을 때 관곽(棺槨)으로 시체를 염습하여 장사지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300여 명이 앞에 엎드려 감사하다고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공의 음덕을 입어 비바람에 노출되는 것을 면하게 되었으니, 공으로 하여금 반드시 어진 후손을 얻게 하고 극히 성하여 집안의 이름을 날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공(公)은 세 아들에게 모두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 이 해에 아들 장령(掌令) 축(軸)은 아들 찬(纘)을 낳았는데 벼슬이 응교(應教)에까지 이르고, 찬은 다섯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형(逈), 괄(适), 원(遠), 진(進), 준(遵)이라 했다. 진의 아들 대승(大升)은 문학으로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다.

《耽羅紀年》 권2, 세종 25년조

按撫使奇虔 性執而廉勤 州産鰒魚 其採于海 民甚苦之 虔曰 民之受病如是 吾 忍食諸 竟不食 又州俗無主僵屍 委諸溝壑者多 奇到州 筋州吏 備棺槨 使之斂葬 一說 虔夢見 三百餘人拜謝于前曰 賴公陰德 得免暴露 無以報恩 公應於今年生玄孫 先是 虔之三子皆無子 果是歲軸生子纘 官至應教云

안무사 기건(奇虔)은 성품이 고집이 있고 청렴하고 근신하였다. 고을에서 전복이 나는데 바다에서 따려면 백성이 심히 괴로워했다. 건이 말하기를, “백성이 받는 병폐가 이와 같은데 내가 차마 먹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마침내 먹지 않았다. 또한 고을의 풍습이 연고 없이 얼어죽은 시체가 도랑과 골짜기에 버려지는 것이 많았다. 건이 고을에 부임해 와 고을의 아전들을 힘써 단속해 관곽(棺槨)을 갖추어 염하게 해 장사를 지내게 하였다. 일설에, 건이 꿈을 꾸었는데 300여 명이 앞에서 절을 올리며 말하기를, “공의 음덕에 힘입어 유골이 햇빛과 비에 드러나는 것을 면할 수 있었으니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공께서는 응당 금년에 어진 후손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건의 세 아들 모두 아들이 없었는데, 이 해에 아들 축(軸)이 찬(纘)을 낳았고, 벼슬이 응교(應敎)에 이르렀다고 한다.



〈사진 31〉 변경붕이 만들었다고 하는 따비

만경군수 변경붕(邊景鵬)[34]

일재 변경붕(邊景鵬)은 대정 출신의 도학자이며, 정조 19년 식년시 병과에 급제한 후 사헌부 장령, 대정현감을 지냈다. 그는 만경군수를 지냈다고 해서 변만경(邊萬頃)으로도 불리는데, 자는 만리(萬里)이다.

일재 선생의 부친은 성휴(聖休)이며, 조부는 글자를 잘 해석해서 현감으로부터 학문

34) 변경붕(邊景鵬, 1756~1823),
허남춘 외(2010), 『변경붕 문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제주도(1985), 『제주도 전설지』, 135~136쪽, 참조.

을 인정받았으며, 공자묘에 담장을 둘러서 위의를 갖출 정도로 유학과 경전에 통달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집안이 어려워 대나무로 땅바닥이나 붓에 물을 묻혀서 글을 썼던 기억과 가난하여 스승을 들이지 못하고 공부했으나 11세에 김명헌 선생에게 배울 수 있었음은 다행한 일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명당을 얻어 후히 장사 지내려고 풍수를 배우기도 했고, 부친의 병환에는 똥오줌을 손수 받아서 지극 정성을 다했다. 전라도 만경현감으로 부임했을 때, 한기(寒氣)가 심해 모종을 낼 수 없게 되어서 주민들은

"복이 없는 제주놈이 원님으로 와서 이런 지경이다."

라고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그는 제주의 밭농사 식으로 모종을 낸 후 제주에서 사용하는 따비로 흙을 일구고 흙덩이를 곰방메로 부숴 씨뿌리는 방법을 가르쳤다. 가뭄이 들자 축문을 짓고 기우제를 올렸더니 억수 같은 비가 내려서, 일을 일제히 마칠 수 있어서 대풍년이 들었다.

이후 주민들은 칭송의 소리가 높았고 따비를 '벤줄레'라고 하고 곰방메를 변군수가 지시하였다고 해서 '벤지시'라 하여 별명을 붙였다고 한다. 또 만경 지역의 백성들은 공적비를 논밭에 세워서 그를 기리고 병충해가 생기면 공적비 앞에 재물을 차려서 정성을 드릴 정도였는데, 그 후로 '벤줄레'라는 따비를 종종 사용하자, 그것을 만들어낸 변군수의 덕을 칭송했다고 한다.

전설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변당장에 대한 것이다. 중문리의 변당장은 가난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돈을 모아 밭뙈기를 사 농사도 지으면서 배고프지 않게 살기를 희망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마침 중문 옆 마을인 하예리에서 밭뙈기 거래를 하려고 했으나 양편 서로가 글을 모르는 처지여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밭문서를 만들어 오자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문서는 "동은 족다리, 서도 족다리, 북은 벳또롱동산, 남은 허구대양"이라는 것이다.

변당장은 문서를 보고서 꽤 큰 밭이라고 여기기는 했으나 사용된 언어나 명칭은 사람

의 인체를 가리키고 있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문서를 보면서 밭 구경을 나갔다.

변당장은 이듬해 쟁기를 지고서 밭으로 농사를 지으러 가려고 전 주인을 찾아갔는데, 주인 여자는 안으로 안내한 후 술상을 차리고 들어와 태연하게 사타구니를 치면서, 당신이 사신 밭이 여기가 아닙니까? 하고 질문했다고 한다.

자료 1. 역사기사

《정조실록》 권39, 정조 18년 4월 정축(21일)조

濟州御史沈樂洙 試取儒生收券上送 親臨科次 論居首大靜幼學邊景鵬策居首旌義幼學夫宗仁詩居首旌義幼學高鳴鶴 賦居首濟州幼學洪達勛 銘居首濟州幼學李台祥 頌居首濟州幼學鄭泰彦 幷直赴殿試 策之次大靜幼學金命獻 以八十一歲 特賜第 命依嶠南關東例 該載事實及入格諸作 刊印以頒 名曰耽羅賓興錄

제주 어사 심낙수가 유생들을 시험하여 뽑고 그 시권(試券)을 수합하여 올려보내니, 상이 친히 과차(科次)를 매기었다. 논(論)으로 수석을 차지한 대정현(大靜縣)의 유학 변경붕(邊景鵬), 책문(策文)으로 수석을 차지한 정의현(旌義縣)의 유학 부종인(夫宗仁), 시(詩)로 수석을 차지한 정의현의 유학 고명학(高鳴鶴), 부(賦)로 수석을 차지한 제주의 유학 홍달훈(洪達勛), 명(銘)으로 수석을 차지한 제주의 유학 이태상(李台祥), 송(頌)으로 수석을 차지한 제주의 유학 정태언(鄭泰彦)에게는 모두 전시(殿試)에 직부하도록 하고, 책문으로 차석(次席)을 차지한 대정현의 유학 김명헌(金命獻)은 나이가 81세가 되었으므로 특별히 급제를 내렸다.

그리고 명하여 영남과 관동 지방의 관례에 따라 그 사실을 갖추어 기록하고 합격한 여러 작품들과 함께 인쇄하여 반포하도록 하고는 이를 《탐라빈흥록(耽羅賓興錄)》이라 명명하였다.

《정조실록》 권53, 정조 24년 2월 병술(3일)조

判下赦單。金相福罪名爻周, 李昌伋、盧聖中、申光復、朱炯魯、邊景鵬蕩滌, 李克生、李萬軾、趙鎭明、李承薰減一等, 玄杞職牒還給

사면 단자를 재가하였다. 김상복(金相福)은 죄명을 지우게 하고, 이창급(李昌伋)·노성중(盧聖中)·신광복(申光復)·주형로(朱炯魯)·변경붕(邊景鵬)은 죄를 탕척하고, 이극생(李克生)·이만식(李萬軾)·조진명(趙鎭明)·이승훈(李承薰)은 1등급을 감하고, 현기(玄杞)는 직첩(職牒)을 돌려주었다.

《순조실록》 권12, 순조 9년 10월 신해(24일)조

延曙察訪邊景鵬 疏陳五條時務 賜批嘉奬

연서 찰방(延曙察訪) 변경붕(邊景鵬)이 상소하여 다섯 조항의 시무(時務)에 대해 진달하니, 가상히 여겨 권장하는 비답을 내렸다.

자료 2. 문헌기사

《增補 耽羅誌》 一六 人物조 1 科宦

邊景鵬 桃源里이니 正祖朝에 文科로 官이 萬頃縣令에 至하고 善治로 聞이라.

변경붕(邊景鵬)은 도원리(桃源里) 사람이다. 정조(正祖) 때 문과에 급제했다. 관직이 만경현령에 이르렀을 때 행정을 잘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耽羅紀年》 권3, 정조 18년조

御史沈樂洙設文武試取士 文科邊景鵬(論) 夫宗仁(策) 金命獻(仝) 高鳴鶴(詩) 洪達勛(賦) 李台祥(銘) 鄭泰彦(頌) 七人 武科 洪範翼 金應福 高遇泰等 十人也

어사(御史) 심낙수(沈樂洙)가 문·무과(文 · 武科)를 실시해 선비를 뽑았다. 문과에 논(論)의 변경붕(邊景鵬), 책(策)의 부종인(夫宗仁)과 김명헌(金命獻), 시(詩)의 고명학(高鳴鶴), 부(賦)의 홍달훈(洪達勛), 명(銘)의 이태상(李台祥), 송(訟)의 정태언(鄭泰彦) 7인, 무과에 홍범익(洪範翼), 김응복(金應福), 고우태(高遇泰) 등으로 10인이다.

8. 명사(名士)

제주의 명사 사절(四絶)은 '사절명사(四絶名士)'[35]의 의미로서, 네 사람의 빼어난 인물'이란 뜻으로 《전고문헌(典故文獻)》 칠권(七卷) 부록 〈탐라지(耽羅誌)〉편에 관련 내용이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영조(英祖) 때 양유성(梁有成)은 무관(武官)으로 보성군수(寶城郡守)를 역임하고 외모가 출중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고홍진(高弘進)은 전적(典籍)을 담당한 관리로서 풍수의 대가였고, 문영후(文榮後)는 곡성(谷城) 현감(縣監)을 역임한 관리인데 점술로 유명했으며, 진국태(秦國泰)[36]는 제주좌수(濟州座首)로서 의술(醫術)로 유명하다.

35) 英祖時有梁有成武官至寶城郡守以好貌名高弘進官典籍以風水名文榮後官縣監以卜筮名秦國泰濟州座首以醫術名詩人謂之曰四絶名士, 일청서실(一靑書室) (1973) 『전고문헌(典故文獻)』, 7권 4쪽에도 나오고 있음.

36) 진국태는 천의에서 다루고, 그를 제외한 3인만 다룸

전적 고홍진(高弘進)[37]

공의 휘(諱)는 홍진(弘進)이고, 자(字)는 추이(追而)이며, 중시조 말로(末老)의 32세손이시고, 가선대부(嘉善大夫) 휘 귀남(貴男)의 현손(玄孫)으로 향공진사(鄕貢進士) 휘 정순(定舜)의 삼자(三子)로 출생하였다.

광해군 10년(1618), 인목왕후(仁穆王后) 폐모론(廢母論)에 반대하다가 유배당한 정언(正言) 이익(李瀷)[38]이 제주에서 8년 적거 중 향리의 자제들을 모아 훈육할 때, 17세 소년으로 김진용(金晋瑢) 선생 등과 입문하여 주자학(程朱學)과 지리학(地理學)을 탐구하였으며 감여술(堪輿術)에 능통했다.

효종 2년(1651) 7월에 목사 이원진(李元鎭)과 교수 신찬(申纘)이 도임한 후 그를 자주 만나 주자학과 감여술(堪輿術) 등으로 교분을 친히 하였는데, 목사 이원진은 그의 인품과 풍부한 학식을 존중하여 외조카인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에게 소개시키기도 했다.

목사 이원진은 탐라의 향토지리지(鄕土地理誌)와 역사 서적 등 모든 문적(文籍)이 안무사겸 목사 최해산 재임 당시 관부화재로 소실된 후, 사적이 없음을 개탄하여 그에게 『탐라지(耽羅志)』 편찬을 의뢰한다.

『고려사(高麗史)』와 각종 문헌과 사기(史記) 등을 깊이 탐구하고 섬 전역을 답사하여 형승(形勝)·산천(山川)·지형(地形)·지질(地質)·거리(距離) 등을 관측한 자료를 수집한 후 역사(歷史)·지리(地理)·풍속(風俗) 등을 총망라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제주를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역사적인 공증 문헌으로 편저(編著)하였다.

현종 5년(1664) 별견시제어사(別遣試才御使) 윤심(尹深)의 시제 '월상씨헌백치부(越

37) 고홍진(高弘進, 선조 35년(1602)~숙종 8년(1682))
高典籍誌編纂委員會編(2003), 『高典籍誌』, 47~48쪽.

38) 호는 간옹(艮翁)이며, 율곡 학파의 대유학자

裳氏獻白雉賦)'에 응시, 63세의 노령으로 급제하여 전시직부(殿試直赴)와 통훈대부(通訓大夫) 품계를 제수하였다.

현종 7년(1666) 춘삼월 성균관에서 시행하는 식년시(式年試)에 응시, 65세의 노령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典籍)을 제수하여 후학 양성에 진력하고 몇 해 후 귀향한다.

현종 8년(1667) 『탐라세계록(耽羅世系錄)』을 편저할 때 『탐라왕국세계보(耽羅王國世系譜)』 고문헌을 발굴하여, 이를 세간에 반포하고자 탐라국 개국시조인 고을나왕(高乙那王)으로부터 45세 자견왕(自堅王)까지의 왕세계를 영곡공(靈谷公) 고씨(高氏) 족록(族錄)에 수록 편집하고 역대 탐라성주(耽羅星主)를 직계선조로 모셔온 도종가(都宗家)의 가계가 가선대부(嘉善大夫) 귀남공(貴男公)임을 밝혔는데, 이것이 후일 제주고씨 도륙합보첩(島陸合譜牒)을 발간하는 모체가 되기도 했다.

숙종 원년(1675) 소두산(蘇斗山)이 제주목사로 부임 후 그와 교분이 두터웠고 소목사(蘇牧使)에게 감여술(堪輿術)의 지형지세에 따른 특수감각 기능 등을 설명하고 많은 일화를 남겼으니 소목사는 그를 존경하여 도안(道眼)이라고 칭했다.

공은 만년에 향리인 제주시(濟州市) 이호2동(梨湖二洞, 俗稱 오도롱)에서 향리 자제를 모아 훈학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 배출하였으며, 아들 상필(尙佖)·상걸(尙仡) 등 삼형제를 두었고, 손자 중에는 찬이 좌승지를 지내는 등 문무에 현달한 후손이 매우 많았다. 숙종 8년(1682) 81세에 서거하여 천수를 다했다. 그와 관련한 전설로는 풍수전설이 전해진다.

고홍진(高弘進)은 일명 고봉래(高逢萊)로 제주시 이호동에서 태어났고,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한 이익(李瀷)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글을 배웠으며, 목사 이원진(李元鎭)에게 발탁된 후, 그의 외질인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을 소개받아 교우관계를 쌓기도 했다.

만년에는 이호동 '가물개'에 살면서 너븐드르(廣坪)에 와 개척해 사는 현치적(玄致積, 1640~1690)과도 교유하며 잘 어울렸다고 한다.

고전적이 현치적의 집터를 봐주자 집을 지어 살림이 넉넉해지고, 부농이 된 이후에

우연히 한 여인을 길거리에서 만나 음식을 대접한 후, 다시 정월에 재물을 차리고 가서 정성을 드리니 부자가 되었는데, 이 여인은 광평마을의 본향당 여신이었다.

어렸을 적 고전적 선생은 늘 스승에게 미움을 사서 글을 배울 때 송곳으로 찔리는 아픔을 당해야 했고, 그는 정승 아들에게는 힘들여 글공부를 가르쳐 주는 스승이 밉기까지 했다.

어느 날 정승 아들이 훌륭한 어사가 되어 제주에 파견된 이후, 자신을 아껴주던 선생의 묘자리를 찾아보니 형편이 없어서, 동학인 고전적에게 그 연유를 묻자 어렸을 때의 앙갚음으로 나쁜 묘자리를 구해줬다고 전한다.

이후 고홍진은 선생의 묘자리를 좋은 터로 옮긴 후 육지의 대가집의 묏자리를 봐 주고 벼슬을 얻었다.

제주시 아라동에 살던 이훈장은 부친이 돌아가자 음택지를 고르지 못해 하던 차에, 풍수에 능한 유명한 지관인 '고전적'에게 산 터를 봐주도록 부탁한다. 고전적은 제주시와는 먼 곳에 떨어져 있으나 정의 고을 효돈에 있는 월라봉에 이장터를 추천한다. 이 월라봉 큰머리는 '신두형(神頭型)'이라서 몇 년에 한번 씩 남쪽 별이 떨어질 때마다 인물이 태어나고 섶섬의 문필봉을 바라보고 있어서 문장가가 태어나거나 자손대대로 번창할 터라고 알려져 왔다.

이훈장은 거기에 터를 쓰기로 했다. 곡소리가 십리 밖까지 들리도록 목소리 좋은 인원을 수만 명 동원하고, 한라산 중허리로 길을 내어 제주시 아라동에서 월라봉까지 상여행렬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밭의 곡식들이 다 망쳐져서 백성들의 비난과 원성이 빗발쳤다고 전한다.

자료 1. 문헌기사

《濟州邑誌》 濟州, 人物조

本朝..... 高弘進 康熙甲辰文科 官至典籍

본조(조선)(중략) 고홍진(高弘進)은 현종 5년(1664)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전적(典籍)에 이르렀다.

《耽羅誌草本 夏》 권2, 科宦조

本朝..... 高弘進 文科 官至典籍

본조(조선)(중략) 고홍진(高弘進)은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전적(典籍)에 이르렀다.

《耽羅紀年》 권3, 영조 14년조

梁有成 本州人也 武科 官至寶城郡 以好貌名 同時 又有高弘進 官典籍 以風水名 文榮後 官縣監 以卜筮名 秦國泰 座首 以醫術名 時人謂之四絶

양유성(梁有成)은 본주, 곧 제주 사람이다. 무과에 급제해 관이 보성군수에 이르렀다. 용모가 좋아 이름이 났다. 같은 시기에 고홍진(高弘進)은 벼슬이 전적(典籍)인데, 풍수로 명성이 있었다. 문영후(文榮後)는 벼슬이 현감인데, 복서(筮)로, 진국태(秦國泰)는 좌수(坐收)를 지내면서 의술로 이름이 있었다. 이때의 사람들이 이들을 일컬어 사절(四節)이라 하였다.

《增補 耽羅誌》一六 人物조 1 科宦

高弘進 顯宗朝에 文科로 官이 典籍이 至하다, 風水로 有明하야 일즉이 州牧蘇斗山으로 더불어 山川에 遊할세 州牧이 稱贊 曰 道眼이라 하다.

고홍진(高弘進)은 현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전적(典籍)에 이르렀다. 풍수지리로 이름이 났고, 일찍이 제주목사 소두산(蘇斗山)과 함께 산천을 유람할 때 제주목사가 칭찬하여 말하기를, "그는 풍수에 도사(道師)와 같은 눈을 가졌다고 할 만큼, 진리를 분명히 가려낸다."라고 하였다.

《增補 耽羅誌》一六 人物조 3 文學

高弘進 博學處士로 稱이라. 現科宦

고홍진(高弘進)은 널리 배운 선비로 일컬어졌다. 본서의 과환(科宦)에도 수록되어 있다.

곡성현감 문영후(文榮後)[39]

문영후는 조선조 현종·숙종 때의 문신으로 제주 교수이며, 자는 인경(仁卿), 본관은 남평, 애월읍 어음리 '변방우영'에서 문재박(文在樸)의 아들로 태어났다.

현종 5년(1664) 8월에 조정에서 정언(正言) 윤심(尹深)을 제주 시재어사(試才御使)로 보내어 시취(試取)하게 될 때, 문과에 문영후, 문징후(文徵後), 고홍진(高弘進) 등 3명을, 무과에는 업무(業武) 문창업(文昌業) 등 4명을 합격시켜 전시에 직부(直赴)할 자격을 부여하였다.

시제(試題)는 "이월상씨헌백치부(以越裳氏獻白雉賦)"인데 문영후가 수석으로 뽑혔다. 그는 현종 7년(1666) 식년문과 전시에서도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전라도 남원(南原)의 오수찰방(獒樹察訪)을 지내고 곡성(谷城)현감을 지냈다.

숙종 1년(1675) 8월 곡성현감으로 재임했으며, 숙종 7년(1681) 그는 좌수 오상현(吳尙賢)과 함께 도민의 부역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진언하니, 제주목사 임홍망(任弘望)은 이를 조정에 보고하고 법령을 자세히 정하여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그는 부역의 균등 배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여 무명지세(無名之稅)를 혁파하니 백성들의 삶이 편안해졌다. 숙종 10년(1648) 제주 교수로 임명되었는데 구예도목(舊例都目)에 의하면 교수는 판관보다 상위 직급이므로 간혹 서열을 다투는 경우가 있었으나, 문영후는 공식 석상에서 판관 아래에 앉고 양현(兩縣) 현감 윗자리에 앉으니, 이 때 사람들은 체통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러러보았다.

구전전설에 의하면 신우면(新右面 : 애월면)에 문곡성(文谷城)이라고 부르는 이가 있었는데 곡성현감을 지내서 그렇게 불렀던 것으로, 용모가 무골형(武骨型)으로 풍채가 우뚝하고 힘도 센 장사(壯士)였다고 한다.

39) 문영후(文榮後, 인조 7년(1629)~숙종 10년(1684)
金槩洽(2002),『濟州史人名事典』, 濟州文化院, 227~228쪽.

중국의 태자가 병이 들어 백방으로 약을 썼으나 낫지 않자, 남방의 복술인인 문곡성이 천거되어 중국으로 불려가 융숭한 대접을 받고 점괘를 의뢰 받았다. 그는 태자의 병이 궁궐에서 일어난 부정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참부두(子斬夫頭)하니 백설분분(白雪紛紛)"이라는 점괘를 꺼내서 임금께 바쳤더니, 임금은 대단히 화를 내었다. 그는 재빠르게 "위패를 톱으로 잘라서, 나무 톱가루가 흩날렸다"는 식으로 주언을 올리니, 임금은 위패를 잘라서 부정이 생겼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선대 조상의 위패 앞에 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자 태자의 병이 나았다고 한다.[40]

문곡성이 장안에서 거리낌 없이 주름잡아 조정에서는 은근히 걱정했는데, 당시 국지리(局地理)로 있는 소두산(蘇斗山)을 제주목사로 보내어 문곡성의 선묘(先墓)를 탐색하고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다. 소목사는 순력(巡歷)을 하면서 일부러 과납(科納 : 납읍리)에 들려 문곡성의 선묘를 보고난 다음 문곡성의 부친을 만나자, 소목사는

"아쉽다. 이 묘는 호형(虎形)인데 그만 호랑이 눈썹가에 묻었구먼! 눈 밑에 묻었더라면 영웅이 날 것인데 허허 안됐군!" 하자, 이후 묘를 옮겨서 집안이 잘 안됐다고 한다.

자료 1. 문헌기사

《濟州邑誌》 濟州, 人物조

本朝..... 文榮後 文科 官至谷城縣監

본조(조선)(중략) 문영후(文榮後)는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곡성현감에 이르렀다.

40) 김영돈 외(1985), 『제주설화집성』, 재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6쪽.

《增補 耽羅誌》一六 人物조 1 科宦

文榮後 顯宗朝에 文科로 官이 谷城縣監에 至하고 肅宗朝에 敎授가 되다. 舊例都目에 敎授가 判官의 上에 在하는 故로 或爭列하는 者가 有하더니 公은 土人이라 判官으로 더불어 官民의 分이 있다 하여 上營 坐定時에는 判官의 下 兩縣監의 上에 自處하니 時人이 得禮하였다 稱하다. 卜筮로 有名하다.

문영후(文榮後)는 현종 때 문과 급제, 관직이 곡성현감에 이르렀다. 숙종 때 교수가 되었다. 「舊例都目(구례도목)」에 의하면 교수의 자리가 판관(判官)의 위에 있음으로 혹 서열을 다투곤 했다. 공은 자신의 고장에 사는 사람인지라 판관과 더불어 관인과 민간인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며 영(營)에 들어가 앉을 때 판관의 아래쪽, 두 현감의 위에 앉았다. 당시 사람들은 예의범절을 안다고 하였다. 길흉을 점치는 복서(卜筮)로 이름이 났다.

《增補 耽羅誌》一六 人物조 3 文學

文榮後 以文筆로 名이라. 現科宦

문영후(文榮後)는 문장과 글씨로 유명했다. 본서의 과환(科宦)에도 수록되어 있다.




〈사진 32〉 양유성의 누러벵듸

보성군수 양유성(梁有成)[41]

양유성(梁有成)은 용모가 좋아 이름이 났는데, 그의 외모는 위세가 느껴질 정도로 뛰어났다고 한다. 그의 탄생은 마치 전설적인 인물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숙종(肅宗) 갑자년에 고을의 지주(知州)였던 김세구(金世龜)는 달밤에 정자로 나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홀연히 남문 쪽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솟아오르는 지라 그 집을 찾아 들어가니, 그 집에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는데, 아이의 얼굴은 물소와 같이 넓은 이마에 눈에서는 광채가 솟고 보통 사람이 범접하기 어려운 기상이 있어서 기특하게 여겨져, 많은 곡식과 돈을 보내고 잘 보살피라고 했다.

41) 양유성(梁有成, 숙종 10년(1684)~영조 37년(1761))
통정대부행보성군수양공유성행장(通政大夫行寶城郡守梁公有成行狀)(1969), 『제주양씨삼도파족보(濟州梁氏三徒派族譜)』.

그는 자라면서 노는 데에서도 모든 어린이가 복종하고 그의 성품 또한 영매하여 일찍부터 가정의 따뜻한 훈도를 받아 학문 문답에도 청산유수와 같이 막히는 곳이 없었다. 그의 기상은 호쾌하고 활달하였으며 무예가 특출했는데 많은 병서를 탐독하고 손자(孫子)와 오자(吳子)의 기상을 희망하고 있었다.

어느 날 중국의 절강성 사람 오서신(吳書紳)이 보고 극구 칭송했는데, 본래 그는 거만하여 누구를 만나도 무례하기 짝이 없었으며, 남의 칭찬은 한 번도 하지 않던 인물이었다. 오서신이 공을 보고 위의(威儀)에 놀라 문득 예절을 갖추며

"공이 만약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반드시 대장군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며 공에게 많은 애정을 쏟고 돌아가기를 아쉬워했다고 한다.

그 후로부터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곧 바로 정해년에 무과(武科)에 장원급제하고 병마만호(兵馬萬戶)가 되었으며, 정유년에 다시 중시(重試)에 합격하여 첨중추수군절제사(僉中樞水軍節制使)가 되었다.

청나라 세종 건륭 4년 병자년은 조선의 영조(英祖)가 보위에 오른 다음 해로, 공께서 사신을 따라 중국을 방문할 때 몽고 병사들이 매복하여 습격하고자 먼저 첩자를 보내어 공을 위협했다

"이곳은 비가 오면 연꽃까지도 쓸어가는 구릉으로 삼천궁녀가 목욕할 수 있는 위험한 곳이다."

라고 첩자가 외치자, 이 때 공께서는 곧바로 이 말을 받아

"바람이 일면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쓸어간다."

라고 해서, 10만의 병사들이 한꺼번에 터뜨리는 우렁찬 목소리로 적들을 놀라게 하여, 적들이 매복을 풀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했다. 귀국 후에 이 이야기를 영조가 전해 듣고 공을 부르고, 영조는 공의 위엄 있는 기풍과 당당한 위의를 직접 보고 좌우를 돌아보며,

"이 사람이 중국의 오서신이 칭송한 인걸이냐?"

하고 확인한 후 대사마(大司馬)로 임명했다. 공은 대사마의 직책을 굳이 사양하고,

"저는 소국의 미천한 몸입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이 벼슬을 받는 것이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저의 고향에는 늙으신 어버이가 계시오니 그 분들의 곁으로 가 어버이를 봉양하는 데나 힘쓰겠습니다. 공명에는 뜻이 없습니다. 또 어버이를 모시는 것은 자식된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하고 귀향을 간청했다. 영조는 이에 감동하시고 변방에서 내직으로 불러들여 보성군수(寶城郡守)를 제수했다. 보성군수가 된 후에도 선비를 대접하되 예의를 다하고 백성 돌보기를 처자식처럼 하므로 군민들도 공을 부모처럼 존경하고 칭송이 자자했다. 임기를 끝마친 후 통정대부에 오르고, 부모상을 당하여 초려(草廬)를 짓고 3년의 예를 다하자 세상 사람들이 그곳을 '양보성의 터[梁寶城坪垈]'라고 일컬었다.

만년에 고향에 돌아와서 화산(禾山)의 양지 바른 곳에 모옥(茅屋)을 짓고 대나무 밭을 벗삼아 달과 바람 자연과 벗하며 음풍농월하면서 가을소리의 허전함에 접하면

"장부로 태어나서 나라에 공을 세우지 못하고 좋은 말만 썩힌다."

하여 슬픔에 젖기도 하였는데, 78세의 장수(長壽)로서 3월 5일 한평생을 마쳤는데 해마다 제4소장의 무덤에서 공의 기일을 추모하고 있다.

양보성의 들판[梁寶城坪]은 양보성(梁寶城)의 선산(先山)인 '누러벵듸[訥語坪]'를 지칭하는데, 이는 누런 황토의 땅을 뜻하며, 제주시 화북동에 위치해 있다.

자료 1. 문헌기사

《耽羅誌草本 夏》 권2, 科宦조

本朝..... 梁有成 武科 官至寶城郡

본조(조선)(중략) 양유성(梁有成)은 무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보성군수에 이르렀다.

《耽羅紀年》 권3, 영조 14년조

是歲 浙江人吳書紳 漂到旌義土山浦 遇風覆船 嘆曰 可惜烏金櫝沈入水中 此櫝所儲之物 可將朝鮮通國之財云 云曰 渠等曾亦漂往長崎島 見貴國人被擄於壬辰之亂 其子孫居日本者 自成一村 傳習貴國言語 若達朝鮮人漂來者 必著朝鮮衣冠而見之云 書紳爲人倨傲無與爲禮 及到州境見土人梁有成 輒加禮貌 人問其故答曰 梁某若在中國 必爲大將矣

梁有成 本州人也 武科 官至寶城郡 以好貌名 同時 又有高弘進 官典籍 以風水名 文榮後 官縣監 以卜筮名 秦國泰 座首 以醫術名 時人謂之四絶

이 해(1738) 중국 절강 사람 오서신(吳書紳)이 정의현 토산포에 표류해 왔다. 바람을 만나 배가 뒤집힌 것이다. 탄식하여 말하기를, "오금궤(烏金櫝)를 물속에 빠뜨린 것이 애석하다. 이 궤에 들어있는 물건은 조선의 나라를 통틀어 합한 재물과 맞먹으리라." 말하고 또 이르기를, "자신들이 일찍이 또한 나가사키〔長崎島〕에 표류해 갔는데 귀국의 사람으로 임진왜란 때 포로가 되어 간 자손이 일본에 거주해 한 마을을 이루고, 귀국의 언어를 전해 익히더라. 만약 조선인이 표류해 닿으면 반드시 조선의 의관을 갖추고서 만났다."고 하였다.

9. 천의





〈사진 33〉 한림읍 명월리 진국태 묘

한림읍 명월리 진국태(秦國泰)[42)]

일명 월계 진좌수라고 하는 천의의 휘는 국태(國泰)요, 자는 중서(仲舒)이며, 호는 순암(順庵)또는 월계(月溪)이다.

그는 제주에 들어온 찬성사(贊成事) 휘 계백(季伯)의 9세손으로, 1690년 한림읍 옹포리 월계 물가에서 탄생하여, 여러 번 제주의 좌수를 역임하니 세상에서는 월계좌수(月溪座首)라고 일컬었다.

42) 진국태(秦國泰, 1690~?)
월계공 행장, 진주진씨 족보 인용



〈사진 34〉 진좌수 묘비

그는 태어난 바탕이 비상하였고, 죽마(竹馬)를 타고 노닐 때부터 동작과 언행이 모두 비범하였는데, 처음 취학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지켜 선비가 되었다.

그는 어버이 섬기는 자는 의학을 몰라서는 안된다 하며, 힘을 다해 깨닫고 오직 미치지 못할까를 두려워하면서, 결심이 이 같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는데, 여우에게서 여의주인 신고주(神孤珠)를 얻어 신령에 통했다.

병든 부인이 찾아와 말하기를 "잉태한 지 며칠 만에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다급함을 구제해 주십시요" 하니 이때 공이 나무 밑에서 친구와 바둑을 두다가 떨어지는 낙엽을 주어 '낙엽귀근탕(落葉歸根湯)'이라고 써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에 물 한 대접을 부어 달이다가, 반쯤 되면 마시라"

고 하였는데, 환자가 그 지시대로 하였더니 효험이 있었으며 사람들을 구제함이 백발백중이었다.

자신이 병이 들어서는 일어나지 못하고 별세하니 을축년 6월 7일, 향년 56세였는데, 옛사람이 말하기를 인명은 하늘에 달렸다고 하자 이는 수명을 어길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가 죽었을 때에 중국인이 와서 묻기를

"의성(醫星)이 동남방에 떨어졌는데, 이곳에 유명한 의원이 별세했는가"

라고 하니, 들은 자가 '진국태'라고 답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조정에서는 제주에 넷 절사(絶士)가 배출된 기이함을 듣고, 지사(地師)를 보내어 절사(絶士)들의 선대 묘소를 답사하도록 하자, 진좌수의 선조 통정공 언백(彦伯)의 상명리 명악 묘소의 혈맥 위에 거꾸로 된 선산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사(地師)는 만약 거꾸로 된 선산이 아니라면 인걸이 연이어 날 것이지마는 이는 월계공 당대일 따름이라 하였는데, 공은 선견지명이 있어서 백모 조씨를 이곳에 장사하여 화를 면하게 되었다고 한다.

공은 학문이 뛰어났고 가슴속엔 만권의 의서(醫書)를 깨달아 진리가 환하였으며 병에 따라 치료함에 자신을 잊고 부지런하여서 백성을 살려 구제하였는데, 그의 은덕은 천지와 같고 명성은 중외에 드러났으나, 질병에 있어서의 조화는 귀신도 헤아릴 수 없었는데 사람들은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지금도 한림읍 명월리에는 월계숲과 월계교, 월계묘가 있으며, 아직도 진좌수의 묘에는 중한 병에 걸린 외지인들이 찾아와 배례하고 술을 올려서 병구완을 기원한다고 한다.

자료 1. 문헌기사

《增補 耽羅誌》一六 人物조 13 醫術

秦國泰 字는 仲舒요 號는 順菴이니 翰林面 明月里人이라. 醫術로 이름을 世上에 펼쳐 當時 四節中 1人으로 世稱 月溪 秦座首라 한다. 死後에 中國人이 來問曰 醫聖이 東南方에 殞하니 이 地方에 한 名醫가 죽었다 하거늘 사람들이 秦國泰로 對答하니 相見치 못함을 恨하고 돌아갔다.

金錫翼詩에

秦越人是古神醫　醫家復得醫兒奇　誰云聖賢不繫類　夫子之孫得子思
君不見簷溜水　簷溜点滴不差移　又不見燒後草　燒後春心却相隨
猗歟月溪是神裔　得道何曾有常師　少從師門來往路　却被幼粧老狐欺
朝夕戀戀情何密　戲將意珠口相推　如是遷延日復月　輸耗陰精漸就羸
於是人皆疑其瘠　意爲先進覺得窺　謂是狐情採練術　若不早閣悔無爲
爾其依前交歡處　就也弄株呑勿疑　然後見天天機得　也須觀地地理知
果然呑株誰如教　倉卒逢人豈前期　從此人事如見肺　沛然妙悟鞭黃岐
神方妙悟貫天人　劈破狐精得道眞　可惜英魂落何處　如今故國病私娠

진국태(秦國泰) 자(字)는 중서(仲舒)요, 호(號)는 순암(順菴)이니 한림면 명월리 사람이다. 의술로 이름을 세상에 펼쳐 당시 사절(四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칭 월계(月溪) 진좌수(秦座首)라 한다. 죽은 뒤에 중국인이 와서 물으며 말하기를, “의학의 별이 동남방에 떨어지니 이 지방에서 한 명의가 죽었다.” 하니, 사람들이 진국태로 대답하니 서로 만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돌아갔다.

김석익(金錫翼)의 시에는 “진월인(秦越人, 곧 중국 전국시대의 명의 편작(扁鵲)을 말함)은
곧 옛날의 신의(神醫)였는데 의원 집안에 다시 뛰어난 의원이 났네,
누가 말했던가, 성현은 닮게 잊어지지 않는다고 ,

공, 자의 손자로 자사(子思)를 얻었거늘, 그대는 못 보았는가,
처마에 흘러내리는 물을, 처마의 흘러내리는 물방울은 차이 없이 옮기지 않은가,
또 못 보았는가, 불탄 뒤 돋아나는 풀을,
불탄 뒤에 봄의 정취도 역시 서로 따르네, 아름답구려,
월계는 신의(神醫)의 후예이니, 득도(得道)하매 어찌 일찍이 영원한 스승이 있으랴,
젊어서 스승의 문하에 다니던 길, 도리어 늙은 여우가 속이듯이 어리게 화장을 했나,
아침저녁으로 그리운 정 얼마나 친밀했기에, 장난삼아 여의주를 서로 입에 밀어주며,
이처럼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 하루가 다시 한 달이 되고, 없어지던 달이 다시 점점 가득해지네,
사람은 모두 수척해진 듯해도, 뜻은 앞서 나아가 기회를 얻으리라,
이를 일러 여우 같이 갈고 닦은 기술이라고,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회해도 소용없으리,
그대는 그전대로 기쁨을 주고받고 있으니, 달리 장난하는 구슬 삼킨들 의심 않으리,
그런 뒤 하늘을 보고 천기(天機)를 얻으면, 반드시 땅을 봐도 지리(地理)를 알리라,
과연 구슬을 삼켜 비록 가르친 대로 해도, 갑자기 사람을 만날 줄 어찌 전에 기약했으리,
이제부터 사람의 일을 마음속을 보듯, 재빨리 깊이 깨닫게 황기(黃岐, 중국 신화에서 의술(醫術)의 시조로 받드는 황제(黃帝)와 기백(岐伯)을 말함)를 재촉하리라."고 하였다.
또(읊기를),
"신묘한 처방 깊이 깨달은 것은 하늘과 사람에 적중하고,
큰 스승의 지혜를 세세히 살펴 도의 진수(眞髓)를 얻었거늘,
애석하도다 영령은 어느 곳에 떨어졌는지,
지금 고국은 병으로 남모르게 젖어드는데"라고 하였다.



〈사진 35〉 구좌읍 한동리 좌자이 묘(좌)와 한경면 고산리 좌임관 기념비(우)

좌자이(左自以)[43]·좌임관(左任琯)[44]

중국 청주(淸州) 좌씨 중시조 휘 좌형소(左亨蘇)는 시조 좌구명(左丘明)의 67세손으로 13세기말 고려 왕조가 몽고에 복속된 이후, 제주에 설치된 탐라총관부 감목관으로 입도하였다. 원(元)이 몽고마 164필을 수산평에 방목시킨 것이 고려 충렬왕 3년(1275)인 점에 미루어보면, 중시조가 입도한 시기는 충렬왕 초기라고 볼 수 있다.

원나라는 탐라총관부에 감목관을 두고 단사관과 만호를 두어 목축과 목민을 주관하였는데, 현 구좌읍 한동을 생활 근거지로 삼아 일소장을 중심으로 한라산 동북부 지역

43) 청주좌씨세보 참조

44)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2000), 『제주고산향토지』, 660~662쪽.

의 목축은 물론이고 목민까지 주관하고 감목관직을 대대로 세습했다.

현재도 구좌읍 한동리 일대는 좌가장(左可場)이란 지명이 전래되고 있으며, 이는 좌씨 집안이 소유했던 토지를 말한다.

입도 2세 좌자이(左自以)는 신의(神醫)로 인구에 회자되고, 의술에 능통한 명의였다고 하는데, 그때 왕후가 불치의 병에 걸려 백약을 써 봐도 효험이 없어 의원을 찾았다. 일관이 별자리를 보고 남쪽 절해고도에 명의가 있는 바 그 의원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였고, 그를 찾던 중 탐라(耽羅)에 좌자이(左自以)라는 명의가 있다는 소문을 들어 초청하자, 그는 영약을 조제하여 왕후의 병을 고치고 이에 한동리 일대의 토지를 하사받았다고 전해진다.

좌씨 집안은 대대로 감목관직을 세습하며 살아오다가 공민왕 24년(1374) 목호의 난이 평정되면서 감목관직을 반납하고, 한동의 좌가장 세거지를 떠나 현재의 애월, 한림, 한경 근처로 이주하여 생활하였다.

근대의학의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삼산(三山) 좌임관은 한경면 고산리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보살핀 혜성과도 같은 존재로 평가받는 전설적인 존재다.

그는 청주좌씨(淸州左氏) 입도조(入島始祖) 형소(亨蘇) 15세로 선생은 1893년 애월읍 금성리에서 태어나서 일제시대에 독학으로 공부했다. 학문이 박식하여 19세 때 한문서당을 차리고, 마을 후진들을 가르치면서 의학을 공부하여 39세가 되는 1932년 봄 의생시험에 합격하고 고산리로 이주한 후 삼성의원(三省醫院)을 개업하였다. 모든 정력을 기울여서 환자의 진료 연구와 봉사에 매진하였는데, 제주시 서부 일대와 서귀포시까지 의술에 관한 고귀한 은혜를 베풀었다.

4·3때는 병이 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무장대에 끌려갔으나, 의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때 당시 치료를 받았던 모슬포 훈련소 대장이 풀어주었다고 한다. 제민인술(濟民仁術) 사업을 좌우명으로 삼고, 동양의학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의보감』이나 『방약합편(方藥合編)』에 기록된 약성을 신통할 정도로 알아서 처방했다.

그는 양약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민간요법 분야에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 방법에 의존하면서 곤란한 서민을 도우는 인술을 베풀었으며, 가난한 농어민들에게 무료 시술을 베푸는 등 박애정신이 아주 강했다고 한다.

그는 동서 양방을 고루 통하여 근대 의술 사상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의사이며 지사였다.

지금도 구좌읍 한동리에는 2세 좌자이의 묘가 남아있고 '좌기마포'라고 하는 포구와 '좌가연대'가 있으며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 정상에는 좌임관 기념비가 있다.

10. 역사

역사인물 전설은 인물전설과 맥을 같이 하나, 삼별초의 김통정, 목호의 난 최영 장군, 판관 서련처럼 역사 속의 인물을 선택하여 향유자들이 인식을 덧붙여서 전해지고 있다.

역사전설은 사건과 인물이 중심이며, 사건 서술 대부분은 역사기록과 관련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전설적인 요소가 부가된다.



〈사진 36〉 삼별초 김통정 장군 유적(좌 : 구시물, 우 : 장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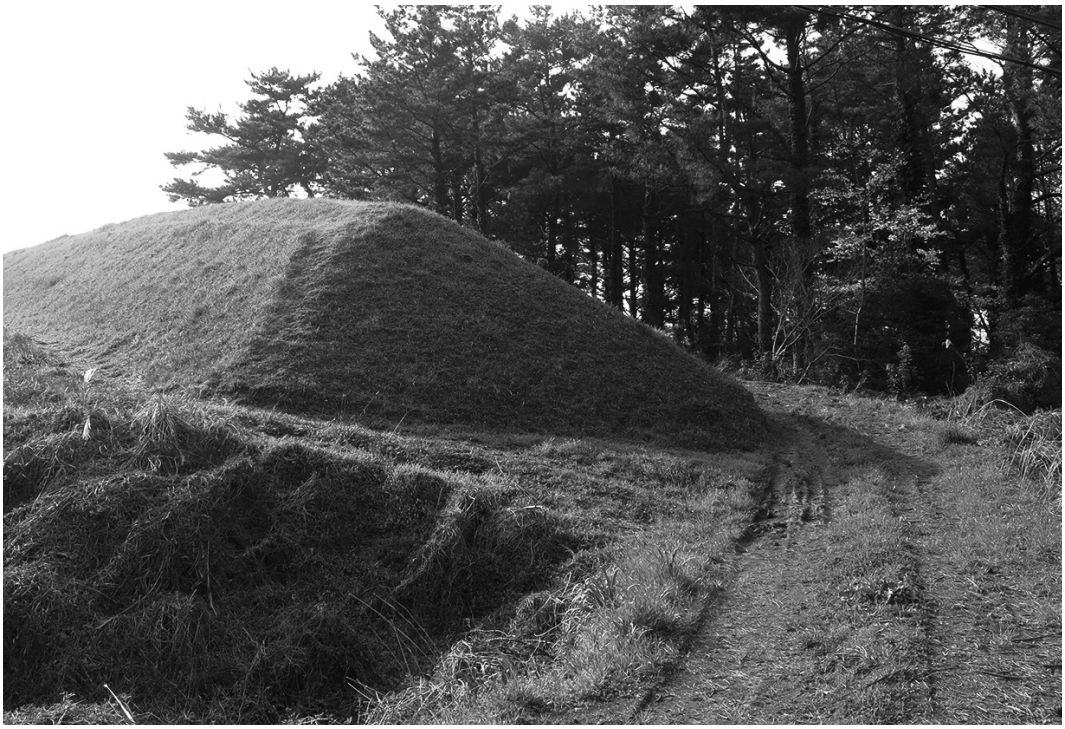
삼별초와 김통정(金通精)

삼별초의 김통정 장군에 대한 전설은 제주 전역에서 구전되고 있으며, 전설지로는 항파두리, 흙붉은오름, 산세미오름, 새별오름, 안오름, 파군봉, 김수장군묘, 김수물, 명월포구, 화북포구, 함덕포구, 군양포구(하귀2리), 태암감당, 명월포, 옹성물, 구시물, 장수물, 애월 환해장성, 고내 환해장성 등이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전설이 구전되고 있다.

유형 1. 김통정 전설[45)]

고려 때 한 과부가 혼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과부의 허리가 점점 커가서 동네 사람들이 일찌

45) 현용준(1996), 『제주도 전설』, 서문당 외 자료집 참고.



〈사진 37〉 애월읍 고성리 항몽유적지인 항파두성

감치 눈치를 채었다. "남편이 없는 여자가 어찌 저럴 수 있느냐"고 수근대자, 과부는 잘못이 없어서 사실을 털어 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과부는 밤에 잠을 자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일어나보니, 한 남자가 같이 잠을 자고 있어서, 그의 허리에 실을 묶어 놓았다. 실은 창문 구멍을 통하여 노둣돌 밑으로 들어가서 큰 지렁이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지렁이가 다시 찾아오자 과부는 결국 죽여버렸다.

그로부터 과부의 허리가 점점 커져서 얼마 뒤에 옥동자를 낳았다. 아이는 온몸에 비늘이 돋쳐

있었고 겨드랑이에는 자그마한 날개가 돋아 있어서 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일체 숨기고 아기를 잘 길렀다.

동네 사람들은 이 아이를 "지렁이와 정을 통하여 낳았다" 하여, 지렁이 '진' 자 성을 붙이고 '진통정'으로 불렀다. 김통정은 자라면서 활을 잘 쏘았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도술을 부려서 삼별초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김통정은 삼별초가 궁지에 몰리자 진도를 거쳐 제주도로 들어와서 군항포로 상륙한다.

김통정은 군사상 적절한 곳을 찾아 한라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항파두리를 발견하고 여기에 토성과 내외성을 두르고 궁궐을 지어서 스스로 해상왕국이라 했다. 장군은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재 닷 되와 빗자루 하나씩을 받아서 이를 비축해 두었다가 토성 위를 돌아가며 재를 뿌리고, 외적이 수평선 쪽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말 꼬리에 빗자루를 달아매어 채찍을 놓고 성 위를 돌아다니면서 안개가 보얗게 오르자 적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곤 했다.

고려군 김방경 장군이 김통정을 잡으러 왔는데, 말꼬리에 빗자루를 달아매어 연막을 올려 보았으나 불리해서, 장군은 사태가 위급함을 알고서 황급히 사람들을 성 안으로 들여 놓고 철문을 잠갔다. 이때 너무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아기업개(아기를 업어 주며 돌보는 어린 여자 애) 한 사람을 그만 들여 놓지 못한 것이 실수였다.

김방경 장군은 토성에까지 진격해 와서 입성을 기도하였으나, 토성이 너무 높고 철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도리가 없어 성 주위만 뱅뱅 돌고 있었다. 아기업개는 쇠문 아래 풀무를 걸어놓아 두 이레만 불을 때어 보라고 말해 주자 김방경은 그대로 했는데, 철문이 벌겋게 달아올라 녹기 시작해 성문을 무너뜨리고 성안으로 몰려갔다.

김통정 장군이 사실을 알고 깔고 앉았던 쇠방석을 바다 위로 내던지고 날개를 벌려 쇠방석 위로 날아가 앉자 장수들은 모기로 변해서 얼굴 주위로 돌아다녔다. 김통정이 고개를 들어 새를 쳐다보는 순간 목이 뒤쪽으로 젖혀져 비늘 틈새가 생겨 장수가 칼을 빼어 김통정 장군의 목을 내리쳤다.

비늘이 온몸에 좍 덥혀있어서 칼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던 김통정 장군의 목이 끝내는 떨어지고 재를 뿌려 놓으니 두 번 다시 붙지 못해서, 김통정 장군은 죽어 가면서 제주 백성일랑 물이나 먹고 살아라 하며, 가죽신을 신은 채 바위를 꽝 찍자,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났는데 '장수물'이

되었다.

또 김방경은 김통정 장군을 죽이고 곧 토성 안으로 들어가 장군의 처를 잡아 뱃속에 임신한 자식과 함께 찔러 죽이자, 날개 달린 김통정 장군의 자식들이 매로 변해 매 새끼 아홉 마리가 떨어져서 죽었다. 김통정 장군의 처가 죽으면서 일대에 흘러내린 피가 붉게 물들어서 '붉은오름'이란 이름이 생기고 그 오름의 흙이 붉었다. 김통정 장군이 활을 쏜 자국이 지금도 고성리 마을에 남아 있는데, 거기에 화살도 박혀 있었다고 한다.

김통정 장군이 백성을 시켜 토성을 쌓을 때는 몹시 흉년이어서 역군들이 배가 고파 인분을 먹었고, 자기가 쭈그려 앉아 똥을 싸고 돌아앉아 그것을 먹으려고 하면, 이미 옆에 있던 역군이 주워 먹어 버려 제 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고 전한다.

유형 2. 김통정 전설[46)]

김통정은 삼별초의 우두머리로 진도에 웅거하면서 패전하여 제주도로 들어오려고 했으나, 고려 조정에서는 삼별초의 상륙을 막기 위해 김수 장군을 제주로 보냈다.

김수는 삼별초가 한림읍 명월포로 상륙할 것으로 믿고 애월읍 새별오름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시 고려 조정에서는 고여림에게 김수 장군을 돕도록 해 화북포로 상륙하도록 한다.

김통정도 고려 관군이 온 것을 듣고 바로 제주에 상륙하지 않고 이문경을 보내자, 그는 '명월포'로 상륙하여 '새별오름'으로 올라와 김수와 '새별오름' '삼시막(산세미오름)'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고 전사한다. 성산포 고성에 상륙한 김통정은 제주 전역에 진지와 관영을 물색한 후 '항파두성'을 발견하고 토성과 궁성을 지었는데, 다시 고려 조정에서는 '김방경'을 파견하자 그는 지략을 써서 고기잡이배와 상선을 이끌고 '명월포'로 상륙한다.

김통정은 항파두성에 군사를 남기고 명월포로 나간 사이에, 김방경은 조천, 함덕포로 상륙하여 서쪽으로 진격해 나가서 군냉이(군항포)를 거쳐 파군봉으로 올라와 곧바로 항파두성을 함락

46) 애월읍 유수암리 강충희(애월읍 항파두리, 170-3)의 구전

했다. 김통정 장군의 처 이화선은 72명의 장수를 데리고 '붉은오름'에서 진지를 구축했는데, 김방경 군대에게 패전하자 김통정은 아내와 같이 자결한다.

유형 3. 김통정 전설

삼별초 난 때 김통정이 잔여병과 500여 척의 군선을 이끌고 강화도를 탈출하여 제주를 점령하고 성을 쌓아 여원 연합군에 항쟁하게 되는데, 내성은 제주의 동쪽 성산포를 근거로 하였고, 외성은 서쪽을 중심으로 애월에 두게 되었다. 수산성(首山城)은 김통정 장군이 내성을 쌓고 연합군에 저항하여 최후를 지킨 본거지인 곳이다.

당시 포구가 바로 이 수산(首山 : 수뫼, 일출봉을 지칭함)성 밑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수메밑'이라는 호칭이 생겨났다. 고려를 점령하고 삼별초군을 평정한 원나라가 일본 원정에 뜻을 두고 군사용으로 몽고말을 방목하였는데, 이때 사육되던 말들을 육지부 등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반출할 때도 이 포구가 이용되었다.

김통정 장군은 항파두리(缸坡頭里)에 도착하여 본영지(本營地)를 개설, 외성(外城)을 쌓기 위하여 성 위치를 답사하고 있는데, '안오름' 호수를 발견하여 싸움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축성 책임자를 불러 토성 쌓는데 사용하고 흙을 판 후에는 호수를 만들어 유람선을 띄우고 물고기를 방사(放飼)하라고 지시한 후 이곳 흙을 사용하도록 했다.

장전리 '마고(馬古)리물'은 대몽항쟁 책임자인 역장의 지휘 하에 사장밭에서 훈련하던 군마에게 물을 먹이던 곳이다. 항파두리 내외성에 토성을 쌓아 여몽 연합군에 대항했는데, 김방경이 고려군을 거느리고 추자도를 거쳐 관탈섬 지경에 이르렀을 즈음, 토성 옆 '망일이동산'에서 연막전술을 폈다.

지역민들에게는 불태웠던 재를 공출하도록 하고 말꼬리에 빗자루를 매달아 채찍을 가하자 말들이 날뛰어서 사방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다.

고려 군사들이 쳐들어오자 위험을 느낀 김통정은 쇠로 된 방석을 바다로 던져 날개를 펴고 날아갔는데, 몸은 비늘로 싸여있어 칼로 죽일 수 없었고, 김방경은 도술을 이용 모기로 변해 김통

정을 찔러 죽였다. 김통정은 자신의 아내와 첩이 적의 손에 죽임을 당할 바에는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고 해서 칼로 무참히 찌르자, 이때 붉은 피가 흘러 주변 흙이 붉게 물들어서 '흙붉은오름'이 되었다.

김통정은 제주민을 너무 고생시켰다고 물이라도 먹고 살라고 하면서, 홰(가죽으로 만든 신발)를 신은 발로 암반을 밟자 발자국이 생기고 금방 샘물이 솟아나게 되어 '훳자국물', '장수물'이 되었다.

유형 4. 유수암과 종신당[47)]

유수암은 '물이 흐르고 좋은 곳'이라는 뜻으로, 원나라와 고려군이 항파두리 토성 평정 이후 삼별초의 잔존세력을 몰살한 후, 세력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기와집을 짓고 촌락을 이루었다.

당시 노승인 척화가 암자를 지어 '태암감당' 불사를 짓고 이후 '태산사'를 지었는데, 당시 절에 스님들의 염주를 만드는 무환자 나무가 순이 나서 크고, 절간의 석비는 남았다가 조선 숙종 이형상 목사 때 훼손 당하게 되었다.

애월읍 유수암리에 있었다고 하는 '종신당'은 김통정의 모친이 몇 사람의 부하를 데리고 유수암에 와서 토굴을 만들고 살았는데, 창을 내어 살면서 불이 보이지 않으면 막아달라고 해서, 불빛이 보이지 않자 입구를 막아 무덤이 되었다. 종신당은 '몸을 다하였다'라는 의미인데, 그 안에 있었던 촛대 등은 도굴 당했다.

1976년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1997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396호로 지정되어 흔적만 남아있다. 김통정이 영웅적 존재(신이적인 탄생 : 지렁이의 아들)는 향유층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인물을 중심으로 항파두리 인근의 자연지형과 인물을 부각시키면서 관련 유적이나 지형물을 엮어 역사 문화화가 가능하다.

47) 애월읍 유수암리 강충희(애월읍 항파두리, 170-3)

자료 1. 역사기사

《고려사》(원종 12년, 1271년 5월)

丁丑 金方慶·忻都·茶丘·熙·雍等率三軍, 討珍島, 大破之, 斬僞王承化侯溫. 賊將金通精, 率餘衆, 竄入耽羅

5월 정축에 김방경·흔도(忻都)·홍다구(洪茶丘)·희(熙 : 왕족) 등이 3군을 거느리고 진도를 공격해 적을 대파하고, 가짜 왕 승화후(承化侯) 왕온(王溫)을 죽였다. 적장 김통정(金通精)은 나머지 무리를 이끌고 탐라로 숨어들었다.[48]

《고려사》(원종 13년, 1272년 8월)

元遣侍衛親軍千戶 王岑, 與茶丘議征取耽羅之策. 茶丘表陳, "金通精之黨, 多在王京, 可使招之, 招而不從, 擊之未晩." 帝從之, 茶丘乃遣通精之姪郎將 金贊·李邵, 賊將吳仁節族桓 文 伯等五人, 使往諭之, 通精等不從, 留金贊, 餘皆殺之.

8월에 원나라는 시위 친군 천호(千戶) 왕잠(王岑)을 보내어 홍다구와 더불어 탐라 정벌 계획을 의논하였다. 홍다구는 곧 김통정의 조카 김찬(金贊) 등 5인을 보내어 효유하도록 하였는데, 김통정 등은 따르지 아니했고 김찬을 억류하고 나머지는 모두 죽였다.

48) 제주문화방송(1994), 「속 탐라록」, 참고.

《고려사》(원종 14년, 1273년 윤6월)

閏月 丙辰 耽羅 留鎭將軍 宋甫演, 得賊魁金通精屍, 以聞. 又搜捕賊將金革正·李奇等七十餘人, 送于茶丘, 皆殺之. 元置達魯花赤于耽羅.

윤6월 병진에 탐라에 주둔하였던 장군 송보연(宋甫演)이 적 괴수 김통정의 시체를 얻었음을 보고하였다. 또 적장 김혁정(金革正)·이기(李奇) 등 70여 명을 수색하여 체포하고 홍다구에게 보내니 모두 죽였다. 원(元)에서는 탐라에 달로화지(達魯花赤 : 점령지를 진압하는 관리라는 뜻의 몽고어)를 두었다.




〈사진 38〉 최영 장군 관련 목호의 난 유적

목호의 난과 최영(崔瑩)[49]

고려 공민왕 때 목호에 의한 반란이 끊이지 않아서 조정에서는 공민왕 23년(1874) 최영 장군으로 하여금 이를 진압하도록 하였다.

그의 범섬 전투가 유명한데 범섬은 주위가 약 2km가 되고, 사면이 암벽으로 둘러싸여 그 특이한 풍경 뿐 아니라, 최영 장군이 몽고의 세력을 소탕하면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목호의 두목을 쳐부순 역사의 유적지이다.

원종 12년(1271) 삼별초군이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에 의하여 평정된 후 본도에는 몽고인이 세운 원이 직영하는 목마장이 설치되고, 이 목마장을 관리하는 몽고인 목호들이 주재하게 되었다.

명나라에서는 제주에서 기르는 말을 바칠 것을 요구하자, 조정에서는 말을 가지러 보

49) 최영(崔瑩, 1316~1388)



〈사진 39〉 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전경

냈으나, 원나라의 목자들은 말을 바치지 아니하고 관민을 괴롭히면서 목호들이 난을 일으켰고, 고려 조정에서는 몇 차례 이들을 토벌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패전하곤 하였다.

제주목사 박윤청을 목호들에게 보내어 귀순하도록 권하였으나 목호들은 이를 거절하고 안무사 이하생을 살해하고 대병력을 동원하여 저항하였다.

이들은 심지어 조정에서 보낸 관리를 살해하는 등 그 횡포가 날로 심하여 공민왕 23

년(1374)에 목호들을 뿌리 뽑기 위해 문하찬성사 최영(門下贊成事 崔瑩)을 삼도도통사로 삼고 목호들을 완전 섬멸할 것을 명령하자, 최영은 전함 314척과 군사 2만5천여 명을 거느리고 동년 8월 28일 명월포로 상륙하였다.

최영 장군이 목호군을 치러갈 때 파도가 심해 추자나무를 잘라서, 뗏목을 만들고 불을 질렀는데, 연기는 바람 따라 구좌읍 김녕리를 향해 동쪽 방향으로 가고, 장군은 제주시로 직접 쳐들어가서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는 이때 추자 사람들에게 어망 사용법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 큰 도움을 주었다.

최영 장군이 추자도에 머무는 동안 주민들에게 어로기술을 가르쳤는데, 망사의 씨줄과 날줄을 교대로 얽어 짜는 무결절직망지(無結節織網地) 제망기법으로 멸치를 떠올리는 챗배 어로기술을 지도하여 추자도 멸치잡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추자도의 멸치젓은 이때부터 추자도 근해의 멸치를 쳇배그물로 잡아 젓갈로 만들어 목포 등 육지로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주민들은 장군의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사당을 지어 해마다 음력 7월 15일과 음력 12월 말일에 풍어와 풍농을 빌며 제사를 지낸다.

최영은 전 군을 독전(督戰)하여 명월촌에서부터 어름비오름, 붉은오름, 검은오름, 새별오름, 예래(延來), 홍로 지경에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백방으로 공격하니 목호들은 견디지 못하여 범섬(虎島)으로 도망갔다.

최영 장군은 전부령 정용으로 하여금 경함(經艦) 40척으로 범섬을 포위케 하고 스스로 정병(精兵)을 인솔하여 섬에 상륙 공격하니 목호의 괴수 초고독불화(肖古禿不花), 관음보(觀音保) 등은 스스로 남쪽 벼랑으로 투신 자결하고 석질리필사는 처자를 거느리고 투항해왔다. 이에 최영 장군은 초고독불화, 관음보의 시체를 인양하여 목을 베고 석질리필사는 처자와 함께 포로로 잡고 나머지 적들은 모두 참수하여 왕경(王京)에 승전(勝戰) 보고를 하였다. 이때 동도합적(東道哈赤), 석다시만(石多時萬), 조장홀고손(趙莊忽古孫) 등이 아직 잔병 수백을 거느리고 있는 거성이 함락되지 않아 최영 장군이 공격하

자 달아나므로, 이를 추적하여 잔적(殘敵)을 모조리 사로잡아 각 관아의 노비로 삼았다.

전설지로는 범섬, 명월포구, 법환포구, 막숙, 군자왓(성을 쌓음), 오다리(군사훈련) 배염줄이(나무로 배를 엮어 범섬까지 이음)가 있다.

자료 1. 역사기사

《고려사》 권44, 공민왕 23년 7월 기축(26일)조

己丑 命門下贊成事崔瑩爲楊廣全羅慶尙道都統使 密直提學廉興邦爲都兵馬使 三司左使李希泌爲楊廣道上元帥 判密直司事邊安烈爲副元帥 贊成事睦仁吉爲全羅道上元帥 密直林堅味爲副元帥 判崇敬府事池奫爲慶尙道上元帥 同知密直司事羅世爲副元帥 各將其道兵 知門下事金庾爲三道助戰元帥兼西海交州道都巡問使 往討之 戰艦三百十四艘 銳卒二萬五千六百有五 敎曰 耽羅國於海中 世修職貢 垂五百載 近牧胡石迭里必思肖古禿不花觀音保等殺戮我使臣 奴婢我百姓 罪惡貫盈 今授爾節鉞 往督諸軍, 剋期盡殲 又以門下評理柳淵爲楊廣道都巡問使 知密直司事洪師禹爲全羅道都巡問使 留鎭以備不虞

기축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최영(崔瑩)을 양광·전라·경상도도통사(楊廣全羅慶尙道都統使)로, 밀직제학(密直提學) 염흥방(廉興邦)을 도병마사(都兵馬使)로, 삼사좌사(三司左使) 이희필(李希泌)을 양광도상원수(楊廣道上元帥)로,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변안열(邊安烈)을 부원수(副元帥)로, 찬성사(贊成事) 목인길(睦仁吉)을 전라도상원수(全羅道上元帥)로, 밀직(密直) 임견미(林堅味)를 부원수(副元帥)로, 판숭경부사(判崇敬府事) 지윤(池奫)을 경상도상원수(慶尙道上元帥)로,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나세(羅世)를 부원수(副元帥)로 임명하여 각각 그 도의 군사를 거느리게 하고, 지문하사(知門下事) 김유(金庾)를 삼도조전원수 겸 서해·교주도도순문사(三道助戰元帥 兼西海交州道都巡問使)로 삼아 제주를 토벌하게 했다. 전함(戰艦)은 314척이고,

정예군은 25,605명이었다. 교서에 이르기를, “탐라국은 바다 가운데에 있으면서 대대로 우리에 공물을 바친 지 500년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목호(牧胡)인 석질리필사(石迭里必思, 시데리비스)·초고독불화(肖古禿不花, 샤오쿠투부카)·관음보(觀音保) 등이 우리 사신을 살육하고 우리 백성을 노비로 삼는 등 그 죄악이 극도에 달하였다. 이제 그대에게 절월(節鉞)을 주노니 가서 모든 부대를 독려하여 기한 내에 섬멸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또 문하평리(門下評理) 유연(柳淵)을 양광도도순문사(楊廣道都巡問使)로,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홍사우(洪師禹)를 전라도도순문사(全羅道都巡問使)로 삼아, 진에 머물면서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고려사》 제113권, 열전 제26, 최영전

崔瑩.

崔瑩平章事惟淸五世孫也 父元直仕至司憲糾正 瑩風姿魁偉膂力過人(중략) 太祖高皇帝遣林密等令我取濟州馬二千匹以進 哈赤石迭里必思肖古禿不花觀音保等只送三百匹密等怒 王遂議代濟州 七月 以瑩爲楊廣全羅慶尙道都統使廉興邦爲都兵馬使李希泌邊安烈爲楊廣道元帥睦仁吉林堅味爲全羅道元帥池奫羅世爲慶尙道元帥金庾爲三道助戰元帥兼西海交州道都巡問使領戰艦三百十四艘士卒二萬五千六百人討之 敎曰 耽羅元屬本朝世修職貢垂五百載 近牧胡石迭里必思肖古禿不花觀音保等殺我使臣奴我百姓罪惡貫盈 今授瑩節鉞往征其督諸軍剋期殄殲賞罰用命不用命無憚大吏 宰樞會餞諸帥皆泣下瑩與安烈獨自若 八月 師至羅州瑩閱兵于榮山與諸將條約曰 諸道船不可相混宜各樹幟檣上以識之船置頭目官勿亂行船旣發各整伍樵汲以時若遇倭寇左右夾擊能擒獲者大加爵賞 旣至濟州各率戰艦同時俱進毋或失次軍士各占信地通烟相報諸軍動靜聽都統使角聲毋或有違攻城之日民有黨哈赤不順命者縱兵悉誅降者勿迓賊魁家産悉輸官且得公私契券金銀牌印信馬籍亦皆輸官得者有賞 守佛宇道殿神祠者勿擾 貪貨寶不力戰者罰得貨寶先回船逃者論以軍法 又曰 王命臣伐叛吾言卽王言 從吾命則事可濟 諸將皆免冠謝 行至黔山串諸將曰 發船旣久風又漸高宜速行師 瑩曰 今日風不利西海戰艦以百計亦未至豈可先去 諸將憤鬱至普吉泊 瑩又以無風欲留 諸將曰 兵機貴速淹留不進後如有議咎將誰執 瑩不應 興邦曰 諸將之言不可不聽 瑩從之

日已午尙猶豫未發安烈麾下士先發船瑩大怒懸檣竿以徇俄而諸道船揚帆齊發瑩不得已令擧碇放船 西海船亦至 中途遇大風諸船四散 日晩將抵楸子島忽風雨大作船觸崖石多絶纜失櫂 翼日至濟州 瑩部署諸將四面分攻 石迭里必思肖古禿不花觀音保等以三千餘騎拒於明月浦 瑩遣前濟州牧使朴允淸以書諭之曰 今興兵問罪勢不得已 除賊魁外星主王子土官軍民宜悉按堵如故 雖黨賊者降附則亦從寬典 如或違逆大兵一臨玉石俱焚悔無及矣 與諸將下岸 師逡巡不進乃斬一裨將以徇於是大軍齊進 左右奮擊大破之乘勝逐北至三十里 暮還明月浦沿涯爲營 賊殺安撫使李下生 諸將屯漢拏山下休兵 時我師多獲賊馬悉爲騎兵矣 賊魁三人來挑戰陽敗而走 將誘致曉星五音之野以騎兵踣之瑩知其謀命銳卒急逐賊魁遁走入山南虎島 瑩遣前副令鄭龍領輕艦四十艘圍之自率精兵繼進 石迭里必思率妻子與其黨數十人乃出於是肖古禿不花觀音保知不免投崖而死 瑩腰斬石迭里必思幷其三子又斬肖古禿不花觀音保首遣知兵馬使安柱以獻 東道哈赤石多時萬趙莊忽古孫等猶率數百人據城不下 瑩率諸將攻之賊潰走追獲之搜捕餘黨盡殺之死者相枕 得金牌九銀牌十印信三十馬一千匹 印信付萬戶安撫使星主王子馬分養于諸州卒 有殺馬牛食者或斬首或斷臂以徇士卒股慄秋毫無敢犯者 十月 瑩與諸將班師王已薨復命于梓宮痛哭失聲(하략)

최영은 평장사 유청(惟淸)의 5세 손이다. 그의 아버지 원직(元直)은 벼슬이 사헌 규정(司憲糾正)에 이르렀었다. 최영은 풍채가 헌걸차고 체력이 남보다 뛰어났다.(중략)

명 태조(明太祖)가 임밀(林密) 등을 보내 우리나라에 대해 제주(濟州)의 말 2천 필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런데 제주 합적(哈赤) 석질리필사(石迭里必思)와 초고독불화(肖古禿不花)·관음보(觀音保) 등이 3백 필 밖에 보내지 않았으므로 임밀 등이 노하였다.

이에 왕은 마침내 제주를 토벌하기로 결정하였다. 7월에 최영을 양광, 전라, 경상도 도통사(都統使)로, 염흥방(廉興邦)을 도병마사(都兵馬使)로, 이희필(李希泌)과 변안열(邊安烈)을 양광도 원수(元帥)로, 목인길(睦仁吉)과 임견미(林堅味)를 전라도 원수로, 지윤(池奫)과 나세(羅世)를 경상도 원수로, 김유(金庾)를 3도 조전 원수(三道助戰元帥) 겸 서해(西海), 교주(交州)도 도순문사(都巡問使)로 임명해 큰 병선 3백 14척과 사병 2만 5천 6백 명을 거느리고 토벌하게 하였다. 이때 교서에 말하기를

"탐라(耽羅)는 본디 우리나라에 소속되어 대대로 조공(朝貢)해 온 지 근 5백년이다. 근자에

목호(牧胡) 석질리필사와 초고독불화·관음보 등이 우리나라 사절을 죽이고 우리 백성을 노비로 부리니 그 죄악이 실로 크다. 이제 최영에게 절월(節鉞)을 주어 전권을 위임하니 전선에 가서 전체 군대를 지휘 통제해 예정 기한에 적을 섬멸할 것이며 상벌을 책임지고 직접 실시하되 지위가 두둑한 자라도 꺼리지 말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재추(宰樞)들이 모여 전별하자 모든 장수들은 다 울었으나 최영과 변안열만은 태연자약하였다. 8월에 군사가 나주(羅州)에 도착하였다. 최영이 영산(榮山)에서 열병하고 모든 장군들과 약속하기를 "각도 선박은 서로 혼동하지 말고 각각 돛대 위에 깃발을 꽂아 표식할 것, 배에는 책임관(官)을 두어 질서 없이 행선하지 말 것, 출발한 후에는 각각 대오를 정돈하며 연료와 음료수를 제때에 보급할 것, 만일 왜적과 만나면 좌우에서 협공할 것, 그것을 포로하는 자는 상으로 큰 벼슬을 줄 것이다.

제주에 도착하면 각각 병선을 거느리고 일제히 진군해 누구나 뒤에 떨어지지 말아야 하며 부대는 각각 근거지를 가지고 봉화로써 서로 연락할 것, 전체 부대의 행동은 도통사의 호각 소리에 따를 것이요, 조금도 위반하지 말 것, 성을 공격함에 있어 주민들 중에 합적에 가담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군대를 풀어서 모조리 무찌르고 항복하는 자는 추궁하지 말 것, 적 괴수의 재산은 모조리 몰수하고 일체 계약 문건과 금, 은으로 만든 패(牌)쪽, 도장 및 말 등록부 역시 모두 몰수할 것인 바 이것을 얻은 자에게 상을 준다.

절(寺), 도전(道殿), 신사(神社)를 수호하는 자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재물을 탐내어 전투에 힘껏 싸우지 않는 자는 처벌할 것이며, 재물을 싣고 먼저 도망쳐 돌아가는 자는 군법으로 처단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왕이 나에게 반역자를 토벌할 책임을 맡겼으니 만큼 내 말은 곧 왕의 말씀이다. 내 명령을 순종하면 일이 잘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모든 장군들이 모자를 벗고 사례하였다.

배가 검산곶(黔山串)에 도착하니 모든 장군들이 말하기를 "배가 떠난 지 이미 오래고 바람세도 점점 높아가니 속히 행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자 최영은 말하기를

"오늘 바람세가 좋지 못하고 근 백척이 되는 서해도의 전함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어찌 먼저 떠나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모든 장군들이 울분하게 여겼는 바 보길도(普吉島)에 도착해 정박하였다. 최영은 또 바람이 없으므로 머무르고자 하였다. 모든 장수들이 말하기를

"군사 행동은 속한 것을 귀중히 여기는 바 행군을 미루다가 만일 후일에 물의가 있으면 그 허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라고 하였으나 최영이 불응하였다. 염흥방이 말하기를

"여러 장군의 제의를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니 최영이 이 말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오(午)시가 되도록 머무적거리며 출발하지 않으므로 변안열의 휘하병사들이 먼저 발선하였다.

최영이 대노해 명령 위반자를 돛대 위에 매달았으나 조금 후에 각도의 배가 돛을 달고 일제히 출발하므로 최영은 부득이 출발을 명령하였다. 서해도의 선박도 따라 왔다. 중도에서 세찬 바람을 만나서 모든 배가 산산이 흩어졌다. 해가 저물어 추자도(楸子島)에 도착하려 할 무렵에 갑자기 비바람이 크게 닥쳐와서 배들이 낭떠러지 돌에 부딪쳐 닻줄이 끊어지고 노를 잃었다.

다음 날에 제주에 도착하였다. 최영은 모든 장군들을 배치해 사면으로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석질리필사와 초고독불화 및 관음보 등은 3천여 기의 병력으로 명월포(明月浦)에서 항거하였다.

최영은 전 제주 목사 박윤청(朴允淸)을 보내 포고문을 발포하였다. 그 글에 말하기를

"이제 군대를 동원해 토벌하는 것은 사정상 부득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적의 괴수를 제외하고 성주(星主)와 왕자(王子), 토관(土官), 군민(軍民)은 응당 이전과 같이 안도할 것이며, 비록 적당에 가담한 자라도 항복하면 역시 관대한 처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거역하는 경우에는 대군이 한번 행동하면 잘 잘못을 가릴 수 없이 모두 소탕될 것이니 후회해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최영은 전체 장군들과 함께 해안에 상륙하였다. 그때 군대들이 주춤거리며 전진하지 않으므로 비장 1명을 베어 군중에 돌려 보이자 대군이 일제히 전진하였다. 이리하여 좌우로 맹렬히 공격해 적을 대파하고 승리를 이용해 패주하는 적병을 30리 지점까지 추격하였다.

해가 저물 무렵에 명월포로 돌아와서 해안 지역에서 숙영하였다. 적이 안무사 이하생(李下生)을 죽였다. 모든 장군들은 한라산(漢拏山) 아래에 집결해 군대를 휴식시켰다. 이때 아군은 적의

말을 다수 획득해 모두 기병으로 되었다. 적의 괴수 3명이 도전해 왔다가 거짓 패주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효성(曉星), 오음(五音) 평야에 유인해 기병으로 반격할 심산이었다. 최영은 그 모략을 알아차리고 날랜 군사로 급히 추격하니 적은 도주해 산 남쪽 호도(虎島)로 들어갔다. 이에 최영이 전부령(前副令) 정룡(鄭龍)을 보내 빠른 병선 40척으로 포위하게 하고 자신은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뒤미처 갔다. 석질리필사가 자기 처자 및 그의 도당 수십 명을 데리고 나왔고, 초고독불화·관음보는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을 각오하고 산언덕 밑에 떨어져 죽었다. 최영은 석질리필사를 그 세 아들과 함께 허리를 베어 죽이고 또 초고독불화·관음보의 머리를 베어 지병마사(知兵馬使) 안주(安柱)를 보내 왕에게 바쳤다.

동도(東道) 합적(哈赤) 석다시만조(石多時萬趙)와 장홀고손(莊忽古孫) 등은 아직 수백 명을 거느리고 성에 의거해 항복하지 않았다. 최영이 장군들을 거느리고 공격하자 패주하였으므로 계속 추격해 포로하고 잔당들을 수색해 모조리 죽이니 적의 시체가 서로 깔리었다.

또 금패(金牌) 9, 은패 10, 도장 30, 말 1천 필을 노획하였다. 도장은 만호(萬戶), 안무사(按撫使), 성주(星主), 왕자(王子)에게 주고, 말은 여러 고을에 나눠 주어 사양하게 하였다. 이때 군대 중에서 말과 소를 잡아먹는 자가 있었으므로 목을 베기도 하고 혹은 팔을 잘라 군사들에게 보이자 모두 공포에 떨며 추호도 범죄를 자행하려는 자가 없었다.

10월에 최영이 여러 장군과 함께 돌아오니 왕이 이미 죽었으므로 최영은 시체 앞에서 보고하고 목이 메어 통곡하였다.(하략)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 建置沿革조

恭愍王……十六年元以州復來屬 時元牧子强暴累殺國家所遣牧使萬戶以叛 及金庾之討 牧子訴于元請萬戶府 王奏請 令本國自署官擇牧子所養馬以獻如故事 帝從之 十八年元牧子哈赤跋扈殺害官吏 越六年王遣都統使崔瑩討滅哈赤復置官吏 本朝因之

16년에 원 나라가 이 주(州)를 다시 우리나라에 예속시켰다. 이때에 원나라 목자(牧子)들이

사나워서 여러 번 국가에서 보낸 목사와 만호를 죽이고 배반하였다.

김유(金庾)가 토벌하게 되니 목자들이 원나라에 호소하여 만호부(萬戶府) 두기를 청하였다. 왕이 아뢰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관리를 임명하고 목자들이 기른 말을 가려 바치기를 전례와 같이 하기를 청하니, 황제가 그대로 좇았다. 18년에 원나라 목자 하치[哈赤]가 제 마음대로 날뛰어 관리를 살해하니, 6년 뒤에 왕이 도통사 최영(崔瑩)을 보내어 하치를 쳐서 멸하고 다시 관리를 두었는데, 본조에서 그대로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 山川조

明月浦 濟州西六十里 海口加泊舟船 崔瑩討哈赤時 牧子迭里必思等以三十餘騎拒於此浦 大軍齊進奮擊大破之

명월포(明月浦) 제주성 서쪽 60리에 있는데 바다 어귀에 선박을 댈 만하다. 최영(崔瑩)이 하치[哈赤]를 토벌할 때 목자(牧子) 질리필사(迭里必思)의 무리가 30여 기(騎)로 이 포구에서 막으니, 큰 군사가 일제히 나가 힘껏 쳐서 크게 물리쳤다.

자료 2. 문헌기사

耽羅志》 제주, 建置沿革조

恭愍王……二十一年壬子 石加乙碑肖古道甫介等自稱東西哈赤殺害官吏 王子文臣輔遣其弟臣弼以聞 越二年甲寅王遣都統使崔瑩討滅哈赤 以金仲光萬戶兼牧使

공민왕(중략) 21년(1372) 임자(壬子)에 석가을비(石加乙碑)와 초고도보개(肖古道甫介) 등이

스스로 동·서 "하치"〔哈赤〕라 일컫고 관리를 살해하니, 왕자(王子) 문신보(文臣輔)가 그의 동생 신필(臣弼)을 보내 고려 조정에 알렸다. 2년이 지난 갑인년(甲寅年)에 왕이 도통사 최영(崔瑩)을 보내 "하치"들을 토멸하고, 김중광(金仲光)을 만호겸 목사로 삼았다.

《耽羅志》 제주, 山川조

明月浦 濟州西六十里 崔瑩討哈赤時 牧子迭里必思等以三十餘騎拒於此浦 大軍齊進奮擊大破之 朝元時候風於此 凡七晝夜乃涉大洋

제주성 서쪽 60리에 있다. 최영이 "하치"를 토벌할 때 목자 질리필사(迭里必思) 등이 30여 명의 말 탄 군사를 거느리고 이 포구에서 막았다. 대군이 일제히 진격하고 용기를 내 적을 쳐서 대파하였다. 원나라에 조공할 때 여기에서 바람을 기다렸다고 한다. 무릇 7일 밤낮이 걸려야 대양을 건널 수 있었다.

《耽羅志》 旌義縣, 山川조

禿島 斗落島 虎島 以上島俱在洪爐 高麗末 元牧子石加乙碑肖古道甫介等自稱東西哈赤作亂 崔瑩來討 石肖逃據此島以拒 崔瑩聚戰艦環之 縋兵而上 肖墜崖而死 石就擒誅

독도(禿島, 오늘날의 '문섬'을 일컬음)·두락도(斗落島, 오늘날의 명칭 불상)·호도(虎島, 오늘날의 '범섬') 이상의 섬은 모두 홍로(洪爐)에 있다. 고려 말 원나라 목자 석가을비·초고도보개 등이 스스로 동·서의 "하치"〔哈赤〕라고 일컫고 난을 일으켰다. 최영이 토벌하러 오니, 석과 초가 도망하여 이 섬(범섬)을 거처로 삼아 저항하였다. 최영이 전함을 모아 섬을 둘러싸고 줄을 매달아 병사가 올라가게 하였다. 초는 벼랑으로 떨어져 죽고, 석은 사로잡혀 베어졌다.



〈사진 40〉 남원읍 의귀리 감목관 김만일 묘역

감목관 김만일(金萬鎰)[50]

헌마공신으로 알려져 있는 남원읍 의귀리 감목관 김만일의 3대 선조는 남원읍 수망리 지경에 초막을 지어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제주의 명산대혈을 파혈하러 온 중국의 풍수사 호종단은 김댁 선묘가 있는 속칭 '반드기왓(밭)'에 이르러서 밭 가는 농부에게 물을 청했다. 선조인 경주김씨는 소를 세워두고 밭모퉁이로 돌아와 물병의 물을 내주면서 선친의 묘자리를 정해주도록 부탁했다.

호종단은 명당을 정하고 쇠못을 박아서 발을 떼지 못하도록 했으나, 발이 간지러워 움직이자, 땅에서는 피가 솟고 청비둘기 한쌍이 남원읍 의귀리와 서홍리 지장샘 쪽으로

50) 현용준, 『앞의 책』, 80~81쪽 참조.
김씨 문중회 종손, 김경옥 구연




〈사진 41〉 반드기왓 전경

날아가서 파혈이 되었다. 호종단의 금기를 파기한 김씨는 만석꾼 부자가 될 수 없고 마혈이어서 말로 부자가 될 것을 예언한다.

김씨는 그 자리에 부친을 이장하고 다시 남원읍 의귀리로 내려와 아랫동네에 집을 지어 살기 시작했는데, 곡식이 잘 되어 생활은 펴지고 살림은 넉넉해져 갔다. 어느 날 아름다운 여자가 들어와 며칠을 머무는 사이에 아내가 되고 살던 중에 그 여자는 친정에 볼일이 있어서 다니러 갔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 좋은 말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 집으로 혹 갈지 몰라서 잘 살펴달라"고 부탁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말이 한 마리 들어와 있었고, 연달아 친정의 말들이 한두 마리씩 집으로 들어왔는데 서른 마리 이상이 되었다. 김씨 댁에서는 말과 재산이 점점 불어나서, 국가에 좋은 말을 진상하자 감목관이라는 벼슬을 대대로 내려주어 그 직책을 세습하면서 온 섬에 혈족들이 번창하여 씨족을 이루게 되었다.

자료 1. 헌마공신(獻馬功臣) 김만일(金萬鎰)[51]

조선시대 헌마공신(獻馬功臣) 김만일은 명종 5년 정의현 의귀리에서 태어나서, 경주김씨 입도조 김검룡의 7세손으로 16세기 말 무렵부터 개인목마장을 경영했다.

임진왜란 때 김만일은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큰 목마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2년이 되는 해인 조선 선조 27년(1594)에 제주사람이 전마를 바쳐서 직을 제수 받았고[52], 말 조달이 필요한 때 김만일은 자발적으로 좋은 말 100여필을 바쳤다.

또 조선 광해군 10년(1618)에 명나라가 요구한 2,000필의 말을 충당하기가 어렵자 1,000필의 헌마공출을 요구받고 웅해서 넉넉히 상을 주도록 했고, 점마관이 김만일 부자를 때리고 고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점마관을 파직시킨 것은 제주의 수령이나 세력가들 사이에서 김만일의 위상과 존재감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조선 광해군 12년(1620)에 500필의 말을 한양으로 끌고 들어가 헌마에 대한 보답으로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도총관(都摠管)에 임명되고,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3대가 추증되고, 인조 6년(1628)에 종1품 숭정대부를 제수 받았다.

김만일은 탁월한 목축능력을 발휘하여 1만필의 말을 번식하였고, 나라의 좋은 말은 '김만일이 키운 것'이라는 평을 받고 국난 극복에 기여하였다. 그는 종마 보전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준마의 눈을 멀게 하거나 귀와 가죽을 찢어서 종마를 보호하고, 수령들의 가렴주구가 가혹할 때 고희를 넘긴 고령에도 500여필을 한양으로 끌고 가서 나라에 바친 것은 국가 기간산업을 선도한 성공한 최고경영자였다.

의귀(衣貴)라는 마을이름도 김만일이 높은 관직과 함께 관복을 왕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한다. 2012~2014 농림수산식품부 〈마테마체험 마을조성〉 사업 선정 총 6억원 (국비 3억, 지방비 3억)을 출자하였다. (사)헌마공신김만일기념사업회 조직 활동 및 『그림을 곁들인 헌마공신 김만일 평전』을 발간(2015)하였다.

---

51) 남원읍 의귀리, 김경옥, 도종손, 김동숙 의귀리 새마을지도자, 오문식 의귀리장 면담과 (사)헌마공신김만일기념사업회(2015), 『그림을 곁들인 헌마공신 김만일 평전』, 참조.

52) 『조선왕조실록』 선조실록 권 50, 선조 27년(1594) 4월 23일.

승마 체험장, 활쏘기 체험장 운영, 김만일 스토리 벽화, 마사육지, 마방목지 등 말과 관련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에코힐링 마로 사업' 추진으로 편백나무 숲을 이용하여 삼림욕 코스 개발, 김만일의 4대조, 5대조 묘역이 있고, 마테마 전설지이면서 명혈지인 산마장(반드기왓) 중심으로, 도유지와 마을목장에 말문화전시관 및 김만일기념관 등의 설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료 2. 역사기사

《조선왕조실록》 광해(光海) 10년(1618) 6월 20일

丁丑傳曰濟州金萬鎰私養馬多至萬餘匹云數千匹捉出用於戰馬而萬鎰優賞

"제주(濟州)의 김만일(金萬鎰)이 개인적으로 말을 기르고 있는데, 무려 1만여 필(匹)이나 된다고 하고, 수천 필을 잡아내 전마(戰馬)로 쓰고, 만일에게는 넉넉히 상을 주도록 하라."

《조선왕조실록》 광해(光海) 12년(1620) 8월 15일

庚申傳曰金萬鎰上來已久何至今不爲處置乎速爲處置金萬鎰濟州富民也畜馬萬匹至是來獻五百匹故有是教其後特拜副摠管卽正二品侍衛職也人皆恥之

"김만일(金萬鎰)이 서울에 올라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처치하지 않는가. 속히 처치하라." 하였다.

"김만일은 제주(濟州)의 부유한 백성이다. 말을 길러 만필(匹)이나 되었으며, 이때에 이르러 말 5백여 필을 와서 바쳤기 때문에, 이런 전교가 있게 된 것이다. 그 뒤에 특별히 부총관(副摠管)

에 제수되었는데, 총관은 곧 2품의 시위직(侍衛職)이다. 사람들이 모두 수치스럽게 여겼다."

《조선왕조실록》 광해(光海) 12년(1620) 9월 4일

戊寅傳曰金萬鎰獻馬五百匹超資實職除授其子大鳴守令除授次子大聲升堂上其孫金礪本道邊將除授

"김만일(金萬鎰)이 말 5백 필을 바쳐왔으니 초자(超資)하여 실직을 제수하고, 그의 아들 대명(大鳴)은 수령을 제수할 것이며, 둘째 아들 대성(大聲)은 당상에 오르게 하고, 그의 손자 금려(金礪)는 본도의 변장(邊將)에 제수하도록 하라."

《조선왕조실록》 광해(光海) 12년(1620) 9월 4일

司憲府啓曰摠管之職與兵部相等爲任極重故自前兼是職者非文宰唯國舅得爲其中雖或有一二武宰而非威望素著之宿將仰視如斥鷃望大鵬於羊角扶搖之上安敢有希冀之心乎金萬鎰海島中一丘氓也有馬千乘家累萬金前後獻馬之數不知其幾許隨其多少償之以金帛米布則可也何敢以官爵酬之名器至重公論可畏請還收成命司諫院亦以萬鎰事論啓答曰參酌除授庸何傷也勿爲煩論[後萬鎰出仕數日而去]

사헌부가 아뢰기를,

"총관(摠管)이란 직책은 병부(兵部)와 서로 맞먹는 직책으로서 맡은 바 소임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그전부터 직책은 문재(文宰)가 아니면 국구(國舅)만이 겸임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무재(武宰)도 혹 한둘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평소 위망(威望)이 대단한 숙장(宿將)으로서 우러러보이기가 마치 메추라기가 바라보는 회오리바람 끝, 저 높은 하늘에 있는 붕새와 같지 않고

서야 어찌 감히 털끝만큼인들 그 자리를 넘보는 마음을 먹겠습니까.

김만일(金萬鎰)은 섬에 사는 한 백성에 불과합니다. 그가 말이 천승(千乘)이고 집이 누만금(累萬金)의 부자여서 전후 바쳐온 말이 그 수가 얼마인지를 모를 정도라도, 그가 바쳐온 수만큼 금백(金帛)이나 미포(米布)로 값을 쳐주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감히 그 보답을 벼슬로 할 것입니까. 명기(名器)란 지극히 중한 것이고 공론도 무서운 것입니다. 청컨대 그 명령을 회수하소서" 하고, 답하기를,

"사정을 참작해서 제수한 것인데 뭐가 그리 큰 잘못이겠는가. 너무 번거롭게 말라." 하였다.

그 후 만일은 출사한 지 며칠 만에 가고 말았다.

《조선왕조실록》 광해(光海) 12년(1620) 12월 5일

戊申領相啓曰耽羅僻居海中自高麗末叛服不常在先王朝吉運節誘脅將反往事可鑑也近綠邑宰非人嗷嗷如在水火之中幸賴聖明洞察其情眷顧金萬鎰待以分外之爵島中之人亦必聞風而感動矣適金萬鎰來辭臣等問其所欲願以其孫武兼宣傳官除授誇耀島中臣等卽書小紙通於兵曹今聞嘲笑不從設使臣等循私曲請猶當曲從況臣等所言本出於慰悅島人有何事意於其間哉兵曹正欲排遏私情而然可嘉而不足怒也但嘲笑爲資恐朝廷事體不當故敢啓答曰海外有勞人依願除授以慰其心可矣令該曹從速擧行

영상이 아뢰기를,

"탐라도는 바다 가운데에 후미지게 위치하여, 고려 말부터 자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선왕조 때도 길운절(吉運節)이 유인하고 위협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지나간 일을 거울삼아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고을 원이 적임자가 아님으로 인해 물과 불 속에 빠진 것처럼 소란하였는데, 다행히 전하께서 그 실정을 통찰하시고 김만일(金萬鎰)을 돌봐주시어 분수에 벗어나는 벼슬로 대우하시니, 섬 백성이 반드시 소문을 듣고 감동할 것입니다.

마침 김만일이 와서 하직 인사를 하기에 신들이 그의 소원을 물으니, 손자를 무겸 선전관(武

兼宣傳官)에 임명하여 섬에 돌아가서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즉시 쪽지에 적어 병조에 통보했는데, 지금 들으니 비웃으면서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사 신들이 사적인 마음에 이끌려 부당하게 청하여 마땅히 억지로라도 따라야 할 것인데, 하물며 신들이 한 말은 본래 섬 백성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거늘, 어찌 그 사이에 사심을 품었겠습니까. 병조가 정말로 사심을 쓰는 것을 배격하고 막고자 하여 그런 것이니 가상하게 여길 바요, 성낼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비웃음거리로 삼은 것은 조정의 체모에 부당한 듯하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바다 밖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을 소원대로 임명하여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은 옳은 일이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속히 거행토록 하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광해(光海) 14년(1622) 9월 12일

傳曰金萬鎰別養馬四匹使其子大鳴押領上送大鳴前有守令除授承傳加資待闕卽授[萬鎰乃濟州人(多畜馬匹者)獻馬干恩故有是命)

전교하기를,

"김만일(金萬鎰)이 네 필의 말을 특별히 키워 그의 아들 김대명(金大鳴)을 시켜 서울로 올려 보냈다. 대명은 전에 수령을 제수한 일이 있는데 전을 받들어 가자 하고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즉시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만일은 제주도 사람인데(말을 많이 사육하는 자이다), 말을 바쳐 은총을 바랐기 때문에 이러한 명을 내린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인조(仁祖) 5년(1627) 7월 2일

備局啓曰前日以金萬鎰馬千匹取用果似太多爲教萬鎰之馬多至萬匹居國之地食土之毛環漢拏一山殆將半焉則牧畜之滿萬無非國家之賜也雖十用其九米爲不可況萬取千乎取用千匹似無不可而聖教如此請令本州姑選壯馬六七百匹上送答曰限四五百匹取用

비국이 아뢰기를,

"전일에 김만일(金萬鎰)이 말 1천 필을 가져다 쓰는 것은 너무 많은 듯하다고 전교하셨습니다. 그러나 김만일의 말이 무려 1만 필이나 되는데, 이 말들이 국내에서 자라 땅에서 나는 풀을 먹으며 한라산(漢拏山) 주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목축이 만 마리에 이른 것은 모두가 국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분의 9를 사용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는데 하물며 만에서 천을 취하여, 1천 필을 가져다 쓰는 것이 불가함이 없을 듯한데 성교(聖敎)가 이러하시니 본주(本州)로 하여금 우선 건장한 말 6백 내지 7백 필을 골라 올려보내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4백 내지 5백 필 한도에서 가져다 쓰도록 하라."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인조(仁祖) 6년(1628) 8월 11일

己亥備局啓曰濟州居人前知事金萬鎰甲子以後所納之馬二百四十匹而未及施賞云當有別樣論賞之事請令該曹查考施賞答曰依啓

비국이 아뢰기를,

"제주에 거주하는 전 지사(知事) 김만일(金萬鎰)은 갑자년 이후로 바친 말이 2백 40필이나 되는데, 아직까지 시상을 하지 않았다 합니다. 별도로 논상(論賞)하는 일이 있어야 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조사하여 시상케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자료 3. 김만일 목마(金萬鎰 牧馬)[53]

濟俗尙畜牧馬羣牛屯無家無之然而一人所畜多不過數百匹萬曆間[54]有金萬鎰者本旌義正兵也少時貧甚得一牝馬寄牧他羣而先作草勒充滿一室人皆笑之馬漸蕃息積數十年漢拏東面百餘里之地馬羣彌滿以谷量之猶孳孳[55]焉不解益勤聞人有善馬則不計其直而買作種馬搜訪采入歲以爲常以此多産駿良世稱金家入山馬三邑歲貢 御乘多出於此前後獻馬千餘匹 朝家輒以官爵酬之官至知中樞府事年過八十而終有五子

或出身爲守令或以軍功秩嘉善至于曾玄皆傳其業富豪累世不絶順治己亥 朝家收其餘馬之散在子孫者以國馬相換別設山馬牧場以萬鎰子孫世襲監牧之職夫萬鎰無他功能特以善牧起於卒伍致位崇秩流澤後裔古未有也雖猗頓[56]烏倮[57]方斯蔑如云

제주의 풍속이 목축을 숭상하여 말들의 무리나 우둔(牛屯)이 없는 집이 없다. 하지만 한 사람이 기르는 양이 많아야 수백 필을 넘지 않는다. 만력(萬曆) 연간에 김만일(金萬鎰)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본래 정의현(旌義縣)의 정병(正兵)이었다. 어려서는 너무나 가난했다. 암말 하나를 얻어서 다른 무리들에 위탁해서 키웠는데, 먼저 풀 굴레를 만들어 방 하나에 가득 채우자 사람들이 모두 그를 비웃었다. 그런데 말이 점점 번식하여 수십 년 후에는 한라산의 동쪽 면 백여리 땅에 말 무리가 더욱 가득 차서 골짜기 단위로 그 수를 헤아렸다.

그러나 여전히 부지런히 일하여 나태하지 않고 더욱 힘썼다.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가지고

53) 송정규(宋廷奎, 1656~1710), 『해외문견록(海外聞見錄)』.

54) 萬曆間(만력간) : 만력(萬曆)은 중국 명(明)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신종(神宗)의 연호로서 치세 기간은 47년이다. 조선 선조 6년(1573)에서 광해군 11년(1619) 사이이다.

55) 孳孳(자자) : 부지런히 힘쓰는 모양.

56) 猗頓(의돈) : 의돈은 노(魯)나라 사람으로 도주공에게 치부(致富)하는 방법을 배워 의(猗) 지방에서 소와 양을 먹였는데, 1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 왕공(王公)에 비길 만하였다고 한다. 『사기』「화식열전」에 나온다.

57) 烏倮(오나) : 오(烏)땅의 '나(倮)'라고 하는 인물.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화식열전(貨殖列傳)」에 이르기를, "오지(烏氏 : 감숙성 涇川縣 동쪽)사람 나(倮)는 보잘 것 없는 시골의 목장주였으나, 가축 수가 많아지자 이것을 팔아서 진귀한 비단을 사가지고 융(戎 : 북서쪽 만족)왕에게 남모르게 선물했다. 융왕은 그 보상으로 열 배나 더 많은 가축을 그에게 주었다. 그렇게 되니 그의 가축은 골짜기마다 가득 차서 그 수효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진(秦)의 시황제(始皇帝)는 그를 제후들과 똑같이 대우하여 봄·가을에 열신(列臣)들과 함께 조정으로 들게 하였다."라고 한 기록이 있다.

있다는 말을 들으면 가격을 따지지 않고 구입하였으며, 종마(種馬)를 탐방하여 가려 구입하는 것을 해마다 상례로 하였다. 이리하여 준마를 많이 산출하게 되었고, 세상에서 '김가(金家)의 입산마(入山馬)'라고 일컬었다. 세 읍에서 해마다 공물로 바치는 어승마(御乘馬)는 대다수가 이곳에서 차출되었다. 전후로 헌납한 말이 천여 필인데 조정에서는 그때마다 관작(官爵)을 내려 보답하여 관직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나이 여든이 넘어 생을 마쳤다. 슬하에 아들 다섯이 있었다.

혹 출신(出身)하여 수령(守令)이 되고, 혹 군공(軍功)을 세워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이르기도 했다. 증손(曾孫)·현손(玄孫)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업(家業)을 전수받아 부호(富豪)로서 누세(累世)에 걸쳐 끊어지지 않았다. 순치(順治) 기해년(1659)에 조정에서 그의 자손들에게 흩어져 있는 남은 말들을 수합해서 국마(國馬)로 상환하고, 별도로 산마목장(山馬牧場)을 설치해서 만일(萬鎰)의 자손들이 감목(監牧)의 직책을 세습토록 했다.

무릇 만일에게는 남다른 공적이나 재능이 없었으나, 다만 말을 잘 키우는 재주로 졸오(卒伍)에서 일어나 높은 품질(品秩)에 위치하기에 이르러 그 혜택이 후손에게 미치니, 이는 옛날에도 없던 일이다. 비록 부호(富戶)였던 의돈(猗頓)이나 오(烏)땅의 나(倮)란 사람도 이에 비하면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사진 42〉 김녕사굴과 서련 판관 비석

김녕사굴과 판관 서련(徐憐)[58]

구좌읍 김녕리 마을 동쪽에 큰 뱀이 살고 있다는 큰 굴이 있는데, 이 뱀은 다섯 섬들이 항아리만큼 몸통이 컸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은 이 뱀에게 매년 처녀를 한 사람씩 제물로 바쳐 큰굿을 했고, 만일 굿을 하지 않거나 정성이 부족하면 그 뱀이 나와서 곡식밭을 다 휘저어 버려 농사를 망치게 하였다.

58) 현용준, 『앞의 책』, 101~102쪽.

양반의 집에서는 제물이 될 딸을 내어 놓지 않았으므로, 결국 무당과 같은 천민 집안의 딸들이 으레 희생제물이 되게 마련이어서 무당이나 천민의 딸은 시집을 가지 못했다.

이 소문이 제주목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즈음에 서련이라는 판관이 부임해 왔다. 의협심이 강한 젊은 판관은 뱀굴의 이야기를 듣고 괴이하게 생각했다.

"임금의 명을 받고 백성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관원으로서 어찌 이런 기괴망측한 일을 두고만 볼 것인가"

하고는 굴에 사는 요괴를 퇴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군사를 거느리고 굴 주변에 잠복하여 무당들을 불러 온갖 제물을 준비하고 굿을 하도록 했다. 굿이 시작되자마자 어마어마한 뱀이 나와 술과 떡을 먹고 처녀를 찾았다.

이때 서 판관은 북을 울려 잠복해 있던 군졸들이 활을 쏘고 창검을 휘둘러 뱀을 죽였다. 이때 굿을 하던 무당은 금기를 주었는데, 말을 달려 성안으로 갈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아선 큰일이 난다고 알려줬다. 판관은 무당의 말이라도 듣지 않을 수 없었고, 말에 올라타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성안으로 달렸는데 무사히 성안 동문 밖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

그때 뒤에서 '피비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자 말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한다. 또 변이 유형으로 뱀굴에 사는 요괴인 뱀을 죽인 판관은 곧 제주를 떠나는데, 제주와 추자도 사이에 있는 무인도 '사수코지'까지 갔을 때에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파선되어 죽었다고도 한다. 이는 뱀 귀신이 그를 따라가서 복수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자료 1. 해외문견록 서련 판관[59)]

徐判官憐成宗朝右相鄭文炯之外孫也善弓馬十八魁武科十九爲濟州判官州俗不能陶瓦公私皆草屋人言漢拏山有神物惡火氣若陶瓦不利於事且有殃咎徐

不聽遂燔造數月官舍茅盖悉易以瓦所謂神物乃大蟒也處巖穴中能與妖作蠹島民以爲神每歲春秋擇民女年十五未經人者洗置盤上進之穴前使巫覡作樂禱之則蟒噬之以入不然則終歲風雨而大作田野如曳木處百穀損傷故官籍村女計年以次用之徐慨然有除害之志造大斧長槍與牧伯及兩縣宰約於春祀日齋牲戮之至期皆稱疾不出徐奮身獨往手槍當蛇穴使力士二人操斧立左右依前樂作蟒果出頭徐槍拄其口力士斫其頸其害乃絶徐亦是夜遘疾逾旬而卒時正德乙亥四月初

판관(判官) 서련(徐憐)은 성종(成宗) 때 우의정을 지낸 정문형(鄭文炯)의 외손(外孫)이다.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나 18세에 무과(武科)에 장원급제했고, 19세에 제주판관(濟州判官)이 되었다. 제주의 풍속이 기와를 구울 수 없어서 공관(公館)이든 사택(私宅)이든 모두 초가였다. 사람들의 말로는, 한라산에 신령스런 존재가 있는데 화기(火氣)를 싫어해서 만약 기와를 구우면 매사에 이롭지 못하며 또 앙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徐) 판관은 이 말을 듣지 않고서 마침내 몇 달 동안 불에 구어 제조하여 관사(官舍)의 초가지붕을 모두 기와로 바꾸었다. 이른바 신령스런 존재란 곧 큰 이무기(大蟒)인데, 바위굴 속에 거처하면서 능히 요술을 부렸으므로, 섬사람들이 그 이무기를 신령스럽게 여겨서 매해 봄·가을로 주민 중 15세의 처녀를 선택해서 목욕을 시켜 반상에 놓고서 동굴 앞에 올리고는 무당으로 하여금 풍악을 울리며 기도하게 하면 이무기가 제물을 먹고 동굴로 들어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가 다하도록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전야(田野)가 나무를 옮긴 곳처럼 되어 온갖 곡식이 손상을 입었으므로 관적(官籍)에 등록된 시골 여자의 나이를 헤아려 순서대로 제물로 썼던 것이다.

이에 서 판관은 개연히 해악을 없애려는 뜻을 품고서 큰 도끼와 긴 창을 만들고, 목백(牧伯,

59) 송정규(宋廷奎), 『해외문견록(海外聞見錄)』, 1656~1710.

곧 목사)과 양현(兩縣, 곧 정의·대정)의 수재(守宰, 곧 현감)들과 더불어 춘사일(春祀日)에 함께 가서 처치해 버리기로 약속했다.

기일이 이르렀는데 모두들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나오지 않았으나, 서 판관은 몸을 떨치고 홀로 가서 손에 창을 쥐고서 뱀굴(蛇穴)에 맞서고, 역사(力士) 두 사람으로 하여금 도끼를 들고서 좌우에 각각 서 있도록 했다.

그리고는 이전처럼 풍악을 울리니 과연 이무기가 머리를 내밀거늘, 서 판관의 창이 이무기의 입을 찌르고 역사들이 목을 쳐서 마침내 그 해악이 없어졌다.

서 판관 역시 그 날 밤에 질병에 걸려 열흘을 갓 넘기고 졸하였다. 이때는 정덕(正德) 을해년(1515) 4월 초 10일이었다.

제2장 풍수 전설

제주에는 산천의 좋은 기운을 모으는 땅인 명당이 있고, 땅의 지혈을 끊는 단혈(斷穴) 이야기 등 풍수와 관련된 전설이 많다.

제주 풍수 전설의 특징은 전통적인 풍수이론과 함께 인륜 도덕을 담고 있으며, 역행을 배제하고 순리에 따른 덕을 베풀어 남을 이롭게 하고 지극한 효성을 갖추면 하늘이 도와서 명당을 내린다고 인식했다.

"참된 혈은 하늘이 감추고, 땅이 비밀히 하여 덕 있는 자를 기다린다"는 말처럼, 풍수 전설에서는 천륜과 인륜을 중시하고, 인과응보(因果應報)와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윤리성이 나타나고 있다.[60] 곧 만물이 의지하여 사는 땅은 하늘의 도(道)와 인륜 도덕이 담겨있는 정신적인 지주로 여겼다.

중국의 풍수사인 호종단(胡宗旦), 일명 '고종달' 관련 전설에서는 수혈(水穴)과 단혈(斷穴) 관련 모티브가 중심이 되고 있다. 호종단이 결국 성공하지 못한 것은 제주민의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가 '왕후지지의 땅'이어서 중국의 황제는 압승술(壓勝術)에 뛰어난 중국의 풍수사인 호종단을 파견하여 지맥을 끊는다는 모티프는 풍수학적 상징과 형상화를 통해 제주를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했다.

풍수 전설은 인간의 대자연적 조화와 천지인 삼재사상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특히 음택풍수 전설은 전도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좋은 음택지인 명당에 묻고 좋은 땅을 씀으로써,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염원함과 동시에 자손발복을 기원하기도 했다.

---

60) 신영대(2006), "제주와 풍수전설" 『한라산의 구비전승·지명·풍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1. 호종단(고종달)

중국의 황제는 왕후지지(王侯之地)의 땅이라고 여기는 제주섬의 인문과 자연을 황폐화시키고자 했는데, 이에 대응하여 한라산의 수신(水神)과 산신이 이를 지켰다.

고려 예종 연대 송나라 왕은 지리서를 펴놓고 보니 제주도의 지리가 심상치 않아서 인걸들을 못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호종단을 불러 제주의 지혈과 물혈을 끊으라고 지시를 내린다.

그는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 올라가 방위를 놓고 혈맥을 살피면서, 정의현 동쪽에서부터 맥을 끊고 서쪽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정의현의 동쪽인 종달포에 상륙하여 점차로 서쪽으로 가면서, 종달리 은월봉 앞 '넙은드르'의 동쪽 '물징거'라는 곳에 이르렀다.

"여기가 어디냐?"라는 질문에 "종달이우다"라고 답하자, 그는 단숨에 물혈을 끊어버린다.

물이 솟아나오던 곳에 구멍만이 남게 되고, 이곳 사람들은 물을 찾아 바닷가로 내려와서 현 위치에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된다.

호종단형 전설지로는 지장새미(서귀포시 서홍리), 물징거혈(구좌읍 종달리), 노단새미, 거슨새미(표선면 토산리), 용머리(안덕면 사계리), 차귀도(한경면 고산리) 등이 전한다.





〈사진 43〉 서귀포시 서홍리 지장새미

지장새미

호종단이 서귀포 서홍리에 이르렀다. 그가 편 지리서에 '꼬부랑나무 아래 행기물'이란 물혈이 있으므로, 이 물을 찾아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때 서홍리에 사는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백발노인이 달려와 행기 그릇의 물을 숨겨달라고 하소연했다. 이때 '지장새미' 수신(水神 : 물을 다스리는 신)은 호종단이 혈을 뜨러 오는 것을 알고서 '소길마' 아래 숨어버렸다.

호종단이 밭 가는 농부에게 '지장새미'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농부는 수신을 숨긴 후 다른 곳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호종단은 늘 개를 데리고 다녔는데, 개는 지장새미 옆 밭 가는 사람이 놓아 둔 소길마 부근에 가서 킁킁대며 돌아다녔다.

호종단은 이 부근의 '꼬부랑나무 아래 행기물'을 찾으러 다녔으나 끝내 찾지 못해서 분개하며, 가지고 있던 술서가 틀렸다며 찢어버리고 돌아갔다.



〈사진 44〉 안덕면 사계리 소재 용머리

용머리

'동방의 해 뜨는 나라'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나와 중국에 해를 끼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중국의 황제는 압승지술이 뛰어난 호종단을 시켜 지세가 높은 곳을 골라 그 맥을 막도록 했다. 그는 제주섬에 도착하자 제주의 산세가 수려해서 장차 훌륭한 인물이 배출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중요한 맥을 잘라가기 시작한다.

호종단은 한라산에서부터 지세와 용맥(혈)을 찾아 내려오다 보니 용머리에 이르게 되는데, 용머리의 지세와 용맥은 바다로 뻗어나가서 중국을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 중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그 맥을 자르기로 결심했다.

호종단은 큰 칼로 용의 머리와 몸통 사이를 몇 번 내리쳐 잘랐다. 이에 바다로 나가던 용이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해서 멈췄다고 하며, 지금도 용머리의 중간부에 호종단이 칼로 내리쳐 자른 칼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사진 45〉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차귀도(遮歸島)

호종단은 제주의 물혈과 지혈을 끊고는 중국을 향해 귀로에 올랐다. 제주를 돌아다니면서 인물이 날만한 지맥인 샘의 근원을 끊던 호종단은 산방산 앞 바닷가에서 승천하려는 용의 허리를 잘라놓고서는 마음이 놓였다.

제주는 샘도 솟지 못할 것이고, 인물이 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제주의 서쪽 끝 고산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배를 띄웠다. 이제 이 세상은 영원히 황제의 발아래 있게 되지 않나? 생각하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배를 난타하기 시

작해서 배가 힘을 못 쓰고 기우뚱거리더니 뒤집혀버렸다.

매로 분장한 한라산 산신이 호종단이 탄 배 위를 한 바퀴 돌자, 이때 갑자기 돌풍이 휘몰아쳐 천지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귀도 바위틈에 표류되어 산산조각이 되어 부숴지자 호종단은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다.

호종단은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산 앞 바다에서 죽고 말았는데, 사람들은 물혈을 끊어 샘도 마르게 하고, 더구나 인물이 날 만한 지맥을 다 끊어버린 그를 하늘이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

호종단이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배를 띄웠던 그 섬을 차귀도(遮歸島)라고 불렀는데 본국으로 '돌아감을 막았다(遮歸)'는 뜻이다.

고려 조정에서는 이 신이(神異)함을 보고 받고 즉시 한라산 신에게 광양왕(廣壤王)의 작위를 봉하는 한편, 해마다 양초와 폐백을 내려 제사를 올리게 했다.





〈사진 46〉 표선면 토산리 거슨새미(좌)와 노단새미(우)

거슨새미와 노단새미

표선면 토산리에는 한라산을 향해 물이 거슬러 흐른다 하여 '거슨새미(逆泉)'라고 부르고 있으며, 여기서 조금 남쪽에는 순리대로 바다를 향해 흐르는 '노단새미(順泉)'가 있다. 이 두 곳의 샘물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여 수질이 좋고 양이 많아 토산리 설촌 이래로 상수도 시설이 되기 전까지 인근마을(가시, 세화, 신흥 등)의 중요한 생활용수로 사용되었다

종달리 포구로 들어온 호종단이 수맥을 뜨면서 토산리 지경에 올 무렵 영천수신(靈泉水神)은 아가씨로 변신하여 넓은 밭에서 밭 가는 농부에게 헹기 그릇에 물을 떠서 꼬부랑나무(구부러진 나무) 아래 숨겨달라고 하자, 농부는 밭 가는 쟁기의 밑에 숨긴다.

호종단은 지리서에 나와 있는 꼬부랑나무 아래 헹기물이 있는 넓은 밭까지 찾아 갔으나 거슨새미의 수맥을 찾지 못했다. 종달리에서 토산리까지는 샘물이 없었고, 이곳은 여전히 샘물이 솟아나는데, 이는 마을 선조들이 호종단을 물리친 거슨새미의 수신을 기리기 위한 상징물처럼 남아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61]

61) 토산1리 마을회 표지석, 2009.

2. 병악과 강위빙(姜渭聘)[62]

강위빙은 인조 21년(1643)에 지금의 대정읍 상모리에 거주하던 강진(姜縉)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현종 15년(1674) 봄에 대정현의 유향좌수(留鄕座首)로서 당시 순력(巡歷) 중인 제주목사를 영접하다가 이 마을 창천리에 정착하여 마을을 설촌하게 된다.

당시 제주목사가 순력 행차로 정의현과 대정현의 경계에 이르렀을 때 강(姜)좌수가 영접을 나갔다. 목사는 마중 나온 강 좌수를 보고 그 인품됨에 비해 의복이 허름한 것은 살림이 극히 어려운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목사 일행은 창고천 입구에 이르러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때 목사는 좌수를 불러 직접 지금의 창천리 중앙로인 큰 거리 학교 앞 북측을 가리키며, "저 곳에 집을 지어 살면 당대에 대정에서 제일 가는 부호가 될 것이다"라고 일러 주었다.

강위빙은 집으로 돌아간 뒤에 이 말을 어기지 않고 장남(長男)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슬하를 떠나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창천리로 이주하여 땅을 일구었다.[63] 정의 지경에서 오태연(吳泰連), 김두강(金斗崗), 오중방(吳仲邦) 등이 입주함으로써 마을이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여 일대 촌락이 형성되었다.

인근 감산리에 있는 병악을 '굴루기오름'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에는 감산리 강씨와 창천리 강씨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전설에 감산리 강씨 선세에 영웅이 있었는데, 이는 강 별장이라고 전해진다. 그는 성격이 괴팍스럽기로 유명하여, 당시 한 승(僧)이 시주를 받으러 갔다가 그에게 박대를 당해서 분풀이를 할 생각으로 꾀를 내어 말했다.

62) 강위빙(姜渭聘, 1643~?)
63) 안덕면 창천리 후손 강홍식 제보

강 별장 선묘의 지형이 개구(狗)형으로 잘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 묘가 있는 오름은 봉우리가 둘이어서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니, 이것이 크게 불길하여 큰 오름을 깎아서 같게 해야 후손이 발복(發福)한다는 것이었다.

강 별장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인력을 동원하고 그 산을 깎아 버렸더니 산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고 한다.

큰 비가 쏟아지니 산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빗물과 어울려 쏟아져 넘쳤는데, 이 사건이 조정에 알려지자 나라에서는 역적이 날 것 같다 하여 강 별장과 같은 시대의 인근 마을 창천리 강씨도 잡아오라고 했다.

창천 강씨를 잡으러 강씨 집에 가보니 네 개의 기둥이 네모지고 처마에 매달린 풍경은 전부 소라껍질로 되어 있었다. 창천 강씨는 조정에서 잡으러 올 것을 미리 알고 집 네 둥근 기둥을 미리 깎아 네모기둥으로 만들고 가난하게 보이도록 했다.

그는 입은 옷도 겉옷은 명주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갈옷을 입고 있었는데 조정에서 잡으러 온 사람은 그 속옷을 보고 이 옷은 어떤 옷이냐고 물었다.

창천 강씨는 "제주도에는 감나무가 많아서 그 감을 짜서 즙을 내어 무명천에 염색해 농사 지을 때 입습니다. 마침 이 옷을 입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홀연히 불려나오게 되어 갈아입을 틈이 없어서 위에 평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하고 아뢰어서 면죄가 되었다고 전한다.

제3장 자연전설

자연전설은 자연지형을 조합하여 산천이나 도서, 평야, 암석, 못 혹은 큰물의 힘을 간직하고 떨어지는 폭포 등 자연물의 형상을 바라보던 향유자들의 상상력에 의해 생긴다.

전설은 각각의 특정 개별적 증거물의 있는데, 이를 인간의 삶과 연결시켜 전설화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전설을 통해서 제주인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데, 자연 전설지의 발생 원인 등을 자신들의 삶과 관련시켜 지명을 붙이거나 형성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자연전설에 대한 모티프는 자연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신비감과 경외감의 소산으로, 이야기를 엮어나가고 지형에 대한 기형(奇形)의 원인을 해석하고 있다.

1. 설문대할망

설문대할망 전설은 제주의 자연지형을 해석하고, 제주도의 형세를 '설문대할망'이라는 거녀의 행동과 신체로 나타내는데, 신화적인 요소도 있다.

전설지로는 한라산, 백록담, 영실, 물장오리, 산방산, 성산일출봉, 식산봉, 다랑쉬오름, 우도, 지귀도, 마라도, 추자도, 엉장매코지, 섭지코지, 고근산, 범섬, 문섬, 등경돌, 오라동 족두리석, 애월리 공깃돌, 곽지리 솥덕, 차귀도, 장군바위, 서귀포 지장샘, 용연물, 물장오리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성산 일출봉에 있는 기암인 할망이 불을 밝힐 때 사용했던 '징(등)경돌'과 제주시 오라동 한천 모자 모양으로 생긴 '족두리석'은 거석신앙의 흔적으로도 볼 수 있다.



〈사진 47〉 애월초등학교 설문대할망 공깃돌

설문대할망

설문대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설문대'라는 이름 외에도 '설명두할망' 또는 '세명뒤할망'이라고도 한다.

할망은 얼마나 키가 컸던지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지고 손은 한라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빨래를 할 때는 왼쪽 발은 한라산에, 오른쪽 발은 산방산을 딛고서 태평양 물에서 빨래하고 또 한쪽 발은 한라산에, 다른 한쪽은 소섬에 딛고 한다고도 하며, 왼쪽 발은 성산

일출봉에 딛고, 오른쪽 발은 마라도에, 옷은 서귀포에 있는 지귀섬에 놓고 빨기도 했다.

설문대할망은 제주 지형을 차례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제주도에 360여 개나 되는 산(오름)은 할머니의 치마폭에서 흙이 새어나온 것이며, 구좌읍 지경에 있는 '다랑쉬오름'은 흙이 많아 주먹으로 봉우리를 쳐서 덜어 낸 것이다.

성산읍 성산리 앞바다에 있는 소섬은 설문대할망이 한쪽 발은 오조리의 식산봉에 디디고, 다른 쪽은 일출봉에 놓고 앉아 오줌을 누었는데, 그 줄기의 힘이 세어서 육지가 패어지고, 오줌은 장강수(長江水)가 되어 흘러나가 제주 섬 한 조각이 잘려서 생성되었다.

할망의 오줌 줄기의 힘이 너무 세었기 때문에 깊이 패어 고래나 물개 따위도 살 수 있는 아주 깊은 바다가 되었고, 조류가 세어서 배가 난파되는 일도 많았다. 할망이 수수범벅을 먹고 싼 똥이 산이 되고, 한라산을 베개 삼으면 발이 바닷가에 잠기는 데, 발을 잘못 뻗어 범섬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었다.

할망이 오줌 누울 때 포수에게 쫓기던 사슴들이 할망의 성기를 굴로 착각하여 그 속으로 들어가자, 간지러워 오줌을 싸서 바로 제주도의 하천이 되었다. 그녀는 제주도에 있는 물들이 얼마나 깊은 지를 확인하려고 용담동에 있는 용연에 들어가 보니 물이 발등에 찼고, 서홍리 홍리물은 무릎까지 왔다.

할망은 한라산 중턱에 있는 물장오리의 물이 깊은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 속에 몸을 담갔는데 밑이 한정 없이 터져서 깊은 줄을 몰라서 빠져 죽었다.



〈사진 48〉 조천읍 조천리 엉장매코지

엉장매코지

설문대할망은 자신의 속옷을 해 입을 수가 없어서 속옷을 만들어 주면 제주도에서 진도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제주사람들은 명주 100동을 모았고, 할머니는 부지런히 다리를 놓아가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속옷은 명주 백동이 필요하지만 제주 사람들은 99동 밖에 마련하지 못해 결국 속옷은 완성되지 못했고, 할머니는 다리를 놓다가 중단했는데 그 자취가 조천면 조천리와 신촌리 사이의 바다로 뻗어나가서 곶이 되었는데 이를 '엉장매코지'라고 했다.



〈사진 49〉 성산일출봉에 있는 등경돌

등경돌과 섭지코지

성산읍의 섭지코지에는 설문대할망과 하르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민담 차원의 우수갯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 징(등)경돌은 설문대할망이 등에 돌을 올려놓고 불을 밝혀 바느질을 했다고 하고, 김통정 장군은 이 돌에 기대어 싸움을 고민했는데, 사람들은 이 돌 앞에서 마을의 평안을 빌어 제를 지냈다.

사람들이 일출봉에 올라갈 때는 설문대할망 등경돌에 두 번, 김통정 장군을 상징하는 장군석에 두 번을 절한다.

민담과도 같은 이야기로 '설문대하르방'이 있다. 설문대할망과 하르방 두 거구는 늘 먹을 게 없어 걱정이어서 합심하여 물고기를 잡기로 했다. 설문대할망은 치마를 벗고 섭지코지 앞바다에 들어가서 앉고, 하르방은 우도 쪽에서부터 고기를 몰았다.

특별히 하르방이 거대한 아랫도리의 물건을 꺼내 바다를 휘저으니 놀란 고기떼들이 섭지코지 쪽으로 도망가다가 다리를 벌리고 앉은 설문대할망의 하문(下門) 속으로 들어가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한다.



〈사진 50〉 서귀포시 서호동 고근산 전경

고근산, 범섬

서귀포시 서호동 고근산 꼭대기에는 움푹 패인 분화구가 있는데, 이 분화구 가에 서면 한라산 서녘등성이가 보이고, 산에서 마주 보이는 범섬 절벽에는 두 개의 굴이 보인다.

설문대할망이 고근산 분화구인 굼부리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 범섬 절벽에 발을 걸치고 한라산 등성이를 베개로 삼아 누웠다가 다리를 뻗자 범섬에 두개 구멍이 생겼다고 한다.



〈사진 51〉 제주시 한천에 있는 족두리석

족두리석

설문대할망은 자신의 속옷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지 보고 싶어 한천을 따라 내려오던 중, 더운 날에 잠시 목을 축이기 위해 족두리를 벗어 바위에 올려놓은 후 잊어버리고는 사라졌다.

할망이 쓰던 커다란 족두리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바위로 변했고, 마을사람들은 한천에서 멱을 감다가 물에 빠져 넋이 나간 아이를 족두리 바위에 데리고 가서 치성을 드리면 낫는다고 전해져왔다.[64]

64) 오라동주민자치센터·제주대학교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2013), 『신선 찾아 방선문 가는 숲길』.

2. 한라산

한라산의 전설 중에서 아흔아홉계곡, 명주 99동 등 모자람의 모티프는 부족했던 제주민의 삶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하나를 채우기 위한 제주사람들의 노력의 역사가 전설 속에 반영되고 있다.

백록담의 흰 사슴(백록)은 신성한 존재로 등장하는데, 백의민족과 더불어 하얀색의 의미를 강조하여 상징화된다.

영실기암(오백나한)[65]

옛날 큰 할머니가 아들 오백을 낳았는데 식구가 많고 집이 가난하여 흉년이 겹치니 끼니를 이어가기가 힘들게 되었다. 큰 할머니(또는 설문대할망이라고도 함)는 아들에게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 와야 죽이라도 끓여 먹고 살 게 아니냐고 타이르자, 오백형제는 모두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 큰 할머니는 먹을 죽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큰 가마솥에다 불을 때고 걸어 돌아다니며 죽을 젓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뎌 죽 솥에 빠져 죽었다.

오백형제는 돌아와서 죽을 먹기 시작하는데, 어느 때보다 죽이 맛이 좋았고, 맨 마지막에 돌아온 막내가 죽을 뜨려고 솥을 젓다가 이상한 뼈다귀들을 발견했다. 막내는 어머니의 고기를 먹은 불효한 형들과는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한경면 고산리 차귀섬으로 달려가 한없이 울다가 그만 바위가 되어 버렸다.

'오백장군', '오백나한'이란 이름은 기암의 수가 오백이나 된다는 데서 생겨났지만 499개 중 이 하나는 설문대할망의 막내아들이라고 전해진다.

65) 제주도(1985), 『제주도 전설지』, 38~39쪽 참조.



〈사진 52〉 백록담(서재철 촬영)

백록담과 탐라계곡[66]

한 사냥꾼이 사슴을 잡으러 다니다가 한라산 정상에서 사슴을 만나자 화살을 당겼는데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맞히고 만다. 화가 난 옥황상제는 봉우리를 잡히는 데로 뽑아

66) 제주도, 『앞의 책』, 36~37쪽.

던져서 안덕면 화순리의 산방산이 되었다.

뽑아 던진 웅덩이는 깊이 패여서 그 곳은 한라산 백록담이 되었으며, 신선은 하얀 사슴을 타고 돌아다녔다. 사냥꾼이 사냥하러 한라산으로 올라가자 안개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고, 백록의 등에는 백발노인이 타고 있었는데 멍하게 바라보고만 있자, 사슴 떼가 간데 온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민간에는 백록을 잡으면 사냥꾼은 그 자리에서 쓰러진다고 전해지는데, 교래리의 명포수는 백록을 찌른 일이 있는데, 사슴에게 용서를 빌고 포수로서의 생을 마감했다고도 전한다.

한라산 유람을 마치고 돌아가던 신선들은 선녀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기로 작정하고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은 나무에 날개옷을 걸치고 백록담의 맑은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목욕하던 선녀들은 신선이 훔쳐보는 것을 알고 하늘로 올라가서, 옥황상제에게 아뢰자, 상제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 신선들은 산 아래로 마구 달음질쳤는데 계곡이 깊이 패여 탐라계곡이 되었다.



〈사진 53〉 물장오리(서재철 촬영)

물장오리[67]

물장오리는 '장올악'이라고도 하며, 한라산 북동쪽 오름 정상에 있는 못으로 설문대할망이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있으며, 언젠가 물이 넘치면 온 섬이 잠기게 될 것이라고

6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1985), 『제주설화집성』, 653~662쪽.

여겼다. 못 속에는 용이 살고 있고 이무기가 하늘로 올라가기를 기다린다고 전해지며,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고 한다.

애월읍 어도리의 이찰방이 '물장오리'로 가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비몽사몽간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흑룡을 죽이라고 지시한다. 저녁 무렵이 되자 흑룡이 한고비를 틀면서 올라오자, 황룡이 빛나는 여의주를 다투면서 나타난다. 이찰방이 방아쇠를 당기자 흑룡은 피를 토해내는 것이 마치 하늘을 향해 불을 뿜는 것처럼 하고서 죽는다.

이때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말팟'에 가서 30년을 살고, 그 이후는 다른 데 가서 살도록 했다. 이찰방이 지관에게 물어서 집자리를 얻고, 홍수가 난 곳에 곡식을 뿌렸더니 풍년이 들어 곡식을 관가에 바쳐서 벼슬을 얻어 잘 살았다. 예언처럼 30년이 지나자 흑룡의 운이 당도하여 찰방의 집과 타작한 창고의 곡식을 한꺼번에 다 쓸어가 버렸다고 전한다.

아흔아홉골[68]

원래 한라산 골짜기는 백 개의 골짜기였다. 이곳에 많은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가 날뛰어 다녔다. 중국에서 온 스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맹수를 없애 줄 테니 '대국동 물입도'라고 외치도록 한다.

스님은 불경을 한참 외고 나더니 '너희들은 모두 살기 좋은 곳으로 가라'고 소리치자 호랑이, 사자, 곰 할 것 없이 사라져버리고 제주에는 맹수가 나지 않게 되었다.

그 후 한라산은 아흔아홉의 골짜기 밖에 되지 않았고, 맹수가 나지 않게 되자 왕도 나지 않게 되었다.

68) 제주도, 『앞의 책』, 39쪽.

3. 자연물



〈사진 54〉 비양도 전경

비양도[69]

제주에는 작은 소악(小嶽)이 99봉이어서 한 개를 더해서 100개를 채우기 위해 중국에서 한 개의 봉우리가 제주섬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한림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한 아주머니가 섬이 이동하는 굉음에 놀라 집 밖으로 나갔다가 멈추라고 소리치자 현재 위치에 떨어지고 말았다.

또 다른 유형으로서, 임신한 해녀가 바다에 들어가 해초를 캐다 섬이 조수에 밀려 한림읍 앞바다까지 떠내려 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섬에 올라가서 소변을 보자 섬이 멈춰섰다.

유사한 유형으로 임신한 여인은 떠오던 섬을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저기 섬이 떠온다고 소리치자 섬이 그 자리에 멈춰서 아무리 조류가 세어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69) 현용준, 『앞의 책』, 20~21쪽.



〈사진 55〉 제주시 용두암 전경

용두암[70]

용두암은 용왕의 사자(使者)가 한라산에 난다는 불로장생의 약초를 캐러 왔다가 산신이 쏜 화살에 맞아 몸은 바다에 잠기고, 머리 부분만 바위가 되었다. 용이 승천하면서 한라산 신령의 옥구슬을 입에 물고 달아나려 하자, 산신이 분노하여 화살을 쏘아서 맞

70) 현용준, 『앞의 책』, 46~48쪽.

혔는데 몸체만 바다 속에 잠기고 머리는 울부짖는 모습으로 남아 돌이 되었다.

바닷가에는 한 백마가 있었는데 용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하루에 쌀 한 섬과 돼지 한 마리를 먹는다는 힘센 장수가 나타나서 그 백마를 잡기로 하였다.

어느 날 장수는 백마가 나타난다는 그 곳으로 갔다. 백마는 장수의 모습을 보자마자 곧장 물속에 잠겨 버리곤 했다. 장수가 꾀를 내어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워 두었는데, 백마는 물 위로 올라와서 허수아비와 친근하게 지냈다.

장수는 꾀를 내어 허수아비 모양을 하고 그곳에 가 있다가 백마의 목덜미를 꽉 붙잡자, 백마는 달아나려고 요동을 쳤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잠시 후 백마는 하늘을 향해 세 번 울음을 울더니, 삽시간에 먹구름이 일고 천둥이 치면서 억수 같은 비바람이 쏟아져 내렸다. 백마는 이미 물 속에 잠긴 채 바위로 굳어 있었다.



〈사진 56〉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 전경(데이비드 네메스 촬영)

수월봉[71]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수월봉에는 '수월이'와 '녹고'라는 두 남매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의좋게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병이 나서 위독하여 백방으로 약을 써보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71) 제주도, 『앞의 책』, 255~256쪽.

어느 날 노승이 두 남매의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에 대한 특효약이 절벽 아래에 있는 '오갈피'라고 전해주었다. 하루 종일 절벽을 헤매다가 수월이가 절벽에 있는 '오갈피'를 발견하고, 밧줄을 잡고 절벽을 기어가기 시작했는데 수월이는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져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다.

녹고가 잡은 밧줄은 아무 반응이 없었고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넋을 잃고 울부짖으면서, 끝없이 울기만 하다가 죽고 말았다. 남매의 육신은 없어졌지만 영혼은 눈물이 되어 바위틈을 거쳐 샘솟아 흘렀다. 지금도 녹고의 얼굴이 바위 형상으로 남아 있어서 마음 착한 사람만이 큰 바위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곳에는 1757년 제주목사가 수월봉의 아름다운 절경과 풍광이 있고, 풍수지리적으로도 영산(靈山)이어서 영산비를 세웠다고 전한다. 수월봉은 제주도 땅의 머리에 해당되는 신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이다.

대정현이 가뭄에 시달리자 고산리 수월봉에 제단과 비석을 세우고 기우제를 지냈다고도 한다.

제 2 편

제주의 신화지

신화는 구비문학의 일종으로서 설화 장르인 신화, 전설, 민담 중에서 가장 진실되고 신성한 신의 이야기[72]라고 알려져 왔다.

신화의 세계는 일상적인 경험 이전의 세계 혹은 일상적 합리성을 넘어선 존재라고 믿어져 왔다. 신화의 시공성은 태초에 일어난 일, 특별한 시간·장소를 무대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신화와 관련된 증거물은 매우 포괄적이며 천지창조 신화에서는 천지가 바로 증거물이고, 국가 창건 신화라면 국가가 바로 증거물이다.

신화의 주인공은 신이며, 행위는 신적인 능력 발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인간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신성한 자라는 의미다. 전승의 범위 면에서 신화는 민족적인 범위에서 진실성과 신성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씨족이나 부족적인 것도 있으나 민족적인 것으로 확대될 때 신화로서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신화지(神話地)는 신화의 전승지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신화지는 신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신성의 '땅'이라든지, 산, 자연물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별한 '신성장소(神聖場所)'를 말한다. 신화가 지닌 태초의 시간과 신성 장소는 신화의 진실성과 신성성을 가져 오도록 하며, 신화지는 장소적 개념이 더욱 강하고, 신화지의 신성성이 의심되지 않을 때 더욱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제주 무속의 당(堂)은 신이 좌정해 있는 '신화지'로서의 특성이 강한데, 신성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무속의례'와 의례의 집행자인 '심방', 그리고 신에 대한 내력인 '본풀이'가 갖춰져 있다.

허남춘은 제주신화의 일반적인 특징을 '호혜성과 이타성'에 두고 공감과 공존의 사유가 제주 신화의 원천이라고 보고 있다.[73]

제주신화는 선과 악을 넘어서서 순환의 질서를 환기시키는데, 선과 악은 공존하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으로 돌아오게 되는 순환적인 질서가 제시되며, 이는 자연계의 질서 안에서 신들의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으로 귀결되며 호오의 감정을 넘어서서 없는 자에 대한 동정을 통해 공존의 삶을 보여준다고 정리하고 있다.

---

72) 장덕순 외(1989),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5~19쪽.

73) 허남춘(2017), 『제주학개론』, 제주학연구센터, 207쪽.

1. 삼성혈(三姓穴)과 혼인지(婚姻池)



〈사진 57〉 삼성혈 전경

삼성신의 신화지는 삼성혈(三姓穴)이다. 삼성혈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34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은 삼신인이 태어난 곳으로, 그들은 수렵생활을 하다가 오곡의 종자와 가축과 세공주를 맞이하면서 농경생활을 시작하고 탐라왕국으로 발전시켰던 탐라개국의 진원지라고 볼 수 있다.

이곳에는 이수동 목사 때 세운 삼성혈비(三姓穴碑)가 있는데, 현재 세워진 비석의 건립시기는 숭정후 사병진년(崇禎後四丙辰年)으로 1856년에 해당한다.



〈사진 58〉 제주시 화북일동 삼사석비

또 삼사석비(三射石碑)는 제주시 화북일동 일주도로 변에 있다. 신인이 모흥혈에서 솟아나와 쏜 화살이 박힌 돌이어서 이를 '삼사석'이라고 하는데, 이 돌이 담겨 있는 석실은 순조 13년(1813) 봄에 세워졌다. 영조 11년(1735) 8월에 김정(金政) 목사가 이 돌에 대해 비석을 세웠으며, 비석의 상층부가 깨져서 1930년 3월 7일 고한용이 새 비로 세우고 매장했던 것을 1998년 6월에 삼성혈로 이장해왔다.

탐라 시조 삼을나의 위패가 봉안된 곳인 삼성전은 신라에 입조했던 고씨 삼형제인 고후, 고청과 그의 아우 셋이 받은 관작인 성주(星主), 왕자(王子), 도내(徒內)가 배향되어 있으며, 숙종 24년(1698)에 건립되었다. 고씨삼형제매안소비(高氏三兄弟埋安所碑)는 고을나의 15세손인 고후 삼형제가 배를 만들어 타고 바다를 건너 신라에 입조하자 신라왕이 기뻐했다는 것을 기념한 비이다.

중종 21년(1526) 목사 이수동(李壽童)이 이곳에 처음으로 단을 마련하고 삼성혈비를 세운 후 춘추봉제(春秋奉祭)를 지내기 시작하여, 현재도 춘추대제(춘제양력 4월 10일, 추제 양력 10월 10일)와 건시(乾始)대제(양력 12월 10일)를 지내고 있다.

자료 1. 역사기사

『고려사(高麗史)』계 (고려사지리지)

탐라현(耽羅縣)은 전라도(全羅道) 남쪽 바다에 있다.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태초에 사람이 없더니 세 신인이 땅에서 솟아났다. 한라산의 북녘기슭에 구멍이 있어 모흥혈(毛興穴)이라 하니 이곳이 그것이다. 맏이를 양을나(良乙那)라 하고, 다음을 고을나(高乙那)라 하고, 셋째를 부을나(夫乙那)라 했다. 세 신인(神人)은 황량한 들판에서 사냥을 하여 가죽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았다.

하루는 자줏빛 흙으로 봉해진 나무함이 동쪽 바닷가에 떠밀려 오는 것을 보고, 나아가 이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돌함이 있고, 붉은 띠를 두르고 자줏빛 옷을 입은 사자(使者)가 따라와 있었다.

돌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과 송아지, 망아지, 그리고 오곡의 씨가 있었다. 이에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일본국(日本國) 사자(使者)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세 따님을 낳으시고 이르시되, 서쪽 바다에 있는 산에 신자(神子) 세 사람이 탄강하시고,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다고 하시며 신(臣)에게 명하시어, 세 따님을 모시도록 하므로, 마땅히 배필을 삼아서 대업을 이루소서" 하고 사자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세 사람은 나이 차례에 따라 나누어 장가 들고, 물이 좋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점치니 양을나가 거처하는 땅을 제1도(第一都)라 하고, 고을나가 거처하는 곳을 제2도(第二都)라 했으며, 부을나가 거처하는 곳을 제3도(第三都)라 했다.

비로소 오곡의 씨앗을 뿌리고 소와 말을 기르니 날로 살림이 풍부해지더라.

자료 2. 문헌기사[74)]

『영주지(瀛洲誌)』

영주(瀛洲)에는 태초에 사람이 없었다.

홀연히 세 신인(神人)이 땅에서 솟아나니, 한라산 북녘 기슭에 있는 모흥혈(毛興穴)에서 솟아난 것이다.

맏이를 고을나(高乙那), 다음을 양을나(良乙那), 셋째를 부을나(夫乙那)라고 했다. 그들의 용모는 장대하고 도량은 넓어서 인간 세상에는 없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가죽옷을 입고 육식을 하면서 항상 사냥을 일삼아 가업을 이루지 못했다.

하루는 한라산에 올라보니 자줏빛 흙으로 봉한 나무함이 동해 쪽으로 떠와서 머물러 떠나지 않았다. 세 사람이 내려가 이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새알 모양의 자줏빛 옷에 관대를 띤 한 사자가 따라와 있었다. 그 옥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나이가 15, 6세요, 용모가 속되지 않아 아리따움이 보통이 아니었고, 각각이 아름답게 장식하여 같이 앉아 있었다. 또 망아지와 송아지, 오곡의 씨를 가지고 왔는데, 이를 금당(金塘, 지금의 朝天浦) 바닷가에 내려놓았다.

세 신인은 즐거워하여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하늘이 우리 세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했다. 사자(使者)는 엎드려 재배(再拜)하고 말하기를 "나는 벽랑국(碧浪國)의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이 세 공주를 낳으시고, 나이가 다 성숙해도 그 배우자를 얻지 못하여 항상 탄식함이 해가 넘는데, 근자에 우리 임금께서 자초각(紫肖閣)에 올라, 서쪽 바다의 기상을 바라보시더니, 자줏빛 기운이 하늘을 이어 상서로운 빛이 서리는 것을 보시고, 신자(神者) 세 사람이 절악(絶岳)에 내려와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으시다 하시고, 신에게 명하여 세 공주를 모셔가라 하여 왔사오니, 마땅히 혼례를 올려서 대업(大業)을 이루소서" 하고 사자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어디론지 사라져버렸다.

74) 濟州高氏大同譜上世篇(全)

세 신인(神人)은 곧 목욕재계하여, 하늘에 고하니 차례로 나누어 결혼하여 물 좋고 기름진 땅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정하니, 고을나(高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제일도(第一都)라 하고, 양을나(良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제이도(第二都)라 했으며, 부을나(夫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제삼도(第三都)라고 했다. 이로부터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오곡의 씨를 뿌리고 송아지, 망아지를 치니 날로 살림이 부유해져서 드디어 인간의 세계를 이룩해놓았다.

그 이후 9백년이 지난 뒤에 인심이 모두 고씨에게로 돌아갔으므로 고씨(高氏)를 왕으로 삼아 국호를 '탁라'라고 했다.

『성주고씨가전(星主高氏家傳)』

탐라(耽羅)의 경내에 처음에는 사람이 없었다. 거기 기이하게 빼어난 산이 있는데, 한라산이라 한다. 운해(雲海)가 아득한 곳 위에 완연히 있으니, 그 신령스러운 화기(和氣)를 내리어, 산의 북쪽 모흥혈(毛興穴)에 신인(神人)을 화생(化生)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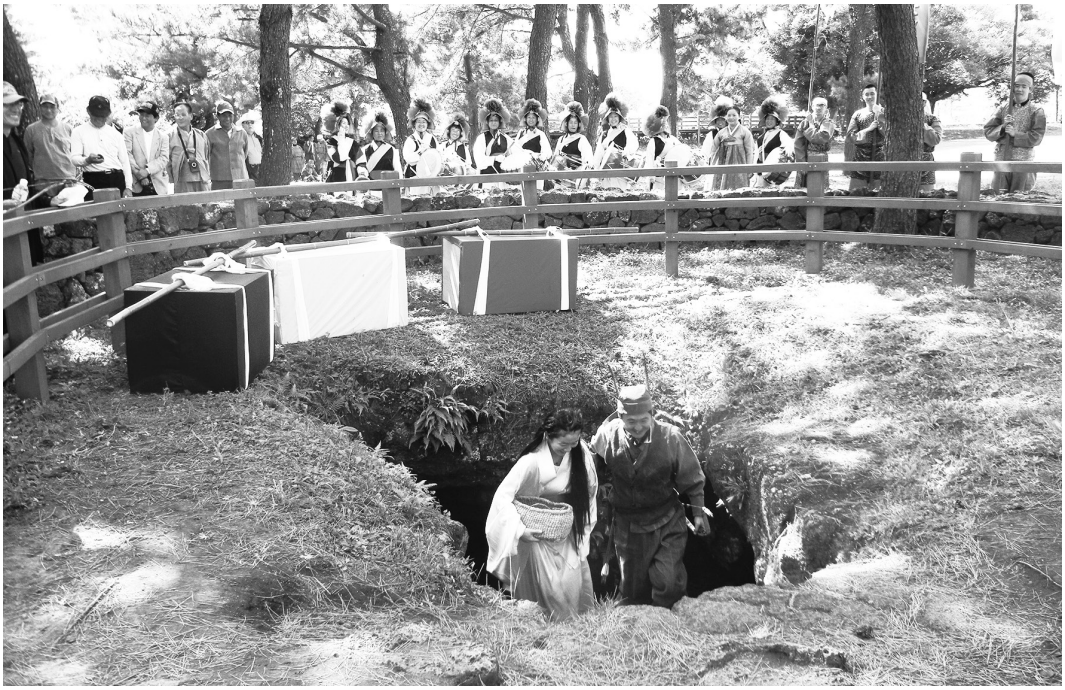
세 사람이 동시에 솟아났는데, 고을나(高乙那), 양을나(良乙那), 부을나(夫乙那)라 하니 고을나는 고씨의 시조다. 이들은 모두 고기잡이와 사냥으로 먹고 살았다. 족보에 이르기를, 일본국(日本國) 임금이 딸 일곱을 낳았는데, 넷은 단적국(丹狄國)에 보내니 단적(丹狄)은 일본의 적적(赤狄)의 종족이다. 나머지 딸 셋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서남쪽 바다에 산에서 신인(神人) 세 형제를 잉태하여 낳았는데, 나라를 세우려 하나 배필이 없으니, 너희들은 가서 그를 섬기라, 후세에 자손이 반드시 번영하여 많아질 것이다" 하고, 그들을 목선(木船)에다 태우고, 오곡(五穀)의 씨와 마소까지 갖추고, 또한 신인으로 하여금 보호하여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탐라의 동쪽 바닷가에 이르자, 신인(神人) 세 사람이 사냥하러 나왔다가 그들과 만났다. 그들을 호위하고 온 신인(神人)은 붉은 가죽띠를 띠고, 자줏빛 장삼을 입었었는데, 하늘로 날아서 가버렸다. 세 사람은 나누어서 그들과 장가들고 모흥굴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수년을 지내는 동안 산업이 모두 이루어지고 그 후손은 차츰 커졌다.

자료 3. 삼성신 본풀이[75)]

영평 8년 을축 3월 열사흘날 ᄌᆞ시(子時)에는 고의왕(高爲王), 축시(丑時)에는 양의신충(良爲臣), 인시(寅時)에는 부의민(夫爲民)이 설립ᄒᆞ던 섬이우다. 양의왕도 왕이노라, 부의왕도 왕이노라, 성과 아실 ᄀᆞᆯ리젠 영 ᄒᆞ옵건, 고의왕은 할로영주산, 어싱생 단골머리, 살(矢)ᄒᆞᆫ대 노니 동의와당(東海바다) 광덕왕 진도 받졌고나, 양의신내(良爲臣下) 쏘은 살 서의(西海) 와당 광인왕 진도 받졌고나, 부의면 쏘은 살은 동문밧겻(동문 바깥) 사봉(紗羅峯) 넘엉 쌀쓴거리 지엇고나, 성광 아시 ᄀᆞᆯ릴 때에 고의왕은 왕이 되고, 양의왕은 신내(臣下) 되고, 부위민은 민(民)이 설립하여 제주절도 설립ᄒᆞᆸ데다.

영평 팔년 을축 삼월 열사흘날 ᄌᆞ시(子時) 생천 고의왕(高爲王), 축시 생천 양의왕(良爲王), 寅時(인시) 생천 부의왕(夫爲王), 고량부 삼성이 모은골(毛興穴)로 솟아나 도업ᄒᆞ던 국(國)이웨다.

75) 玄容駿(1992), "三性神話硏究",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88쪽.



〈사진 59〉 성산읍 온평리 혼인지 신방굴

혼인지(婚姻池)

고을나, 부을나, 양을나 세 신이 해안을 따라 사냥을 하며 이동하던 중 온평리(열운이)에 있는 속칭 '화성개'에 이르렀을 때 물결에 떠밀려오는 세 개의 궤짝을 발견하였다.

고을나가 먼저 발견하고,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삼신인이 모여 궤짝을 바라보니 떠밀려오고 있어 그들이 유쾌한 소리를 질렀다고 하여, 이곳을 '화성개' 또는 '쾌성개'라고 불렀다. 궤짝은 화성개에서 한 100미터쯤 떨어져 있는 바닷가에 닿았는데, 삼신인은 그

궤짝을 따라가 이를 열어 보니 세 선녀와 오곡의 씨앗, 그리고 송아지와 망아지 등의 가축이 있었다. 그때가 마치 저녁 무렵이라 석양이 바닷물에 비쳐 황금빛 노을이 출렁거려 「황루(노)알」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이름은 「황날」이라고도 불렀다.

세 신인은 말을 타고 세 처녀와 더불어 삼성혈이 있는 제주시 쪽으로 떠나는데, 바닷가 1킬로쯤 떨어져 있는 곳에 수목이 울창하고 큰 못이 있어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당도하게 되었다. 말에서 내려 못에서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한 후 혼인식을 하자 날이 어두워져서 굴에서 밤을 지냈다.

이 못은 마을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데 '흰죽'이라고 했고, 삼을나와 세 처녀가 혼인을 했던 못이라 하여 '혼인지(婚姻池)' 또는 '혼인지(婚姻趾)'라 부르게 되었다.

혼인지 바로 곁에 자그마한 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 신인들이 혼인을 하고 초야를 보낸 후 얼마 지나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다 먹곤 하였다.

이 바닷가를 '연혼포'라 부르게 되었으며, 세 신인은 여기서 나무에 오르기와 활쏘기 등으로 재주를 겨루어 형제의 순위를 정했다.[76]

혼인지는 제주도문화재 기념물 제17호(1971.08.26)로 지정되었으며, 음력 6월 10일 추혼각 추모제를 제주시 삼성사 주관으로 지낸다. 또한 혼인지 축제를 10월말 마지막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으며, 전통(현대) 혼례 장소로도 제공하고 있다.

2010년 66억원을 들여 혼인지 일대 7만 1800평방미터에 전통혼례관을 비롯하여, 혼례준비실, 식당, 폐백실, 3공주 추원각 등 7동의 건물을 지었다. 전통혼례복 대여, 전통혼례 체험도 진행하고 있다.

76)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1994), 『탐라문화』, 제14집.

2. 제주시 칠머리당



〈사진 60〉 제주시 칠머리당

음력 2월 초에 찾아와 해상 안전과 풍요를 준다고 믿어진 영등신(영등할망)에 대한 신화로 조선 성종 때 편찬된『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38의「제주목 풍속조」에는 "2월 초하루에 귀덕(歸德), 김녕(金寧) 등지에서는 12개의 장대를 세우고 신을 맞이하여 제를 지내며, 애월(涯月)에 사는 사람들은 떼를 말머리 모양으로 만들고 채색의 비단으로 꾸민 후 약마희(躍馬戱)를 하여 신을 즐겁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2월 보름에야 끝나니 이를 연등(燃燈)이라 하고 이 달에는 승선을 금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신화의 역사적 연원을 엿볼 수 있다.

‘외눈배기섬’이나 ‘강남천자국’에서 온다는 외방신(外方神) 영등할망은 ‘영등하르방’, ‘영등대왕’, ‘영등호장’, ‘영등우장’, ‘영등별감’, ‘영등좌수’ 등을 데리고 음력 2월 초하룻날에 한림읍 귀덕리 복덕개로 들어와 2월 보름에 동쪽 섬 우도를 통해서 나간다. 영등할망이 제주 곳곳에 꽃구경 올 때는 여러 식솔을 동반하는데, 딸을 데리고 오면 너그러워져서 날씨가 좋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자주 성질을 내서 날이 궂거나 비가 온다고 하는데, 할망은 제주 바닷가의 보말을 다 까먹으면서 다음 해에 수확할 미역, 천초, 소라, 전복과 같은 해산물의 씨앗을 바다에 뿌린다고 여긴다.

제주칠머리당은 제주 부두축항에 자리했던 당이었으나 축항공사로 인해 몇 차례 이동이 불가피했으며, 이 당명은 비록 당이 이동되었지만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영등대왕(황영등)이 용왕국에 있을 때 한 어선이 괴물이 사는 ‘외눈배기섬’으로 표류해 온 것을 보고 배와 사람들을 바위 밑에 숨겼다가 외눈배기 괴물의 눈을 피해 ‘관음보살’을 외며 가라고 일러서 살려 보냈다.

어부들은 제주 항구가 가까워지자 염불을 그쳤는데, 그때 다시 폭풍이 일어 ‘외눈배기섬’으로 되돌려 버렸다. 영등대왕은 훈계하며 다시 보내자, 화가 난 외눈배기 괴물이 영등대왕을 세 토막으로 자른 후 바다에 내던져서, 대왕의 머리는 소섬(우도)으로, 사지는 한림읍 한수리로, 몸체는 성산읍 성산리에 각각 떠올랐다.

현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2009년)되었고,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71호이다. 영등환영제(음력 02. 01), 영등환송제(음력 02. 14)가 있으며, 제주칠머리당 영둥굿 전수관(제주시 건입동 407-3번지)을 운영하고 있다.

자료 1 제주칠머리당신[77]

제주칠머리당은 '감찰지방관' 하고 또 '요왕부인', '영등대왕', '해신선왕', '남당하르방', '남당할망' 여섯 신을 모시고 있는 당이다.

그 옛날 그 당 멨던 이달준 선생께서 '영등대왕'하고 '해신선왕'에게 영등달에 당굿을 해서 신을 모셨다.

또 남당하르방, 남당할망은 옛날은 저 칠성통, 일도동에 있다가 거기가 개발되면서 옮길 데가 없으니까 이달준 선생께서 이 칠머리당으로 같이 중산해다가 같이 모신 것이다. 그래서 여섯 신이라고 한 거죠.

옮긴 과정은 옛날은 저 항만청 있던 자리에 칠머리당이 있었다가 항만청이 들어서면서 그 공사들 하면서 칠머리당을 다 파괴해가지고, 옮길 데가 없으니까 이젠 이 사라봉으로 할 수 없이 모셔온 거죠.

모셔다가 시청에서 지금 당 모신 부지를 매매해가지고 지금 모셔가지고 계속하는 거죠.

그 영등신화는 영등할망이 강남천자국 외눈박이 섬에서 솟아나서 음력 2월 달이 되면 서북북방으로 바람을 따라서 들어올 때, 저 한림읍 귀덕리 복덕개, 복덕개로 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그 영등신화가 들어오면서 귀덕을 넘어서 애월, 애월에서 옛날 약마희놀이, 약마희놀이라고 그 말머리를 만들어서 보름 동안 거기서 대나무 열두 개를 세와 가지고 굿을 하고 '약마희놀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넘어와서 영등할머니가 제주시 건입동 칠머리당으로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도원수 감찰지방관과 같이 손목을 잡아서 자손들에게 역가를 받고 자손들을 거느려주고.

우리 감찰지방관 본풀이는 좀 짧지마는. 그래도 옛날부터 이달준 선생, 홍상옥 선생, 그 사람들이 쭉 해왔던 거를 우리는 같이 이어받아서 지금 본풀이를 하고 있는데.

감찰지방관 도원수님은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나서 하늘은 아방이고 땅은 어멍이고, 무유요왕천하명장, 억만명 군수, 오천명의 군수, 삼천명의 군수, 나무왈 모래왈 지천금 일월이 시르릉하

77)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보유자 김윤수(2017.08.22)

여 억만 대명 군수를 거느려서 대국 천자국에서 역적이 강성하다 하니 억만 대명군수를 거느려서 역적을 물리치고, 요왕국을 들어가서 요왕부인을 데려서 남방국 제주절도로 들어왔지.

제주절도로 들어와서 한라산을 올라서 한라산에 백록담에 진을 치고, 황새왓디 진을 치고, 사계왓디 징을 쳐서 혈지를 찾아서 칠머리동산을 좌정을 해서, 동양삼국 서양각국 조선팔도 강산간 자손들을 거느려줬던 감찰지방관인데 마흔여덟 상단골, 서른여덟 중단골, 스물여덟 하단골 자손에 서천재미 공연을 받아서 소원성취 길흉화복을 시켜줬던 한집님입니다. 대제일은 영등이월 초하를날, '영등이방' '영등성방' '영등수령' '영등호장' 삼만관속을 거느려서 이월 초하를날 도원수님과 팔목을 잡아 자손의 역가를 받아서…….

또 한라산을 올라서 백록담 구경을 하고 녹담만설을 구경하고. 그래서 이월 열나흘날 송별대제일을 받아서 삼방사거리 천우도액 막아주고 요왕수중국 길을 막아주고 그러던 한집인데. 또 요왕부인은 상선 중선 하선 채낚이선 해녀, 어부들을 요왕수중국 뎅기는(다니는) 길을 닦아주고, 액을 막아주고 이런 한집입니다.

3. 조천읍 신흥리 본향당



〈사진 61〉 신흥리 박씨 볼레낭할망당

조천읍 신흥리 바닷가, 방사탑이 다섯 개가 세워져 있는 '오탑' 맞은 편 도로가에 있는 신흥본향당(일명 박씨 볼레낭할망당)에는 남성을 피해 도망가다 죽어 여신이 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좌정한 여신은 이 마을에 살던 실존인물이라고 전한다. 과거에 신흥리는 왜구들이 바다로 들어오곤 했는데, 식수가 떨어지자 섬으로 올라와서 마을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오던 박씨 아기씨를 만난다.

박씨 아가씨는 해초를 채취하러 가다 왜구를 만나 겁이 나 무서워하며 달아나다가, 보리수나무가 있는 현 지점인 '볼레낭할망당'이 있는 지점에서 숨이 차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 아가씨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이곳에 당을 설연하고 할머니에게 평안과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지금도 외국이나 육지부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

들은 가내의 평안을 비는 장소인 이 당에 찾아와 기원하고 있고, 마을사람들은 당에 기원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자료 1 박씨 볼레낭할망[78)]

일본 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당에 가는 여자를 겁탈하려고 하니까 그 여자는 도망가다가 기절한 거라예. 기절해서 죽게 되니까 거기 모시게 된 거지예.

과거에는 하르방당도 있었는데, 하르방 신을 옮겨와서 할망당이 됐는데, 그래서 저기 가는 사람은 심방도 남자 심방은 안가거든요, 여자라니까 여자 심방만 빌엉가곡, 남자들도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죠

다니는 사람은 그전에 신흥에, 이젠 육지사람들 많이 와부니까, 그런데 본래 살던 사람들은 누구나가 가나 십주. 자손들이 이어져 오는 겁주.

포제 지나나면 할망당에 또 가졍 갑주. 경 ᄒᆞ곡 해녀 굿 ᄒᆞ곡예. 저기 가는 어른들이 여기선 옛날에 일본 많이 가니까, 친척들이 한번이나 오고 일본 가서 ᄒᆞ꼼(조금) 뭐 심방들 말에 의해서 안 된다 하면 본향당에 와야 한다, 자손이 부족하면 그디 가서 잘 공들이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일년에 한 번씩은 꼭 갑주.

원래는 옛날 여긴 이제 시대가 좀 바뀌졌지만 옛날 사람들은 집집마다 일 년에 한 번씩, 준비하는 건 별거 없어요. 메(밥) 헹 가곡 실과(과일) 헹 가십주. 딴 것은 차령 가는 그런 건 없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니니까 이어지지만 지금 여기 시대가 육지 사람들이 많이 왕 사니까 안 할 거 아니꽈. 그니까 지금 해안도로 지나는 사람들도, 그전에 해안도로 안 생길 때는 거기가 사람도 안 뎅기고 좋아낫는디, 이젠 해안도로 많이 다니니까 사람들 많이 다니거든요.

게난(그래서) 몰라서 본향당 가서 장난도 하고 무시 것도 하고 하는데, 옛날엔 경 못헷거든마씀. 뭣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시대가 변천되노니 그렇게 안 되는 겁주.

78) 김정하(마을주민)(2017.03.17)

옛날은 아이가 아프거나 무시거 집안이 좀 뭘 하면, 옛날 할망들은 신에 의해서 존경했는데, 지금 현대 사람들은 별로 경 안하고 잇주.

자료 2 박씨 볼레낭할망[79]

몇 백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임진왜란 이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왜구들이 우리 제주도를 많이 침범해가지고 여러 면으로 피해를 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전설이 아니고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린 나중에 태어난 세대라 모르지만……

왜선들이 식수가 떨어져가지고 배에 음료수가 떨어져서, 우리 마을에는 옛날부터 봉천수가 많이 나왔어요, 해안 주변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찾아오게 됐는데, 음료수를 받기 위해 찾아오게 됐는데, 마침 그 할머니가 바다에 나가서 해초를 채취했는지, 보말 그런 해산물을 채취했는지 모르지만 갔다가, 그 왜구들이 옛날 일본 사람들은 좀 특이하잖아요, 입성 같은 거나 그 머리 묶엉 댕긴거나 특이한데.

겁나가지고 할머니가 도망쳐온 게 지금 볼레낭할망당. 거기가 옛날엔 험했습니다 거기가. 바닷길로 험하고 지금은 해안도로가 나니까 그렇지, 거기 가 가지고 숨이 딱 멎어(멈춰) 분거라.

그래 가지고 할머니가 거기서부터 돌아가셔 가지고 그 할머니를 거기가 바로 밋볼레, 보리수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그 보리수나무 있는 자리에 와 가지고 숨이 차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볼레낭할망당' 하고 있습니다게.

처녀 할머니인데 우리 신흥에 거주하는 외국 나가서 거주하는 분, 육지부에 나가서 거주하는 신흥 출신들이 가정이 불편하고 자식 같은 것도 많이 외로움을 받고. 이럴 때는 고향을 방문했을 때는, 꼭 거기 찾아가 가지고 재도 드리고 인사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 갈 때는 본인도 가서 본인 말명 해도 되지만 여기는 삼신할머니라는 무당 다음으로, 마

79) 김석은(마을주민)(2017.03.17)

을에서 어린애들한테 받아주고, 가정에 불편한 상황 있을 땐 빌어주곡 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무당보다도 그 할머니 분들을 모셔다가 잔도 드리고 말명도 하고 "신흥 어느 마을에 동네 어느 집에서 누가 왔습니다, 자손이 왔습니다." 해가지고 인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본향당하고 좀 틀린 게 실존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옛날 본향당은 다른 마을에 있는 본향당은 실존인물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신흥 볼레낭할망은 실존인물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몇 백 년 이어져 오는데, 지금도 거기를 찾아가서 인사 드리고, 중간에는 바닷가에 접해 있어서 막 험했는데, 지금은 담으로 축장도 해서 어느 정도 곱게 단장을 했는데.

그 한 가지 나쁜 점은 해안도로가 거기로 통과됐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글로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뭐 할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적인 종교 사람들 지나가다가 거기 가서 소변도 하고 대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가 불편한 입장인데…… 신흥리 볼레낭할망당은 솔직히 우리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고, 할아버지 당은 마을 안에 있었는데 같이 합동으로 모시게 됐어요.

우리 마을에선 전설적인, 실존인물이지만 전설적으로 우리가 '볼레낭할망당'을 추정하고 있고, 아까 포제 이야기 했는데 포제를 봉행하게 되면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삼제관이 있고 집례가 있습니다. 네 분이 포제를 주도해서 하는데, 포제가 끝나면 바로 마을 해신제를 같이 합니다.

해녀들이 '볼레낭할망당'에 가서 제비도 잡아보고 할 때, 우리 삼제관 마을 포제하던 삼제관들 또 집례, 이장까지 해서 다섯 사람을 날 놓고 제비 잡는 거 있지 않우꽈.

그렇게 해서 그 마을 운수도, 그 해 운수 보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4. 서귀포시 서귀본향당





〈사진 62〉 서귀포시 서귀본향당

한라산 태생의 남신 ᄇᆞ름웃도가 홍토나라 여행 중 절세미인인 지산국을 만나서 한 눈에 반했다. 그는 꾀를 써서 그 집에 머물고, 사위 들겠다고 청혼을 했는데 허혼이 되어 혼례를 올리고 보니, 신부는 지산국인 미인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인 추녀 고산국이었다.

실망한 ᄇᆞ름웃도는 며칠을 지내며 동생인 지산국과 사귀고 끝내는 둘이서 제주도의 한라산으로 도망쳐왔는데, 이것을 안 언니는 곧 뒤쫓아 달려와서 다툼을 벌였으나 남편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었다. 그들은 생각 끝에 '뿡개질'을 해서 좌정할 영역을 나누는 땅 가르기를 하기로 했다.

돌멩이가 떨어지는 곳으로 마을을 차지하여 당신이 되고, 두 자매는 서로 인연을 끊기로 했다. 고산국은 뿡개질을 하니 돌멩이가 서홍리 혹담에 가서 떨어지고, ᄇᆞ름웃도

는 뿡개질을 하니 돌멩이가 서귀포 문섬에 가서 떨어졌다.

이리하여 고산국은 서홍리를 차지하게 되고, ᄇᆞ름웃도와 지산국은 동홍리와 서귀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헤어지면서 고산국이 선언했다.

"너희들의 원수는 이루 다 갚을 수가 없다. 이제는 땅과 물을 갈라라. 너희 지경 사람은 우리 지경 사람과 혼인도 못 한다. 너희 지경 마소도 우리 지경에 못 온다. 너희 지경 사람도 못 온다. 우리 지경의 것은 산의 나무도 다 내 권리이니 손 못 댄다. 나도 너희 지경의 것은 탐내지 않겠다."

이렇게 갈라섰기 때문에 양쪽 마을 사이에는 서로 혼인이나 마소의 매매 등 일체의 교제를 끊게 되었다고 전한다.

제일은 정월 초하루날 과세(過歲)제, 이월 열나흘날 영등손맞이, 칠월 열나흘날 마불림제, 동짓달 열나흘날 본향생진일(本鄕生辰日)을 받든다.

자료 1 소로소천국과 고산국[80)]

여기 서귀본향당은 우리 제주도에서 유일무이하게 외래신이 좌정하신 곳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신이라면, 송당에 백주또 소로소천국 거기 자식들이 각 마을마다 본향당의 당주로서 토지관으로서 안주하면서, 이제 본향당이 생기고 했는데, 서귀본향당은 유일무이하게 외래신이란 말은 천신입니다.

여기에 신화의 말미 첫 소절에도 나와 있지만 홍토나라, 홍토나라는 풍토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람의 나라죠. 바람 나라의 왕하고 비우천리 비우나라라는 비의 나라입니다. 비우나라의 여왕하고 혼인으로 맺어진 자식이, 큰 아들이 되는 'ᄇᆞ름웃도'님이 우리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지상에 내려와서 유람을 하게 되는데 유람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 분들이 어떻다

80) 서귀본향당 매인심방 박정석(2017.03.27)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고산국이란 나라에서 하룻밤 기거하게 됩니다.

기거하게 되는데 그 고산국은 과연 어디냐, 고산국은 우리 고조선 사에 보면 일흔여덟 개의 촌·읍 중에서 고산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 고산국에서 기거를 하다가 마침 거기에서 딸을, 어떤 대감의 딸을 보고 반해서 마음속으로 점지를 했지만 함부로 딸을 달라고 할 순 없었겠죠.

그래서 생각다 못해 다음날이 돼서야, 주인장 되는 대감님한테 혹 이제 따님을 저한테 시집오게 하면 아니 되겠습니까 한 것이, 그러면 옛날에도 장기바둑을 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바둑을 두어서 이기면 내가 딸을 주마. 이렇게 해서 장기를 뒀는데 세 번 다 이겼어요. 초판, 이판, 삼판이란 것은 우리 한국의 삼세번이 승부를 하는 하나의 관례인데 세 번 다 이기니까 딸을 주겠다 했는데, 부랴부랴 서둘러서 결혼을 하는데 한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해놓고 첫날밤에 대감님 집에서 서로 인연을 맺으려고 해서 보니까, 그때까지 자기 부인이 자기가 봤던 아녀자인가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도 신부는 얼굴에 너울을 쓰고 했는가 봐요, 방안에 들어와서 너울을 걷어서 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부는 곰보고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사내라고 봐야지 여자라고 볼 수 없어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탄식을 합니다. 그 다음부턴 뒤돌아 앉아서 핑계삼아 책을 읽읍네 해서 책을 읽고, 그러다 날이 밝아서 아침에 시녀들이 와서 시중을 드는데 대야에다 세숫물을 가져오고 하니까 시녀한테 살그머니 물었어요.

이 집에 딸이 몇이나 되느냐 했더니

"딸이 둘인데요." '아, 그럼 내가 잘못 봤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딸은 어디 계시냐?" 했더니, "따님이 방에 있는데 볼 수 없느냐?" 하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순 없구요." 그래서 큰 딸이 되는 신부하고 인연을 맺을 마음이 없어서 그로부터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며칠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칙간에 왔다 갔다 하면 행여나 만나진 않을까, 자기가 반했던 아녀자를 볼 수 없을까 해서 칙간을 왕래하다보니 작은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딸도 자기 언니하고 결혼했지만 처음에 남자를 봤을 적에는 남자한테 반했던 거죠. 마음에, 심중에는 그렇게 연을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본부인 모르게

밀회를 했는데, “우리 멀리 도망가서 살자”, 그래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도망가는 길이 어디냐 했더니 천상에서는 다 지상에 있는 모든 경치 좋은 곳을 다 볼 수 있어서 자기가 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나라 같은 예의바른 나라이다 라고 하는데, 예의바른 나라에 보고 싶다 해서 내려왔던 길에 고산국에서 인연을 맺었는데 작은 딸하고, 그럼 보고 싶지 않은 곳에 몰래 가서 살자, 그래 가지고 삼신산 중에 방장산, 금강산을 찾아옵니다.

금강산을 찾아오고 나서 금강산을 두루 보니 산세 수려하고 아름답지만 사람이 살기엔 너무 각박하다. 이곳엔 짐승들이 살기엔 천상이지만, 인간이 살기엔 그것이 아니다 해서, 다시 이제 태백산맥 줄기를 타고 내려온 것이 방장산에 이릅니다.

방장산에 와서 지리산에 와서 보니까 지리산세가 너무나 완만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뱀골이 많아요. 아, 여기는 그렇게 흉칙한 동물하고는 같이 기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바다 건너에 있는 영주산을 한번 보자, 그래서 물 건너 온 것이 한라산에 이릅니다.

천상의 신의 자식이니까, 모든 조화를 부리지 못하는 건 아니죠. 조화를 부려서 구름도 타고 한라산에 당도하니까 마침 한라산이 밤이었어요. 밤이 되가지고 우리 무속에는 ‘일묵공’이라 그러는데 밤이 되고 안개가 끼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한라산 백록담 절벽에 걸터앉아가지고 동생되는 분하고 그니까 처제하고 손을 잡고서 앉아 있다가 날이 빨리 밝아야 되겠다, 안개도 걷혀야겠다 해서 주문을 외고 자기가 가졌던 부채로 한 세번 주문을 외고 걷으니까 안개가 걷히고 날이 밝읍니다.

그걸 뭐 ‘동경개문’ 열린다 하는 식으로 하는 얘기가 됩니다만 그 다음 날이 밝으니까 절벽 위에 앉아서 여기 앉아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루 돌아보니까 정말 살만한 곳이다. 너른 들판이 보이고 바다가 있고, 그래서 여기만큼은 살만한 곳이다 해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 온 것이 지금의 미악산에 이릅니다.

솔오름, 솔오름에 와서 동창막 서막이여 동막이여 천으로 하지만, 아마 그때 자기네가 천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에 하나의 바람 의지하는 곳에 안주했겠죠. 안주해서 앉아있으려니까 어느 인간이 곁에 와서 멀리서 넙죽이 절을 하면서 “신전님이 내려왔으니까 제가 감히 인사를 드립니다” 한 것이 ‘김봉태’라는 할아버지가 돼요.

김봉태는 그때 당시에는 사냥꾼이죠. 한라산의 짐승이나 잡고 가죽감태 쓰고 해가지고 했던

김봉태 할아버지인데, 김봉태 할아버지가 이 'ᄇᆞ름웃도'님이 불러가지고 "우리가 안주할 곳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안내한 것이 어디냐 하면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으로 안내를 했는데 자기 집이 어느 쪽이냐면 지금 현재 지형으로는 '굴왓디'가 됩니다. '동홍동 굴왓디'. 동홍동 굴왓디에 오니까 자기 집에 오니까 이 'ᄇᆞ름웃도' 신전님이 "도저히 여기서는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인간 냄새가 더럽고 또 연기피우고 밥해먹고 하니까 끄렁내가 나고 냄새가 독해서 여기 안주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곳을 안내해라" 해서 안내한 것이 어디냐면 '서홍리 안카름'이에요.

서흥리 안카름에는 지금도 시냇물이 있어가지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일부 인간들이 살았기 때문에 소, 닭, 개 소리들이 시끄러우니까 여기도 와서 좌정 안주할 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소개를 할 수 없느냐 했더니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시ᄆᆞ루'로 갑니다. '가시ᄆᆞ루'는 지금 현재의 호근동에 있는 '가시ᄆᆞ루'에요. '가시ᄆᆞ루'로 갔는데 그때 마침 큰 부인이 동생하고 도망친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옥황상제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내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내 동생하고 도망쳤으니, 정말 신의 자식이라 하면서도 신의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고 인간사회에 나와서 너무나 파렴치한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큰 부인이 옥황상제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어떤 결말을 내고 살고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신신당부를 했더니 옥황상제께서 큰 딸에게 무예기공을 줍니다.

구름을 탈 수 있고 축지법을 할 수 있고 활과 칼을 쓸 수 있는 무도도 가르치고. 그런 것을 가져서 본 부인이 쫓아오죠. 쫓아오는데 한라산에 오니까 깜깜하잖아요. 깜깜해서 동서남북을 분간하지 못할 때 이제 상제님께 얘기를 기도를 하니까, 내가 준 자그마한 부채로 너 소원을 빌라, 그래서 비니까 부채로 하여금 안개를 걷히고 어둠을 걷히고 해서 보니까, 한라산에서 보니까 '가시ᄆᆞ루'에 두 남녀가 있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한꺼번에 내달음을 쳐서 '가시ᄆᆞ루'에 당도해서 남편을 죽이려고 보니, 그래도 녹본인정이라 하룻밤이든 이틀밤이든 정분은 나누지 않아도 혼례를 치렀던 녹본인정이라 죽일 수 없고, 동생을 봐도 동생은 피를 나눈 형제니 차마 어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보면 다 한꺼번에 죽이고 자기도 죽으리라 마음먹

고 왔는데, 그런 인정과 정분으로 해서 죽일 수도 없고 하니 곱을 갈라서 지경을 가르자 해서 자기가 가지고 온 활, 그니까 우리 고양부 할 적에 삼사석에 하듯이 활로 지경을 가릅니다. 그래서 ᄇᆞ름웃도님이 먼저 활을 쏘니까 문섬 뒤로 떨어지고 본부인이 자기도 활을 쏘아버리면 동생 갈 데 올 데 없을 거 같다 싶어가지고 기독교 신화에서 나오는 뭡니까, 뿡개!

끈에 돌맹이를 해가지고 돌려 던져서 돌이 떨어진 곳에 자기가 점지했는데 그 돌이 서홍리 혹담에 떨어집니다. 서홍리 혹담이 어디냐 하면 '지장샘' 있는 곳이에요. 지장샘 있는 곳이고, 떨어져서 이로부터는 서귀포 쪽을 남편한테 주고, 자기는 서홍리를 택해서 지경을 가른 후, 거기는 인간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전부 다 곱을 가르자 해서 곱을 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언니한테 잘못을 했다는 것을 사과하고 뉘우치고 해서 "저는 어떻게 삽니까" 했더니 "너는 성을 바꿔라" 했죠. 그래서 성을 '지가'로 바꾸죠. 지가로 바꾸니까 너가 성을 바꿔서 하니까 동홍리를 너가 가져라 해서 동홍리에 가서 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고산국은 큰 부인이 돼서 서홍리를 점지해서 하고 하는데 큰 부인이 되다보니까 자기는 서홍리로 하고, 그 다음부터 서홍리 위로는 산으로도 올라가면 나무나 무엇도 전부 지경을 가르니까 범접할 수가 없고 인연을 맺을 수도 없어요.

서로 결혼할 수도 없고, 왕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자기 동생 지산국은 동홍리를 해서 동홍리 소나무가지 알로 해서 좌정하려고 했는데 서귀포에 온 ᄇᆞ름웃도님은 이 신당 알로 좌정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신당 알로 좌정하려고 할 적에 동홍리와 서귀포에 사시는 주민들이 오씨·이씨·김씨·현씨·박씨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여기 별초당을 짓죠. 별초당을 지어서 여기 안주하게 됩니다. 저기 후박나무가 원래 두 그루였어요.

두 그루인데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왼쪽으로 한 그루 있어서 꼭 부부나무처럼 두 그루였는데 그때부터 여기 안주해서 좌정했는데, 좌정한 이후에 서귀본향당에 이 분들이 'ᄇᆞ름웃도' 하고 '지산국'님이 좌정함으로 인해서 동홍리 주민과 서귀포 주민이 여기 와서 기원을 하고 축원을 다 하죠. 하고 서홍리는 일절 축원을 여기도 오지 않고 서홍리 거기서 하는데, 그 다음부터 동서홍간에 왕래가 없고, 서홍리와 서귀포 간에 왕래가 없었죠.

없어서 혼인도 없고 어떤 인연도 두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저가 이제 저희 백부가 원래 22대입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나이가 115살 될 겁니다. 그런데 서귀본향당을 지으니까 제일 처음에

여기 와서 초대에 매인심방이 누구냐 하면, 고씨 성을 가진 분이에요 제주 고씨, 고씨 성을 가진 분이 이제 했는데 그분은 원래는 모슬포 신평리 사람이에요. 모슬포 신평리 분이 여기 와서 매인 심방이 됐죠. 그 후에는 다른 성을 가지신 분이 별초당을 지으신 분들의 자손들이나 그분들이 매인 심방 노릇을 돌아가면서 해왔던 거죠.

해오다가 우리 백부까지 온 것이 22대가 돼요. 22대가 되고 여기 신당은 사라호 태풍 때 품절이 됐어요. 품절이 돼서 이 신낭(목)을 자를 적에 5일 동안 자르는데, 그때 큰 제사를 지내고 잘랐죠. 그렇게 안하면 사람이 죽임을 당할거라 그랬는데 서귀포의 본향에 여긴 천신의 자손으로서, 여기 좌정하면서 뭐냐하면 바람과 비를, 풍우를 일으켜 주고 해주던 분이어서 서귀포에는 다른 데보다 곡식도 잘 되고 상당히 풍족했어요.

풍족해서 하는데 이 분 밑에 그래서 하위 신, 네 개의 하위 신이 생긴 이유가 그겁니다. 바닷가는 물론 바다에서 오는 배를 다스리고, 해녀를 다스리고, 잠수들을 다스리고 하는 것은 요왕의 딸인데, 그 요왕의 딸은 '중앙황제국'이라 하면 요왕의 다섯 그러니까 동서남북말고 중앙에 있는 황제 요왕의 따님이에요.

그 분이 서귀포에 상륙해서 여기 와서 본향신에게 오니까 본향신이 그럼 오고가는 배와 잠수들을 다 거느리라 해서 했고, 그리고 서귀포 진성이 생기니까 서귀포 원래 진성이 어디냐면 서홍리에 있었죠.

지형으로 하면, 지금의 어디냐면 솜반내 아시죠, 솜반내 다리 지나서 우측에가 거기가 소위 얘기하면 옛날 서귀진성이었어요. 역사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걸. 그래서 나중에 서귀진성이 본래의 서귀포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서귀포진성이 서귀포로 내려오면서 그 관청을 다스리고 관청의 일을 돌보게 했던 관청의 신이 있었는데 그 관청신을 하위신으로 두고.

그리고 솔동산과 여기 이중섭 거리하고 만나는 네거리인데. 동쪽으로는 서귀포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목. 삼거리, 글로부터 서쪽으로는 서귀포천주교회 지나서 매일시장 입구까지. 거기까지가 목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장밧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솔동산 길 한가운데를 터 있는 곳에 거기에 거북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북바위가 농신을 모시고 제를 지내고 했던 거북바위에요. 원래가 농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봉태 할아버지한테는 ᄇᆞ름웃도님이 너는 이제부터 산신으로 들어앉아서 모든 사냥한 것을 해서 제일 때마다 바치라

그래서 산신으로 들어앉은 거죠. 그래서 하위신이 어느 마을에든 간에 본향신 밑으로 하위 신을 거느린 데는 서귀포 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서귀포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기도를 여기 원래 토착민들은 잘 살기도 했지만 제일 때마다 정성을 잘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망하는 일이 없고 가세가 기우는 일 없이 넉넉하게 살아왔는데 그 자식들 대 되면 우리 대 쯤 됩니다.

우리 대 쯤 되니까 자식들이 이제 본향당도 모르고 며느리들도 대움하고(게을러서 무관심함), 모르고 하니까 점점 외세 문화에 휩쓸려서 하다보니까, 아무리 서귀포는 공부 잘 하고 돈이 많으니까 공부를 많이 해도 한량으로 살아버리니까 아직까지 어려운 것을 모르다보니까 한량들이 뭡니까, 낭비벽 아닙니까, 결국은 가세가 다 기운 거예요.

그래서 서귀포에는 그래서 원 토착민들의 가세는 거의 다 쓰러졌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융성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고 여기 와서 축원을 하는 분들은 인연을 맺으려면 인연이 잘 맺어져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가 개방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방명록도 놓고 가면 기재하고 가는데 그 분들이 여기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럼 벌써 자기네가 신을 모시고 하던 사람들이니까 자기네가 안돼요. 정말 무서운 곳이다. 함부로 하지 못할 곳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들도 왔다 가면 매년마다 와요. 매년마다 오고 제주도 오면 기도처라 해가지고 그냥 산에 가서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본향에 와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이제 문을 잠그니까 저렇게 지저분하고, 원래는 어느 마을에도 본향 있는 제단에 더럽게 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축원했다가 한 나머지는 전부 다 퇴송해다가 나머지 것은 다 자기가 가지고 가야죠. 깨끗하게.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무질서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중간에 쭉 내려오다가 여기 보면 그래요. 제가 이 본향당에 1971년도에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니 해서 중앙에 있었어요. 중앙에 있다가 종교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제주도에 민속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와서 보니까 제주도의 심방이 586명이에요, 그때 당시에, 점쟁이 말고 심방만. 심방은 어떤 심방이냐 하면 북 때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소무일 뿐이고 그건 심방이 아니니까. 원래 선거라 해서 하는 심방이 586명이었

어요.

다 돌아가신 분들 전부 그때도 한창 날릴 때죠. 안사인 씨도 그때 용담 냇가 골창 옆에다가 초가집 지어서 할 적에 저도 한 3, 4일씩 같이 잠자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거 보면 서귀포 본향당을 조선시대에도 허물지 않았다는 것은 이형상 목사도 서귀진성에 왔다가 본향당을 알고 여기 와서 이걸 불태우라고 뭔 쓸데기 없는 짓이냐 해서 태우려고 하니까 못 태운 것은, 여기 수리대가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수리대를 잘라서 넣으니까 바람이 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그 대가 섰답니다. 그러니까 느닷없는 바람의 힘이 수리대를 세우니까 이것은 하나의 징표가 된다. 그래서 태우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모면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 후에는 해방 후에 5공화국이 시작하고 3공화국 생겨서 할 때도 현오봉씨가 여긴 굉장히 보존을 많이 했죠. 왜냐면 그 장인이 솔동산에 사셨고 했는데 현오봉씨는 원래 수산 아닙니까 성산 수산인데, 서귀포 오면 본향부터 먼저 와서 인사를 드리고 했어요. 그렇게 본향을 살리니까 존중해 주고 했던 거 같아요.

그런걸 보면 어디든지 본향신이 어느 마을에든 간에 가장 중요한 신인데 서귀포 본향은 보면 축원하고 기원하고 하는 그런 정성만큼 뜻을 이룬다. 한 예로 보면 근간에 제가 이제 서귀포본향당이 초가집이었는데 다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져가지고 지붕도 다 내려가지고 옆에 흙담 돌담만 있을 뿐이지, 다 집도 내려가지고 마루도 다 까져서 다 복삭 밑바닥엔 풀이 무성하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해가지고 이제 무오년에 제가 이걸 임시 초가집으로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조립식으로라도 복원을 해야겠다 해서 조립식으로 복원을 시켰죠.

그래서 했는데 내가 복원시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척들 중에 당 조카도 갑자기 죽고, 다른 조카들도 죽고, 다른 형님도 죽고, 이게 삽시간에 1, 2년 사이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여성들이나 같이 사는 분들은 걱정들을 아니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집안에 본향이나 신을 잘 대접을 못해서 미움을 받아서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무오년에 이것을 복원을 해놓고, 제주시에 있는 심방도 부르고 대정에 있는 심방도 부르고 여기 우리 백부 밑에서 굿을 배우고 했던 오봉조씨라든가 지금 이제 부인들하고 심방들이 한 일곱 여덟 분이 와서 성주내면서 본향맞이 굿을 했어요.

본향맞이 굿을 하면서, 이제 이 본향을 매일 심방을 추천을 해주십시오 해서 본향신에게 의뢰

를 하니까, 본향신이 아무도 안된다는 얘깁니다. 나는 집을 지어서 드리고 편안하게 본향신께서 편안하게 계시고 좋은 심방으로 하여금 제를 받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내가 했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심방이 하는 말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에게 앞으로 3년 동안 정안수만 떠서 올려주면 좋겠다. 그러면 알아질 도리가 있겠다. 그래서 3년 동안 정성을 정안수 떠놓고 촛불 켜고 향 하나만 꽂고 인사만 하고 나오고 한 것인데 3년 후 되니까, 내가 서서히 3개월 전부터 꿈이 자꾸 이상한 거예요. 그 꿈이 배를 타서 하늘을 날고 김영삼 대통령도 만나고, 김대중 대통령도 만나고, 만나서 악수도 하고 남들 같으면 복권 사면은 재수 좋을 거 아니겠냐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에 꾼 것이 뭐냐면 하늘은 하늘인데 바다가 삼색으로 된 삼색 천 있죠, 그것처럼 바다가 그래요. 근데 어느 분이 손을 이렇게 들고서 나보고 손을 펼치래요. 양손, 양손을 펼치라고 해서 펼치니까 옛날 같으면 왕이 내리는 도장 있죠, 인장을 내 손에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신굿을 해야겠다 해서, 신굿을 제가 5일 동안 했죠. 할 수 없이 조카도 죽어가고 형님도 죽고 여러 사람이 죽고 자식들도 걷어가겠다 하는데 자식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여. 나는 살만큼 살아서 죽어도 괜찮지만, 그래서 신굿을 하고 분부를 받으니까 그때의 신굿을 주관했던 분은 '박남화' 씨에요 강정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촌수론 조카뻘 됩니다. 그 분이 굿을 주관하고 여러 심방들 데리고 와서 5일 동안 굿을 했는데 그래서 분부를 내려서 분부를 받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기다린 것이 바로 너에게 주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하니까 제가 받은 것이 언제냐면 갑신년에 받았으니까, 이제 13년째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개중에는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소원을 이룬다 하니까, 한전 출신이에요 막 후배인데, 한전 출신인데 여기 건너편에 살았는데, 그 분이 퇴직을 하고 부인도 어디로 도망가고 해서 할 수 없이 여기 와서 10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소원이 10원 한 장 없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도 되고 아닌게 아니라,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되니까 자기 형제 되는 누나한테도 집 한거리 사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은 참 좋은 일이다.

5. 성산읍 신천리 현씨일월당



〈사진 63〉 성산읍 신천리 현씨일월당과 천미연대

성산읍 신천리 현씨일월당은 마을 안에 있어서 접근이 비교적 쉽고, 신화와 관련된 천미연대가 잘 보존 관리가 되어 경관적인 면에서 우수한 편이다.

신당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신목과 신당이 신앙처와 같이 잘 정리된 모습이다.

현씨 집안에서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제사 때 오누이에 대한 상차림을 해서 영혼을 위로하고 있다. 현재 매인 심방은 없으나 현씨 집안의 일월조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신화다.

신화의 대강을 살피면, 남편 현씨와 부인 고씨 집안에 열두 아이들이 태어났으나, 부모와 열명의 형제는 죽고 가장 큰 오라버니와 맨 막내딸인 현씨아기씨 두 남매만 남았

다. 두 남매가 목숨을 이어가면서 살아가기 위해 오라버니는 남의 집에 가서 마소 키우는 일을 하고, 동생은 남의 집의 품을 받아 밥도 하고 빨래일이나 물 길어 오는 일을 하면서 간간이 목숨을 연장해 나갔다.

어느 날 현씨아기씨가 물 길러 갔다가 물팡돌(물 길을 때 물허벅을 내려놓는 너른 돌로 만든 팡) 아래에서 오색 색깔이 있는 주머니를 줍는다. 주머니를 주운 후 그녀는 병이 나서 죽어가는 데, 누우면 굿소리가 들리는 무병을 앓게 되면서 병은 결코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동네에 굿이 열리자 먹을 것도 없고 해서 굿구경을 갔는데, 신을 청하여 춤을 추는 대목에서, 굿하던 수심방은 문가에 있는 현씨아기를 불러서 춤을 추게 했다. 심방은 아기씨의 얼굴과 몸매도 예쁘다고 여기면서 같이 춤추다가 주머니 속의 육간제비를 발견하고 크게 놀라와 하며, 아기씨의 운명이 자기와 같은 무속인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수양딸이 될 것을 청했다.

아기씨는 수양딸이 될 것을 결심하고 맺은 신어머니와 함께 굿하러 다니고 무악기인 연물치기, 장고치기도 배우면서 한 해 두 해 지내는 사이에 작은 심방이 되어, 동네에서 굿을 해달라고 청할 정도가 되었다.

하루는 오라버니가 육지장사를 나가게 되었다. 그는 여동생에게 연반물 치마와 진녹색 저고리 감을 사오고 물명주 강명주를 사다가 옷을 해 입어 굿도 하고 삼천기덕 일만제기를 갖추어서 큰굿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후 떠났다.

어느 날 동네에서는 큰굿이 열렸다. 초공 대목으로 신줄, 연줄을 매고 안으로 들어와서 된 석을 놀리고 있자, 동네 노모가 와서 "오라버니가 육지에서 돌아오다가 배 파산이 되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현씨아기씨는 어깨에 맨 신줄을 벗어서 공싯상에 놓아두고, 연대동산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니 오라버니가 타고 간 배가 전복되어 흰 돛만 펄럭이는 것을 보고, 오라버니의 죽음을 한탄하다 그녀도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동네 할아버지가 밭으로 가다가 연대동산 아래에 고운 아기씨가 죽어있는 것을 보고, 시신을 찾지 못한 죽은 오라비와 함께 신천리 연대동산에 쌍묘산을 만들어 묻었다. 삼년이 지나도 감주 한잔, 술 한잔, 제사 명절을 하지 못하자 영혼은 현씨 집안 종손 자손에게 의탁했다. 현씨 집안의 오라방과 누이인데, 그들을 위해 제사 명절도 하지 않고, 삼명일 기제도 않고, 안칠성 밧칠성에 빌면서, 삼 년에 한 번, 오 년에 한 번, 큰굿 하면 큰 밭을 사고, 작은 굿하면 작은 밭을 살 것이라고 예언한다.

자료 1 현씨아기씨[81)]

옛날에 아버지는 현씨이고 어머니는 고씨, 두 분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애기 낳는 것이 한 명 두 명 나단 보난, 아들이 몇 명 딸이 몇 명은 모르쿠다만 열두 오누이를 솟아낫젠 합디다.

열두 오누이가 나난, 옛날은 어려운 시절이라 보리밥도 기립고 모든 음식을 베불리 못 먹던 그 시절에 살단 보난,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멩이 쫄란, 하나 죽어 두 개 죽어 하는 게 다 죽언.

젤 우에 맏이로 오라방 한 명이 살고, 멘 끝에 막내 여동생 한 명이 살았는데, 딸이, 오누이가 이젠 옛날엔 어려운 시절이난 밥도 읏언 베고프고 밥 얻어먹을 데도 엇고 ᄒᆞ난 의지할 데가 읏언 동네 일가방상 집이 산디, 동네 집이 산디 확실히 몰라도 동네 집이 간, 오라바님은 원 쉐도 가꾸고 말도 보곡 그 집안에 장남 같이 일 도와드리면서 밥을 얻어 먹엉 살고, 누이동생은 심부름 밥도 하곡 지들커(땔감)도 헤오곡 물도 길어오고 빨래도 하고 그런 심부름을 하면서 오누이가 일상생활에 밥을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누이동생이 한번은 현씨애기가 우물가에 물 질러 샘물에 간 보니까, 물팡돌 아래 허벅ᄒᆞ영 옛날엔 뎅길 때니까 허벅 부려둰 영 보난 유다른 주머니가 하나 잇어. 아, 이게 뭔고 헨. 어린마음에 그걸 봉간 보니까, 돈 여섯닙 육간제비란 한 게 잇이난, 그걸 장난감 같이 자파리(장난, 놀

81) 영감놀이 전수조교 오춘옥(2017.04.04)

이) 삼아 이 허리에 치매곰에 찬 뎅기멍 살아가는 게 2, 3년 살아가난 그게 막 현씨 애기가 병이 난, 피일차일 피일차일 막 아판 죽을 힘도 하나도 없고 나른하게 율언.

누우면 귀에 굿소리만 쟁쟁쟁 북소리만 쟁쟁쟁 항상 들려가, 경 헤도 이게 누구 부모라도 잇이면 굿이라도 헤 주고 걸 뒷받침헤 주고, 어떻게 병원에라도 데령가주만은, 부모도 없고 허니까 그런데로 힘들어도 살아가는 디 하루는 잇다 보난, 동네에 큰 굿을 막 큰데 세완 와랑사랑 핷이난 저 집이 굿 구경을 하도 가고젠 ᄒᆞ연, 힘 엇어도 멩심헹 그디 간 올레 어귓담에 간 담 고망으로 굿을 영 보느렌 ᄒᆞ난. 그 날은 큰 굿 헤연 시왕맞이날이 뒈연 아이고 시왕맞이날은 뒈난 큰 심방은 영새멩기 들런 올레로 오리정 신청궤를 붙연 염라대왕을 막 청헤오는디,

아, 어떵한 애기가 올레에서 담 고망에 사네 굿을 봤어. 이젠 일월대목(조상본을 푸는 대목)이 뒈난 큰 심방이 소미ᄀᆞᆯ아 저 올레에 잇인 애기 강 ᄃᆞᆯ앙 오라. ᄃᆞᆯ안 오난, 그 애긴, 나똘애기야, 요 떡이나 하나 먹으라. 공싯상에 잇인 떡 하나를 주멍 떡 멕연, 춤이나 춰보라 나똘애기야 ᄒᆞ난, 아 이 애기가 춤을 추는디, 너무 예쁘게 춤을 춴.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영 헌디 감장을 확 하게 도는디, 치멧각이 바람에 푸딱하게 불련 큰 심방 눈에 이상한게 보연,

"현씨애기 나똘애기야, 이리 오라 보저" 영 헹 보난, 그 주머니 속에 육간제비가 돈 여섯 닢이 이선,

"아이고, 설운애기야, 니 그냥 못산다. 나영 이 나영 심방헤사 산다. 수양딸 헤영 오라. 요 연물 구덕 정 뎅기멍 나영 굿ᄒᆞ게이 굿ᄒᆞ레 뎅기라." 아 그 어머니 정헨. 이젠 그때부턴 굿 밧디 뎅겨가난. 굿도 배우고, 연물 치는 것도 배우고, 북두드림 장구 두드림, 징 두드림, 춤추는 거, 말명떨이 재떨이 배웡 큰 심방들을 막 헤간 내싸가난 한 해 두 해 살단 보난 이제 오라방도 나이가 어느 정도 뒈고, 누이동생도 나이 들고 큰심방질을 헤가는 게 동네에서 소문 들언 그 애기ᄀᆞ라 굿을 헤도렌.

아이고 굿을 헤줍센 ᄒᆞ난, 오라방은 그때 그 당시에 아무래도 육지 장사를 다녔던 고라. 나 동생아, 이번에는 나가 가서 육지 장사 가서 돈 벌엉 올 때에는 너 나시 연반물 치메 진옥색 저고리 저런 물색 옷 치마저고리 ᄀᆞ슴.

나가 육지 가서 물멩지(가늘고 섬세하게 짠 명주)영 겡멩지영 헹왕 다음에랑 주걸랑 그 옷 ᄒᆞ영 입엉 굿도 가고 삼천기덕 일만제기 일만제기 삼천기덕이옝 한 건, 북, 징, 대양 그런거 설쇠

영 장구영 헤왕 다음에랑 느가 앞장서 큰 굿을 헤오라 ᄒᆞ난 경 허쿠덴. 경 헷인디 오라방은 육지 장사를 가고 누이동생은 그 굿을 맡앙 간에 큰 심방 수양어멍 의지헹 간 그 집이 강 막 큰 굿을 신나게 하고 초공대목이 뒈영 신줄 연줄은 양 단 어깨에 감앙 안으로 오란, 막 뒌 석을 열멍 굿을 막 신이 나게 하노렌 ᄒᆞ난 동네 할망이 굿 보레 왓단

"아이고, 현씨애기 나똘애기야, 너 굿은 잘 헴꾸나만은 너네 상 오라방 평안 바당서 베 파산뒈엇젠" ᄒᆞ난

아이고 "이 무슨 말이꽈," 애기가 그 옷을 입은 양 신줄 어깨에 감은 것만 공싯상 욮드레 탁 벗엉 놔두고 신 신을 정신도 읏이, 멘 버선창에 이 신천리 연디동산을 올란 높은 동산 올란 저 먼 바당더레 살펴보난 오라방 탄 간 배는 엎어져불고 평안 바당 히영ᄒᆞᆫ 돛대만 헤뜩헤뜩 헸이난 "나 오라방, 나 오라방" ᄒᆞ멍 이 애기가 막 땅을 치멍 통곡을 ᄒᆞ멍, 오라방은 나를 믿엉 오빠는 살고 나는 오빠를 의지헨 살단 보난 의지할 곳 읏인 나는 어떵헨 살렌 헸우게. 오라방 ᄒᆞ멍, 막 땅을 치멍 우는게 연디동산 알러레 발을 탕하게 헛디뎐.

그 순간 억울에 맺형 우는 순간에 발을 헛디뎡 떨어지난, 천지낙매가 뒌 현씨애기가 이 연디동산 아래서 죽어벳젠 헵디다. 죽어부난, 동네 하르방은 뒷날 아침 새벽에 쉐보레 쉐 강 보젠 밧더레 영 올라가당 보난, 아, 연반물치메(연한 옥색의 치마) 입고 진옥색 저고리 입은 곱딱한 애기가 죽엉 잇언. 가슴이 달락 털어젼 가름에 오란 동네 어른들 ᄀᆞ라. "아이고, 영 정 헨 뎅기단 보난 연디동산 아래 곱닥한 애기가 죽언 잇수덴." ᄒᆞ난. 동네 어른들 ᄆᆞᆫ 모다들언 이거 어떵ᄒᆞ민 좋을거니옌. 이젠 오라방은 요왕에서 죽으난 시체를 건져올 수가 엇이난, 혼적삼이엔 요왕으로 간 혼을 건져다 누이동생 현씨애기하고 오누이 신천리 연디동산 옆이 쌍묘산을 무언. 쌍묘산이옌 ᄒᆞᆫ건 묘를 두 개 만들언에예,

그 애기들 이젠 장사를 치뤈 영장을 헤드린거라예. 시체를 감장헤드렷는데, 아이 한 삼년을 살아가도 누게가 술 한 잔 감주 한 잔 안 헤주고 제사 명질도 안 헤주고 영 헤가난 조상이 의탁하기를 현칩이 종손 어른 ᄌᆞ손한티 신병이 난. 아프난 막 이젠 치료헤도 안 낫고 굿을 헤도 안낫고 ᄒᆞ난, 어디 강 들으난 점을 지난 이런 조상이 들엉 이거난 큰 굿 헤영 두일뤠 열나흘 헤영 이 어른나시 굿을 헤봅센 ᄒᆞ난, 굿을 헤가는디

그 아픈 어른, 환자, 병 난 어른 입으로 딱 의탁 헨. 현씨일월이 대답을 하뒈, "나는 부모조상

도 아니고 신천리 연디동산에서 떨어졍 죽은 현씨일월이고, 오라방이영 오누이 우린 물을 굶언 베고판 못살커난, 삼멩일 기일제사도 하지 말고 제사도 하지 말고 멩질도 하지 말고.

안네 고팡에 안고팡으로 안칠성과 같이 제사 멩질 때라근에 메 놓고, 잔, 우리 오누이 나시 걸엉 잘 위헤주고, 삼 년에 한 번 오 년에 한 번 큰대 세왕 큰굿 하민, 자손들 큰밧 상 부자로 살게 하고, 족은굿 ᄒᆞ민 족은 밧 사게 ᄒᆞ고 부자로 내어주곡 자손이영 잘 거느려주켄." ᄒᆞ난, "아이고 어서 경 헙센." 한 것이 아버지가 현씨고 어머니가 고씨난에 현칩이도 발이 벋고 고칩이도 발이 벋고 줄이 벋어가는 것이,

그게 안칠성으로 같이 제사 때 멩질 때는 메 한그릇 오라방나시 현씨애기 나시영 두 그릇 놓고, 잔 두 잔 걸어드리고. 또 굿을 하나, 심방왕 비념을 하나 할 땐, 그 팔자 궂언 심방을 헤난 조상이난 현씨일월 나시 저렇게 물색헤영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헤영 자리 놩. 안공시로 오누이 잔 두 개 걸고 계란 딱 올려. 계란 두 개 올리곡 헤영 일월상으로 하곡. 큰굿 할 땐 일월상으로 놩, 오라방 나시도 옷 한 벌 남자옷 한복 한 벌 여자옷 현씨애기 나시 한 벌 헤영, 연반물 치마 빨간 치마에 노란 저고리나 이제 빨간 치마에 파란저고리나 헤영, 연반물치마 진녹색 저고리 ᄀᆞ슴을 ᄒᆞ영 옷 헤놓고, 막 신나락 만나락 일월을 울리곡 경 헤가는게. 현칩이도 편안헨 잘 뒈고 고칩이도 잘 뒈고 헤가는게 아들간디 딸간디 발이 벋고 줄이 벋엇젠 합니다게. 경 헹 이제 신의 역사로서는 이런 본풀이가 뒈엇는데 현재는 제주도도 제주시쪽으로 있고, 서귀포쪽으로 잇어도,

내가 이제 이 길을 45년 이상 걸어본 바로는 제주시 쪽더레는 북군 쪽드레는 현씨일월이옌 한 신화가 별로 없고, 이 신천리로 신하천리 표선리 위미리 남원리 저 서귀포 신하효 더레인가, 하례리레 가면 현씨일월 잇인 집이 많고, 현칩이 할머니가 시집을 오면 현칩이 딸이 시집을 오면 그 집이가. 예를 들어, 강칩이든 고칩이든 이칩이든 뒈어도 현칩이 할머니 뒤로 발이 벋으난 현씨일월상을 놩 빌고 또 현칩이도 우선 경 ᄒᆞ곡. 경 헤 간 신의 역사로는 그런 줄기가 잇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현씨일월이 좀 너무 불쌍하고.

이제 요즘 살기 좋은 세상도 어머니 한 분만 없고 아버지 한 분만 없어도 살기가 힘든데 그 옛날에 톨톳밥도 그리던 그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 죽어불고 형제 일손도 없고 하난 기가 멕힌 조상이라예. 이런 역사가 잇언, 우리가 문화를 살리던 뭘로던 우리 제주도 문화역사로던 좀 슬픔도 슬픔이주만 좀 생각헤볼 점이 많은 신화 같아마씸.

열두 누이 난 죽고,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 불고 하니까. 단 오누이 남으니까, 그만큼 오빠는 누이동생에 내리사랑 애착심을 가지고 누이동생은 또 오빠 하나를 의지하고 경 헨. 열심히 사는데 그런 조상이 그 딸 여동생 현씨애기 일월 현씨할망 현씨일월한테 벌써 육간제비랄까 주머니가 물질레(물길러) 간 수 사람이 수십 명이 그 우물을 먹엇주만 하고 많은 사람, 조상이 태우니까, 너 팔자가 이러니까 주멩기가 보인 거라. 게도 보아도 안 봉글(줍지 않을) 수도 잇주만, 그 애기가 그것을 봉가가지고 주머니에 이런 데 허리에 창 다녀간 게. 그 조상이 의탁ᄒᆞ연 심방을 ᄒᆞ렌, 막 신의 병을 주언 피일차일 율어가는(여위어가다) 거라예. 굿 밧디서 굿 소리만 들려지고. 게난 우리가 영 살아본 무엇으로, 저도 이 길을 걸없주만 그 신의 병이란 게 요즘 아파서 암이여 뭐여 헤도 것도 고생이지만 진짜 힘든 인생을 걸어옵니다게.

난 그 현씨일월에 대한 본풀이도 헤가민 가슴이 막 벅차고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굿을 다닐 때 보면 현씨일월 헹 추는 환자도 많아마씸 게고, 현씨일월로 심방난 사람도 가끔 잇어예. 겐디 나는데 그 애기가 현씨일월 조상이 신을 막 크게 큰 심방을 하당 돌아갓으면 큰 심방을 할 건데, 현씨일월 줄기로 심방난 사람이 한창 배워올 때 딱 죽어부니까 크게 내푸끄질 못한덴 요런 역사도 잇어마씸. 게난 그만큼 오누이 사이가 진짜 동냥을 하러 가젠헤도 쪽박읏언(쪽박이 없어서) 동냥을 못가고 의지할 데 읏이.

참 불쌍한 할머니죠 알고 보면. 시집도 못 가보고. 그런 식으로 살다 돌아가션. 이제 지금도 신의 역사로서 현칩이 어른들이나 바다에 가면 물색, 일월조상 나시 빨간색 노란색 파랑색 ᄒᆞ영 오누이 나시 지 두갤 드려마씸. 그런 역사가 이제 지금도 잇입니다. 그냥 평범한 집안에는 현씨일월 발 벋은 집안에, 현씨 아니더라도 고칩이라도 현씨 어머니가 시집오면 그 줄기가 잇어. 경ᄒᆞ민 '몸지'만 드리고 배하는 사람은 '배서낭지'만 드리고 현씨일월 집안엔 '현씨일월지'를 똑 드려마씸, 막 멩심ᄒᆞ고. 현씨일월에 대한 역사가 좀 비극적인게 많아요 슬퍼.

6. 조천읍 와산리 불돗당




〈사진 64〉 조천읍 와산리 불돗당

조천읍 와산리 불돗당은 2014년에 당집이 새로 건립되어 조천읍 와산리 마을공동체가 관리 보존하고 있다. 신체인 거석은 당집 안에 모셔져 있는데 삼승할머니를 상징한다. 지금도 대표적인 불도신[82]으로 삼아 음력 삼월 십삼일(3. 13)에 불돗제를 올리고 있다.

현재 매인심방은 이용옥(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조교)으로 시어머니에게서 당을 물려받았다고 하며, 당의 전통은 일반신인 삼승할망 본풀이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본향당 신의 신체는 옥황상제의 셋째딸인 천신을 상징하는 거석을 상징물로 모신 점

82) 아기의 산육이나 탄생 등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삼승할망신의 특성을 지니었으며, 신앙적 성격은 불도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특이한데, 옥황상제의 삼녀가 부모님의 눈에 거슬려서 인간세상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는데, 조천읍 와산리에 있는 '당오름' 상상봉오지에 내려온다.

이때 와산리에 사는 사람이 사십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서 문점을 했는데, 솟아난 큰 돌을 위하도록 하자 마침 당오름 꼭대기에 있는 큰 돌이 있어서 찾아가 제를 올렸다. 그녀는 돌을 찾아가서 제를 지낸 후 포태가 되어 낳을 달이 다 되었는데, 다시 순산을 위한 제를 지내려고 했다.

그런데, 다리가 무거워서 올라가지 못했다. 겨우 힘을 내어 올라 간 후 "저 위에 있는 조상님, 영겁이 있건 이만큼 와서 좌정하면 우리 자손들 조금 덜 힘들 것이 아닐까요" 하고 소망을 말했다.

제를 마치고 내려와서 임신하였는데 아들을 낳았다.

다시 감사의 제를 올리기 위해서 당오름으로 올라갔다가, 전에 가다가 쉬던 곳에 이르자 미륵상돌이 내려서 좌정하니, 거기서 제를 올리고 다시 좌정할 곳으로 좌정하기를 축수하였다.

이어서 '고장남밧 만년폭낭알' 현 위치로 좌정하여 있는데, 음력 3월 13일을 본명 대제일로 삼고 서천제민을 받으면서 자식 없는 자손 인간탄생시키고 자손을 위하는 신이 되었다.

자료 1 옥황상제 말젯뚤아기[83]

이 당은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조천에서 올라서는 중산간에 있는 옛날에 눈미 와산입니다 여기가. 이 당의 유래는 옛날옛날 옥황상제 말젯뚤아기가 아방 눈에 ᄀᆞᆯ리나고(거슬리고) 어멍눈에 싯지나난(눈에 거슬려서), 용 그려진 용얼레기, 새 그려진 새 쳉빗,

83) 와산 불돗당 매인심방 이용옥(2017.04.24)

그걸로 허울허울 빗언 갑싸뎅기들영 새강머리를 따완 결혼을 안하니까 총각머리로, 남방사주 저고리에 북방사주 말바지에 열두폭 대홍대단 홑단치마에 나막창신 신엉, 웨코 접엉 벡롱(白綾) 보선 신언.

인간에 가렌ᄒᆞ난 옥황에서 "아, 어딜 가면 인간에 내가 가서 좌정할만한 데가 엇인고." 옥황에서 이렇게 굽어보니까 이 '눈미와산'(와산리) 저 당오름 오름에 거기 보니까 방아터도 좋아지고 테역 단풍도 좋아지고, 아 내가 저기 내려사면 좌정할 만ᄒᆞ다 ᄒᆞ연. 3월 열사흘날 옥황에서 저 당오름으로 내려산 중허릴 돌단 보니까 상상봉에 좋은 자리가 있는 거라예. 그 자리에 할마님은 딱 내려산 앉으난 아 처음 내려사신디, 이거 어느 자손에 강 상단골을 무어야 내가 여기 온 줄도 알고 내가 있는 줄을 알건데 어딜가코 헨 이렇게 할머니가 짚어보니까, 내생이 무근가름이엔 ᄒᆞᆫ건 이 와산 올라오기 전에 또 와산은 와산 안넨데 마을이 있었나봐요게.

그 마을에 김상장 집 따님애기가 이십스물, 삼십서른이 뒈연 사십마흔이 다 뒈가는디, 자식이 엇언 아들도 읏고 딸도 읏고 ᄒᆞ난 뭐 재산은 좋안 남단북단(남전북답) 너른 밧도 좋고, 고대광실 높은 집도 좋아지고, 경 헤도 애기가 엇언 막 호오 탄복핷이난

그 날 밤에 할머니가 꿈에 선몽을 하기를, 야, 너 김상장 집 따님애기 아닐러냐. 너 아무리 잘 살아도 남녀 간에 후세 전승시킬 자손이 없어서, 너 지금 호오 탄복하고 있질 않으냐. 이 날이 붉는 데로 낼 아침에랑 언메 단메 벡돌레나 벡시리나 청감주나 미나리 청근채나 계란 안주나 다 맑은 음식이라 예. 그런거를 해서 저 '당오름' 상상봉을 돌당 보아라 난데없는 은진미륵이 있을테니.

나에게 와서 수륙을 드려보면 석 달 열흘 벡일이 채 못뒈메 너가 알아볼 도리가 있으리라 ᄒᆞ연 꿈에 선몽을 ᄒᆞ난. 아, 그 김상장 집 따님애긴 퍼뜩 깨난 보난 꿈이라예, 할마니가 선몽한 대로 깨는 즉시 무신 그냥 집에서만 촐리젠ᄒᆞ난 쌀밥 헤놓고, 게난 언메 단메 헤놓고 미나리 헤단 채소 해놓고 계란 삶아놓고, 감주 확 해놓고ᄒᆞ연. ᄀᆞ는대서 대구덕에 놩 지언 당오름을 올라간 거라,

올라간 중허리로 빙 하게 돌단보난 아이 상상봉에 이 은진미륵이 잇인거라예. 게난 이제 자기 출령 간걸 문딱 내려놘 수륙드련 자기 혼자만 막 수륙 드려둰 내려왓인디, 진짜로 벡일이 채 안 뒈메 포태가 뒌거라. 겐 애기 벤게 아홉 열둘 받은 둘은 뒈난 배는 이만큼 하고, 아이고 이제랑

내가 치세수룍으로 애기 나기 전에 한번 강 고맙수덴 헨 수룍을 드려뒁 오주겐 ᄒᆞ연.

또 이제 문딱 그대로 메 헤놓고 다 촐련, ᄀᆞ는대구덕에 놩 지어앚언 '당오름'을 올라서젠 ᄒᆞ난. 베가 너무 불어놓으난 앞동산은 높으고 뒤에 짐은 뒷동산은 얕으고 가진 건 이렇게 막 자자아져 분거라예. 게난 막 네팔 손으로 기엉 올라간거라 오름이어부난 겐 올라간 할마님한테 수룍은 드려뒁 내려오멍 ᄒᆞ는 말이, 아이고 영급좋은 할마님아 수덕좋은 할마님아 욜로 요만큼 '고장남밧'이옌 ᄒᆞ는건 지금 이 자리라예. 여기가 고장남밧요, 고장남밧디로 나왕 좌정혯이민 이내 몸도 오고가기가 편안헨 좋을걸. 오젠ᄒᆞ난 할마님 앞동산은 높아지고 뒷동산은 야자완 나 니팔 손으로 기엉완 값우다양. 자기 혼자만 중얼중얼 ᄒᆞ여뒨, 아 집에 온게 그날 밤엔 비가 그냥 대우박 수천리로 쏟아진거라예, 하늘과 땅이 맞붙을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디 벼락 천둥소리가 와당탕 와당탕ᄒᆞ멍 ᄒᆞ난. 그 벼락천둥 소리에 할머니가 아까 '새통물머리' 그디 이름이 '새통물머리'라예. 그디 간 쉬언 마음돌에 마음 씻고 시름돌에 시름 쉬어앚언 걸사 한번 쉬언 이젠 여길 왕 좌정을 한거라.

게난 김상장 집 따님애긴 아 어젯밤엔 무슨 벼락천둥 소리가 그추룩 나신고 ᄒᆞ난, 무신 비가 그추룩 하늘광 땅이 맞붙으게 와신고 ᄒᆞ연에, 한번 영 당오름이나 고장남밧이나 돌아보주긴 ᄒᆞ연 이리 왕보난 그 당오름 상상봉에 있었던 은진미륵이 여기 와 잇인거라예,

"아이고 영급좋은 할마님아 수덕좋은 할마님아 참 할마님 실력이 좋수덴" ᄒᆞ연. 그후로부턴 이 할마님이 동수문밧 서수문밧 특히나 애기 엇인 사람들, 요즘에 아들딸 구별 안 헊주만 예전엔 아들 아들 아들 엇엉 하는예. 그런분들 왕 수룍 올령가면 아들도 낳게 헤주고 애기 잘 크지못헹 막 하는 이런디도 할마님신디 왓다가면 애기도 잘 크게 ᄒᆞ곡 게난,

할마님은 옛날은 그 저 골목에 들어오기 전에 쭉 한질이 이 정이더레 가젠 ᄒᆞ민 웃한질인 셍이라예. 게난 말탄 양반도 글로 말을 탕 왕강 왕강 하당도 이 당더레 들어오는 골목에 오면 그 말을 하멜을 안 하면 말발이 절어불게 헤 할마니가. 육지장사 뎅기는 포목장사나 도보상기들 얼레기 챙빗 놩 실 놩 파는 사람이나 포목장사들도 넘어가젠 ᄒᆞ민 우선 할마님신디 왕 그 올감상 실감상 다 풀엉 감상을 헹가면 그 장사가 잘뒈고 경 안ᄒᆞ민 망하게 하고. 게난 할마니는 정월 삼월 열사흘 날은 할마니가 옥황에서 내려왔덴 헤영 큰 제일을 하젠 ᄒᆞ민, 저디 강 아까 '새통물머리' 강, 상 한 상 차려놩 거기서 삼석 치멍, 삼석 때리멍, 연물 두들멍 이까지 오는거라예. 옛날

구기덩덩할 때는 당끼절끼들렁 이 와산 가름을 다 돌아근에 이디왕 굿 시작을 헷덴 헙디다게. 게난 이제 할마니 본풀이는

또 칠월 칠석 날은 불도할마니이기 때문에 다른 당들은 칠월 되면 이제 무슨 제의를 하는데 이 할머니는 칠석 제일을 하는거라. 경 ᄒᆞ연 백중제를 다른 당들은 대부분 하는데 이 당은 칠석 날 제일을 하고 견우직녀 만나는 거렌 하곡. 또 동짓달 열사흘날 이때는 시만국제일. 자손들이 게난 옛날에는 시월 달에 헷덴 헨디, 이젠 옛날엔 농사만 지을 때난 시월 달 뒈민 다 곡식 거두어 놩 곡식 위로 그거 거령 할마니신디 떡 헨 놧단 와낫인디,

이젠 미깡들 ᄒᆞ영 다 미깡에다 덖어주단 보믄 시월 달에 사람을 구경 못하는거라예, 게믄 동짓달 열사흘 날은 그날은 또 할마님 시만국제일이옌 ᄒᆞ연, 할머님은 일 년에 세번 상을 받습니다. 게난 할마니 본풀이는 이건디 할머니는 눈미와산은 고장남밧 좌정한 '제석불도할머니' 너던 넛디에 저기 돌멩이 하나 잇지예, 저기도 궤라. 저 제일 날은 저거도 들러둬근에 하는디 저렌 또 바구니에들 다 촐령 옵니다. 게난 저기는 '할로산또 놀래왓치 풍내왓치' 할로산또라 거기는예. 헹, 또 당 뒤에는 산신이 잇뎅 헤여. 산신이 잇뎅 헤영 대부분 웃드르들은 산신놀이들예, 산신이 잇고 이 당의 본풀이는 그거고.

7. 구좌읍 동복리 본향당



〈사진 65〉 구좌읍 동복리 본향당

당 안에는 신목을 상징으로 본향당신인 '상여하르방당'과 물색천을 걸어 놓은 '굴묵밧할망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왕맞이' 제상도 건립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당의 경관이 뛰어나다.

제일은 음력 일월 십칠일(1. 17)에 본향당 제를 올리고 있는데, 이 제의에 참여하는 단골의 수가 150명 정도가 된다.

현재 매인심방은 강대원(제주시 용문로 18길 16-7)인데, 큰굿보존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1987년부터 당을 매기 시작하여 거의 30년이 되고 있다. 당신화의 내용에서 보면, 구좌읍 동복리 마을 설촌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당제는 마을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다.

구좌읍 동복리에 사람이 살지 않을 적에, 김녕리 밀양 박댁 박동자 할아버지가 듬북을 농사용 거름으로 하려고 이 마을 바다로 내려왔다. 물맛이 좋아서 정착하게 되고, 인근 마을인 김녕리나 북촌리에서도 소문을 듣고 이 마을로 옮겨와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 당시는 300여 호 정도가 되었고, 동쪽으로 서김녕까지, 서쪽으로 북촌까지 곡식이 잘 되는데 동복만 흉년이 들었다. 동네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중에 상여화단이 '굴묵밧'에 올라와 있는 걸 발견하였다. 상여화단을 거리 안 팽자나무 아래로 끌어다가 '상여하르바님', '상여할마님'으로 모시고 초하루, 초사흘, 초일레, 열하루, 열사흘, 열일레, 스무하루, 스무사흘, 스무일레. 이렇게 한 달에 여덟 번, 아홉 번씩 제를 지내자 삶이 편안해졌다.

하루는 '상여할마님'이 동네로 마실 나갔다가 고기 삶는 냄새를 옷에 배여 오게 되었다. '상여하르바님'은 고기 냄새를 풍긴다고 부정하다면서 바람 밑으로 내려서라고 해서 상여화단을 처음 본 굴묵밧으로 보낸다. 그래서 상여하르바님과 상여할마님은 따로 좌정을 하고, 해녀와 어부가 굴묵밧에 본향을 모시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 때 절과 당을 부순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고씨 선생에게 가서 당을 옮기고 싶다고 청했다. "난 사또 앞에 통정대부 직함을 받아서 못 가니, 우리 할망(홍씨) 한테 부탁해 빌어서 하라."고 하였다. 홍씨 할머니가 알았다고 하자, 신칩, 강칩이 할머니들이 앞장서서 현재 본향 모신 곳으로 옮겼다. 고씨 부인, 홍씨 할머니가 점을 치자 점궤가 좋지 않아서 원래 본향이 남자여서 어쩔 수 없이 고씨 선생이 와서 시왕맞이를 했다. 그 법으로 매해마다 입춘이 들면 7일, 그렇지 않으면 17일, 27일 본향 대우를 하면서 시왕맞이를 한다. 본향을 모실 때는 여성이 모시나, 시왕을 청할 땐 남성이 해야 한다.

일제 때 따로 된 당을 이설하여 하나로 합하고 2015년에 당을 현재의 모습으로 준설하였다.

자료 1 상여할아버님과 굴묵밧할머니[84)]

여기는 원래 사람이 안 살 적에, 마을 설촌이 안될 때에 사람이 살게 뒈어, 부락의 조훼(조화)로서, 또 부락의 책임자들이 구석구석 찾다보니까 포구 알로 옛날에 상여화단 어디서 뜨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한 것이 '바람웃또', '상여할아버님', 저 알 쪽에는 '상여할머님'예

여기 전부 다 부락 사람들이라, 타 리에 같이 살아도 전부 다 와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양쪽에 음식을 드려놓고 그 다음에 끝나면 바로 지켱, 일로 또 '시왕맞이'라 해가지고, 원래 이 당 설연했던 선생님이 점사를 받고 부락이 위험하니까 명부전에 문서 차지한 신앙을 청해서 부락에서 전체 액도 막고 점사도 받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그 옛날에 이 동네가 사람이 하나도 안 살 적에 김녕에 밀양 박댁에 박동자할아버님이 밧에 논 설레가서 밑거름할 것이 없으니까 듬북을 하러 왔습니다.

듬북을 하러 와서는 아침에 걷어다 놓고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내리는 것이 있어서 물을 떠먹어보니까 물이 맛있었습니다.

아! 여기도 사람 살만한 고장이다. 이렇게 해도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아서 한데, 그날 아침에 한 것은 밧에 져다가 놔두고 또 뒷날 오후에 했던 걸 가지러 왔습니다.

와가지고 또 아침에 듬북도 헤서 올려놓고. 이렇게 헤 가지고 박칩이 하르바님이 먼저 이 마을에 와서 집을 지어서 살게 뒌 것이 김녕서나 북촌서나 딴 곳에서라도 소문들 들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초담에 산 것이 300여 호가 되고 지금은 한 220여 호 밖에 안 됩니다.

영 헤보면은 220호 정도 밖에 안 뒈는데. 이제 그래서 300여 호 살 적에 그 부락에 숭험이 들었습니다. 조훼가, 나쁜 일이 많이 당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다 헤서 돌아보니까 저 개맛디(갯가)다가 그 '낭낭선 패도목'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조훼가 아니냐 헤서 부락 안으로 갖다 놔가지고 이제 정월 송아쓰멩질(설 명절) 넘으민 삼일 칠일 이레가서는 살기가 편안헷어예. 살기 편안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무심헹 내분 거라예.

84) 동복본향당 매인심방 강대원(2017.05.11)

그래서 또 부락이 또 조훼가 들었습니다. 조훼가 들어가지고, 또 탈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합방했을 적에 김구장 시절인데 당을 웽겨야겠다. 전부 다 부수니까.

그 북촌에 고씨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마 좀 머리가 좋고 뭐헷던 거라. 사또님께서 요즘 같으면 도지사, 사또님께서 불러가지고 "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알겠습니다."

이래서 인자 사또께 통정대부 직함을 받아노니까 심방질을 안 하겠다 했는데 이 당은 웽겨야겠고, 이래서 고씨 선생 부인이 홍씨인데 그 홍씨 선생을 불러가지고 이쪽으로 웽겨오게 뭘 적에 이 부락에 신선달할아버님이라고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그 본풀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할아버님 자손이 이 울담을 우선 먼저 전부다 둘러놓고, 그 다음에 신칩이 할머니하고 박칩이 할머니하고 강칩이 할머니하고 세 분이서 앞서하고 홍씨선생 의지로서 일로 웽겨와서 ᄇᆞ름웃도 상여 할아버님은 이로 좌정헤 계신데, 산 받고 딱 마지막 점사를 받고 보니까 부락의 청년들이 궤롭게 뒛어예.

그래서 이제는 그 적에 이 명부전 시왕을 청해서 점사도 받고 궂으면 액도 막고 이렇게 헷는데. 이 상여 할머님은 왜 나중에 오게 뒛냐면 저 밑에 있었을 적에 이 여자들이야 볼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 신이 부락에 한번 쓱 하게 돌아보는데, 잔치집이 그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글로 넘어간 것이 그 몸에 고기 냄새가 풍겼던가 봐요.

그래서 이 상여하르바님 앞에 오니까 남편 앞에 오니까, 어째서 부인 몸으로 부정한 냄새가 난다.

먹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이 있어서 글로 넘어가긴 헷습니다.

그럼 당신이랑 저 굴묵밧인가 멜묵밧인가 글로 좌정을 헤서 해녀를 차지헤라. 나는 ᄇᆞ름웃도로 가서 부락을 전체로 그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두 밧디(곳)서 그 옛날엔 굿을 치고, 요왕은 요왕데로, 여긴 여기데로 치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거 합쳐가지고 안 뒈겠다 한 밧디로 하자 헤서, 지금 이거 담(돌담)하나 이거, 이 담을 가림헤서 여긴 할머니당 여긴 할아버지당, 저쪽엔 원래 본향엔 군병 치는디, 음식들 놓는데.

그렇게 헤서 그때 이 담이 많이 허물어졌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2015년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정동면 리장님께서 힘을 많이 썼습니다게.

8. 구좌읍 세화리 본향당



〈사진 66〉 구좌읍 세화리 본향당

구좌읍 세화리 본향당에 좌정한 당신은 세 신으로, '천자또'와 '백주아기씨', '금상님'이다.

천자또는 한라산 태생의 'ᄇᆞ름웃도'계의 남신이며, 백주아기씨는 '아양독촉'에서 태어난 신으로, 두 신의 관계는 외조부와 외손주이다. 금상님은 철기문화를 반영하는 외방신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을 한 당집에는 특별한 본메(당을 상징하는 물건)는 없고, 단골들이 기증한 깃발들로 가득하다.

당집 아래쪽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서 있다. 왼쪽의 나무는 '산신'을 상징하고, 오른쪽의 것은 평대리에서 가지 갈라온 '수데기' 당을 의미한다. 세화리 본향당의 제일은 음력 2월 18일이 영등대제일이고, 7월 12일에는 마불림제를 지낸다. 영등대제일에는 단

골 7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세화리 본향당의 당 매는 심방은 "남자는 매지 못하고 여자만 맨다"는 속설이 있으며, 일제시대에 불이 나 탄 것을 복원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당을 매고 있는 심방 강복녀(구좌읍 세화리 전항동 46, 75세)는 39세에 무업에 종사하였으며, 2016년 이곳의 매인 심방이었던 수양 어머니 오인숙이 타계하자 대를 이어 본향당을 매고 있다.

음력 2월 12일, 7월 12일, 10월 12일, 3대 제일이 치제일이다.

천자또 본의 천자하르바님은 한라산 중허리에서 솟아났고, 한산모시 긴창옷, 청새도폭, 능무망건, 청갓대를 써서 위용을 갖추고 있다. 아름가득 금책에, 종이 금붓대, 일천장에 베릿도에, 삼천장에 먹을 갈아 놓는 날은 생산을 받고, 죽는 날은 물고를 돌고, 장적문서, 호적문서, 인물 토생적을 차지하던 천조신이다.

서울 남산 백옥산, 백몰래왓디서 솟아난 임정국 따님애기인 '백주아기씨'는 아버지 눈과 어머니 눈에 어그러져서 요왕의 외삼촌을 찾아간다. 당상성 벌모작에 은풍채를 얻고 용왕국을 나와 외조부인 천자하르바님을 찾아서 떠난다. 꿩사냥, 매사냥을 다니기 위해 털모자 감태를 쓴 소천국을 만나서 한숨을 쉬며 피리를 빌려주도록 하자 소천국은 여자는 꿈에 나타나도 사물이라고 야단을 치면서 부술을 부쳐서 안개가 끼도록 했다.

백주가 다시 부술을 부쳐서 안개를 걷은 후, 천자하르바님을 찾자 그는 세화리로 내려와 '손드랑마루'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다. 이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한복을 입고 가면서 절을 했다.

천자하르바님은 멍동소천국이 오는 것을 알고서 세화리와 평대 지경을 갈라서 두지역간에는 서로 결혼을 못하도록 했다.

금상님은 서울 아양동촉서 태어나 일곱 살 되는 해에 큰 막장수가 되어 금상이 되었다. 하늘은 아버지가 되고, 땅은 어머니가 되니, 무쇠방석을 깔아놓고, 무쇠솔칵, 솔칵지로 무쇠불미를 불어대었다. 삼천 명의 제군사와 억만의 맨 군사를 거느리고 억 광대등을 거느려 제주도를 피난처로 들어왔다. 천자하르바님에게 "무슨 음식을 먹느냐" 하

자, “백시리나 백돌레, 청감주나 계란안주를 먹는다”고 했다.

백주님은 무슨 음식을 먹느냐고 하자 “춤실베어 전정배나 백돌레, 백시리, 안전지, 계란 안주를 먹고, 금상은 술도 동이를 먹고, 안주도 전머릴 먹는다”고 하자. 천자하르바님은 금상을 쫓아내버렸다. 금상님은 전에 먹던 음식을 못 먹자 피골이 상접하였는데, 백주가 우리는 맑은 조상이어서 바람 위로 상을 받아서, ‘문전철갈이’와 ‘고사’를 받아 먹자고 했다.

자료 1 천자또[85)]

여자만 메는 당인디예, 그때에 남자어른이 저 당을 메어나서마씸.

경 ᄒᆞ난 그 시국에 이제 마을에서들 당을 부쪄부니까 당 멘 심방이 자기가 아니노렌 헨엔, 도망쳐붸서마씀.

경ᄒᆞ난 불은 오란 왈칵 다 부쪄부난 천자할아버님은 지금 같으면 우리 텔레비전 보면 군사들 있지 않험니까. 이 그 옷들 쇠 옷 예, 그거 다 입고 이만큼 한 쇠장화예 이거 반도 다 메고.

백주아기씨는 머리가 이만큼 헤근에 막 돌레 헤근에, 머리가 굉장히 커낫젠 합디다게. 경 헨 본메를 다 부쪄부러서마씀. 경 ᄒᆞ난 본메는 아무것도 엇수다. 아무것도 엇언 우린 글로 써 놘 예. 우린 글로 써 놘 헸수다.

게난 천자할아버님은 초담에 솟아날 적에는 할로영산 중허리에서 솟아날 적에 한산모시 진 창옷에, 청색도폭을 입고 능무망긴, 능무망긴이옌 한 것은 그거우다. 옛 어른들 망건 쓰지 않습니까 망건하고 갓 예. 게난 능무망긴에, 청 갓대에. 능무망긴은 쏘곱에 쓰는 거고, 청갓대는 위에 쓰는 거 아니꽈예. 그거하고.

경 헤서 아늠ᄀᆞ득 금책에, 종이 금붓대에 일천장에 베릿도에 삼천장에 먹을 갈아, 낳는 날은 생산을 받고 읍사무소 가면 우리가 애기를 나면 호적 올리지 않우까,

85) 세화본향당 매인심방 강복녀(2017.05.18), 백주아기씨, 금상님 동일.

나는 날은 생산을 받고, 죽는 날은 물고를 돌아, 장적문서 호적문서를 걷어근에, 인물은 토생적을 차지하던 천자하르바님입네다. 천자할아버님 본은 간단하우다.

자료 2 백주아기씨

백주아기씨는 서울남산 백옥산, ᄀᆞ는 데왓 서데왓 백몰레왓디서 솟아나난, 이미 임정국 따님애기. ᄒᆞᆫ 일곱 살 나난, 아방 눈에 싯지나고 어멍눈에 골리나난 이젠 나가렌 내쫓아 부러서양.

내쫓아 부난 어딜 갓느냐 ᄒᆞ난 요왕 웨삼춘을 촞앙 들어간거라마씀. 웨삼촌 촞앙 들어가난 웨삼춘 하는 말은 "니가 어째서 여길 왔느냐?" 하난에, 사실 여카여카 헨 그 말을 다 ᄀᆞᆯ은거라예.

"아버지 눈에 싯지나고 어머니 눈에 골리나네 나가렌 하난 웨삼촌 촞앙 오랏수다" ᄒᆞ난,

그리 ᄒᆞ거들랑 늘랑 할로영산 중허리에 가면 웨할아버님 잇으니까 웨할아버님신디 강 베릿물을 떠 놔근엥, 할아버님 시주를 들렌 ᄒᆞᆫ거라 예. 시주를 들렌ᄒᆞ난 그 외삼촌이 당상성 벌모작에 은풍채를 내어준거우다.

그걸 가져 앚언에 멍동일 올라서난, 웨하르방 찾아가젠 멍동이광 세화광 평대 사이가 구린질이옌 허연 멍동이우다. 멍동일 올라서난 막 피리 부는 소리가 나난, 그 디 간 동산에 간 앚안에 한숨을 쉬하게 셋바람을 쉬언, 지치 난 그 디 간 아장 쉬어낸, 한번 나도 피리를 빌려주면 안뒈크녠 ᄒᆞ난,

이제 멍동소천국이 ᄒᆞ는 말이, 여자는 꿈에만 시꾸와도(보여도, 나타나도) 새물(邪物)인디 어떤 여자가 그걸 빌리렌 헸이니 막 야단을 친거라마씀. 야단을 치난 부술을 부려베십주.

백주아기씨는 그 은풍채를 내놘, 동더레 서러레 한번 푸꺼부난, 안개가 복삭 지난 천지가 캄캄할거 아니꽈.

아이고 잘못헷수다, 주네 피리를 빌려주쿠매 부술을 걷어달라 ᄒᆞ난, 영 푸끄난에 안개가 싹 걷언.

마을 갓수게. 빌려줘서.

빌려주난 한 숨을 쉬어서 "어드레 가는 아가씨가 뒈느냐?" ᄒᆞ난

나는 이제 웨하르바님 촞아아젼 올라가는 질에, 웨하르바님 이름이 뭐녠 하난 천자하르바님

이렌 ᄒᆞ난

그럼 천자하르바님 사는 집을 가르쳐주켄 ᄒᆞ는거라마씀.

멍동소천국이. 그 멍동소천국은 그 뭐주. 사냥하는 사냥덜 허다근엥 갈람바지 갈람저고리 입어근엥 무신 감태 이만한 모자 옛날 털 감태

이만이 한 그거 쓰고 헤근에

마살총 둘러메곡 거느리곡 헤근에 주치(꿩)사농 매사농, 꿩사농 뎅기고, 쉐도 잡아불고 말도 잡아불곡하는 놈들이라마씀.

아니 겐디 이제 빨리 가근에 옷을 갈아입엉 오라근에 웨하르바님 사는델 강 ᄀᆞ르쳐 주멘. 아니 간 기다리노렌 ᄒᆞ난 오란 글렌 헨에

어디냐 하난 요디옌.

간 보난 한 발은 방 안터레 이 다리를 한 발은 들여놓고, 한 발은 내놓으난 말 꽝 쉐 꽝이 왕상 한거 아니꽈.

아이고 그게 이제 깜짝 놀란 ᄆᆞᆯ도둑 놈 쉐도둑 놈이로구나. 경 보니까 저게 천자하르바님이옌. 그 옷을 몬딱 벗엉 곱져둰에 흰 창옷을 입언 앚은 거라마씀. 천자하르바님 추룩 헤연. 경 ᄒᆞ난 나오란. 이젠, 그게 이제 어딜 가렌 헨, 천자하르바님 춧앙 올라간 거라마씀.

올라강 보난 벌써 천자하르바님은 상서화리레 내려와분 거라. 내려오난 하르바님 앚아난 자린 가 보니까 무쇠방석 무쇠방석에 하르바님 경 ᄒᆞ난 행장이 다 있는거라마씀.

게난 그걸 봐 앚어네 그대로 내려오난 어디로 가렌 ᄒᆞ난 올라가다 보민 송당광 세화 사이에 '손드랑마르' 옌 헙니다. 거기 옌 ᄀᆞᆯ아 손드랑마르. 그디가 큰 왕석 돌이 굉장히 이 집만한 돌이 잇엇어마씀. 경 ᄒᆞ민 그 돌에 앚아근에 하르바님이 오랑 제의를 받아 앚어근에, 삼제의를 받앙 갈 때마다 나가 어딜가리 헤근엥 그 디서 셋바람을 쉬 하게 한숨을 쉬어마씀.

영 ᄒᆞ곡 그디 춧앙오란 보난 하르바님은 그디 잇는거라마씀. '손드랑마르'로 헨에 '돈두르' 땅으로 간거라마씀.

돈두르 땅이엔 헨 겐. 또, 손드랑마르는 질 ᄀᆞᆮ디난에 좀 어슥한 길로. 사람 갔다왔다 안하는 길로 간거라마씀. 돈두르 땅을. 돈두르 땅을 간엔. 이젠 그 딜 가고. 옛날엔 손드랑마르로 고운 옷 입은 사람은 글로 못 넘어 갓수다.

말 탕 넘어가난도 딱 말을 세워사. 말을 끌고가고 옷도 한복을 입엉 가젠하민 거기서 절 헤둰

가곡예.

경 헤사 그디가 막 신력이 세여노난. 마음대로 넘어가지 못헨. 하르바님신디 어떵 느가 오니까 너 위로 동경내가 남니.

조근조근 그 말을 웨하르바님신디 ᄀᆞᆯ앗수게. 천자하르바님신디. 여카여카 헹 저 돈두르 땅을 들어서니까 말도둑 쉐도둑놈이 하르바님 사는데 가르쳐주켄 헤근에 가보난. 하르바님이 아니고 그 말도둑 쉐도둑놈이언.

경 ᄒᆞ난 하르바님은 이놈이 새끼덜 나 불 쏘아렌 ᄒᆞᆫ 것은 옛날에 저 선생네 그거 알까 억새 잇우게 억새, 화심양 화심 감아근엥 불 붙이지 안헷수가 담뱃불양.

게난 그걸 허켄 하르바님신디 강 그거라도 헤여근에 시주들어근에, 얻어먹쿠겐 해도 필요없덴 ᄒᆞᆫ 걸 내쳐분 셍이라마씸. 경 헌 놈이 나 불 쏘안도 못한 놈이 나 자손 오라가니까 행패부렷젠

이젠 평대광 세화 사이에는 물 갈르라, 땅 갈르라, 패 꽂아라. 경 ᄒᆞ난 세화사람도 평대 결혼을 못허고예, 평대사람도 세화에 결혼을 못헤 낫젠 헙니다.

패 꼽앙 못 오게, 사돈을 못하게. 이제는 다 헜우다만은, 옛날에 경 ᄒᆞ렌 하곡. 이제 그 백주애기씨는 그거고예.

자료 3 금상님

금상한집은 아양동촉서 솟아나서마씀. 날로 일어 금상이우다. 달로 일어 금상이우다. 아방 무유 어멍 무유 솟아나난, ᄒᆞᆫ 일곱 살 나난 울이 크고 널이 큰 막장수가 뒌 거라마씀 게난

하늘은 아바지고 땅은 어머니가 뒈여. 막 장수가 뒈난 작패를 한 겁주, 돌아 뎅기멍.

한 일곱 살 난 애기업게는 뎅기단 야 이 미혹한 제장수. 제장수를 잡아불젠 무쇠 성을 둘러놓고 그디 무쇠방석을 깔아놓고 무쇠솔칵 무쇠솔칵지도 난 무쇠 불미를 불엄젠 ᄀᆞᆯ아분거 아니꽈

금상한집은 그게 이제 뒤꼭지에 비늘 설서리 거스련에, 삼천명이 제 군서 사천명이 오천 명 육천 명 칠천 팔천 명 억만 멘 제 군서를 거느리고 억광대 빛광대 초롱광대 궐채광대를 거느려 앚앙, 막 창빛 불빛 막 히롱하게 어디로 가냐 ᄒᆞ난, 제주도로 피난처로 들어와서마씀.

제주 들어오난 저기에 사라봉을 근당ᄒᆞ난, 삼천 선비들이 바둑장기 두어 장기 두시다가 영

빅려 보난 목 벤 제장수가 오랐어.

아이고 목 벤 제장수가 우리 국을 망ᄒᆞ레 오랐저. 입심으로 불어부난 '푸' 하게 불어부난 어드레 가릴ᄒᆞ난 소섬 진질각을 들어선 거라마씀. 소섬 진질각을 들어사서 오조리 당마루로 들어오란, 이제 큰 와양 천제집을 둘러봤고 족은 와양 흑제집을 둘러봤고, 멀미오름은 세 안상을 들러받안마씀.

경 헨 상서화리 이 '돈두르땅'을 천자하르바님을 찾아 온거라마씸. 찾아오난에 천자하르바님은 ᄒᆞ는 말이 "느 어디서 온 목 벤 제장수가 뒈었느냐?" 하난 헹

"날로 일어 금상입네다. ᄃᆞᆯ로 일어 금상입네다."

아방무유 어멍무유 솟아나난 하늘이 아버지고 지애가 어머니가 뒈어전, 한 일곱 살 나난 울이 크고 널이 큰 장수가 뒈언, 저 한 말을 다 ᄀᆞᆯ앗수게 자기 한 말을.

경 헨 이제 ᄒᆞ난, "피난을 오란에 하르바님 찾안 헌공일공 ᄒᆞ젠 오랏수게" 영 일르난

"그러면 너는 뭔 음식을 먹겠느냐?" 하난 하르바님은 무슨 음식을 잡숩니까 ᄒᆞ난.

우리는 맑은 조상이 뒈어지난 벡돌레나 벡시리나 청감주나 계란안주를 먹느니라 ᄒᆞ난.

경 ᄒᆞ민 백조님은 무슨 음식을 잡숩니까 ᄒᆞ난 우리는 칼로 베여 쉣내나난 춤실베, 전정배라는 것은 요만이 한 거우다. 이런 걸 헤근에 본향에 딱 올립니다 백주애기씨 나시. 그걸 헤근에 여섯 개 예 딱 올립니다. 칼로 베여 쉣내나난 춤실베어 전정배나 벡돌레나 벡시리나 암튼 잡안 안전지나 계란 안주 먹느니라.

금상한집은 뭘 먹엄디 ᄒᆞ난

천자하르바님이 금상한집은 그럼 뭘 먹엄디 ᄒᆞ난

나는 술도 전 동일 먹읍네다. 안주도 전머릴 먹습니다 ᄒᆞ난

투 더럽덴 나가렌 막 야단을 헷수게. 야단을 ᄒᆞ난 포따리 싼 문도에 나사난 백조님 ᄒᆞ는 말이,

미혹한 제장수님아 한일 알고 뒷일 모르는 금상이로구나, 전일 먹던 음식을 버려두고 하르바님 잡수는 양 먹쿠덴 일릅소서 영 ᄒᆞ난,

그게 돌아선 하는 말이

전일 먹던 음식을 ᄇᆞ려동 하르바님광 하르바님 잡수는 양 먹쿠다 영 허난

네 그리허거들랑 ᄑᆞᆺ죽 쑤엉 목궤이라.

ᄑᆞᆺ죽 쑤엉 목궤이라는 옛날엔 ᄑᆞᆺ죽을 쒕 올려낫젠 합니다. 이제도 김녕더렌 죽 쑤엉 올립니

께, 이렌 설러부러도예.

퓻죽 쑤엉 목궤이라 세게이라. 청감주로 몸 목욕하라 즈수지로 입수회수하라

게난 옛날엔 퓻죽 본풀이할 때 경 헙니다

옛날엔 퓻죽도 쒄 놔낫수다마는 이젠 현대가 뒈어부난 퓻죽 못 쒄 올렸우다

순간 계란 초감제 헙써예 헤근에, 우린 본풀이할 때 경 헙니다. 영 헨 ᄒᆞ난 퓻죽 쒕 목궤고 청감주로 목욕하고 즈수지로 입수 회수ᄒᆞ영 헌공일공 ᄒᆞ렌 헷우게.

영 허난 경 허연 연 석더레 살아가난 피골이 상식이 되언 죽을 ᄉᆞ경이 뒈서마씀.

ᄒᆞ를 날은 백주님이 하는 말이 금상한집님아 어찌해서 피골이 상식이 뒈연 죽을 ᄉᆞ경이 되엇우가 이르난

전에 먹던 음식을 못 먹으난 피골이 상식이 된 죽을 ᄉᆞ경이 뒈엇우다 ᄒᆞ난

이제 백주님이 천자하르바님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는 ᄆᆞᆰ은 조상이 뒈어지난 우린 ᄆᆞᆰ은 조상이 되어지난 ᄇᆞ름 위로 상을 받안 ᄇᆞ름 위로 지도 타 불거들랑, 너는 뒤떨어졌당 마흔여덟 상단골도 돌아보고 서른여덟 중단골 스물여덟 하단골 열여덟 백성 수안당골에 돌아봉, 신랑집이는 듬봉고소를 받고 신부집이는 남봉고소를 말머리 받아먹엉 살고, 또 문전 철갈이할 때 또 이제 상을 받으렝 헷수다.

문전철갈이 겐 물비리도 불러주라, 겡비리, 너벅시, 홍나물, 버젓승, 피부병을 다 불러져마씀, 경 ᄒᆞ민 잔치하는 집이는 신랑집이는 듬봉고소를 하고 신부집이는 남봉고소를 헹 잔치 날 고소를 합니다.

문전제 할 때도 삼년에 한번 금상한집을 예를 들어 오십만원 짜리를 조상신디 바쳥 놔 두민 벌써 몇배를 그냥 조상님이 먹으면 먹은 값으로 몇 배를 내세우지마씀.

예를 들어 오십만원짜리민 오천만원을 내사주고, 양 농사도 잘 뒈고 아이들 뭔가 어디 직장하는 것도 안뒈영 ᄒᆞ민 조상을 대접하민 직장도 하고, 또 인연 못 만난 사람도 조상을 대접하면 인연도 만나고 경 헙니다.

쳇진궁 좌정하기는 어딜로 하민 상서화리 요디 '아꿀왓' 오다보민 큰 밧이 삼거리에 큰 퐁낭 막 큰 퐁낭 있지 않읍데가, 바로 그 앞이가 '아꿀왓'이우다. 그디가 '더럭광산칩'이라마씀. 더럭 광산. 게난 쳇진궁 좌정하기는 상서화리 아꿀왓 더럭광산 집으로부터 들어산 상을 받게 헤엿수다.

영 헤근에 본풀이 헤여근에 그걸로 끝 헤여근에 경 헨 난산국을 풀엇수다 본산국을 풀엇수다 헤근에 이젠 다 조상들 먹읍센 ᄒᆞ연 다 잔을 젭힙니다.

고기 좀질게 썰어근에 우리 그거 할 땐, 고기를 상 받는 세반 열두뻬 문딱 물도 한 점 아니 떨어 놔근에, 상반 세반을 하고 또 이런 푸다시 헤난 딘 네반을 놓고 양 바당에 보내젠 ᄒᆞ민. 경 ᄒᆞ곡 또 초반이옝 ᄒᆞᆫ건 알반으로 헤근에 열두반 놓고마씀 경 ᄒᆞ난 어떤 심방들은 경 ᄀᆞᆯ읍니다. 또 열두 삼촌낫이 영도 ᄀᆞᆯ읍주, 겐디 우린 열두삼춘 낫이 영은 안 ᄀᆞᆯ읍니다. 우린 기자 금상한집 상반 설반 아홉반 이주만, 열두설반 걷어올립네다. 영 헤근에예.

경 헹 우리가 본풀이를 합니다게. 아꿀왓 더럭 광산 김씨집으로부터 쳇진궁 좌정헤엿수다 영 헙네다

막 몸에 피부병 고뿔 감기 설사 오바이트 베트럼징 베라벨 병을 다 헤여근에, 어디 가근에 병원 강 약 사도 아니들어근에, 그 조상 대접하면 당장 좋습니다.

금상한집, 금상한집은 예 병 빨리 주기도 쉽고 빨리 낫게 하기도 쉬웁니다게.

9. 구좌읍 송당 본향당





〈사진 67〉 송당 본향당 전경과 안내석

송당 본향당 신화는 백주또 신화가 중심이나 궤눼깃당 신화나 토산일뤠당 신화와 직접 관련이 있다. 송당본향제인 '송당본향당굿'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고, 2005년에는 송당본향당이 민속문화재로 지정되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 치러지는 무속의례인 '신과세제'는 음력 1월 13일, 영등제는 음력 2월 13일, 백중제는 음력 7월 13일, 시만국대제일은 10월 13일에 행해지고 있다. 제에 참여하기 위해 단골들은 초하루에서 13일까지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먹지 말아야 하며, 제에 참가한 사람들 역시 그렇다. 대접하는 음식으로는 꿩메밀 국수를 먹었으나, 현재는 닭메밀 국수를 대접한다. 당을 맨 매인심방은 이승순(여, 1950년생)으로 그녀

는 故 정태진(전 송당본향당, 2002년부터 매인심방)씨의 부인이다. 단골들은 100여명 정도가 된다.

제주도 한로산 오작교에서 솟아난 소로소천국은 꿩사냥, 노루사냥을 하며 글도 활도 못하고 근근이 살아간다. 강남천자국에서 태어난 '금백주'는 종달리 두물개로 들어오는데, '알손당' 가까이 와서 '소로소천국'을 만나서 살게 되었다.

백주또는 자식들 여러 형제를 낳아서 옷, 밥, 젖을 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 남편과 '오봉이굴왓'을 경작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자고 약속한다. 소로소천국이 밭을 갈러 갔는데, 금백주는 잣벽 위에 점심을 놓고 집으로 가자, 넘어가는 대사중이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점심을 먹고 가버렸다.

소로소천국은 먹을 밥이 없어서 자신의 밭갈이 소를 잡아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웃 밭의 남의 소도 잡아먹었다. 밭을 갈았다고 여긴 백주또가 올라가서 보니 남편은 잠대로 밭을 갈고 있었고, 잣벽 위에는 붉은 산딸기가 피어있어서 따려고 하자, 산딸기는 다름아니라 피 묻은 소가죽이었다.

백주또는 기가 막혀 자신의 소만이 아니라 남의 소마저 잡아먹은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 남편과 이혼할 때 얻은 일곱 번 째 아들(막내)을 낳아 일곱 살이 되어 남편에게 보내자, 아기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 수염을 잡아당기고 가슴팍을 쳐 불효하다고 해서 소로소천국은 석함에 아들을 싣고 바다로 떠 보냈다.

석함은 동해바다 용왕국 산호수 가지에 걸려, 요왕의 셋째딸과 혼인하였으나 너무 식성이 과다해서 딸과 함께 용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제주섬으로 돌아오다가 아들은 강남천자국의 변난을 평정하고 도원수가 된다. 제주섬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 부모는 정살에 부딪치고 콩깍지가 눈에 들어 눈병을 앓고 있자, 용왕의 딸(토산리 일뤠할망)이 청부채를 흔들어서 눈병을 고쳐 주었다. 백주또는 웃송당에 좌정하고, 소로소천국은 알송당에 좌정하게 되었다.

부모를 찾아서 제주로 돌아온 당신은 따로 살라는 부모의 권유로 용왕국의 딸은 토산

리 웃토산에 가서 좌정은 하였으나 누구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남편은 한라산에 올라 오백장군의 딸을 첩으로 얻어서 사냥을 하면서 돌아오지 않았다.

임신한 용왕국의 딸은 한라산으로 남편을 찾아가다가 목이 말라 돼지 발자국에 고인 물과 돼지 털을 그을려 먹자, 입에서 나는 냄새로 '가다귀 섬'으로 귀양정베를 가게 된다.

작은 부인인 첩은 그만한 일로 본처를 귀양보내느냐고 남편을 꾸짖으면서 큰 부인인 용녀부인을 찾아 가보니 아들 일곱 형제를 낳아 있었다. 오백장군 딸은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을 했으므로, 해변으로 오면서 맛있는 해산물들을 먹도록 배려하고 나중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첩이 아들 일곱을 데리고 돌아오다가 산딸기를 타서 아이들을 주려고 머물다 보니 날이 저물어 허둥대며 업은 것이 여섯 명이었다. 잃어버린 한 아이를 찾아 보니 그는 띠밭에 뒹굴어서 당비리(옴병), 허물, 눈병이 걸려있어 아이를 치료하고 '아기놀림'을 하며 놀았다. 두 처첩은 토산 웃당 일뤠당신이 되고 자식들은 각 마을의 본향당신이 되었다.

자료 1 백주또와 요왕대부인[86)]

옛날 제주도는 대부분 사냥을 해서 많이 살았습니다. 노루 사냥, 꿩 사냥,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옛날 그 소천국 할아버지도 할로산에서 태어나가지고 글도 활도 못하니까 테역장오리, 물장우리 어승생 당골머리 동남어깨 서남어깨 송당 오면 한마음 곳으로 이렇게 꿩사냥 노루사냥하면서 살다가,

이제 그 강남천자국에서 서정승따님애기가 탄생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몸에 괄이 났다는 건 너무나 이 애기가 버릇이 궂었어 이 딸애기가. 버릇이 궂어 부난 전배독선ᄒᆞ영 제주더레 귀향을 보내불켄 ᄒᆞ연 귀향을 보내부난, 서정승따님애기가 종달리 두문개로 들어오란 아끈선창 한선

86) 송당본향당 매인심방 이승순(2017.06.07)

창 아끈다랑쉬 한다랑쉬로 ᄒᆞ연 송당마을을 들어오란 뎅기단, 알손당 거리를 근당하난 소천국 하르버님을 만난.

할아버님을 만난 부부간 살게 뒈난 사농을 해서 사는디, 애기들은 아들들은 여러 형제 탄생하난 배 고팡 살 수가 읏곡, 붉아가민 밥 줍서 물 줍서헹 울어가난 부부간 의논하기를,

우리가 할마님이 백주할마님이 아이고 설운 낭군님아, 우리가 사농헹은 저 애기들 어떵 멕영 살리쿠과, 옵서, 농사가 천하지대본이라니, 우리 농사나 살게마씸 ᄒᆞ난, 경 ᄒᆞ겐 해연. 집도 절도 읏이난 돌아뎅기당보난 송당 들어산 보난 '오봉이굴왓' 가보난 거기가 완전 밧이 좋아지난 거기서 움막을 짓어서 할아버지하고 농사를 짓엉 살아가는디.

ᄒᆞ를 날은 할아버지가 밧 갈레 밧 잠대 짊어지고 밧 갈레 간 밧을 가는디 할머니가 점심을 헹 간, 요 하르방아 점심이나 먹엉 ᄒᆞᆸ써 ᄒᆞ난, 저 작벽 웃디 가보민 강 우장 씨왕 놔두민, 그거를 나 밧갈당 점심먹켄 ᄒᆞ난.

경 헤둰 할머닌 와부난 할아버지는 밧 가노렌 ᄒᆞ난, 넘어가는 대사중이 아이고 넘어가는 대사중인데 배고프고 시장ᄒᆞ난 점심이나 먹단 거 있건 호꼼 줍센 ᄒᆞ난,

하르바님은 마음 좋으난 저 작벽 우티 간, 작벽이옌 ᄒᆞᆫ건, 돌 우티 주게, 게난 작벽 우티 강 보면은 우장 걷어보면 점심 있덴 ᄒᆞ난, 대사중은 우장 걷어보난 점심이시난 그걸 몬딱 먹엉 가부렀어.

다 먹엉 가부난. 하르바님은 밧갈당 점심먹젠 작벽 우티 간 보난 점심은 다 먹엉 가부난 시장도 ᄒᆞ고 배고프고. 고만히 앉안 밧가는 쉐를 바라보난 궤기도 바싹 기립고, 아이고 저 쉐나 잡앙 먹주 헨 ᄌᆞ끗디 바싹 마른 삭달이 ᄒᆞ여단 불 와랑와랑 살란 익어시냐 한 점 설어시냐 한 점 하는게 쉐 ᄒᆞᆫ 머릴 다 먹언 아이 앚안 ᄌᆞ끗디 밧엔 바라보난. ᄌᆞ끗디도 남의 쉐 한 마리가 잇이난. 에, 저 쉐까지 이젠 잡아먹켄 헨. 하르버님은 ᄂᆞᆷ이 쉐까지 잡아먹어 둰.

이젠 밧 잠대로 헹 밧은 갈아 잇곡 ᄒᆞ난 배때기로 이녘양으로 어르씩씩 어르씩씩 ᄒᆞ멍 이젠 이레저레 밧 가노렌 ᄒᆞ난 날은 어느 동안 저무난,

할마님은 아이고 어떵ᄒᆞ난 하르방은 영 날 ᄌᆞ물아도 안왐신고 ᄒᆞ연 가단보난. 애기들 손 심고 업는 애긴 업고 걸른 애긴 걸련 밧더레 가단보난 작벽 우티 벌겋게 무신 것이 널려졋이난, 할마님은 아이고 탈이나 타 먹엉 하영 탕 아기들 주주, 헤연 강 보난 쉐가죽이 벌겅하게 널어져시

난 “아이고, 낭군님아 저거 무신거꽈?” ᄒᆞ난, 아이 넘어가는 대사중 밥 몬딱 먹어가부난 시장ᄒᆞ연 바싹 베고프고 밧갈단 쉐다리 보난 궤기도 기립고 잡앙먹언, ᄌᆞ끗디 쉐 한 마리까지 먹어부럿주 ᄒᆞ난,

“아이고, 요 설운 낭군님아 집으로 ᄒᆞᆫ저 옵써. 집으로 들어간 설운 낭군님아, 이녁 쉐만 잡아먹어도 할디 놈의 쉐까지 어떵 잡아먹은디 쉐피젱이영 어떵 삽니까, 혼저 나고갑서 나영 못삽니다.”

겐 하르방님을 그길로 그냥 내쫓아부럿어. 부정서정 ᄒᆞ덴 내쫓아 부난 할아버님은 저 알손당 ‘정동갈체ᄄᆞ님애기’ 허연 살앗주게. 사는디, 이젠 하르바님이신 때 밴 애길 나난 족은 아들 탄생해서 족은 아들 탄생ᄒᆞ난 하도 이 애기가 버릇이 궂어노난 백주할마님이 이놈이 새끼 저, “설 때 버릇 궂인 애기 나도 버릇이 궂엄꾸나,” ᄒᆞᆫ저 아방신디나 돌앙강 버릇을 가리치주 헨

“아방신디 강 이 애기 맡앙 삽센.” 아방신디 강 맡겨부난, 하도 이 소천국 족은 아들이 하도 버릇이 궂어지난 에이 요것도 귀양정베나 보내불젠 헨, 귀양정베 이젠 보내부난

ᄒᆞ를 날은 요왕황제국이 바깟디 나왕보난 무에낭 상가지에 선비같은 도령이 앚아시난,

귀신이냐 생인이냐 ᄒᆞ난. “아이고 난 제주 소천국 족은 아들인디 아방눈에 궐이나곡 어멍눈에 시찌난 귀양정베 오랏수덴” ᄒᆞ난 경 ᄒᆞ난.

참 아름 가득 붓이요 일천장에 베릿돌 삼천장에 먹을 갈고 영 ᄒᆞ여시난, 그냥 훌륭한 선비 같구나,

큰 똘애기 ᄂᆞ려오렌 ᄒᆞ난 눈도 거듭 아니뜬다,

셋 똘애기 강 ᄂᆞ려오렌 해보라 아이고 저 하늘에 별이 송송 잇우다.

족은 똘애기 ᄂᆞ려오렌 하난 허우덩싹 헨 ᄂᆞ려오란 큰 똘애기 족은 똘애기도 방 덜에 아니들고 족은 똘애기 방으로 들렌 ᄒᆞ난, 서른여덜 잇바디를 허우덩싹 ᄒᆞ멍 방문을 열어 들어간

사위의 먹성이 좋아 돼지도 전마리 소도 전마리 먹는덴, 게무로 사우하나 못멕이리야 동창기 서창기 남창기 열안 석덜열흘 멕여가난 국도장군 밥도장군 궤기도장군 해가는 게 동서남창고 다 비게 되어 가난, 그때에는 아이고 요거 사우 잇언 하나 쓸 곳 읏다.

어서 나고 가라. 게건 배나 한 척 짓어줍서 겐 배 한 척 짓어 앚언, 양도 부부간이 강남천자국을 들어간 벡물레왓디 배를 세웟이난, 이제 그 강남천자국에서 난리국이 난거라. 겐 이젠 도원

수를 막아두고 “땅 한 척을 가지겠느냐, 물 한척을 가지겠느냐” ᄒᆞ난

“난 제주도 들어가켄” 헨

부부간이 제주도 들어오란 어머님 저 올레에 앉아시난 콩불질을 헸이난 이제 힌 청풍쌀 내어 놘 삼십원 묶으난 어머님이 눈이 펠롱ᄒᆞ게 턴.

그때에는 “어머님아, 옵서 우리 다 모두 앉앙 살 수 읏이난 우리가 각각이 다 흩어정 살게마씸.”

큰 아들은 거멀 문국성, 셋 아들은 시선당, 이제 세 번체는 덕천, 네 번체는 노늘(회천), 다섯 번체는 시에, 일곱 번체가 이제 김녕궤네깃도. 경 살아온 그 역산디, 지금도 큰 제일 날은 가면 할머니는 제라ᄒᆞ게 위패를 영 딱 앚지고. 또 그 안네 이제 여냥 상쾌상이렌 ᄒᆞ는 거주게, 궤 안네 할머니가 참 서울할머니난 연반물 치매에 진녹색 저고리 이제 영영 물색으로 할머님한테 바치고, 할아버지는 쉐 잡아먹었덴 ᄒᆞ연. 부정서정ᄒᆞ덴 ᄒᆞ연, 군문 베껫딜로 정월ᄃᆞᆯ엔 우리가 강 멀찍어니 상을 놉니다.

할아버지 상을 놔. 상을 놩 하는디, 지금도 거기 가젠 하면 정월ᄃᆞᆯ에 어느 때나 우리가 이 마을에서도 경 허곡. 똔디는 돼지고기 올리는 디도 있고 소고기 먹엉 가도 아무퉁도 안하는디 소고기는 높은 제에 올리는 거니까 부정을 안타는디,

첫째 우리는 돼지고기도 안 먹주마는 그 정월 나가 초ᄒᆞ를부터 딱 명절해서 소고기 적갈을 먹어나민, 열사흘날까지는 소고기를 일절 이 집사관은 먹지 말아야 뒈마씸. 먹으민 안 뒈어. 나가 죄니까.

경 ᄒᆞ곡 마을에서도 경 ᄒᆞ곡. 경 헤영 지금도 가면은 큰 정성을 ᄒᆞ영, ᄀᆞ는대 질구덕에 다대떡 멘들고 궤기 두 개 굽고 메 하곡 경 ᄒᆞ영. 그 아까 왜 그 이 요왕국이 겐 족은 똘애기 요왕 소천국 족은 아들이 이제 그 옛날은 서당왓듸 그 요왕대부인을 모셧덴 합니다.

옛날에 그 선생들은 송당 사는 선생은 고씨인디 그 한집을 다 놀려나서. 토산한집을 놀려나단, 이제 우리가 놀리켄 옛날대로 그대로 ᄒᆞ쿠덴 ᄒᆞ난, 거기 몇사람이 에이 옛날대로 헐 필요 엇수댄 본향만 청합센 헷단.

이젠, 가만히 생각하난 아멩헤도 안뒘직 헨. 삼년 전부터 그 본향을 소천국할머님을 딱 청헤나면은 애기 만들고 방울 멘들고 경 ᄒᆞ연. 한 삼년 전부터 토산한집을 놀립니다 우리가 그대로, 옛날 그대로, 경 ᄒᆞ연 정월 열사흘날은 대제일날로 자손들 이제 많은 자손들이 다 강 과세문안

올리곡 이월 열사흘날 영등제 가곡, 칠월 열사흘날 백주제로 가곡, 시월 열사흘날은 만국제로 가곡, 참 다. 이제 그 칠월 열사흘날도 옛날은 우선 그 우마 ᄆᆞ쉬 ᄒᆞ는 사람, 농사하는 사람 백주제도 많이 가난디 많이 안갔주만은, 그래도 많이 들 몇사람 일도 책임있는 분들은 다 갑니다게.

족은 아들이 태자가 손당으로 부인을 돌안 왕 보난 어머님이 먼 올레에서 콩불림질 헸이난,

족은 아들이 어머님 저 문안 드렴수덴 헨 절 꼬박ᄒᆞ난, 아고 죽으라고 귀양정베 보낸 애기 살아오란 문안인사 드렴꾸나, 어머님 눈에 콩깍지들언 죽게 되가난 저 어머님 치마를 받읍서, 겐 치마를 옛날엔 입을 때난 치마통을 영 받으난, 처갓집이서 요왕황제국 딸 사위영 나올 때에, 니가 젤 어려운 일 잇거들랑 이 힌 청풍쌀 내어놩 서른번만 푸끄면 니 소원을 이뤄준다 헨 그 청풍쳴 내줫던 허주게.

게난 그 지금 말하자면 소천국 족은 아들이 아니고 요왕황제국 따님애기가 어머님아 치맛통 받읍서, 치맛통을 받으난 힌 천풍쌀 내어놘 서른번을 확 푸끄난 어머님 콩각지 눈에 딱 치마통 더레 떨어지난, 아이고 설운애기 호첩도 거느려왔구나 하는 건, 며느리도 헤 오랏구나,

어머님 아버지신디 강 인사문안 드리쿠다 겐 알손당에 간 아버님 죽은 아들 귀양 죽으라고 귀양정베 보낸 애기 아버님 살안 왔수다 절 받읍센 , 속곡ᄒᆞ난 소천국은 거기서 아들 보자마자 그냥 딱 죽어부럿덴 ᄒᆞ여. 소천국 하르방도,

어머님신디 오란 이제 다 이젠 우리영 ᄀᆞ찌 살 수 엇이난 각각이 다 이녁 마을만썩 쉽게 마을만썩 ᄎᆞ지ᄒᆞ영 우리 각산지썩 영 ᄒᆞ영 살쿠다 헤둰,

이젠 족은 아들은 이제 서당 밧디 강, 이녁 요왕 대부인을 앚어둥, 오백장군 따님애기 눈 맞으난 그디 간 가도, 오도 안ᄒᆞ난, ᄒᆞ를은 요왕대부인이 아이고 어떵ᄒᆞ난 설운낭군은 안 왐인고 헹, 기냥 가멍가멍 찾으멍 찾으멍 가는게, 애는 파삭파삭 말르곡 하난 독진 발자국 길내에 물이 이시난 엎더젼 그걸 뽈아먹은 게 기냥 콧구멍더레 궂은 것이, 독술이 하나 휙 하게 들어가난 이젠 무슨 쟁이 불렁 독술을 꺼내젠ᄒᆞ난 그걸 기시려야 할 거 아니, 기시리난 기끄렁 냄새가 탕천하난 이제 낭군님도 못찾고 집에 왕 이시난, 설운낭군은 오랏이난

아이고 나 영 헹 찾안 못찾안 왓수덴 ᄒᆞ난 저 어떵ᄒᆞ난 영 기끄렁 냄새가 탕천허니 ᄒᆞ난 이만 저만 헷우덴 ᄒᆞ난,

너 부정하고 서정하단 헹, 낭도 물도 없는 가닥이 대정 마라도로 귀양정벨 보내부난 또 집에

완 잇이난.

오백장군따님아기는 설운 낭군님이 또 어떵헨 안왔인고 헨, 완 보난 큰 어멍은 엇이난 아이고 설운 낭군님아 큰 성님은 어디갓수가 ᄒᆞ난

아이 큰 성님은 이만저만 행 귀양정베 보내부럿덴 ᄒᆞ난, "아이고, 큰 성님을 그만썩한 일에 귀양정베 보내민 후첩이옌 ᄒᆞ민 족은각시주 후첩인디 난들 여기 살아집니까, 나 강 귀양정베 풀령오쿠덴." ᄒᆞ난, 어서 경 ᄒᆞ렌

족은 부인이 귀양정베를 풀리레 강 보난 큰 어멍은 애기를 채똥같이 배연 앚앗이난 아이고 성님 영 애기 설젠ᄒᆞ난 얼마나 고생헙디게 ᄒᆞ난

아이고 날 귀양정베 풀리레 왓건 집으로 혼저 강 걸렝이 일곱하고 지성기 일곱하고, 혼저 강 ᄀᆞ졍 오렌 ᄒᆞ난, 달음질 집으로 완 지성기 일곱, 걸렝이 일곱 촐령 간 애기는 받는 게 하나 두 개 일곱애기를 낳은 거 아니, 일곱애기를 낳으난 이젠 족은 어멍이

"아이고 설운 성님아, 영 낭도 물도 없는 가닥이 섬에서 애기 일곱 벤 낫젠ᄒᆞ난 얼마나 애가 컴컴 ᄆᆞᆯ룹디가, 설운성님이랑 저 바당가 위로 오멍 산도록하게 해삼이나 잡아먹으멍 보말이나 잡아먹으멍 옵서. 날랑 애기 업어앚엉 웃한질로 혼저혼저 달음질 헹 집으로 가쿠덴" ᄒᆞ연.

어서 경 ᄒᆞ렌 헨에. 이제 족은 어멍은 애기 일곱 업어앚언, 웃한질로 가는게 산방산 바람잔 밧근당 ᄒᆞ난, 삼동이 가물가물 익엇이난, 애기 일곱 부려둰, 삼동이나 타 먹주겐 헨, 삼동을 막 타 먹단 보난, 얼굴 보난 기자 어느 급소 항아 이렌 한 건 어느 기냥 참 봐나지도 않은 남정네가 확하게 홀목을 잡젠 ᄒᆞ난,

"아이고 이거 큰일 낫군", 헨엔 그냥 삼동 타 먹단. 애기 확 업은 게 여섯 애기만 업은 거라. 겐 집으로 강 "아이고, 성님아 애기 받읍센", 헨. 애기는 하나 두 개 세다 보난 여섯 애기난, 큰 성님은

"이년아, 저년아 너 벌써 다심태ᄒᆞ느냐, 애기 하난 코가 없더냐 눈이 없더냐 어딜 그레 질러 난 거기서 얼굴 모르는 남정네 홀목 잡아놧덴 ᄒᆞ민 또 이제 눈에 날거 난, 경은 못ᄒᆞ곡

"아이고 삼동 타 먹단 날 어둑어 가난 급하게 업어 오는게 애기 하난 내부러젓수덴 ᄒᆞ연. 산방산디 바람 잔 밧 애기 찾으레 왕 보난, 애기는 ᄒᆞ룰 내 벳디 놩 내부난, 가메기도 왕 눈도 좇아불고 하도 기냥 막 이레저레 둥글단 보난 막 얼굴도 이레저레, 막 기냥 피범벅이 뒈고 햇빛만 맞당 보난 대실대실 얼굴도 영 헷어

경 허난 그 한집에는 걸리면 우선 눈 영 방울침 ᄒᆞ영 허젠 ᄒᆞ민 이 눈에랑 보인난게 ᄌᆞ진난게 도랑나팔 핏줄도 걷어줍서, 침침한 것도 걷어줍서. 이 얼굴에 대알대알 벌러지는 이 피부병, 요센 애기덜 아토피, 아토피라도 몬딱 걷어줍서. 경 그 한집이엔 ᄒᆞ민 오골록ᄒᆞ게 낫고, 경 혼 그런 역사가 잇수다.

이거를 한집을 이제 게난 그 한집을 우선 기냥 참 잘 뭐하곡, 또 토산 한집은 옛날부터 무신 모른 사람은 집집마다 베염을 모셨어.

그것이 아니고 본향이 그런 본향. 본향이. 게 부난 우선 아들보다 딸. 게난 옛날 어른들은 에이구 시집 못 보내면 말주. 토산은 안 보내크라. 경 ᄒᆞ여난 참 도래가 잇수다. 피부병에 걸리면 심방들은 다 압니다게. 게난 굿 헤 줍서. 무신 일 해 줍서. 헹 어디꽈 하면 저 토산이우다 하면 게면 어떵어떵 합서, 에이구 막 눈도 양 침침하곡 양, 막 우리 애기들도 자손들도 막 피부병 병원에 가도 안 낫곡 막 그냥 악살만.

아고 그거 한집에 걸렸수다 거 한집 잘 헹 방울침 풀면 나십니다, 게난 이 한집은 병도 잘 주고 잘 풀어지기도 하고 또 귀 중이염지 귀도 생귀도 알려가민 한집이 허민 오꼿 나사불고. 경 ᄒᆞ는 한집이우다.

겐 옛날은 송당 옛날 첫 번 당에 뎅기단 송당 고씨선생 입주게. 고씨선생인디 그 얼굴은 몰라도 역사 영 보면, 그 어른 선생님네 할 때는 한집을 다 헤낫덴 헤 예. 하단 중간에부터 이거를 딱 잘라부런 안하단, 이제는 또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것도 먼디 간 자손들도 있고 먼디 또 우리가 이제 옛날 헤 난데로 그대로 헤 줍센. 한 3년 전부터 딴데는 가민 그디 연유올려놩 이제 자손들 잘 뒈게 헤줍서, 농사 잘 뒈게 헤줍서 영 ᄒᆞ연 여러가지 연유닦아놘 본향을 딱 청하민 그만이주마는, 여기는 좀 복잡합니다.

여기는 가민 열명부터 딱 장구 창 앉안 올려나민 이제 심방이 나상 이제 연유를 다 닦으는거라

우선 이 송당은 당근, 콩, 우마ᄆᆞ쉬, 더덕, 영ᄒᆞ기 때문에 그런걸 또 객지에 나간 자손들, 외국에 나간 자손들 다 잘뒈게 헤줍서 헤놩 이젠 참 문을 열거아니우꽈게, 삼시도군문 거기서 열려나민 이제 부모없는 자식이 없는거라.

본향이 다 각 본향이 아무리 있어도 우선 백주할머님을 청하게 되면, 이제 몇 번 신청궤에 붙여놩 백주할머님 청할 때는 저고리 백주할머니 저고리하고 치마ᄒᆞ고, 바랑하고 경 ᄒᆞ난 백주할

머님을 딱 청헤놔

청해 놓으민 이제 거기 이제 간 자손들이 몬딱 절ᄒᆞᆸ니다게, 절 헤나민 백주할머님은 이제 딱 청헤당 그디 이제 모시면

'오널 오널 오널이여 날도 좋아 오널이여 백주할마님 간장간장 풀립서' 헹 노래ᄒᆞ여. 노래ᄒᆞ여뒁, 또 신청궤 불렁 그땐 각서본향, 제주도 본향을 다 청하는거라 그때는. 심방이 이제 신칼하고 감상길 청ᄒᆞ영 본향 딱 청헤 놩,

그때는 자손들이 또 절헐거, 절 헤나민 그 다음에는 이제 한복으로 저고리 치마를 ᄒᆞ영 애기멘든거 탁 심방이 둘러업고 방울을 ᄒᆞ영 영 들렁 이제, 그때는 또 우알당서 본향 한집을 또 청ᄒᆞ는 거라마씸

알당은 요왕국여드레또, 웃당은 서당팟 좌정한 요왕국대부인게. 우알당서 본향한 집, 이제 아무 해 만약에 올해 정유년이민 이제 심방이 딱 들어상 '정유년 상정을 열사흘날 송당 ᄆᆞ을 백주대제일로 각서본향 한집님 청ᄒᆞ엿수다.

양 각서 본향 한집 뒤우로 우알당서 본향한집님도 오리정 신청궤입니다' 헹, 그땐 애기 둘러업고 방울 영 헤영 가졍 왕 그때는 경 헤영 청헙니다게.

10. 구좌읍 김녕리 궤눼깃당



〈사진 68〉 구좌읍 김녕리 궤눼깃당

구좌읍 김녕리에는 무속 관련 의례와 당들에 대한 무속문화가 잘 남아있다.

큰당에 좌정한 '큰당한집', 성세기당에 좌정한 '성세기한집', 피부병신인 'ᄂᆞ모리일뤠한집', 또한 '궤눼기신'이 좌정한 궤눼기 굴이 있고, 각 집마다 궤눼기 신에게 바치던 제의를 축약한 9월에서 10월 경에 '돗제'를 지낸다. 구좌읍에 있는 당들을 맨 심방은 서순실로, 그녀는 김녕리 잠수굿 뿐만이 아니라 행원리 본향당인 큰당과 남당의 매인심방으로서 의례를 집행하고 있다.

궤눼깃당신은 아방국은 '소천국', 어멍국은 '백주', 소천국의 일곱째 아들 중 맨 막내다. 백주가 소천국과 만나서 부부가 되어 살았는데, 자식들 여러 형제가 태어나자 배가 고파서 못살아, 하루는 부인이 농사를 짓고 살자고 하면서, '오봉이굴왓'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소천국이 검은 암쇠로 밭을 가는 사이, 느진덕정하님이 점심을 동구랑착[87] 바구니에 싸서 잣벽에 두고 오자 지나가는 대사중이 점심을 먹고 간다. 배가 고픈 소천국은 자신이 밭을 갈던 검은 암소를 잡아서 불에 구워 먹어, 다 먹은 후 남의 소도 잡아서 먹었다. 이를 본 금백조는 땅과 물을 가르고 이혼을 제안하여 서로 헤어진다.

금백주는 웃손당에 살고, 소천국은 알송당에 내려서서 노루와 강록을 사냥하면서 사는 데 일곱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태자로 짓고 아버지에게 보내자, 아이는 아비의 수염을 뜯고 버릇이 없어 부친은 불효자식이라고 하면서 무쇠로 만든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워버린다.

요왕황제국으로 가서 황제국의 문을 두드리자 세째 딸이 나와 웃으면서 맞이했는데, 태자가 강남천자국에 세변난리를 막으러 간다고 하자 용왕국에서는 받아들였다. 그런데 용왕국에서는 사위가 너무 대식가여서 딸과 함께 내쫓아 버린다. 이후 강남천자국에 가서 큰장수의 목을 베고 천제님께 들어가자, 남방국인 제주섬에 가서 땅세와 물세를 받아먹도록 했다.

마침 제주도로 들어왔을 때 백주또가 콩을 불리다가 콩깍지가 눈에 들어 곤란해 하고 있었다. 태자가 부채로 불리니 콩깍지가 나왔다. 그런데 김녕리 세경땅에 내려서도 누구 한 사람 술 한잔 주는 이가 없어서 요왕국에 알려서 비바람을 내려치도록 하고 그치도록 연락하니 비가 그쳤다.

태자는 김녕리 지명인 '알궤눼기'에 좌정하자 별이 송송 보이고 바람도 의지가 되어서 만족했다. 신앙민들에게 황소를 바치도록 했으나, 소는 가난한 집에서는 바치기가 어려워 돼지를 잡아서 고기를 올리는 돗제(돼비를 희생으로 하는 제)를 지내도록 했다.

87) 밥을 싸고 다니던 대나무로 만든 작은 도시락 통

자료 1 궤눼기장수[88)]

이제 김녕이 옛날엔 천하대천 ᄆᆞ을 아주 큰 마을이엇수다. 큰 마을인데 당신이 산에도 있고, 마을 중심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겐 옛날 어머니들은 모든 일을 음력 정월달에 정성을 들여서 이제 당에도 갔다 오고, 요왕에도 갔다 오고 집에 서서 일 년을 무사고를 하는 그런 의례를 치뤗어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면서 지켜오고 지켜온 것이 지금 우리가 지켜가고 있고 앞으로 세대에도 이 마을에 인간이 존재할 때까지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신이죠. 그래서 제일 큰당은 '큰도안전큰도부인님'은 강남천자국 안가름에서 삼형제가 들어와서, 큰형님은 조천 정중부인에, 두 번째는 김녕, 세 번째는 열룬이(온평리)에 '명호안전명호부인'인데 이제 이 당은 큰당, 장적문서 호적문서, 일 년에 이제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 외국, 육지 어디를 가더라도 일 년에 총괄하는 큰당 한집.

그리고 성세기. '성세기한집'은 바다에 어부, 해녀 그리고 저 바다를 건너서 일성 군인 간 아기. 또 외국 간 아기, 배 타러간 사람 또 육지에 나가서 대학공부하고 직장 뎅기는 그런 아이들. 또 일 년에 어린 애기들 바다에 목욕하러 갔다가 해상 사고 만나지 않게끔 하는 그게 '성세기한집'.

그러고 노모리. '노모리일뤠한집'은 요즘은 병원 피부과가 있어서 다 모든 피부가 나빠도 치료하지만, 옛날엔 어머니들이 그 당에 갈 때는 어떻게 해서 갔냐면 아기를 열다섯까지, 열다섯까지는 애기가 잘 푸더져(넘어져). 엎어지고. 허물 많이 나고 그니까 물베리(물기가 있는 피부병), 강베리(마른 피부병), 허벅지시, 배에 배창, 등에 등창, 머리에 홍나물 너벅허물 이런 온 머리로 발끝까지 피부를 아주 깨끗하게 헤 줍센 하고, 아기 엇인 사람 아기 잘 키워주고 열다섯까지는 애기를 잘 키워 줍센 하는 당이고.

이 당은 '궤네기당'. 이 궤네기당은 아방국은 소천국 어멍국은 백주. 이 소천국이 아들은 일곱째 아들. 우리가 일상생활에 제일 막둥이 아들 막둥이는 막둥이 티 ᄒᆞ여, 요망져. 이런 말이 있지예.

경 하듯이 이 일곱째 아들 소천국과 백주가 부부 인연을 맺어서 살았는데, 여섯 성제는 아길 나고 일곱째 이 아기를 벤거라. 베니까 백주님이 성관님아 서방 보고 옛날엔 성관님아. 제주산

88) 김녕 궤눼깃당 매인심방 서순실(2017.06.19)

은 한라산 제주산은 악산이난 한라산 옆에 송당 우이가 '오봉이군락' 큰 그런 땅이여, 오봉이군락에 가그네 벨진밧 돌진밧, 그만큼 크다는 거라. 벨진밧 돌진밧데 강 자수농업이나 지엉 살게마씀.

소천국이 감은(검은) 암쇠 용굉길 잠드렐 지니까, 느진덕정하님이 밥을 해서 옛날에는 밥을 하민 동구랑착 동구랑착 행기 행기에 거령 동구랑착에 쌍 올라간 보니까, 밧을 갈고 잇이난 밧갈단 베고프걸랑 이 밥 먹읍센 ᄒᆞ난 저런 담 위에 걸쳐 뒁 간거라.

게난 한창 밧을 가노렌 ᄒᆞ난 삼베중은 중이라. 이렇게 지나가다 베가 고옥 고판 막 베고프난 밧디 간 아이 나 밥 한직만 줍센 ᄒᆞ난, 나도 아니 먹어본 밥 저 동산에 시난 먹읍센 ᄒᆞ난, 그때에 말하기를 나가 안먹어 봐부니까 제반삼수 위로 이렇게 제반 걷어 뒁 가렌 제반 걷어 뒁 가신디

소천국이 막 베가 고픈거라 밥을 먹젠 보난 중이 먹어난 밥이거든, 그 밥을 아니 먹고 감은 암쉐 용굉기 다 빼어 뒁 벳북이에 이렇게 대영 밧을 다 갈안

베가 고프니까 감은 암쉐 다 베껸 쉐가죽, 옛날에는 손톱을 길게 ᄒᆞ니까 이 매톱 닮은 손톱 멩개나물 꺾어단 이걸 고젱이에 끼완 설피낭 설피낭은 연기가 잘 안나. 설피낭을 피왕, 익어시냐 ᄒᆞᆫ점 설어시냐 ᄒᆞᆫ점 다 먹엉 쉐 한 마리 먹언. 벳북이로 밧을 갈안 내려오단 오름 앞이 보난 또 놈이 집이 쉐가 잇어.

그거까지 먹엉 오난 각시한테 강 ᄀᆞᆯ은거. 각시한데 강 ᄀᆞᆯ으난, 아이고 놈이 집 쉐 먹엇이난 이 말은 어떵. 땅과 물을 갈르렌 ᄒᆞ난 백주님은 벳대기 베연 그냥 웃손당에 살고, 소천국은 알손당에 ᄂᆞ련 세명대 만난 노리 강록 사농하고 백주님이 애길 나난 아들이 난거라.

일곱차 아들이 나난 자기대로 이름을 지은게 태자로 지은거라. 태자로 지엇인디 영예 일곱 살 뒈가난게, 아방 잇인 애기 호로자식 만들지 아니ᄒᆞ젠 업언, 아방 촛앙간 독무릎에 앚이난 애기가 이 옛날엔 다 수염 기를 때라, 삼각수로 이렇게 이렇게 헤 가난, 너 이 놈이 새끼 베 안네 잇일 때도 아방 어멍 살림 갈라신디, 어멍 베 베낏디 나오라도 불효자식이여.

경 동해와당 쇠철이 아들 불러다가 무쇠설칵을 짱 벨방 산콧들로 벨방으로 띠와부난 강남천자국더레 가단 요왕황제국에 들어간거라. 겐 이런 큰 낭 무에낭 상가지에 걸어지난 들물살에도 찰랑 썰물살에도 찰랑 왕강싱강 왕강싱강 소리 나난

황제국 대감님이 또, 세 성제를 데령 잇일 때난, "큰 년아 나가보라, 셋 년아 나가보라, 어떵 영 물갈라지는 소리가 왕강싱강 낤이냐?"

큰 년하고 셋 년이영 ᄒᆞ는 말이, “아바지 간 보난 개남잎은 헤뜩헤뜩 모시잎은 반들반들 산에 가믄 개남잎하고 모시잎이 햇빛에 보면 한들한들허여 경 그추룩 헤엿수다” 게믄, “족은 년 강 보라” 족은 년은 강 영 ᄇᆞ난 “그 들물살에 썰물살에 무쇠설칵이 왓다갓다 왓다갓닥 무쇠설칵 잇수다.”

“큰 년도 못내리쿠다. 셋 년도 못내리쿠다. 족은 년이 내리운거라. 이 무에낭을 빙 ᄒᆞ게 돌아가고 빙 ᄒᆞ게 돌아완. 이젠 무쇠설칵을 열젠 ᄒᆞ난 큰년 셋 년은 못 연거라.”

족은 년은 곱닥한 코젭이 버선 신고 꽃신 신엉 간 이 발로 샥 하게 밀으난 찰강 열언보난 사람이 앚앗거든 장수가.

넌 누게가 뒈겠느냐. 그때 태자가 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잘못 ᄀᆞᆯ앗당은 죽을로구나. 그래서 나는 강남천자국에 세변난리를 막은디, 막으레 가단 요왕황제국에 인사차 오랏덴 헷거든.

게믄 우리집 사위들라. 큰 년아 셋 년아 그 방에 가렌 ᄒᆞ난 눈도 아니 떤 ᄇᆞ렌거라. 족은 년한틴 가난 서른여덟 잇바디 이 이빨은 몇인 중 모르지만 이 이빨이 다 보일 정도로 웃음을 웃었다는 거라.

다 보일 정도로 웃음을 웃으난 부부간의 정 헤영 사난. 느진덕정하님이 밥을 헤영 가난 안먹언 니 무사 안먹엄이냐 ᄒᆞ난

나는 장수이기 때문에 밥도 동이, 술도 동이 모든 걸 다 헤사 먹넨 ᄒᆞ난

경험으로사 이 황제국에서 너 사위 하나 못멕이느냐

걱정하지 말앙 먹으라

경 동창고 서창고 남창고 열어도 황제국의 재산도 조반날이라. 그 장수를 동이로 헹 멕이젠 ᄒᆞ난 텅텅비난

“똘은 나민 놈이 집 산천이여 족은 년아 나고가라” 겐 강남천자국에 들어간거라.

옛날에는 그 나라에 전쟁이 잇이면은 제일 머리 큰 장수 목을 베어당 바쳣지않우과,

겐 열두머리 돋은 장군이옌 헤.

열두머리 돋은 장군을 목을 베연 천제님 전에 들어가난 남방국이옌 ᄒᆞᆫ건 제주도. 남방국에 들어강 공헌 땅을 촛앙 강 땅세 물세 받아먹으렌.

겐 이제 들어오는데 소섬 ‘진질깍’부터 들어와. 그디 ‘진질각’에 들으먼 불빛 세와두고. 또 종달리 ‘두문리’ 그 게맡, 그디 왕 불빛 세와두고 ‘지미봉’에 올라강 불빛 세와두고.

별방 상콧들로 올라간거라. 별방 상콧들로 올라 저 웃손당더레 ᄇᆞ레난 어멍이 ‘느진덕정하님’ ᄃᆞᆯ안 좁은 목에 앚안 바람이 스며드는 바람이 옛날 날래질할 때 불림질 할 때 골목에서 잘 해여. 높은 동산. 높은 동산에서 콩을 불렸이난 파뜩ᄒᆞ게 바람 한줄더레 쑥하게 부니까 퍼뜩ᄒᆞ난 눈에 콩깍지가 들엇거든.

느진덕정하님 상전님아 벨방 상콧드레 ᄇᆞ레봅서, 세 살적에 죽으라고 버린 애기가 살안 오랐우다.

예펜년 본 말랑 본 디, 들은말랑 들은 디 버리라. 후육노육 ᄒᆞ당보난 장수가 오랏거든.

어머님아 나 오랏수덴 ᄒᆞ난 무사 눈은 부변 앚입디가. “눈에 콩깍지 들엇저” 영 헤봅서.

부채를 ᄒᆞ영 파뜩파뜩 푸끄난 그 눈에 콩깍지가 나온거라. 그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방 어멍은 이디 좌정헙서.”

난 공헌 땅을 춪앙 가켄. 겐 공헌 땅을 춪앙간게 할로영산에 어승생 ‘당돌오름’ ‘도리앞벵디’ 절로 오름을 내려내려 오당보민 ‘칼손디’ ‘쌀손디’ 겐 김녕 지경동산은 이제 그 태왕사신기 했던 자리가 제일 높은디, 거기 와서 이 마을ᄃᆞ레 영 보니까 저 ‘고살미’가, 고살미가 이렇게 등돌아 앚아서.

마을을 저쪽으로 영. 아 고살미는 등을 젼 앚앗구나. 김녕ᄆᆞ을 자손들은 앞에선 좋은 말 행 돌아앚앙 공론하기 좋은 동네여. 겐 이제 글로 헹 내려오란 이 오름에 저기가 망동산 제일 높은 데가.

저 망동산에 앚안 김녕마을을 휘하게 둘러보니까, 마을 안은 게우잔잔. 조용하고. 이제 이 세경땅은 들어보니까 가을이 들어가니까 조들이 곡식이 노릇노릇 노릇노릇 단풍지멍 익었거든. 아 이 마을에 좌정헐 만ᄒᆞ다. 저디서 낮에는 촌이슬. 밤에는 홍이슬, 낮에도 이슬이 내리고 밤에도 이슬이 내려.

경 헹 앚아도 어느 누게 술 한잔 주는 ᄌᆞ슨 엇이니까 이제는 이 마을에 숭엄을 주뒈, 어떤 숭엄을 주느냐면 요왕국에다 편지를 보내 요왕황제국 처부모님아 이 천하대촌 마을만 비바람을 불게 헤줍서.

갑자기 이 바당으로 비구름이 올라오니까 다른 마을보단 이 마을만 엄청 비가. 다른 마을은 날이 좋아서 동복, 월정은 농사를 걷어들이는데 이 마을은 농사를 걷어들이질 못해, 그래서 그 옛날도 조으니 으뜨니 기지니 찰방이니 했던 그 사람들 이름이 마을 면장 어른덜, 어른덜 이젠

다 어른아이 엇이 일뤳뒤들을 일뤠동안 헤먹엇덴.

일뤠상뒤 매난 그 현칩이 할망도 심방인거 같애. 현칩이 할망 ᄀᆞᆫ는 말이 저 망동산 더레 봅서 장수가 오랏수덴. 경 헤영 어디서 온 장수 겐 ᄒᆞ난. 나는 아방국은 소천국 어멍국은 백주. 나는 일곱째 아들 태잔데 이 마을은 땅도 나땅 물도 나물 자손도 나 자손이여.

경 ᄒᆞ민 이 비를 그차줍센 헷거든. 겐 다시 편지 띄우니까 요왕에서 이젠 날이 좋은거라 날이 좋으난, 시월 음력 시월. 제일 늦게 구월 시월이 다 구물언.

겐 고장수를 다 촐려단 논거라, 촐려다 놩 이제랑 좌정할 디를 좌정협서. 안빌레는 강 보니까 거기도 인발세발하고 식닥빌레옌 한 디도 강 보니까 너븐 빌렌디 인발세발하고, 어딜가리 남당 아레 내리니까 남당 알은 그 바닷간디 개오줌내가 탕천헷저.

요 아레 '궤네기' 알궤네기에 굴이 이서 거기는 안뒈켜, 경 이디 왕 이디들어가니까 요기가 지금 이렇게 뒛는데, 이 나무가 옛날엔 엇엇거든 겐 밤이 되니까 별이 솜솜 달이 솜솜 보젱ᄒᆞ민 이 안네서. 별이 솜솜 달이 솜솜 봐전. 절로 셋ㅂ름도 의지뒈고 하니바람도 의지뒈고 나 일로 좌정ᄒᆞ켜.

뭣을 먹읍네까. 나는 장수기 때문에 항밧갈쉐 먹은다.

게민 좋수다. 항밧갈쉐를 하나 갖다가 돌팩에 돔베에 이렇게 놘. 이젠 항밧갈쉐를 바치난 다 사람들이 애기를 부잣집은 좋쿠다마는 가난한 집은 어떵ᄒᆞᆸ니까.

게민 통새에 남도구리 아레 옛날은 도구리도 나무로 만든 도구리라. 남도구리 아레 물주고 수금 주엉. 항밧갈쉐만이만 그건 창지만 내여뒁 경 핸 상을 바치렌 헨.

경 문씨하르바님이 와근에 여기다 돌을 줏어다가 돌돔베 돌저청을 멘들고, 가을이 들면 새비낭(찔레나무) 빨갛게 새비 열매 열어. 그 새비낭을 꺾어다 고쟁이를 적꼬지를 멘들아. 겐 거기다 놩 이제 여기서 돗제를 헤엿인디 돗제를 하다보니까, 저기 사람들이 죽고 올라가고 죽고 올라가고 하다보민 저기 멘날 이 길이 영장이 올라가니까 놀랑내가 자꾸 들어오는거라. 놀랑내가 들어와가고,

무자 기축년 4·3사건이 되니까 산에 사람 못올라오게 뒈난 문전에서 헤는 법. 그래서 이 돗제신은 하나의 당신일 뿐, 뭐 이게 옛날에 제주도 탐라문화제 할 때 한 3, 40년 전에 50년 탐라문화제가 한 50년 뭤우다.

그때에 '영천이목사' 사굴에 영천이목사를 재현해가면서 돼지머리를 올리고 김녕은 돗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처녀 대신 돗제를 하는 중 아는거라. 겐 이건 전혀 아니.

김녕은 그냥 송당의 일곱체 아들로서 단지 편식 편식 왜 우리 애기가 키우당 보민 돼지고기 못 먹는 애기, 돼지고기 잘 먹는 애기 겐 이 애기는 일도 잘하고 고기도 하영 먹곡 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 일곱체 아들이 궤네기태자가 돼지고기를 먹어, 게민 돼지고기를 먹으면 이 신이 어떻게 앚앗냐면 땅세물세를 하니까 이 김녕땅에 오면 돗제를 헤야뒈.

이 땅에 살면. 이 밧디 농사를 지어서 막 잘 뒈면 아이고 농사 잘 뒛수다 하고, 요즘은 딸 아들 평등하지만 옛날엔 아들이 아주 귀했을 때 아들 나면 아이고 조상님 아들 낫수다 ᄒᆞ여근에 돗제하고.

요즘은 대학시험 아무렇게나 보지예. 옛날에는 대학시험을 아주 크게 생각ᄒᆞ영 이 아이들 대학 가려고 해도 돗제를 했어요 게 이 돗제신. 이 돗제신은 어떻든간에 김녕 마을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절대 다른 무서운 신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 또 바다에 가면은 이제 '한개하르방' '한개할망' 또 당이 잇어. 그거는 배가 나가는 사람들이 배에는 옛날에는 터웃배 풍선배인디 나가면 사고를 만나니까 그 '한개축항'에 이렇게 '개하르방', '개할망'을 모셔서 '세개하르방' 하고 양쪽 포구에다 그렇게는 그런 신당이 있고, 저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용머리 영등물 '서문하르방당' 파평윤칩이서. 그 파평윤칩이서 이제 하는 당신인데 이 당신은 어떤 게 특징이냐 하면 아기 없는 사람들 거기 가서 불공드리면 애기를 낳아. 진짜 내가 불공드려서 애기 난 애기도 한 5명 이상 뒈어. 그런 신이죠.

겐 이제 지금은 이제 여기가 옛날 무자 기축년에 여기서 하다가, 이젠 집에서 했는데 이젠 여기가 올 수가 엇어. 그리고 옛날에 팔십년도에 미신파탄이렌 헨, 막 굿 막을 때잖아, 양 굿 막을 때는 여기 와서 굿도 헤낫수다.

굿도 하다가 집이서 하니까 집이서가 좋지 여긴 못하잖아양, 또 굴이고. 그래서 여기 굴은 그 이후에는 막아분거.

여기서는 안하고 집에서. 집에서 할 때도 병풍도 안치고 상도 안 펴고 문전에. 들어오는 입구 문전에. 일문전에서 돗제를 합니다. 공동체가 아니고 개인. 아 이젠 마을에 돗제 행사를 해 공동체로. 나가 하는데 그건 작년까지 헷인디 9, 10월에.

옛날에 어떤 에피소드도 있냐면 돗제고기는예. 돗제하르방이 먹기 전엔 먹으면 안뒈. 먹으면 꼭 아프든가 이 또 돗제를 헤야 뒈여.

11. 구좌읍 월정리 본향당





〈사진 69〉 구좌읍 월정리 본향당

구좌읍 월정리 본향당은 월정리 '서당머체' 지경에 있다. 산신인 '신산국삼대왕할아버지'와 '서당국할머님'이 좌정해 있다.

매인 심방인 김돌산(여, 64)이 20년간 당을 책임져서 의례를 진행해왔다. 그녀는 본래 월정리 태생으로 어머니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불도할머니'였고, 아버지는 주역 등의 책을 보고, 지역민들에게 집안의 대소사의 일자를 알려주는 '책불'이었다고 한다. 여섯 형제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돌산도 아홉 번 묻으러 갔다가 열 번째로 다시 살아난 '태역둥이'였다.

이를 안타까워 한 친어머니는 돌산을 구좌읍 김녕리 '왕절어멍'에게 보내고, 동네 심방을 수양어머니로 삼아 살리다가 구좌읍 한동리 강옥녀의 수양딸로 삼았다. 그녀는 현

재 큰굿 전수생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많은 무속의례를 집전하고 있다. 월정본향당에서는 산신인 '신산국삼대왕할아버지' 제일은 1월 14일(정월제), 7월 14일(백중대제일)로 이 마을의 단골들이 100여명 참석한다고 한다. '일곱애기단마실청서당국할머니'를 위한 제일은 1월 8일, 1월 18일, 1월 28(돗제)일인데, 상웨떡을 하고, 10월 8일, 10월 18일, 10월 28일에는 오메기떡을 해서 돼지를 희생으로 재물을 바친다.

황토고을 황정승따님애기는 부모 눈에 거슬려, 무쇠설캅에 담긴 채 바다로 던져진다. 물 위를 연 삼년 떠다니다가 곽지 '듬북서근개'로 들어섰는데, 제주시, 화북 넘어 월정으로 들어서서 '땅동산'으로 올라갔으나, 마침 사람이 죽어 행상하는 소리가 들려서 '서당머체'에 가 좌정하게 된다.

과거에는 혼례시 돼지고기로 의례를 치렀는데, 김이 나는 고기를 보고 열두흉험을 불러오게 되었다. 자손들이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바친 것을 먹자, 몸에서 냄새가 나서 부부간에 물과 땅을 가르자고 했다.

월정사람들은 할머니에게 돼지를 바치면 농사도 잘되고, 아이들도 편안하게 되고, 돈도 잘 번다고 여겼다. 서당황토부인할머니 제일은 음력 6월 8일, 10월 8일, 18일, 28일이고, 할아버지 제일은 음력 1월 14일, 7월 14일, 7월 15일이다.

자료 1 황토고을 황정승따님애기[89)]

김씨 세심방이라고 그 분 어른이 아주 큰 심방이라낫수다게, 큰 심방이라나신디, 그 어른이 김순여라. 김순여 어른이, 돌산아 이거 잘 들어놧당 이 낭중에 느가 이디 뎅길 수도 잇이난 잘 들어놧당 하라.

게난 게민 알앗수다 ᄒᆞ민 우린 그냥 앚앙 이추룩 ᄀᆞᆯ아주는게 아니고 그 본향, 본향 ᄒᆞᆯ 때 이

89) 월정본향당 매인심방 김돌산(2017.07.25)

제 앚앙 들어야뒈여. 본향ᄒᆞᆯ 때 앚앙 드난.

황토고을 황정승따님애기주. 원래 황토고을 황정승따님애긴디 아방눈에 골리나고 어멍눈에 싯지나난, 이젠 못된 일을 하고 말썽꾸러기 짓을 하면 죽여불거나 경 아니면 무쇠설캅 짱 바당드레 띠와불기가 일쑤엿나봐예.

거는 아무도 아버지는 과한 성격이고 어머니는 또 애기 낳고 키우고 ᄒᆞ난 아멩헤도 애기 상에 모음이라. 우리 앞에서 죽이는거보단 무쇠설캅 짱 동이 와당드레 바당드레 띠와불민 어떵ᄒᆞ느니 ᄒᆞ난, 황토고을 황정승따님애기가 이제 무쇠설캅에 짜내 이제 바당드레 띄와분거라 바당드레 띠와부난 물아래도 연삼 년, 물위에도 연삼 년 흥당망당 떠뎅기난 떠뎅기단 저 듬북 저 곽지 '듬북서근개'로 들어선. 그 무쇠설캅이. 듬북서근개로 드난 그 듬북서근개에서 그디서 개짐싱 냄새가 나고 아멩헤도 부정ᄒᆞ고 서정ᄒᆞ난 이딘 좌정ᄒᆞᆯ 만 못허덴. 이젠 제주시로 영 온거라. 차츰차츰 마을마을 제주시 넘어두고 화북 금돈지알 넘어두고 또 삼양 설가문개 알로. 이제 신촌 큰물머리 알로, 조천 세콧 알로, 또 함덕 서우봉 알로, 뒷개 북촌 넘어드난, 김녕 성세기. 성세기로 헤아젼, 이제 뒷난여가 잇우다. 뒷난여 뒷난여 넘고 보리수도 바당 넘어드난 한벼 한벼넘고 덜 달려오난 이만허민 좌정할만 하다.

영 헨 좌정헨, 영 살아가난 개고냉이들 뎅겨가난, 에고 이디 좌정할만 한디 투더럽덴 땅동산에 올라간거라. 아이고, 땅동산에 올라가난 울성도 좋고 장안도 좋고 이만하민 내가 좌정할만하덴헨 좌정하는디 살아가난 동네에서 영장이 난거라. 사람이 죽언.

사람이 죽으민 이제는 병원드레 가주마는 옛날에는 사람죽어가민 집에 모셔와근에 집에서 돌아가시게 임종을 하게시리 ᄒᆞ영 집에서 하거든마씸, 게난 행상을 하는거라. 어야어양 어기여차 행상소리가 나가난 부정허덴. 아 이거 부정헨 이제 좌정할 수가 없덴. 겐 어디가코 영 이제 보난 '서당머체' 이제 좌정한디. '서당머체' 강 보난 나무도 좋고 울성도 좋고 장안도 좋고, 큰 궤라. 둘러젼 예. 아 이만하민 여기가 좌정할만 하덴. 좌정할만 하댄 헨 사는디 신산국삼대왕, 그 할아버지영 부부간을 삼은거라. 부부간을 삼으난 할머니가 애기를 일곱난 셍이라. 할머니가 애기를 일곱 낳고 신산국삼대왕 할아버지는 산신이니까 산에 갓당 오는 새에, 할망은 궤기 먹구정헨. 궤기 먹구정 헨 입이 고픈거라. 입이 고프난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을 영 굽어보난 상단골 ᄌᆞ손들 잔치하젠 도새기 잡안 짐이 모락모락 낞이난 열두숭엄을 불러준거라. 세각시 세시방, 게난

이젠 잔치하믄 그만 설러두고 애기 이제 세각시가 죽을 ᄉᆞ경이 다 뒈는거라. 이디가 저디가 문점을 하난 서당국할망이 걸렷수다. 게민 어떵ᄒᆞ민 좋습니까

옛날은 그 세화리 장에 간 질구덕 졍 간, 옛날엔 걸엉 뎅겻수다게, 걸엉 뎅길때 질구덕 졍 강 도세기 한자리 사당, 도세기 두 개가 한자리라. 게민 하나는 서당국할마니 바치쿠덴 헤영 백근을 채웡 바치쿠덴 헨 귀를 끊어분거라. 귀 끊으민 서당국할망에 바치켄 헌 도세긴, 옛날 막 병이 많안 보리쌀이 막 많이 생겨낫덴 합디다게. 도세기 잡앙 보민, 고기 속에 보리쌀이 삐룩삐룩 나완예. 그 서당국할마니 바치켄 한 도세긴 일절 보리쌀을 안 궤여(고이여). 이 기냥은 하난 제값하고 하난 서당국할마니 바치켄 ᄒᆞᆫ건 절대 보리쌀 병이 들어도 보리쌀이 안 궤고 다른건 보리쌀이 궤곡. 다른 도세기. 경 헨 백근을 채웡 물도 한 점 안떨어지왕 돌수까지 이제 손톱발톱까지 다 솖앙 먹으난 먹은간 싱간 도세기 한 마리 전마리 다 먹고. 먹은간 싱간 하난 입다시련 저수지에 동산에 서당국할마님 굴 말앙도 베껫디 나오면 동산 아니꽈 동산에 영 왕보난 하르방이 왔이난 어떵헹 놀핏네(날핏내)가 나고 놀낭내(비릿내)가 나고 기끄렁 냄새가 나고 동경내가 낲이니. 아이고 하르방 말도 맙써, 나 저 하르방 어서부난 궤기 바싹하게 먹구졍 헨에 상단골 굽어보난 도세기 잡앙 짐이 모락모락 낲이난 숭엄을 불러줜, 나 백근을 줄줄이 채왕 상 받앗수덴. 경 ᄒᆞ난 아이고 여자가 도세기 먹단 한 말이 무신 말이옌.

땅 가르고 물 가르렌 겐디 부베간이라부난 땅 가르고 물 가르난 ᄇᆞ름알로 나고가는거라. 게난 할아버진 저 안네. 할머닌 요쪽에 바깟디주게. 게난 저 그추룩 헤근에 월정 사람들은 삼년일채 예 삼년일채 서당국 할마니신디 도세기 바치면 농사도 잘뒈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돈도 잘 벌게 하고 예. 경 헤근에 이제 이 돗제를 헤영은에 할머니는 유월 초여드레, 열여드레, 스물여드레. 할머니 제일은 유월. 또 시월 초여드레 열여드레 스무여드레 시월달 예. 경 헤근에 할머니 경헨 상을 받고. 상을 받는디 할머니 과실이영 드령 옛날 오메기떡 오메기떡 헨 ᄀᆞ실이엔 시월달은 ᄀᆞ실이엔 이 또 여름엔 유월엔 낼 모리(모레) 감수다마는 유월엔 빵떡 헹양 옛날엔 보리헤근엥밀 하곡 보리 헤영 상웨떡 헹 가낫수다게.

경 ᄒᆞ곡 할아버지 제일은 정월 열나흘, 칠월 열나흘, 백중대제일 십사일. 경 헨 예, 할아버지신디 갈 때는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허덴 헨 안뒈고. 할머니신디 갈땐 돼지고기 먹어도 부정헤영양 경 헌디 이젯 어른들은 ᄆᆞᆫ 부정하카부덴 돼지고기 먹으면 잘 안갑니다마는. 그추룩 헤근에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예.

할머니 제일은 혼 어떤 땐 이젠 옛날엔 막 많이 가낫수다마는 그 할아버지 제일에 다 가는 사람이 다 오는디 이제는 할머니 제일은 잘 안와. 한 열명 내지. 월정분들. 해녀들도 갑니다. 게난 옛날은 초여드레, 열여드레, 스무여드레 갓인디 이제는 사람들 잘 안가부난 초여드레하고 열여드레만 갑니다게. 유월 달에. 할아버지 제일은 칠월 양력 아니고 음력예. 음력으로.

할아버지 제일은 하여튼 한 100명에서 7~80명. 그 전엔 한 200명 가낫수다만은, 나 댕길 때도 한 200명, 180명, 이제 점점 사람이 다 돌아가셔부난 예 150명, 80명.

맡으건 디가 그 어른이 쉰세살에 돌아가시난에 한 십년. 예순 세 살, 한 20년 거의 뒌 거 닮다. 월정 예. 올해 63세(을미생), 55년생.

(지금은 뭘로 활동하고 잇수과?) 큰굿. 회원.

(큰굿 뭘로, 전수생으로?) 전수생은 아직은 안 올라가실거우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디 지금은 아직 이제사 해부난 원칙은 큰굿이 먼저 올라가야 뒈는디

나 여기 온 지 지금 3년. 저기 봉개에서 한 25년 살엇수다. 게난 거기 공원 들어부난

제언

이야기유산의 문화적 가치와 보전 방안

제언

이야기유산의 문화적 가치와 보전 방안

제주의 설화는 아름다운 자연만큼이나 소중한 것으로 제주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야기의 대상이며 상징물인 '신화지'나 '전설지'는 지역의 자연현상과 인문현상에 대한 이해의 대상이고, 여기에는 전승민의 자연관, 세계관, 인간관 등이 잘 내포되고 있다.

이야기는 증거물이 있을 때 진실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제주도의 풍수전설이나 자연전설 관련 '전설지'는 '생명의 땅'이라는 감성이 강한데 제주의 생태환경과 함께 땅의 의미를 더해, 명당으로서의 가치를 자원화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이야기유산인 전설지·신화지는 지속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물은 물리적인 보전이 필요하며, 또한 인물이 주로 활동하였다는 마을이나 관련 유적지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역사인물 전설인 경우에는 관련 이야기를 발굴하고 역사적인 기사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공적이나 업적을 기려서 마을이나 집안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야기유산에 대한 구술자료가 살아 구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제에 내포된 이야기의 특징을 살려내어 제주민의 생활사 구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집안이나 마을의 대표적인 이야기유산을 선정하여 종친회를 비롯한 후손이나 소재하는 전설지 마을주민들에게 그 가치를 인식시키고, 지속적인 전승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 콘텐츠용 지원 원천소재

전설이나 신화(본풀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제주의 언어로 전승되는 구비문학이면서 역사이자 철학이다. 이러한 유산 소재 마을의 전설이나 신화 전승지(傳承地)에 대한 보존이 시급하고, 문화자원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이야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용 지원 원천소재를 조사 발굴하며, 이야기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서 기획, 개발, 창작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이야기 산업진흥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90]

『문화산업진흥기본법』[91]은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의 원천으로 신화지나 전설지와 같은 이야기유산을 유형화하여 일정한 맥락 속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야기답게 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과 스토리텔링 마케팅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다.

곧 문화원형(원소스)의 스토리텔링으로 멀티유즈(무대공연, 축제, 방송, 영화, 음악, 인프라사업, 만화 에니메이션, 캐릭터, 광고, 이러닝, 출판 등)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90) 한국법제연구원(2015), 『이야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정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91) 문화산업진흥기본법(법률 제 12354호, 2014. 1. 28 제정, 2014. 7. 29 시행)

나. 생태관광 프로그램으로 활용

제주의 관광산업은 문화산업이 되어야 한다. 문화산업은 문화를 상품화한다는 의미보다는 새로운 문화의 실상을 세계인들에게 전함으로써 소통을 기할 수 있고, 자기 세계의 인식을 성찰하고 설명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생태관광이란 자연 문화 전승이 지니고 있는 생태계의 경이로움과 문화 속에서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움과 희소함을 매력으로 재미를 느끼게 하며, 이러한 관광으로 얻어진 소득이 주민들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구하는 형태다.

제주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올레관광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이를 활용하고, 신화지나 전설지와 같은 관련 유적과 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제주도 전역의 '이야기유산 들여다보기' 지도를 제작하여 제주를 알리고 스토리를 가미하여 이야기가 있는 올레길을 조성한다.

다. 살아있는 이야기 유산의 보전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제주도내 전설지나 신화지를 바탕으로 보전이 가능한데, 제주도내에 산재하는 이야기유산을 수집하여 기초 자료를 DB화하고 지속적으로 전승되도록 한다.

역사인물 전설인 경우는 후손이나 소재하는 전설지 마을 주민들에게 전설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마을 이야기유산 관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는다.

효·열·충에 대한 인물전설과 마을을 대표하는 인물은 집안과 지역에서만이 아닌 마을 공동체나 읍·면, 제주도의 상징적 인물로 삼도록 하며, 관련된 정려문이나 비석 등 증거물을 보존하여 교육적 자료로 삼는다.

이야기와 관련된 전설지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위하여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을 위한 장치로 이용하고, 특히 역사 문헌기사에 나온 효자나 열녀·의사(義士) 등은 정려문과 같은 의의가 있는 유산을 선정한다. 또한 문화전통이 살아있는 전설지를 바탕으로 전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꾼'을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후세 전승 및 교육자료로 삼는다. 신당, 신화, 매인심방, 굿 의례가 전승되는 신화지도 보전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멸실 위기에 처한 제주신화의 보전을 위해서는 신화 관련 문화재 정책을 시대에 맞게 검토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야기는 구술이라는 형식으로 전승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변용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과정에서 지역민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어서 이야기유산의 안내자는 지역민이 되어야 한다.

조상 본풀이 관련 신화지의 관리는 집안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조상(일월)신앙으로 활용하고, 살아있는 조상신에 대한 신앙처로서 지속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동아시아 비교 연구를 통한 제주신화의 위상 정립

현용준은 삼성신화나 제주무속신화는 동아시아 신화의 대표성을 지닌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신화 화소(Motif)와 관련된 지역의 신화를 정리하였다.

지중용출(地中湧出, 땅 속에서 솟아남)과 관련 신화는 구주(九州), 오키나와(宮古), 대만(臺灣), 인도네시아, 남중국 묘족(苗族) 등이 전하는 신화에 잘 남아 있으며, 상주표착(箱舟漂着, 상자에 담아 표착함) 모티프는 한국 남부, 오키나와(宮古), 대만(臺灣), 고사족(高砂族), 대마도, 필리핀 등의 신화에 걸쳐있다. 상자와 관련 대상물은 곽(槨), 목함(木函), 석함(石函), 배, 함지박, 뗏목으로 나온다.

삼신인 신분서열화소(三神人, 身分序列話素)는 장차삼(長次三)의 서열을 통해 양고부(良高夫) 또는 고양부(高梁夫)로 기록되고 있는데, 제주신화의 삼신여(三神女)와 혼인 후 정착하고, 돌을 쏘아 상중하를 정하며 군(君), 신(臣), 민(民)이 되었다고 기록된

『영주지』에서 장남은 국주, 차남은 제후, 삼남은 백성에 있다고 하는 오키나와 류큐왕조의 창세신화와 비교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신화 형성과 관련된 지중용출(地中湧出), 상주포착(箱舟漂着), 신분서열(身分序列) 등은 상징적 의미가 큰데, 이와 관련된 동아시아 신화들과의 네트워크(섬문화 신화축제 등)를 통해 제주신화의 가치를 대내외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혼인지(婚姻址)와 오곡의 종자와 가축을 가지고 온 삼공주를 맞이했던 연혼포(延婚浦) 등의 신화 유적지를 연결해서 탐라왕국의 발상지로서 신화자원을 활용하고, 제주도의 당신화 중 제주도 태생의 남신(男神)이 동해용왕국의 말여(末女)와 결혼하는 삼성신화 계열의 세계구조를 정리하여 문화적 상징성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92]

한편 조동일은 세계신화의 지사학(地史學)[93]적 관점에서 제주신화의 글로벌 가치 인정을 제안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의 이야기 유산의 자료수집을 통한 집대성과 그 가치 발굴을 위한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92) 현용준(1992), "한국신화에서 본 세계구조",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345~357쪽.

93) 조동일(2016), 『신화의 보물섬, 제주, 제주 신화의 성격과 세계적 위상』, 제주학연구센터, 제5회 제주학 국제학술심포지엄, 15~21쪽.

참고문헌

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南溟小乘》
《南槎錄》
《耽羅志》
《濟州邑誌》
《耽羅誌草本》
《增補 耽羅誌》
《星主高氏家傳》(《東文選》 권101 수록)
《蓮榜錄》
《及第先生案》
《耽羅人物考》
《孝烈錄》

단행본

강용삼, 1980, 『濟州의 人脈』, 태광출판사.
강정식, 2015,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민속원.
고대경, 1997, 『神들의 고향』, 중명.

고씨종문회총본부 (재)종묘문화재단, 2014, 『耽羅星主』 제16호.
고씨중앙종문회, 2003, 『高氏大觀』, 뿌리문화사.
고창석, 2007, 『제주교육박물관 자료 (3) 탐라지초본 (춘·하) (상)』, 제주교육박물관.
고창석, 2008, 『제주교육박물관 자료 (4) 탐라지초본 (추·동) (하)』, 제주교육박물관.
고창석, 2011, 『譯解 향토문화교육자료집·효열록·대정군군병도안 보초등록』, 제주교육박물관.
고창석, 2013, 『譯解 耽羅賓興錄』, 제주교육박물관.
고혜경, 2010, 『태초에 할망이 있었다』, 한겨레출판.
김상헌 저·홍기표 역주, 2008, 『남사록 역주(상)』, 제주문화원.
김석익 저·오문복·오창림·허선휴·임병건·임용진·김새미오 역, 2011, 『제주속의 탐라심재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김익수, 2008, 〈남원읍의 비석〉,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김찬흡 편저, 2000,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김찬흡, 2002,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
김찬흡, 2009, 『남사록 역주(하)』, 제주문화원.
김태준·김승호, 1994, 『우리역사인물전승』, 집문당.
문무병, 1998,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제주칠머리당굿보존회.
문무병, 2008,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박종성, 1999,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사)헌마공신김만일기념사업회, 2015, 『그림을 곁들인 헌마공신 김만일 평전』,
서대석, 2001,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신연우, 2016, 『제주도 서사무가 초공본풀이의 신화성과 문학성』, 민속원.
오문복, 2005, 『정의현지』, 남제주문화원.
오문복, 2010, 〈성산읍의 비석〉, 『성산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이수자, 2004,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이숙인, 2005,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상』, 여이연.
이재두, 2003, 『조상의 얼』, 열림문화 .

이정훈, 2016, “이야기 보존과 진흥을 위한 법적 대안 마련을 위한 고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신법)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40권, 인문콘텐츠학회.
장주근, 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제주교육박물관, 1996, 『제주교육박물관 자료집 (1) 효열록』.
제주교육박물관, 2001, 『제8회 기획전 탐라의 효자·열녀전』(자료집).
제주교육박물관, 2016, 『매계선생문집』(국역매계선생문집) .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9,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1,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보고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5, 『서순실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제주도, 1988, 『濟州先賢誌』, 濟州道
제주문화원, 2002, 『濟州史人名事典』, 和信文庫.
제주문화원, 2011, 『제주전설집 1』.
제주학연구센터, 2016, 『신화의 보물섬 제주, 제주신화의 성격과 세계적 위상』.
조동일, 1980,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조동일, 1983,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조현설, 2003,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 문학과 지성사.
진주강씨어모장군공(휘우회)파 화수회, 2014, 『水姜事蹟』
최운식, 1991,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최원오, 2001, 『동아시아 비교서사시학』, 월인.
편저(김석익), 감수 오문복, 역주 홍기표·백상규·김새미오·손기범, 2015, 『역주 탐라기년』, 제주문화원.
허남춘 외, 2010,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허남춘, 2011,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현길언, 1981, 『제주도의 장수설화』, 홍성사.
현길언, 2015, 『제주설화와 주변부 사람들의 생존양식』, 태학사.
현용준 외, 1989, 『제주도 신굿』, 열화당.
현용준, 1980, 『탐라의 신화』, 평범사.
현용준, 1992,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현용준, 1996, 『제주도 전설』, 서문당.

논문

강소전, 2008,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과 신화적 의미」, 『탐라문화』 32, 탐라문화연구원.

강은해, 1990, 「한국신화와 여성주의 문학론」, 『한국학논집』 17, 계명대학교.

강정식, 1988,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강정식, 2002,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강정식, 2007, 「당굿의 세시의례적 성격」, 『한국무속학』 14, 한국무속학회.

강진옥, 1993, 「마고할미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 민속학회.

강진옥, 1995, 「무속신화와 일상의례를 통해서 본 여성의 종교성」, 『여성신학논집』 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성신학연구소.

강진옥, 1995, 「한국 민속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모양상 : 바람직한 여성상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27, 한국민속학회.

강진옥, 2005,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 : 〈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0, 한국구비문학회.

고광민, 1983, 「당본풀이에 나타난 葛藤과 對立 -松堂·細花·西歸堂 본풀이의 경우」, 『탐라문화』 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고은지, 1999, 「〈세경본풀이〉 여성 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의 특질」, 『한국민속학』 31, 민속학회.

권귀숙, 1996, 「제주 해녀의 신화와 실체: 조혜정 교수의 해녀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0, 한국사회학회.

권태효, 1999, 「제주도 김통정이야기의 당신화 및 전설로의 변용양상」, 『구비문학연구』 8, 한국구비문학회.

권태효, 1999, 「제주도 무속서사시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 -〈세경본풀이〉에 미친 〈송당계 본풀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권태효, 2011, 「제주도 〈서귀본향계 본풀이〉의 자료적 성격과 양상」, 『한국무속학』 22, 한국무속학회.

권태효, 2011,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신의 성격과 양상」, 『한국무속학』 23, 한국무속학회.

권혜숙, 1986, 「〈아기장수전설〉의 형성과 의미」, 『한국학논집』 13,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김규래, 2014, 「아기장수형 〈부대각〉 설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대숙, 1996, 「구비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 『구비문학연구』 3, 한국구비문학회.
김선희, 2008, 「〈세경본풀이〉 연구 -분석심리학적 접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화·현길언, 1980, 「제주설화를 통한 제주도 정신 고구 -당신본풀이와 인물(장사) 전설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논문집』 12, 제주대학교.
김영희, 1999, 「아기장수이야기의 전승력 연구 : 서사적 특성과 전승 의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일우, 2007, 「고려시대와 조선초기 제주도 지역의 행정단위 변천」, 『한국중세사연구』 23, 한국중세사학회.
김일우, 2008, 「고려·조선시대 외부세력의 제주진입과 제주여성」, 『한국사학보』 32, 고려사학회.
김재용, 2009, 「무속 농경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5,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김재형, 2011, 「조선시대 제주유배인의 실태분석과 특징」,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숙, 2000,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혜, 2011, 「조선시대 제주지역 열녀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진하, 2006, 「〈송당신화〉의 기원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29.
김진하, 2007, 「〈송당신화〉의 분화와 새로운 영웅 문곡성의 탄생」, 『탐라문화』 3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김헌선, 1997, 「한국구전서사시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4, 한국구비문학회.
김헌선, 2005, 「〈배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비교민속학』 28, 비교민속학회.
김헌선, 2005, 「제주도 당본풀이의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비교민속학』 29, 비교민속학회.
김헌선, 2010, 「태평양 신화의 구조적 지형학 소묘」, 『탐라문화』 3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김혜숙, 1992, 「가족의 성격을 통해 본 제주인의 의식구조: 여성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논문집』 34, 제주대학교.
김혜숙, 1993,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혼인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36, 제주대학교.
김화경, 1981, 「〈서귀포 본향당 본풀이〉의 구조분석」, 『구비문학』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화경, 1982, 「〈세경본풀이〉의 신화학적 고찰」, 『한국학보』 8.
문무병, 1984, 「제주도 굿의 연희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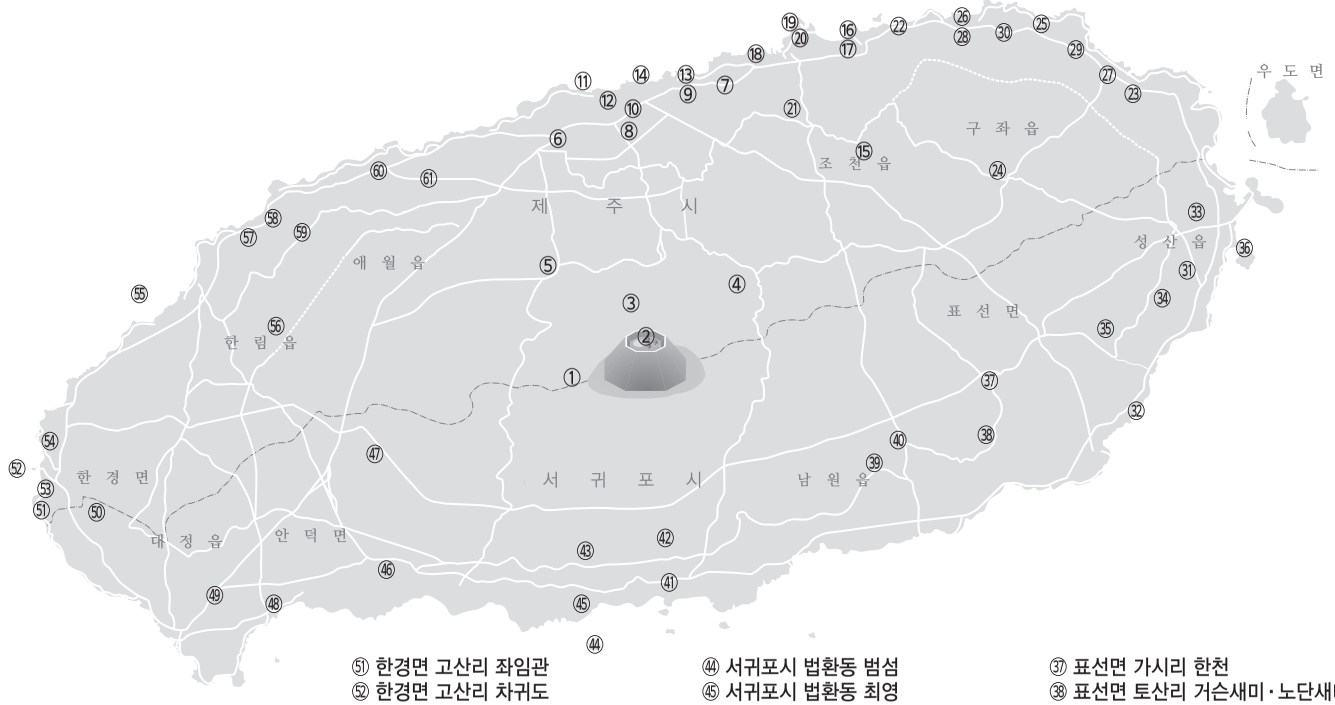
문무병, 1993,「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경신, 1986,「제주도 무속신화의 몇 가지 특징 :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국어국문학』96, 국어국문학회.
박진태, 2004,「중국 양축설화(梁祝說話)의 수용과 변용」,『중국희곡』9, 한국중국희곡학회.
신동흔, 1990,「아기장수설화와 진인출현설의 관계」,『고전문학연구』5, 한국고전문학연구회.
신동흔, 2013,「〈세경본풀이〉 서사와 삼세경 신직의 상관성 재론」,『비교민속학』51, 비교민속학회.
신태수, 2006,「〈세경본풀이〉의 세계관적 기저와 담론 구조」,『어문학』91, 한국어문학회.
신영대, 2006,「제주와 풍수전설」,『한라산의 구비전승·지명·풍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양민주, 2007,「무속신화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남장(男裝)의 기능과 의미 : 여성영웅 소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관악어문연구』3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양영자, 2004,「〈토산알당 한집 본풀이〉 연구」,『영주어문학회지』7, 영주어문학회.
염원희, 2010,「무속신화의 여신 수난과 신 직능의 상관성 연구」,『한국무속학』20, 한국무속학회.
오세정, 2010,「유화와 자청비를 통해 본 한국 농경신의 성격 : 남성 인물과의 대립체계를 중심으로」,『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오정미, 2006,「여성의 환상문학 〈세경본풀이〉」,『겨레어문학』37, 겨레어문학회.
윤교임, 1995,「여성영웅 신화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순희, 2010,「제주도 와산리 〈멩감제〉 연구」, 제주대학교 한국학 석사학위논문.
이경하, 1999,「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과 의미」,『한국구비문학연구』9, 한국구비문학회.
이기욱, 1984,「도서와 도서민 : 마라도」,『제주도연구』1.
이소윤, 2015,「〈세경본풀이〉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이소윤, 2016,「제주도서사무가 〈서귀포본향당 본풀이〉에 나타난 권력과 젠더의 향배 -신부 바꿔치기 화소를 중심으로-」,『탐라문화』54.
이수자, 1989,「무속신화 〈지장본풀이〉의 祭儀的 기능과 意義」,『이화어문논집』10, 이화여자대학교.
이수자, 1989,「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수자, 1990,「농경기원신화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이화어문논집』1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이수자, 1990,「제주도 큰굿의 구조적 원형 및 문화사적 位相」,『제주도연구』7, 제주학회.
이수자, 1993,「백중의 기원과 성격 :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한국

민속학』 25, 한국민속학회.
이현정, 2014,「제주도 서사무가 〈할망본풀이〉의 형성원리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혜화, 1983,『〈아기장수전설〉의 신고찰」,『한국민속학』 16, 민속학회.
임명숙, 2000,「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본 〈세경본풀이〉 연구」,『돈암어문학』 13, 돈암어문학회.
임재해, 1982,『전설과 역사」,『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장장식, 1984,『〈아기장수전설〉의 의미와 기능」,『국제어문』 5, 국제어문학연구회.
장장식, 1986,「전설의 비극성과 상상력」,『한국민속학』 19, 한국민속학회.
전경수, 1994,「을나신화의 문화전통과 탈전통」,『탐라문화』 1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정규복, 1979,「〈梁山伯傳〉 攷」,『중국연구』 4,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정인혁, 2008,「〈세경본풀이〉의 세계관 재고」,『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정진희, 1999,「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진희, 2002,「제주 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정진희, 2006,「조선초 제주 〈삼성신화〉의 문자화 양상과 그 의미」,『고전문학연구』 30, 한국고전문학회.
정진희, 2009,「제주도와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신화에 보이는 입도녀·토착남 화소의 비교 고찰」,『구비문학연구』 28, 한국구비문학회.
정진희, 2010,「제주 무가 〈세경본풀이〉의 이본 대비」,『제253차 정례 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고전문학회.
정진희, 2010,「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의」,『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정진희, 2013,「풍농(豐農)의 원리 : 〈세경본풀이〉 서사의 신화적 의미」,『국문학연구』 28.
조동일, 1978,「신화의 유산과 그 변모과정」,『우리문학과의 만남』, 홍성사.
조동일, 2016,『신화의 보물섬, 제주, 제주 신화의 성격과 세계적 위상』, 제주학연구센터, 제5회 제주학 국제학술심포지엄.
조성윤·박찬식, 1998,「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탐라문화』 1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조현설, 1999,「웅녀·유화의 행방과 사회적 차별의 체계」,『구비문학연구』 9, 한국구비문학회.
조현설, 2009,「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조현설, 2011,「제주 여신신화의 변형체계와 그 의미 : 일반신 본풀이를 중심으로」,『제주도연구』 36, 제주학회.
조현희, 1989,「〈세경본풀이〉 연구 : 양산백전과의 비교를 통하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영숙, 2002,「〈세경본풀이〉의 구조와 문학적 의미」,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원오, 1997,「〈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 29, 한국민속학회.
최원오, 2004,「한국 구비서사시에 나타난 민속적 사실, 그 상상력의 층위와 지점」,『구비문학연구』 19집, 한국구비문학회.
최원오, 2007,「곡물 및 농경 관련 신화에 나타난 성적 우위의 양상과 그 의미 : 〈주몽신화〉, 〈세경본풀이〉, 〈목도령형 홍수신화〉를 중심으로」,『한중인문학연구』 19, 한중인문학회.
최원오, 2013,「제주도와 오키나와 창세신화의 중심서사와 주변서사」,『비교문학』 59, 한국비교문학회.
최원오, 2017,「'기술적 특이점'의 관점에서 본 신화적 상상력과 그 지향점 : 동물적 상상력에서 식물적 상상력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영주어문』 35, 영주어문학회.
한진오, 2009,「〈지장본풀이〉에 담긴 수수께끼와 연행방식 고찰」,『탐라문화』 3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한창훈, 1998,「제주도 무가에 형상화 된 여성신의 성격」,『제주도연구』 15, 제주학회.
허남춘, 1994,「〈三姓神話〉의 神話學的 考察」,『탐라문화』 1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허남춘, 2008,「제주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국어국문학』 148, 국어국문학회.
허남춘, 2016,「〈서귀본향당 본풀이〉의 특징과 의의」,『고전문학연구』 49, 한국고전문학회.
허　춘, 1983,「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이형상 목사의 신당 철폐에 대한 설화적 인식」,『탐라문화』 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허　춘, 1995,「설화와 제주문학」,『탐라문화』 1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허　춘, 1996,「설화에 나타난 제주여성 고찰」,『탐라문화』 1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허　춘, 1999,「제주설화의 특성 연구」,『제주도연구』 16, 제주학회.
현길언·김영화, 1980,「제주도 정신 고구-당신본풀이 인물(장사) 전설을 중심으로」,『논문집(인문학편)』 12, 제주대학교.
현길언, 1980,「제주설화를 통해 본 제주 정신 고구」,『제주대논문집』 12.
현길언, 1980,「〈제주오누이 장사〉 전설 -제주인물전설의 의미-」,『탐라문화』 창간호.
현승환, 2006,「제주도 신화와 공동체 그 현대적 변용양상」,『구비문학연구』 22, 한국구비문학회.

제주이야기유산 들여다보기

① 한라산 영실기암
② 한라산 백록담
③ 한라산 탐라계곡
④ 한라산 물장오리
⑤ 한라산 아흔아홉골
⑥ 제주시 노형동 변세청
⑦ 제주시 도련동 이계징
⑧ 제주시 아라동 고조기
⑨ 제주시 화북동 양유성
⑩ 제주시 도남동 족두리석
⑪ 제주시 용담동 용두암
⑫ 제주시 이도일동 삼성혈
⑬ 제주시 화북일동 삼사석비
⑭ 제주시 건입동 제주칠머리당
⑮ 조천읍 와산리 불돗당
⑯ 조천읍 함덕리 강영
⑰ 조천읍 함덕리 기건
⑱ 조천읍 신촌리 이한우
⑲ 조천읍 조천리 엉장매코지
⑳ 조천읍 조천리 김시우
㉑ 조천읍 신흥리 본향당
㉒ 구좌읍 동복리 본향당
㉓ 구좌읍 세화리 본향당
㉔ 구좌읍 송당 본향당
㉕ 구좌읍 월정리 본향당
㉖ 구좌읍 김녕리 궤네깃당
㉗ 구좌읍 평대리 부대각
㉘ 구좌읍 김녕리 김칭·박명복
㉙ 구좌읍 한동리 좌자이
㉚ 구좌읍 김녕리 서련
㉛ 성산읍 온평리 혼인지
㉜ 성산읍 신천리 현씨일월당
㉝ 성산읍 고성리 홍달한
㉞ 성산읍 난산리 오흥태
㉟ 성산읍 삼달리 강성익
㊱ 성산읍 고성리 등경돌과 섭지코지



㊲ 표선면 가시리 한천
㊳ 표선면 토산리 거슨새미·노단새미
㊴ 남원읍 한남리 정씨
㊵ 남원읍 의귀리 김만일
㊶ 서귀포시 서귀본향당
㊷ 서귀포시 서홍동 지장새미
㊸ 서귀포시 서호동 고근산
㊹ 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㊺ 서귀포시 법환동 최영
㊻ 안덕면 창천리 강위빙
㊼ 안덕면 감산리 병악
㊽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
㊾ 대정읍 보성리 오영관
㊿ 대정읍 신도리 변경붕
(51) 한경면 고산리 좌임관
(52)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53)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
(54) 한경면 용수리 절부암
(55) 한림읍 협재리 비양도
(56) 한림읍 명월리 진국태
(57) 한림읍 귀덕리 문영후
(58) 애월읍 곽지리 김천덕
(59) 애월읍 납읍리 김용징
(60) 애월읍 신엄리 박계곤
(61) 애월읍 고성리 김통정

찾아보기

ㄱ

가물개 142
가시리 설오름 방묘 78
갈옷 203
감나무 203
감목관 181
감여술 142
감찰지방관 240
강남천자국 239, 240, 282, 292
강복녀 273
강성익 68
강영 91
강위빙 202
거북바위 252
거슨새미 201
계성사 102
고근산 212
고사 274
고산국 246, 247
고산리 199
고살미 296
고성리 27
고소락 13, 28, 30
고씨삼형제매안소비 231
고여림 165
고을나 232, 233
고의왕 235
고장남밧 264, 266
고조기 120
고종달 195, 196
고홍진 140, 141
골루기오름 202
공싯상 259
관음보 172
광양왕 200
광평 143
광해군 183
구비문학 229

군항포 165
굴묵밧할망 268
권선징악 195
궤눼기 291
궤눼기신 291
궤눼깃당 281, 291
귀덕리 239
금대명 118
금상님 272, 277
금상한집 279
기건 93, 128
기대승 129
기송사 104
기와 193
기우제 219, 225
기정진 104
김녕사굴 191
김대명 187
김만일 181
김만희 93
김명헌 136
김방경 164
김수 165
김시우 116
김용징 98
김윤 42
김정 231
김정희 114
김진용 141
김천덕 50
김칭 45
김통정 161, 162, 210, 211
꼬부랑나무 197, 201

ㄴ

난산리 54
날개 21
날개달린 아기장수 11, 14
남당하르방 240
남당할망 240
남명소승 50
ᄂᆞ모리일뤠한집 291
노단새미 201
노모리일뤠한집 293
누러벵듸 151
느진덕정하님 292, 296

ㄷ

다랑쉬 38
다랑쉬오름 36, 208
단산 21
단적국 234
달로화지 169
당돌오름 296
당오름 264, 265
대마도 311
대만 311
도내 231
도륙합보첩 142
도리앞벵디 296
도유대연헌 100
독도 180
돗제 291, 292, 297
동구랑착 294
동홍리 247
돼지 292
듬북서근개 300
등경돌 210, 211
따비 136

ㅁ

마고(馬古)리물 166
마불림제 272
만취 119
망부 18
망사비 18
매 200
매계 112
매계문집 113
멍동소천국 273, 275, 276
멸치젓 172
명사 13
명월만호 17
명월포 165
명환 13
모흥굴 234
모흥혈 232, 233
목마장 170
목인배 102, 113
목호의 난 161, 170
몽고 170
묘족 311
무당 192

무속의례 229
무형문화유산 239, 310
무환자 167
문사 13
문영후 140, 146
문전제 279
문전철갈이 274, 279
문필봉 143
문하시중평장사 120
물장오리 208, 218, 219
물징거 196
민담 210, 229

ㅂ

박계곤 13, 27, 28, 30
박명복 45, 46
박씨 볼레낭할망 243
박씨 볼레낭할망당 242
박효자전 31
반드기왓(밭) 181
방귀찰방 22
백록 214
백록담 216
백주 291
백주또 247, 281, 292
백주아기씨 272, 273, 275
백중제 267, 281
뱀굴 192, 194
범섬 170, 212
베릿가름 96
벤줄레 136
벤지시 136
벽랑국 233
변경붕 135
변만경 135
변성우 69
변세청 95
변안열 95
병악 202
ᄇᆞ름웃도 246, 272
복덕개 240
본풀이 229
본향당 143
봉소동 93
부대각 16
부시흥 16

부을나 232, 233
부의왕 235
불굴가 95
불도신 263
불도할마니 267, 299
불돗당 263
불돗제 263
붉은오름 165
비양도 221

ㅅ

사복공 25
사수코지 192
사절명사 140
산마목장 190
산마장 184
산방산 217
산성효자로 36
산신 200, 267, 272
산신놀이 267
삼공주 312
삼달 68
삼별초 161, 162
삼사석 231
삼사석비 231
삼성사 237
삼성신 235
삼성의원 159
삼성전 231
삼성춘계대제 122
삼성혈 230
삼성혈비 230, 232
삼승할머니 263
삼신여 311
삼신인 311
삼신할머니 244
삼정문 13
삼천재 112
상도사 93
상여하르방 268
상주표착 311
새별오름 165
새통물머리 266
생태관광 309
서당머체 300, 301
서련 161, 191, 192

서문하르방당 298
서순실 291
서재한공유허비 87
서홍리 247
석가을비 180
석곡리보개 52
석질리필사 172
설문대하르방 211
설문대할망 206, 207, 212, 213, 215, 218
설화 229
섭지코지 210, 211
성균관 102, 142
성세기한집 291, 293
성주 231
성주고씨가전 234
세명뒤할망 207
소두산 142, 147
소로소천국 247
소섬 208
소수산봉 36
소천국 273, 291
송당본향당굿 281
수데기 272
수월봉 224
스토리텔링 308
시만국대제일 281
시만국제일 267
시왕맞이 269, 270
신과세제 281
신산국삼대왕 301
신엄리 27
신재우 13, 49
신증동국여지승람 52
신화 229
신화지 229, 307
신흥본향당 242
심낙수 29, 30, 55, 67
심성희 38
씨름 22

ㅇ

아기업개 164
아기장수 13
아흔아홉계곡 214
아흔아홉골 220

안병택 113
안사인 254
알궤뉘기 292
암행어사 31
약마희 238
약마희놀이 240
양보성의 터 151
양유성 140, 149
양을나 232, 233
양의왕 235
어승마 190
엉장매코지 209
여의주 157
역사인물 161
역사전설 11
연등 239
연혼포 237, 312
열녀 박씨 29
열녀(열부) 13
열녀고씨 49
열녀전 49
영등대왕 240
영등대제일 272
영등신 238
영등제 281
영등환송제 239
영등환영제 239
영산비 225
영실기암 215
영주지 233, 312
영천이목사 297
오뉘힘내기 13
오름 208
오백나한 215
오백장군 215
오봉이군락 294
오봉이굴왓 282, 284, 291
오봉조 69
오서신 150, 152
오영관 20
오의사 54
오찰방 20
오키나와 311
오흥태 30, 54, 65
옥황상제 216, 217, 263
옥황상제 말젯뚤아기 264
올레관광 309
와산리 263

왕자 231
왕후지지 15
왕후지지의 땅 195
외눈박이 섬 240
외눈배기섬 239
요왕부인 240
요왕황제국 292
용두암 222
용머리 198
용연 208
용왕국 292
월계 153
월라봉 143
유네스코 239
유형원 141
육간제비 257
은진미륵 265
의귀리 182
의사오공정려기 65
이계징 103
이무기 193
이미 93
이수동 232
이야기 307
이야기꾼 310
이야기유산 307
이용옥 263
이원진 141
이월상씨헌백치부 146
이응호 55
이재수 70
이한우 112
이한진 112
인물전설 161
인성리 22
일곱애기단마실청서당국할머니 300
일본국 232, 234
일월조상 256
일출봉 211
임서재 26
임제 50
입도조 13

ㅈ

자연전설 11, 205
장군대좌형 15
장군석 17
장밧장 252
장사 11
장수물 164, 167
재궁(齋宮)동산 122
전설 229
전설지 13, 307
절부암 13, 47, 49
정려기 28
정려문 13
정려비 36
정씨 52
정의록 62
정의서당 55
제석불도 267
제주사현 93
제주신화 310, 311
제주전설 11
제주칠머리당 240
조동일 312
조상 본풀이 311
조인납 104
조천서원 93
족두리석 206, 213
종달포 196
종신당 167
좌가장 159
좌구명 158
좌임관 158, 159
좌자이 158
지사학 312
지산국 246
지장새미 197
지장샘 181
지중용출 311
진국태 140, 153
진좌수 153
진통정 164

ㅊ

차귀도 199, 200
차귀섬 215
창고천 202
창천리 202
책불 299
천의 13
천자또 272, 273
천자하르바님 273
천지창조 229
초고도보개 180
초고독불화 172
초제탄 104
촉죽전 22
최영 161, 170, 172, 180
최익현 87
추선재 97
추자나무 172
추자도 172
충신 13

ㅋ

콘텐츠 308
큰 심방 259
큰당한집 291
큰도안전큰도부인 293

ㅌ

탐라 230
탐라계곡 216, 217
탐라도 186
탐라빈흥록 137
탐라세계록 142
탐라왕국세계보 142
탐라원 122
탐라지 141
탐라현 232
태암감당 167
토산리 201
토산일뤠당 281

ㅍ

포제 245
풍수전설 11, 142, 195
풍수지리 15
필리핀 311

ㅎ

하치 180
한개하르방 298
한개할망 298
한라산 214
한응호 53
한천 78, 93
할로산또 267
함박이굴 96
항파두리 164
항파두성 165
해녀 128, 221, 245
해신선왕 240
해신제 245
해외문견록 193
행기물 197
허남춘 229
헌마공신 183
헌마공신김만일기념사업회 183
헌수단 68, 77
헹기물 201
현길언 13
현씨아기씨 257, 258
현씨일월당 256
현치적 142
호도 180
호종단 11, 181, 195, 196, 197, 199, 200, 201
혼인지 237, 312
홍달한 13, 34, 43
홍리물 208
홍효자 34, 43
화북포 165
황날 237
황루(노)알 237
황정승따님애기 300
황토고을 황정승따님애기 300
효자 13
흙붉은오름 167
흰죽 237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 33

제주의 이야기유산

The Myths and Legends in Jeju Island

연구책임 : 좌 혜 경(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발 행 인 : 김 동 전(제주연구원 원장)

발 행 일 : 2018년 5월

발 행 처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1244-4)
제주문화예술재단 3층
TEL : (064) 747-6138
홈페이지 : www.jst.re.kr

인 쇄 처 : 일신옵셋인쇄사
TEL : (064) 758-1500

[비매품]

ISBN 978-89-97074-76-1 03090